

국립국어원 2015-01-14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585-13

#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貴下

貴 국립국어원에서 의뢰한 조사용역사업인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주관기관 : (주)월드리서치  
연구책임자 : 김 창 영 상 무  
연 구 원 : 채 광 식 팀 장  
유 나 영 대 리  
전 현 재 연구원  
고 혜 지 연구원



## 국문 초록

-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는 2005년에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조사 방법을 활용해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 3차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추세분석이 가능한 자료가 누적됨.
- 2015년 기준으로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53.0%로 나타나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가장 관심을 보이는 국어의 분야로는 언어예절(70.2%)과 말하기(69.0%), 맞춤법/발음(55.2%) 등으로 나타나 개인의 언어 능력과 함께 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국어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국어능력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높아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72.6%)거나 '매우 필요한 시험이다'(69.8%) 등 긍정적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반드시 유지/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82.0%로 매우 높지만 구체적인 상황별로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다소 차이를 나타냄. 가정 내에서 부모님께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자녀▶아버지:98.5%, 자녀▶어머니:95.9%)고 생각하지만 배우자(아내▶남편:53.0%, 남편▶아내:44.9%)나 형제(남동생▶형:20.3%), 자매(여동생▶언니:15.5%)와 대화하는 경우에는 경어 사용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유사한 상황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도 확인되어 경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분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 실태에서는 표준어 사용(54.5%)이 방언 사용(4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85.3%)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강원도(49.7%)와 충청권(53.9%)의 표준어 사용 비중이 높은 반면, 경상권(6.1%)은 표준어 사용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해서는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 인식(19.0%)보다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31.4%)거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39.0%)는 의견이 높아 지역 방언을 배척하려는 부정적 태도보다는 상황에 맞는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태도에서 '익숙하니까 그냥 사용하자'(11.4%)는 태도보다는 '가급적/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53.0%/25.6%)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남. 이런 태도는 국어순화에 대한 의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익숙하면 고칠 필요가 없다'(34.3%)거나 '언중의 사용에 맡겨야 한다'(28.0%)는 의견보다는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61.8%)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욱설, 비속어의 경우 44.4%가 사용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20대의 사용 비중이 64.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대는 욱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7.9%로 30대(27.0%)와 함께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20-30대의 습관적인 욱설, 비속어 사용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통신 언어의 경우 ‘우리말을 파괴한다’(59.2%)거나 ‘거부감을 느낀다’(57.4%)는 부정적 인식이 ‘어휘가 풍부해진다’(36.0%)거나 ‘친근감을 더해준다’(34.4%)는 긍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남.
- 영어의 경우 적절한 교육 시기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에 대한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이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5.4%로 낮게 나타남. 한자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저학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6%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이전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8.2%에 그치고 있음.
- 부추의 지역 방언인 ‘정구지’ 등 대중적 방언에 대해 54.5%가 ‘표준어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한 반면,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17.8%에 그치고 있음. 또한 일반인이 자주 틀리는 표기법도 ‘수용해줘야 한다’(57.1%)는 응답이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42.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언중의 언어 사용을 표준어/표기법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이와 관련해 국립국어원의 중점 추진 사항에서도 ‘쉬운 어문규범 마련/홍보’(44.0%)가 ‘국어/한국어 교육 프로그램’(19.3%)이나 ‘언어자료 조사 구축/제공’(18.4%)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냄.
- 본 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언어와 관련해 5년 주기로 3회가 진행된 만큼 자료 측면에서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함. 다만, 5년의 조사 주기 때문에 검토되지 못하는 긴급한 현안 이슈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Abstract

In 2005 a survey was conducted regarding Korean people's linguistic consciousness and targeted 5,000 adult men and women ages 20 years old or older living across Korea using a home visit method of surveying.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2005 after which subsequent surveys were conducted in 5 year intervals for a total of 3 surveys by 2015 making it possible to accumulate data with trend analysis related with language.

Based on 2015 standards, results showed that the majority interest level in Korean language stood at 53.0%, and the fields of Korean language that had the most interest were language etiquette(70.2%), speaking(69.0%), and grammar/pronunciation (55.2%) and it showed that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individual language abilities along with the appropriate use of the language. As an extension of interest in Korean language, there were positive perceptions in tests of Korean language and it showed that a high number of respon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Korean language'(72.6%) or 'think the Korean language test was a very important test'(69.8%) and a high number of other such positive responses.

The confirmed results about the use of the honorific in home, work, school and other diverse situations, generally, opinions were very high with 82.0% stating that 'it must be maintained/continue to exist,'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bout the use of the honorific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In the family it was thought that the honorific should be towards parents (children▶father: 98.5%, children▶mother: 95.9%), but the importance greatly decreased when speaking with a spouse (wife▶husband: 53.0%, husband▶wife: 44.9%) or among brothers (younger brother▶older brother: 20.3%), sisters (younger sister▶older sister: 15.5%). A similar situation was confirmed in the workplace and at school and it was found that respondents could differentiate between situations where the honorific should and shouldn't be used.

When asked about the usage of standard language and local dialects there was a higher number that use standard language(54.5%) as opposed to a local dialect (44.5%), and except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85.3%), Gangwon-do(49.7%) and Chungcheong-do(53.9%) placed much importance on the use of standard language, while the Gyeongsang regions(6.1%) placed the lowest importance on the use of standard language. Regarding the desired usage of standard language and local dialect instead of the negative perception of 'it is better not to use local dialect'(19.0%), there were more respondents that thought instead of excluding use of local dialects that it was necessary to use standard language and local dialects in select situations and that 'it is fine to use it in some situations'(31.4%) and 'one should know when to use it'(39.0%).

For borrowed words and attitudes towards foreign language instead of the opinion of 'I'm used to it so let's just use it(11.4%), respondents showed much higher opinions of 'let's use the Korean equivalent word as much as possible/proactively'(53.0%/25.6%). Regarding this attitude, awareness of using the Korean equivalent were uniform with more of the opinion that 'indigenous words should be proactively used'(61.8%) rather than 'not necessary to contemplate if you are used to it'(34.3%) or 'leave it up to popular usage'(28.0%).

For curse words/slang, less than 44.4% said they are influenced by it, but usage among those in their 20s was much higher at 64.5%. In particular, when asked the reason for using curse words/slang 27.9% said that they habitually use it and those in their 30s(27.0%) also showed higher usage compared to other age brackets, confirming through the data that those in their 20s and 30s use curse words/slang habitually. In case of internet slang usage, those in their 20s showed negative views of 'it destroys Korean language'(59.2%) or 'I feel repulsion towards it'(57.4%) rather than 'it makes for a richer vocabulary'(36.0%), or 'it adds to the friendliness' (34.4%).

In case of English, 56.1% thought that 3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or earlier would be an appropriate time for education, while 15.4% said that earlier than elementary school would be the right time. In case of learning Chinese Characters 38.6% sai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ceive education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while 8.2% said that prior to elementary school would be the right time.

54.5% said that the 'Jeongguji' areas of Chungcheong, Gyeongsang, and Jeolla regions 'where chives grow' and use a local dialect should assimilate into the standard usage of the language, while 17.8% of respondents posed a negative view of it should not be assimilated. Also, respondents were more of the opinion of accommodations should be made for frequent notation mistakes by everyday people (57.1%), as opposed to accommodations should not be made (42.9%) showing higher opinions that accommodations should be made to make the use of standard language/notation standardized. Related to the above, for matters regarding the prioritie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rrange/promote easy language standards' (44.0%), received higher affirmative responses than 'Korean language/Korean as a second language education programs' (19.3%), or 'the establishment/provision of language data surveys' (18.4%).

As this study targeted the general population regarding language 3 times over 5 year intervals that form the data standpoint, it has a high degree of practical usage so this data will be necessary in supporting various research activities, and the next survey interval will be in 5 year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additional surveys that can accommodate urgent pending issues that were not reviewed.



# 목차

##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3
2. 조사 설계 .....	3
3. 조사 내용 .....	4
4. 응답자 특성 .....	6

## II. 그림으로 보는 주요 결과

1. 2015년 주요 결과 .....	9
2. 추세 분석 결과 .....	16

## III. 조사 결과 요약

1. 국어에 대한 관심과 평가 .....	25
2. 경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	30
3. 욕설, 비속어 .....	32
4. 표준어/방언 .....	34
5. 외래어/외국어 .....	39
6. 통신 언어 .....	43
7. 외국 문자 사용 .....	45
8. 한자/영어 교육 .....	46
9. 한글 맞춤법 .....	47
10. 사전 이용 .....	48

## IV. 조사 결과 분석

1.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	51
가.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	51
나.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53
다. 우리말에 대한 인상 평가 .....	55
라.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기준 .....	57
2. 언어 사용 .....	59
가. 언어 사용 .....	59
1)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 .....	59
2)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 .....	61

3)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	64
4) 자신의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	67
나. 높임말 .....	69
1)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 .....	69
2) 가정에서의 높임말 사용 .....	71
3) 직장에서의 높임말 사용 .....	73
4) 학교에서의 높임말 사용 .....	75
5)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높임말 사용 .....	77
6) 사물 존칭에 대한 인식 .....	79
다. 욕설 및 비속어 .....	81
1)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 .....	81
2)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이유 .....	83
3) 욕설 및 비속어 비사용 이유 .....	85
4)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 대한 반응 .....	87
5)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	89
6)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	91
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 .....	93
1) 표준어 및 지역 방언 사용 실태 .....	93
2) 지역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	95
3)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	97
4) 타 지역 방언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	99
5) 표준어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	101
6)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103
7) 지역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	105
8)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	107
9) 토론 프로 출연자들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	109
10) 표준어 사용 능력 .....	111
11) 표준어 이해 능력 .....	113
12)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 .....	115
마.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	117
1)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	117
2)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	119
3)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	121
4)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유 .....	123
5)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	125
6)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인식 .....	127
7)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	129
8)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의견 .....	131
바. 대중매체의 언어 .....	133
1)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	133
2)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	136
3)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	138
사. 외국 문자 사용 .....	140
1)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 표기가 많은 분야 .....	140



2) 외국어 표기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	142
3) 외국어 표기에 대한 이미지 .....	144
4) 외국어 표기에 대한 견해 .....	146
<b>3.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b>	<b>148</b>
가. 국어 교육 .....	148
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했던 경험 .....	148
2)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르는 말 유형 .....	150
3)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	152
4)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	154
5)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	156
6)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 .....	158
나. 한자 교육 .....	160
1)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	160
2) 현행 한자 교육의 적절성 .....	162
3)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	164
다. 외국어 교육 .....	166
1)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	166
2)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	168
3)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언어 .....	171
라. 어문 규범 .....	174
1)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	174
마. 사전 이용 .....	176
1)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 .....	176
2)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 .....	178
바.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180
1) 국립국어원 인지도 .....	180
2)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 .....	182
3)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	184
4)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 .....	186
사. 남북한 언어통일 .....	189
1) 지역 방언 및 북한어와 표준어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 .....	189
2) 북한어 교육의 필요성 .....	191
3) 북한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	193
4) 북한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95
5) 남북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 .....	197

## V. 결론 및 제언

1. 조사 내용 관련 .....	201
2. 조사 설계/진행 관련 .....	202

## 부록. 설문지



# 표 목차

〈표 3-1-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	52
〈표 3-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54
〈표 3-1-3〉 우리말에 대한 인상 평가 .....	56
〈표 3-1-4〉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기준 .....	58
〈표 3-2-1〉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 .....	60
〈표 3-2-2〉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1순위) .....	62
〈표 3-2-3〉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1+2순위) .....	63
〈표 3-2-4〉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	65
〈표 3-2-4〉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계속) .....	66
〈표 3-2-5〉 자신의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	68
〈표 3-2-6〉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 .....	70
〈표 3-2-7〉 가정에서의 높임말 사용 .....	72
〈표 3-2-8〉 직장에서의 높임말 사용 .....	74
〈표 3-2-9〉 학교에서의 높임말 사용 .....	76
〈표 3-2-10〉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높임말 사용 .....	78
〈표 3-2-11〉 사물 존칭에 대한 인식 .....	80
〈표 3-2-12〉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 .....	82
〈표 3-2-13〉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이유 .....	84
〈표 3-2-14〉 욕설 및 비속어 비사용 이유 .....	86
〈표 3-2-15〉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 대한 반응 .....	88
〈표 3-2-16〉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	90
〈표 3-2-17〉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	92
〈표 3-2-18〉 표준어 및 지역 방언 사용 실태 .....	94
〈표 3-2-19〉 지역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	96
〈표 3-2-20〉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	98
〈표 3-2-21〉 타 지역 방언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	100
〈표 3-2-22〉 표준어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	102
〈표 3-2-23〉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104
〈표 3-2-24〉 지역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	106
〈표 3-2-25〉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	108
〈표 3-2-26〉 토론 프로 출연자들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	110
〈표 3-2-27〉 표준어 사용 능력 .....	112
〈표 3-2-28〉 표준어 이해 능력 .....	114
〈표 3-2-29〉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 .....	116
〈표 3-2-30〉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	118
〈표 3-2-31〉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	120
〈표 3-2-32〉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	122
〈표 3-2-33〉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유 .....	124

〈표 3-2-34〉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	126
〈표 3-2-35〉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인식 .....	128
〈표 3-2-36〉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	130
〈표 3-2-37〉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의견 .....	132
〈표 3-2-38〉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	134
〈표 3-2-38〉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계속) .....	135
〈표 3-2-39〉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	137
〈표 3-2-40〉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	139
〈표 3-2-41〉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 표기가 많은 분야 .....	141
〈표 3-2-42〉 외국어 표기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	143
〈표 3-2-43〉 외국어 표기에 대한 이미지 .....	145
〈표 3-2-44〉 외국어 표기에 대한 견해 .....	147
〈표 3-3-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했던 경험 .....	149
〈표 3-3-2〉 신문·TV에서 나오는 모르는 말 유형 .....	151
〈표 3-3-3〉 신문·TV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	153
〈표 3-3-4〉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	155
〈표 3-3-5〉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	157
〈표 3-3-6〉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 .....	159
〈표 3-3-7〉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	161
〈표 3-3-8〉 현행 한자 교육에 대한 인식 .....	163
〈표 3-3-9〉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	165
〈표 3-3-10〉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	167
〈표 3-3-11〉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1순위) .....	169
〈표 3-3-12〉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다른 언어(1+2+3순위) .....	170
〈표 3-3-13〉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언어(1순위) .....	172
〈표 3-3-14〉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다른 언어(1+2+3순위) .....	173
〈표 3-3-15〉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	175
〈표 3-3-16〉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 .....	177
〈표 3-3-17〉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 .....	179
〈표 3-3-18〉 국립국어원 인지도 .....	181
〈표 3-3-19〉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 .....	183
〈표 3-3-20〉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	185
〈표 3-3-21〉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1순위) .....	187
〈표 3-3-22〉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1+2순위) .....	188
〈표 3-3-23〉 지역 방언 및 북한어와 표준어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 .....	190
〈표 3-3-24〉 북한어 교육의 필요성 .....	192
〈표 3-3-25〉 북한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	194
〈표 3-3-26〉 북한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96
〈표 3-3-27〉 남북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 .....	198

# 그림 목차

〈그림 3-1-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	51
〈그림 3-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53
〈그림 3-1-3〉 우리말에 대한 인상 평가 .....	55
〈그림 3-1-4〉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기준 .....	57
〈그림 3-2-1〉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 .....	59
〈그림 3-2-2〉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 .....	61
〈그림 3-2-3〉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	64
〈그림 3-2-4〉 자신의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	67
〈그림 3-2-5〉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 .....	69
〈그림 3-2-6〉 가정에서의 높임말 사용 .....	71
〈그림 3-2-7〉 직장에서의 높임말 사용 .....	73
〈그림 3-2-8〉 학교에서의 높임말 사용 .....	75
〈그림 3-2-9〉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높임말 사용 .....	77
〈그림 3-2-10〉 사물 존칭에 대한 인식 .....	79
〈그림 3-2-11〉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 .....	81
〈그림 3-2-12〉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이유 .....	83
〈그림 3-2-13〉 욕설 및 비속어 비사용 이유 .....	85
〈그림 3-2-14〉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 대한 반응 .....	87
〈그림 3-2-15〉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	89
〈그림 3-2-16〉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	91
〈그림 3-2-17〉 표준어 및 지역 방언 사용 실태 .....	93
〈그림 3-2-18〉 지역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	95
〈그림 3-2-19〉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	97
〈그림 3-2-20〉 타 지역 방언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	99
〈그림 3-2-21〉 표준어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	101
〈그림 3-2-22〉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103
〈그림 3-2-23〉 지역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	105
〈그림 3-2-24〉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	107
〈그림 3-2-25〉 토론 프로 출연자들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	109
〈그림 3-2-26〉 표준어 사용 능력 .....	111
〈그림 3-2-27〉 표준어 이해 능력 .....	113
〈그림 3-2-28〉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 .....	115
〈그림 3-2-29〉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	117
〈그림 3-2-30〉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	119
〈그림 3-2-31〉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	121
〈그림 3-2-32〉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유 .....	123
〈그림 3-2-33〉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	125
〈그림 3-2-34〉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인식 .....	127

〈그림 3-2-35〉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	129
〈그림 3-2-36〉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의견 .....	131
〈그림 3-2-37〉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	133
〈그림 3-2-38〉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	136
〈그림 3-2-39〉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	138
〈그림 3-2-40〉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 표기가 많은 분야 .....	140
〈그림 3-2-41〉 외국어 표기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	142
〈그림 3-2-42〉 외국어 표기에 대한 이미지 .....	144
〈그림 3-2-43〉 외국어 표기에 대한 견해 .....	146
〈그림 3-3-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했던 경험 .....	148
〈그림 3-3-2〉 신문·TV에서 나오는 모르는 말 유형 .....	150
〈그림 3-3-3〉 신문·TV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	152
〈그림 3-3-4〉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	154
〈그림 3-3-5〉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	156
〈그림 3-3-6〉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 .....	158
〈그림 3-3-7〉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	160
〈그림 3-3-8〉 현행 한자 교육에 대한 인식 .....	162
〈그림 3-3-9〉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	164
〈그림 3-3-10〉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	166
〈그림 3-3-11〉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	168
〈그림 3-3-12〉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언어 .....	171
〈그림 3-3-13〉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	174
〈그림 3-3-14〉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 .....	176
〈그림 3-3-15〉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 .....	178
〈그림 3-3-16〉 국립국어원 인지도 .....	180
〈그림 3-3-17〉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 .....	182
〈그림 3-3-18〉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	184
〈그림 3-3-19〉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 .....	186
〈그림 3-3-20〉 지역 방언 및 북한어와 표준어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 .....	189
〈그림 3-3-21〉 북한어 교육의 필요성 .....	191
〈그림 3-3-22〉 북한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	193
〈그림 3-3-23〉 북한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95
〈그림 3-3-24〉 남북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 .....	197

### 이용자를 위하여

그래프·도표·교차분석표 내의 숫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I. 조사 개요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국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언어 의식과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 사회, 언어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의식 추이 파악
- 국민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국어정책 수립 및 개선에 반영, 연도별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대국민 홍보 진행

## 2. 조사 설계

구 분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① 조사 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② 유효 표본	총 5,000표본
③ 표본 설계	다단계층화집락추출
④ 조사 방법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⑤ 조사 기간	2015년 8월 24일 ~ 9월 22일
⑥ 조사 기관	(주)월드리서치

### 3.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및 관심 분야</li> <li>- 국어에 대한 인상 및 아름다운 국어의 기준</li> </ul>
언어 사용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li> <li>- 주변인 및 자신의 평소 언어 행동에 대한 인식</li> </ul>
	높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li> <li>- 상황별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가정/직장/학교/직업별 상황)</li> <li>- 말끝의 높임말 정도에 대한 인식</li> <li>-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인식</li> </ul>
	욕설 및 비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 및 사용·비사용 이유</li> <li>- 서로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 및 그들을 그냥 두는 이유</li> <li>- TV 출연자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식</li> </ul>
	표준어와 지역 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어·지역 방언 사용 실태 및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인식</li> <li>- 표준어·지역 방언 사용의 바람직한 방향</li> <li>- 지역 방언 존속에 대한 의견</li> <li>- 자녀의 표준어 구사 희망 정도</li> <li>- TV 출연자들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인식</li> <li>- 자신의 표준어 구사 능력과 이해 정도</li> <li>-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li> </ul>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및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li> <li>-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li> <li>-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유</li> <li>- 영어 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li> <li>-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조치 방안</li> <li>-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및 순화어 비사용 이유</li> </ul>
	대중 매체의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li> <li>-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li> <li>-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li> </ul>
	외국 문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 표기 사례가 많은 부분</li> <li>- 일상생활에서 외국어 표기로 곤란했던 경험</li> <li>- 외국어 표기를 볼 때 느끼는 이미지</li> <li>- 외국어 표기에 대한 생각</li> </ul>

구 분		내 용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TV에서 모르는 말을 접하는 정도와 종류</li> <li>- 신문·TV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법</li> <li>- 가정 내 언어 교육 및 학교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li> <li>-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li> </ul>
	한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li> <li>- 현행 한자 교육에 대한 인식</li> <li>-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에 대한 인식</li> <li>- 한자 교육의 바람직한 실시 시기</li> </ul>
	외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교육의 바람직한 실시 시기</li> <li>-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다른 언어</li> <li>-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다른 언어</li> </ul>
	어문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 부호 사용</li> <li>- 문장 부호 명칭 인지도</li> <li>- 새로운 문장 부호 규정 인지도</li> </ul>
	사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li> <li>-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li> </ul>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국어원 인지도</li> <li>-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중점 추진 사항</li> <li>-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li> <li>-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li> </ul>
	남북한 언어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방언 및 북한어와 표준어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li> <li>- 북한어 교육의 필요성</li> <li>- 북한어 교육의 필요/불필요 이유</li> <li>- 남북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점</li> </ul>

## 4. 응답자 특성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5,000)	100.0
성별	남성	(2,542)	50.8
	여성	(2,458)	49.2
연령별	20대	(921)	18.3
	30대	(1,059)	21.2
	40대	(1,221)	24.5
	50대	(1,128)	22.7
	60대 이상	(671)	13.4
거주지역별	수도권	(2,507)	50.0
	강원	(143)	2.9
	충청권	(502)	10.0
	전라권	(479)	9.6
	경상권	(1,269)	25.5
	제주	(100)	2.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459)	9.2
	고졸	(2,024)	40.5
	대졸(재학)	(2,510)	50.1
	모름/무응답	(7)	0.1
직업별	농수축산업	(120)	2.4
	자영업	(1,115)	22.3
	생산/판매/서비스직	(1,114)	22.3
	사무/경영/전문직	(1,179)	23.6
	전업주부	(924)	18.5
	학생	(396)	7.8
	무직/기타	(141)	2.8
가구 소득별	100만원 이하	(11)	0.2
	101-200만원	(252)	5.0
	201-250만원	(656)	13.1
	251-350만원	(886)	17.7
	351-550만원	(2,193)	43.9
	551만원 이상	(888)	17.7
	모름/무응답	(12)	0.2

## II. 그림으로 보는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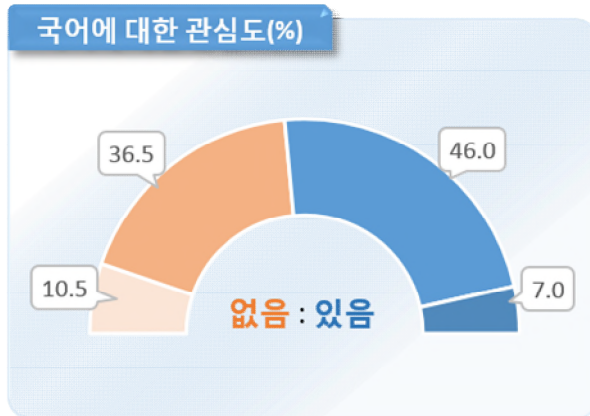




## 1. 2015년 주요 결과

### 가. 국어에 대한 관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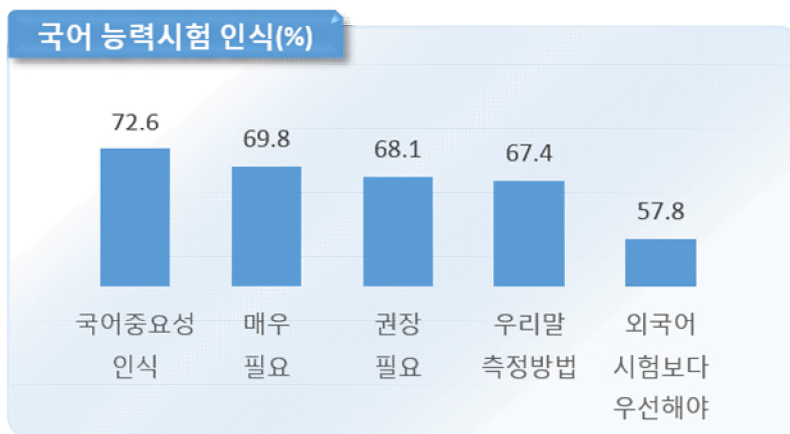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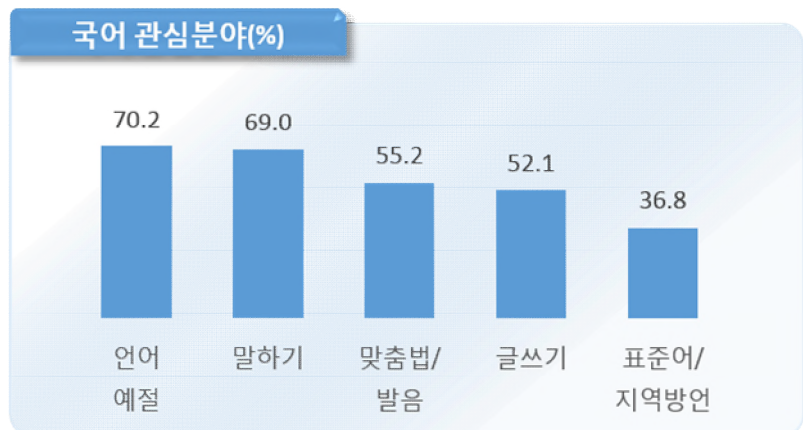
국어에 대한 관심이 과반수를 넘었고, 국어능력 시험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



- 국어에 대한 관심은 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적극적 관심(7.0%)보다 소극적 관심(46.0%)의 비중이 높음.

- 10개 관심 분야 중 언어예절과 말하기, 맞춤법/발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항목별 복수응답, 상위 5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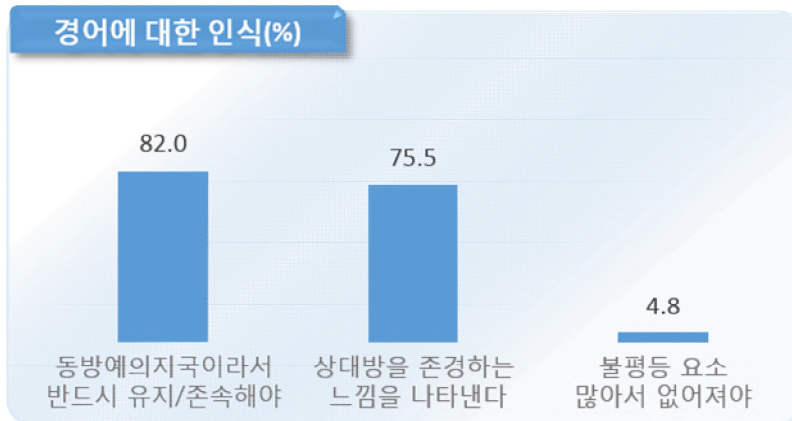


- 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5개 항목 모두에 대체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며, 외국어 시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도 57.8%로 과반수를 차지함.

(항목별 5점 척도, 긍정 응답)

## 나. 경어에 대한 인식/사용

윗사람에 대한 경어 사용은 매우 높지만, 기타 상황에서는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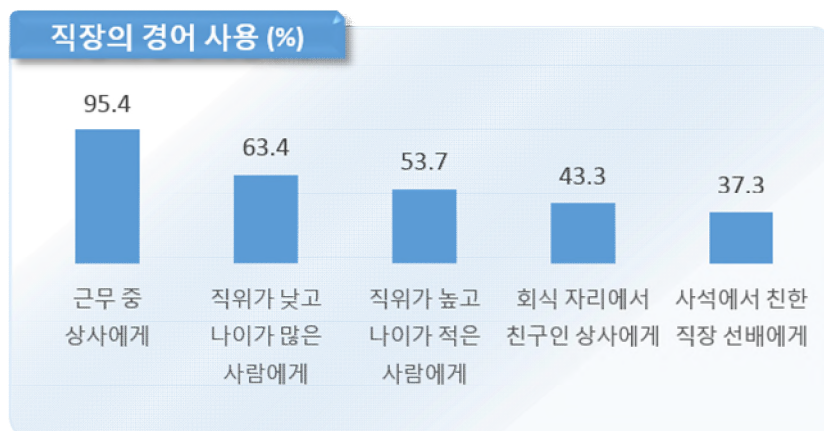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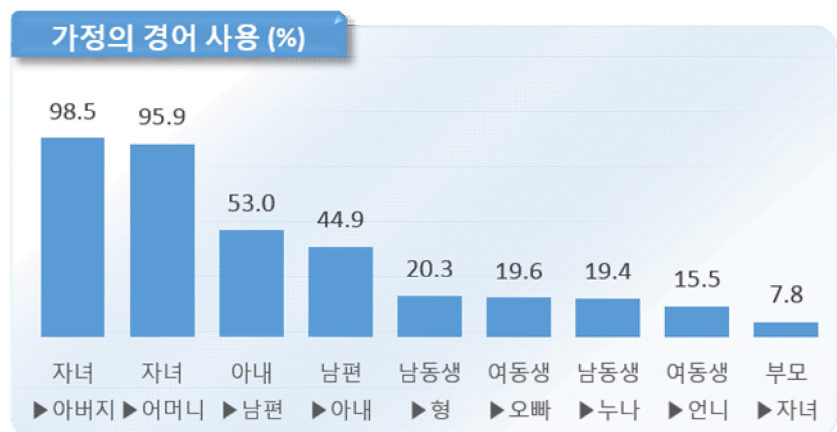


- 경어에 대해 대체로 유지·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낮은 수준임.

(항목별 5점 척도, 긍정 응답)

- 부모에 대한 경어 사용은 100%에 가깝게 나타나지만, 형제 간의 경어 사용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경어 사용 상황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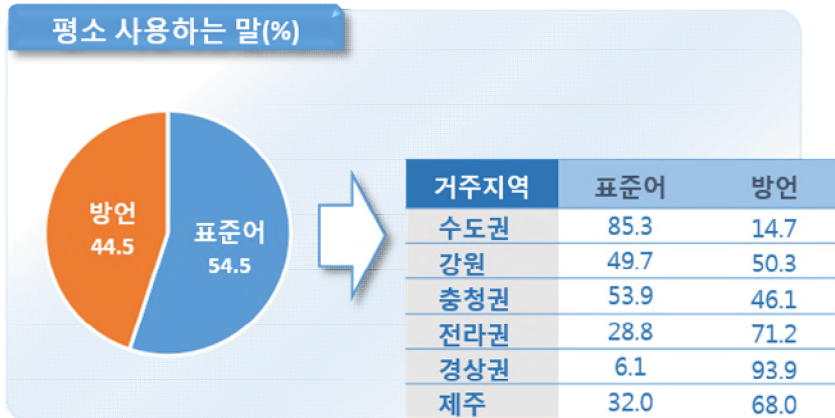


- 상사에 대한 경어 사용은 100%에 가깝게 나타나지만 기타 상황, 특히 사적인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 비중은 절반 미만으로 떨어짐.

(경어 사용 상황 복수응답)

## 다. 표준어와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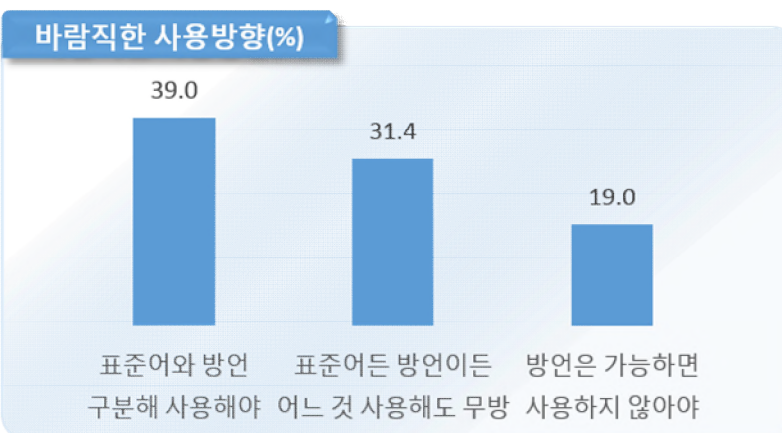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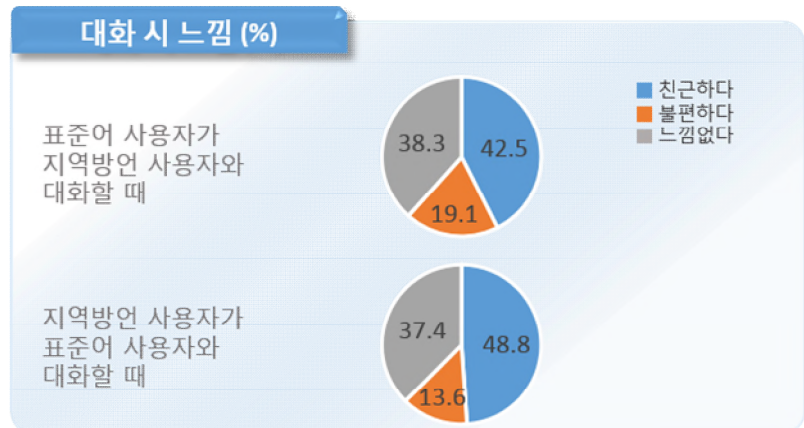
표준어 사용 비중이 높지만, 방언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적 태도는 높은 편



- 평소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에 강원도와 충청도의 표준어 사용 비중 높음.

- 방언과 표준어 사용자가 대화할 때 서로 친근하다는 느낌이 가장 높고, 불편하다는 느낌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항목별 5점 척도,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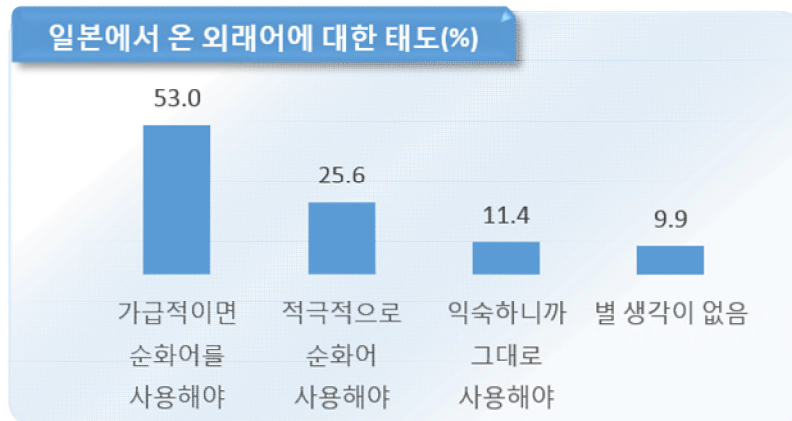
- 방언에 대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항목별 5점 척도, 긍정 응답)



## 라. 외래어와 외국어

일본에서 온 외래어 등에서 국어순화 의식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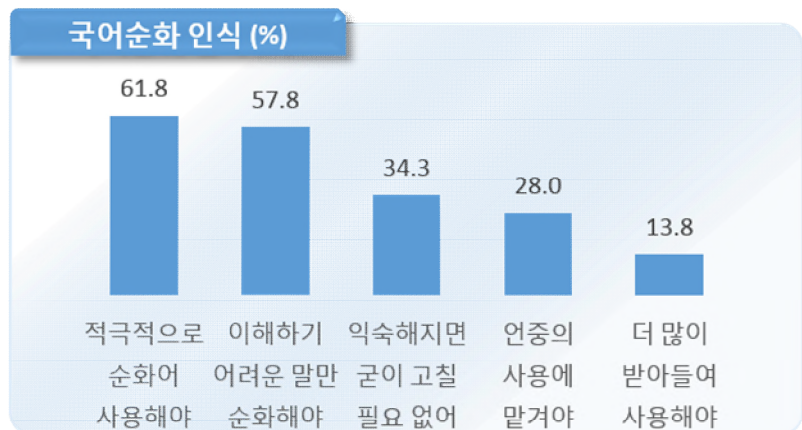


-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은 11.4%로 매우 낮고 가급적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함.

(인상에 대한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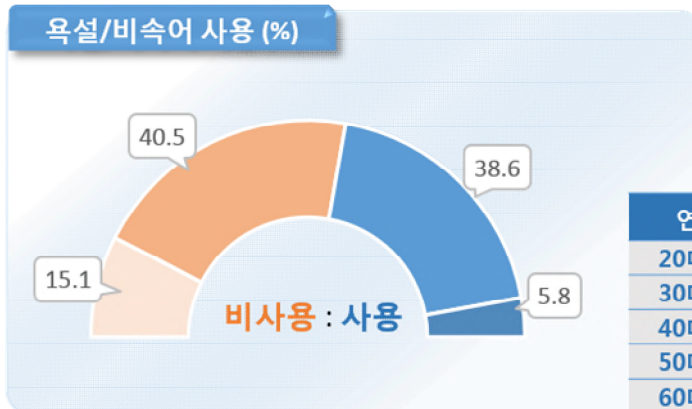
- 필요가 없다거나 언중에게 말겨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5점 척도 긍정응답)



## 마. 욕설, 비속어와 통신 언어

20-30대 중심으로 습관적 욕설, 비속어 사용이 높게 나타남



- 욕설, 비속어 사용 비중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20대의 경우 64.5%로 사용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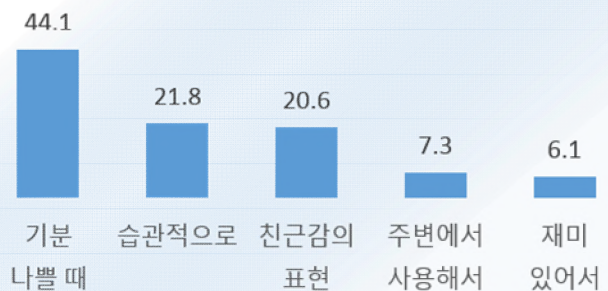
(4점 척도, 긍정 응답)

연령	사용	비사용
20대	64.5	35.5
30대	47.9	52.1
40대	40.2	59.8
50대	36.8	63.2
60대 이상	32.1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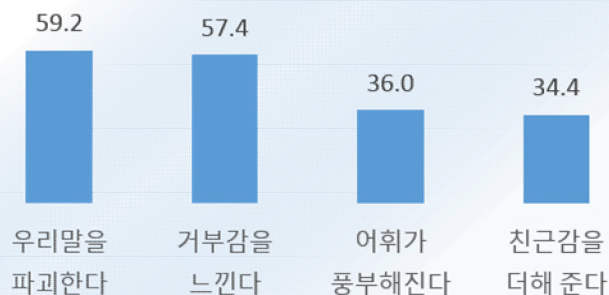
- 욕설,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2위로 나타났고, 특히 20-30대의 습관적 사용이 매우 높음. (1개 항목 선택)

연령	습관적 사용
20대	27.9
30대	27.0
40대	14.3
50대	17.5
60대 이상	18.1

**욕설/비속어 사용이유 (%)**



**통신언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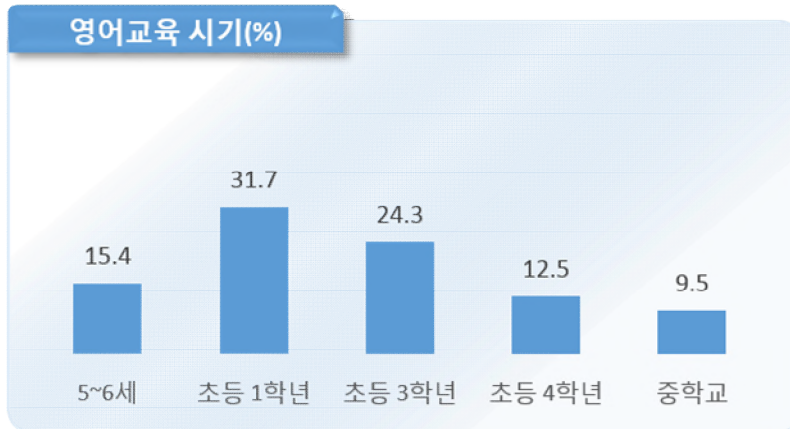


- 통신 언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항목별 5점 척도, 긍정 응답)

## 바. 영어/한자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을 영어/한자 교육에 적절한 시기를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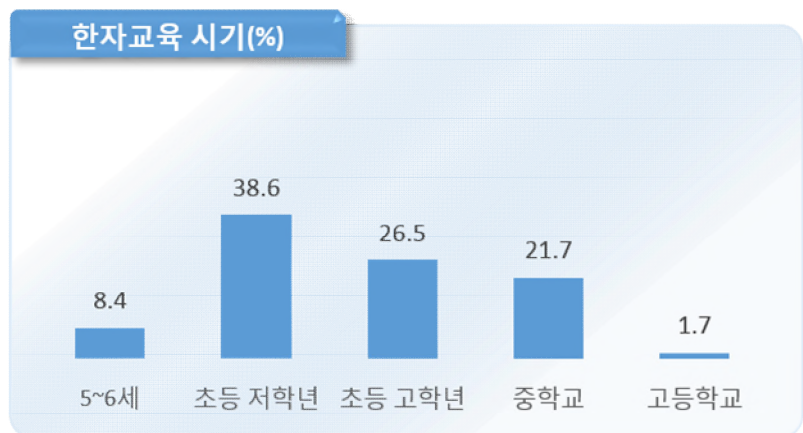


- 적절한 영어교육 시기로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남.

(1개 항목 선택)

- 영어와 마찬가지로 38.6%가 적절한 한자교육 시기를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1개 항목 선택)



## 사. 어문 규범

표준안을 고집하기보다 현실적인 언어 사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대중적 방언의 표준어 수용 (%)



거주지역	긍정	보통	부정
수도권	43.1	32.3	24.6
강원	60.8	24.3	14.8
충청권	71.5	20.3	8.2
전라권	64.1	22.0	14.0
경상권	66.0	24.7	9.3
제주	55.0	15.0	30.0

- 정구지(부추) 등 대표적인 방언의 표준어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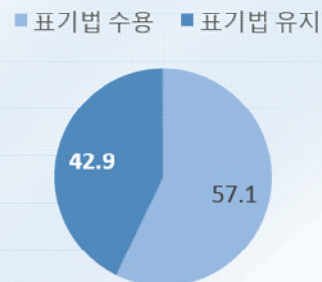
(5점 척도, 재분류, 2015년 자료)

- 자주 틀리는 말을 표기법 수용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존 표기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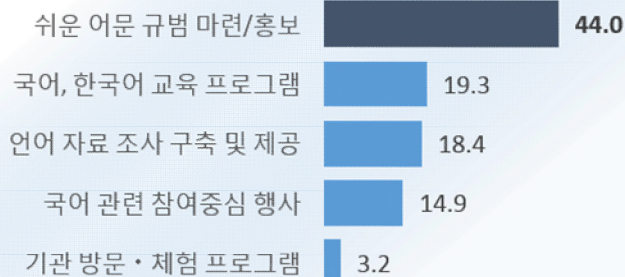
(1개 항목 선택, 2015년 자료)

연령	표기법 수용	표기법 유지
20대	55.2	44.8
30대	58.9	41.1
40대	57.8	42.2
50대	57.7	42.3
60대 이상	55.0	45.0

자주 틀리는 말, 표기법 수용 (%)



국립국어원 추진사항(%)



-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사항으로 '쉬운 어문규범 마련 및 홍보'가 가장 높게 나타남.

(1개 항목 선택, 2015년 자료)



## 2. 추세 분석 결과

### 가. 국어에 대한 관심/평가

국어에 대한 관심 회복, 정확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인식 강화

국어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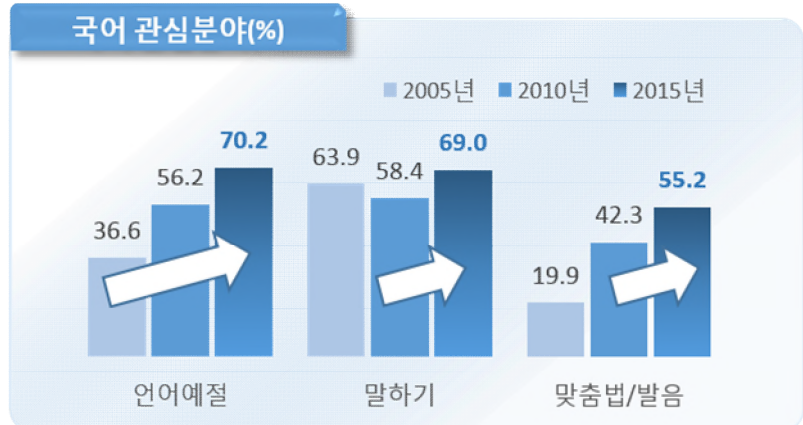
-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영어 광풍이 불었던 2010년에 크게 하락했지만 2015년에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5점 척도 관심 있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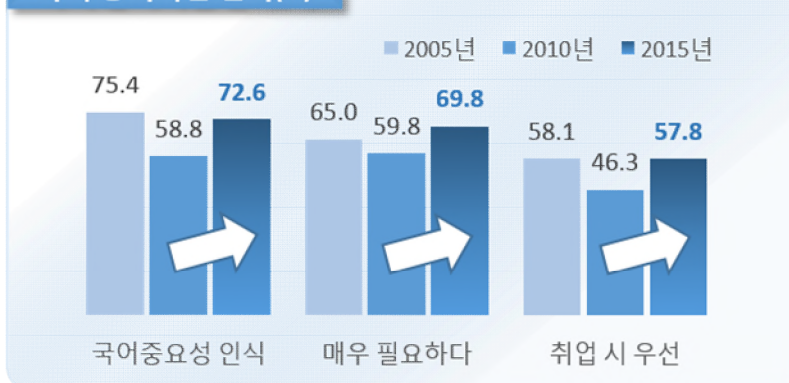
- 10개 관심 분야 중 언어예절과 말하기, 맞춤법/발음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크게 상승함.

(관심 분야 복수응답)

국어 관심분야(%)



국어 능력시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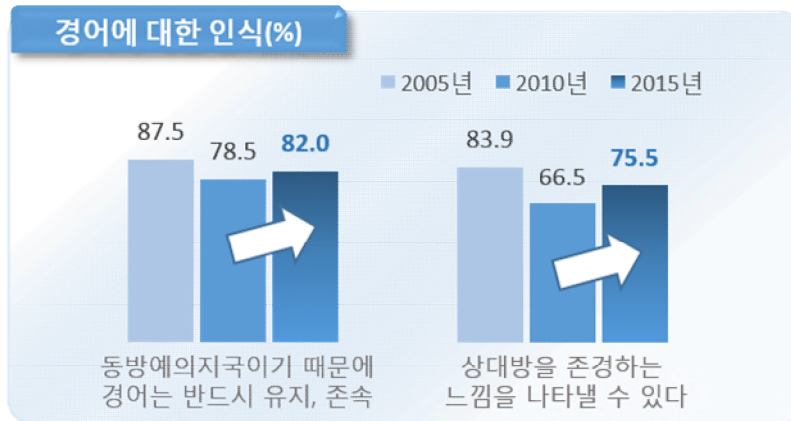
- 국어에 대한 관심 회복과 함께 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한 2015년에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항목별 5점 척도, 긍정 응답)



## 나. 경어에 대한 인식/사용

경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평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는 사용 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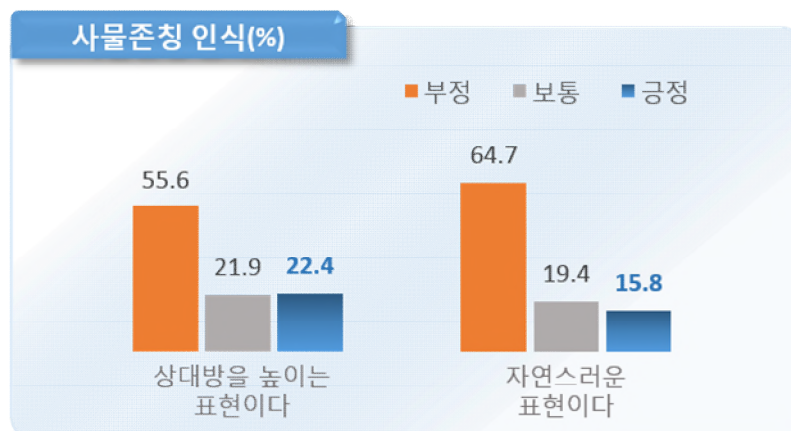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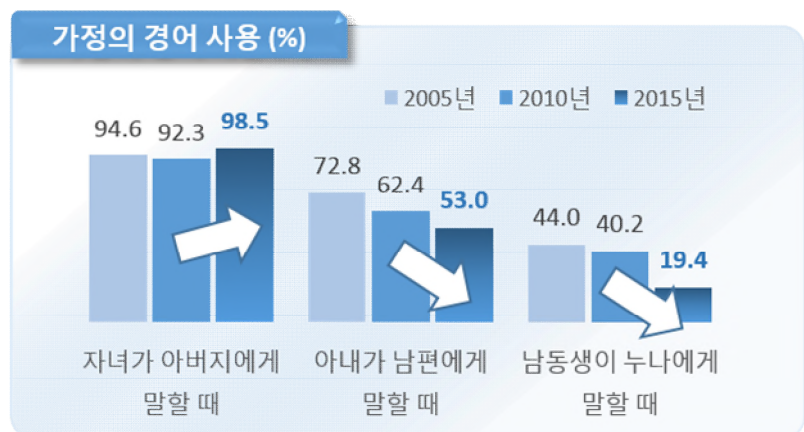


- 경어에 대해 유지·존속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상대를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인식이 2010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항목별 5점 척도, 긍정 응답)

- 윗사람에 대한 경어 사용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수평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어 사용은 크게 감소함.

(경어 사용 상황 복수응답)



- “요금은 2000원이세요.”와 같은 사물 존칭에 대해 긍정적 의견보다 부정적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남.

(항목별 5점 척도, 재분류)

## 다. 표준어와 방언

방언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함께 표준어와 방언의 상황별 사용에 대한 인식 강화

### 평소 사용하는 말(%)

■ 2005년 ■ 2010년 ■ 2015년



거주지역	2005년	2010년	2015년
수도권	78.6	74.6	85.3
강원	48.9	32.4	49.7
충청권	40.3	43.4	53.9
전라권	14.6	23.5	28.8
경상권	8.4	8.7	6.1
제주	17.2	25.4	32.0

- 평소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2015년에 크게 증가. 특히 강원/충청/제주의 상승폭이 큼.

- 방언과 표준어 사용자 대화 시 친근하다는 느낌이 감소한 반면 별다른 느낌 없다는 응답이 증가해 방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약화되고 있음.

(항목별 5점 척도,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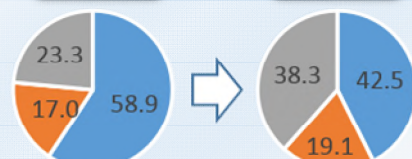
### 대화 시 느낌 (%)

2010년

2015년

■ 친근하다  
■ 불편하다  
■ 느낌없다

표준어 사용자가 지역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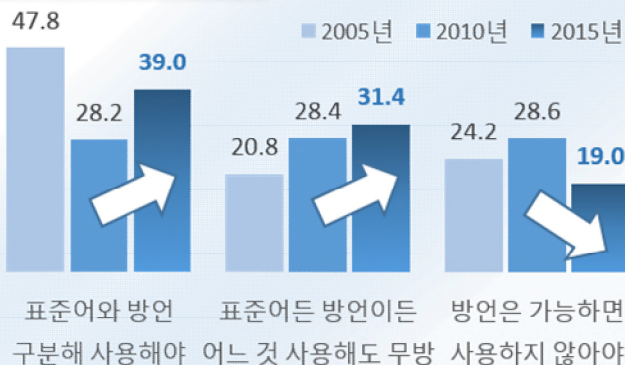


지역방언 사용자가 표준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



### 바람직한 사용방향(%)

■ 2005년 ■ 2010년 ■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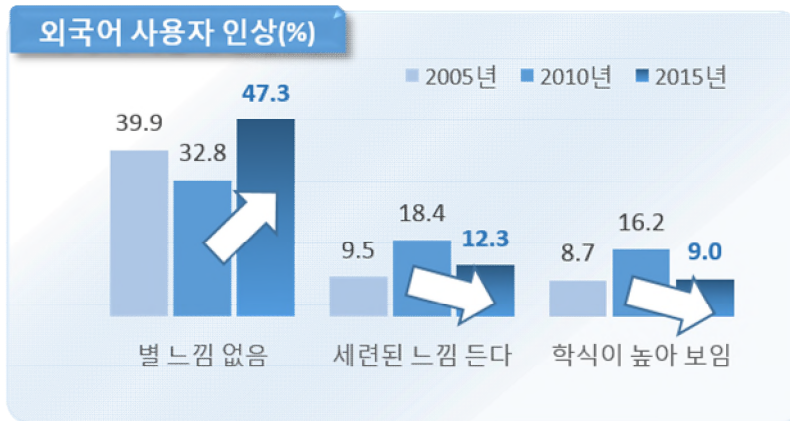


- 방언에 대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은 크게 약화된 반면,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함.

(항목별 5점 척도, 긍정 응답)

## 라. 외래어와 외국어

### 외래어/외국어 관련 긍정적 인식 약화되면서 순화어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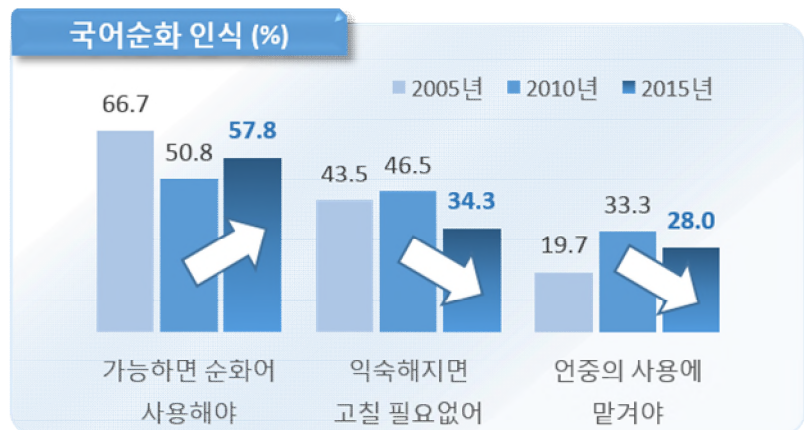


- 외국어/외래어 사용자에 대한 이미지에서 세련/학식 등 긍정적 이미지가 감소한 반면 별다른 느낌 없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함.

(인상에 대한 복수응답)

- 2010년과 비교해 가능하면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 반면, 고칠 필요가 없다거나 언중에게 말겨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함.

(5점 척도 긍정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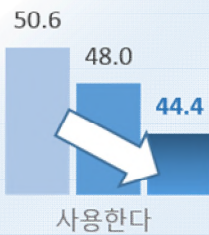


## 마. 욕설, 비속어와 통신 언어

20-30대 중심 습관적 욕설, 비속어 사용 증가, 통신 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감소

욕설/비속어 사용 (%)

■ 2005년 ■ 2010년 ■ 2015년



연령	2005년	2010년	2015년
20대	62.3	62.6	64.5
30대	50.3	52.3	47.9
40대	52.0	47.3	40.2
50대	43.8	41.5	36.8
60대 이상	31.9	40.4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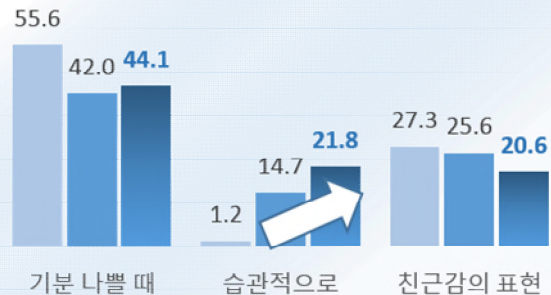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욕설, 비속어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대의 사용에는 크게 변화 없음.

(4점 척도, 긍정 응답)

- 욕설,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며, 특히 20-30대의 습관적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1개 항목 선택)

욕설/비속어 사용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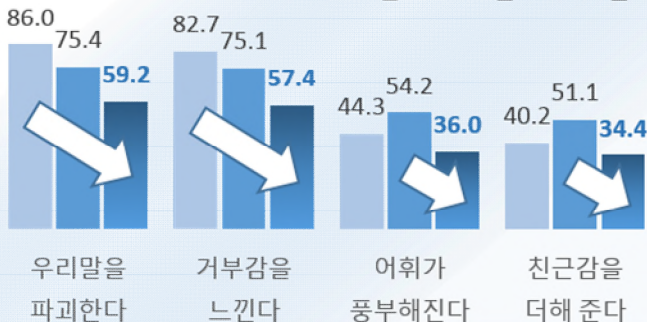
■ 2005년 ■ 2010년 ■ 2015년



연령	2005년	2010년	2015년
20대	2.4	13.5	27.9
30대	0.4	12.9	27.0
40대	1.0	11.5	14.3
50대	1.0	14.8	17.5
60대 이상	0.0	15.4	18.1

통신 언어 인식(%)

■ 2005년 ■ 2010년 ■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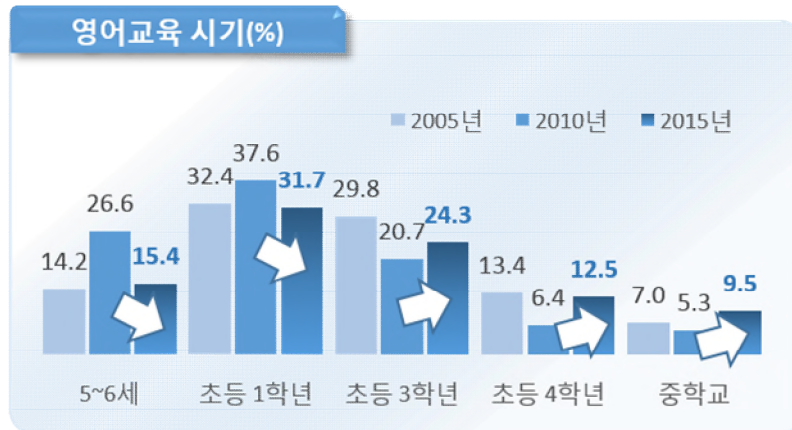


- 2005년 통신 언어가 활성화된 이후 통신 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긍정적 인식 또한 2010년에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임.

(항목별 5점 척도, 긍정 응답)

## 바. 영어/한자 교육

조기 교육 열풍 잦아들고, 적절한 교육 시기에 대한 현실적 판단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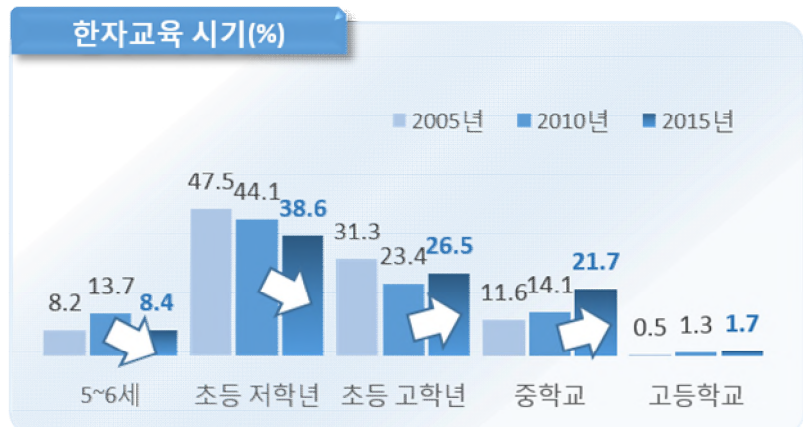


- 영어 광풍의 영향을 받았던 2010년에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반면, 2015년에는 그 열풍이 가라앉고 초등 3학년 이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승함.

(1개 항목 선택)

- 한자 교육 시기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초등 저학년 또는 그 이전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감소하고 있음.

(1개 항목 선택)





### Ⅲ.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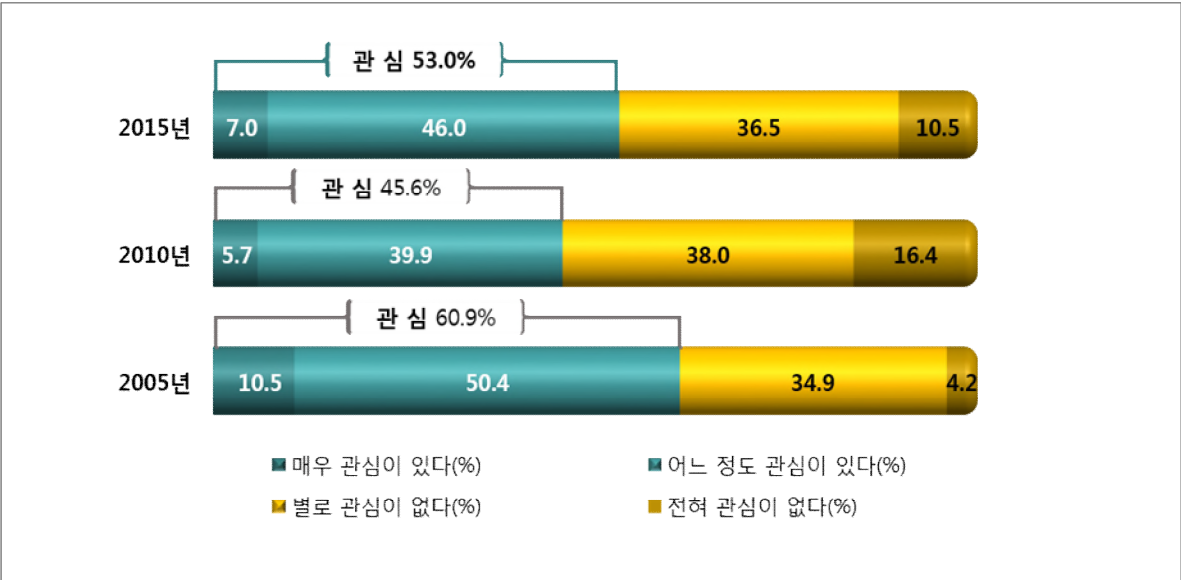
1. 국어에 대한 관심과 평가

일반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2010년 영어 광풍을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언어 예절과 맞춤법/발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런 관심 분야와 연결되어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은 맞춤법/띄어쓰기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국어 능력 평가시험에 대한 인식 또한 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국어에 대한 관심도

-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2005년 60.9%에서 2010년에 45.6%로 감소했다가 2015년 53.0%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0년 전후로 영어 광풍이 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영어에 대한 관심으로 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감소한 후 2015년에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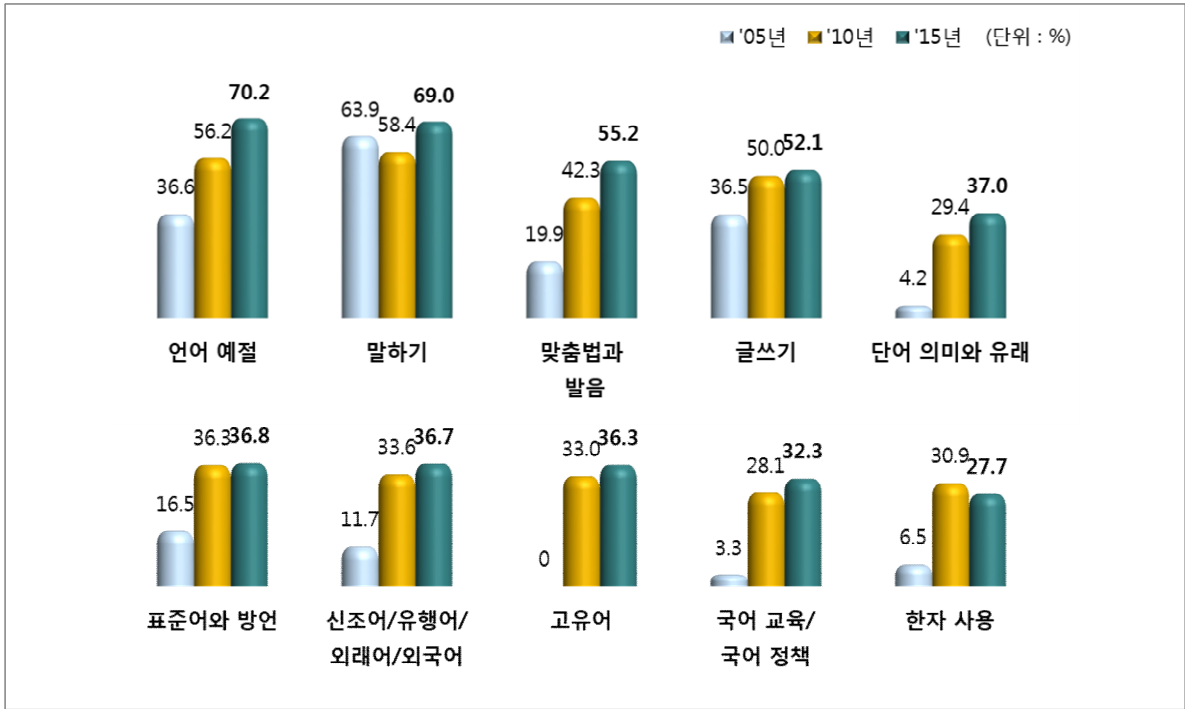
## ○ 국어에 대한 관심도 상세 분석

-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3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가구소득, 학력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일반적인 경향과 함께 개인의 외국어 사용 능력과 국어에 대한 관심도의 상관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국어에 대한 관심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특히 영어의 경우 뚜렷하게 자신의 언어능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남.
- 이는 경험적으로 영어 등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국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구분		국어에 관심 있다(%)
성별	남성	51.8
	여성	54.2
연령별	20대	51.5
	30대	58.0
	40대	52.1
	50대	52.4
	60대 이상	49.7
가구소득별	100만원 이하	48.5
	200만원 미만	50.7
	250만원 미만	53.3
	350만원 미만	55.1
	550만원 미만	52.2
	551만원 이상	53.6
학력	초등학교졸업	43.2
	중학교졸업	51.3
	고등학교졸업	48.8
	대학교졸업	56.9
영어능력	영어능력(상)	71.3
	영어능력(중)	56.8
	영어능력(하)	49.1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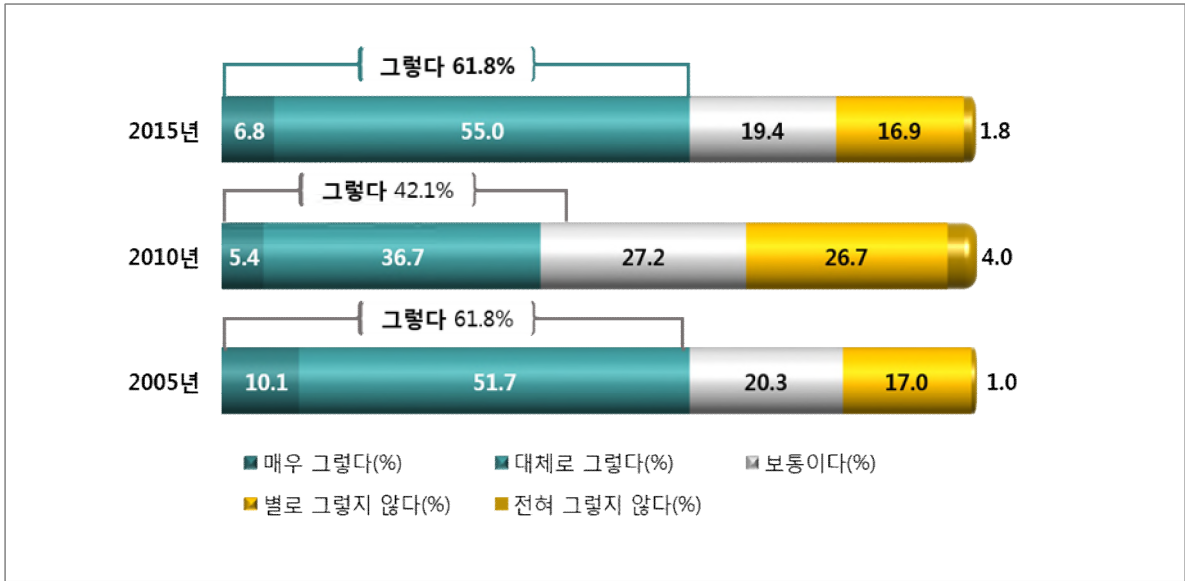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중 ‘언어 예절’과 ‘말하기’는 10명 중 7명이 선택할 정도로 관심이 높음. 특히 ‘언어 예절’은 2005년부터 꾸준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맞춤법과 발음’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 주목됨.



■ 단위 : %, 사례수 : 국어에 관심이 있다 응답자 4475명

○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

- 국민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10명 중 6명은 그렇다(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인식하였음. 이는 2010년에 비해 19.7%p 상승한 추세임.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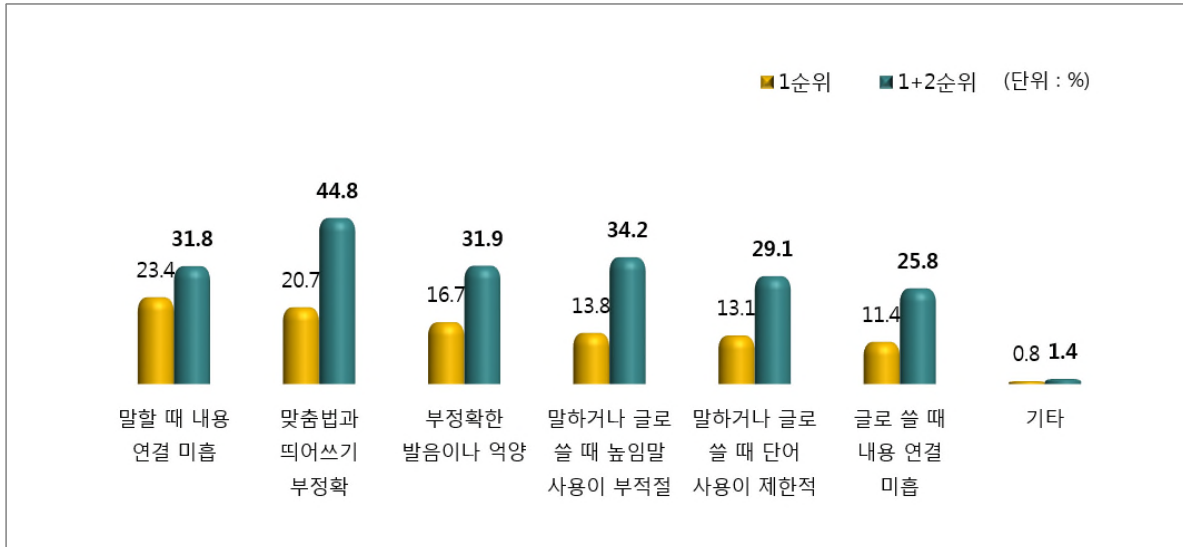
## ○ 자신의 국어 사용에 대한 평가

- 자신이 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체적으로 52.9%로 과반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력, 외국어 사용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국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월평균 독서량이 3권 이상일 때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강원도는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반면, 전라도는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구분		나는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전체		52.9
지역별	수도권	54.9
	강원	38.4
	충청권	49.4
	전라권	64.8
	경상권	47.6
	제주	51.0
가구소득별	100만원 이하	47.7
	200만원 미만	46.4
	250만원 미만	49.0
	350만원 미만	54.6
	550만원 미만	53.9
	551만원 이상	53.8
학력	초등학교졸업	46.4
	중학교졸업	52.0
	고등학교졸업	50.5
	대학교졸업	55.2
영어능력	영어능력(상)	63.5
	영어능력(중)	56.4
	영어능력(하)	49.6
월평균 독서량	없음	51.5
	1권 이하	51.4
	3권 이하	59.6
	4권 이상	60.7

### ○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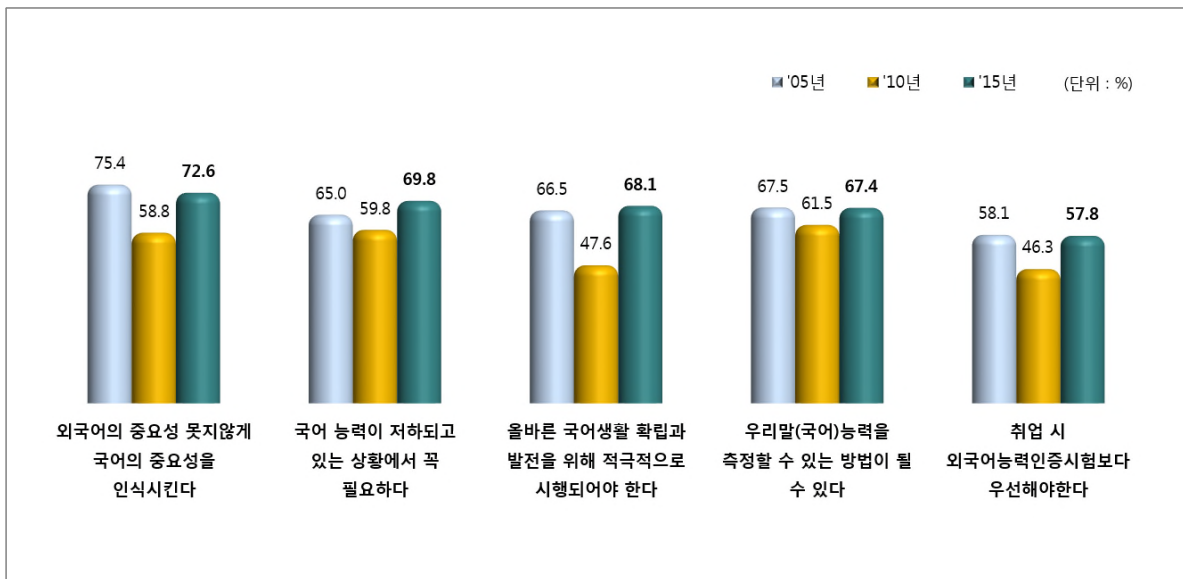
- ‘맞춤법과 띄어쓰기’,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국어에 대해 관심이 높은 영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평소 생활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영역에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위 : %, 사례수 :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다 응답자 4064명

### ○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해서 ‘외국어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어도 중요하다’와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2010년 대비 증가하여 시험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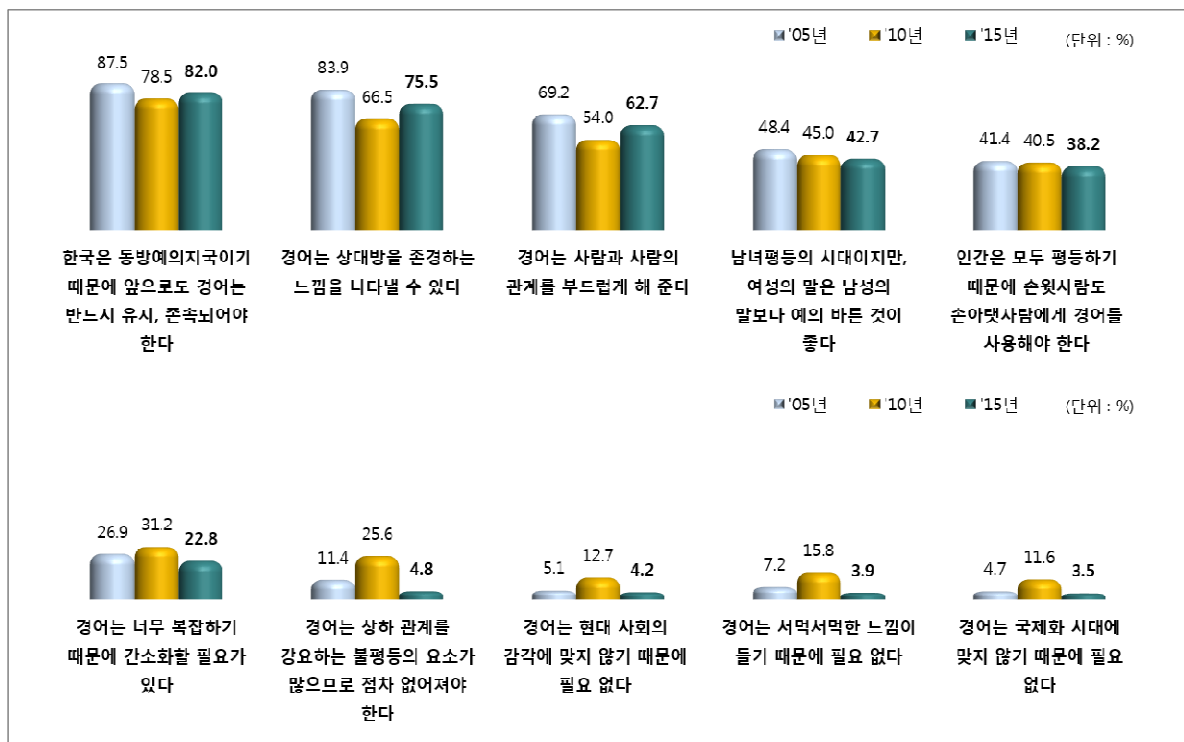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2. 경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경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유지/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2.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상황별 경어 사용과 관련된 인식에서는윗사람에 대한 경어 사용은 유지되지만 수평적 관계나 아랫사람, 친숙한 관계에서는 경어 사용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상황에 따른 경어 사용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 사물 존칭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 인식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적절한 사물 존칭은 향후 홍보를 통해 사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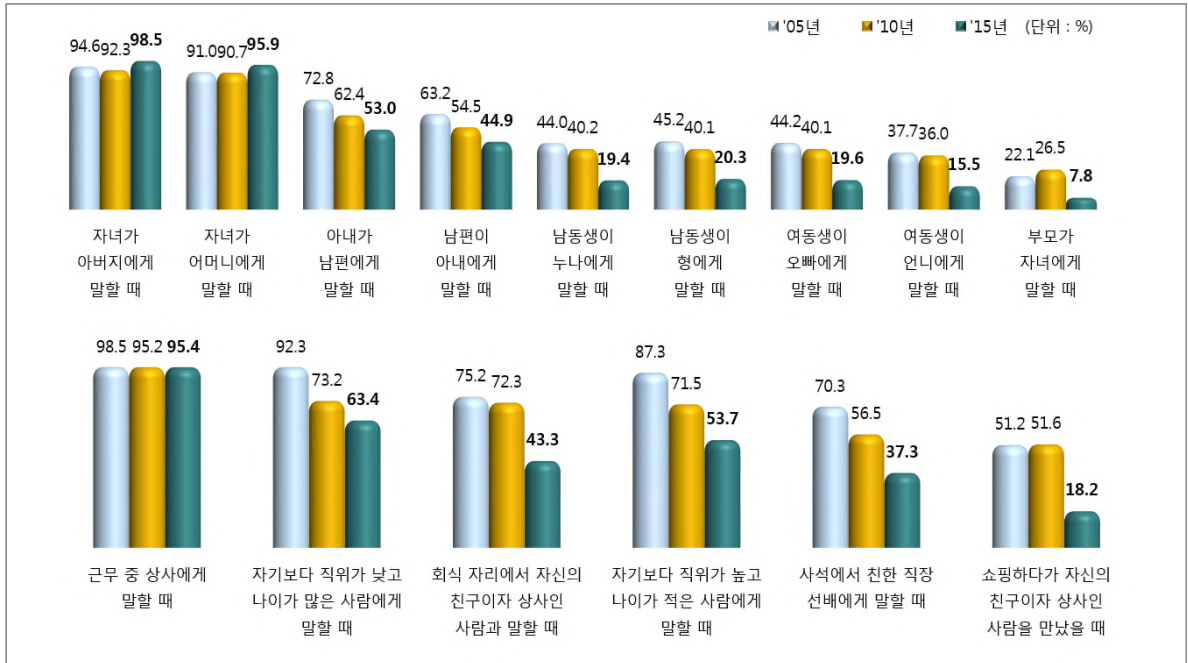
-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하고(82.0%),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75.5%)는 긍정적 인식은 높게 형성됨. 반면, ‘필요 없다’, ‘없어져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은 드물었음.



■ 단위: %, 사례수: 전체 5000명

○ 상황별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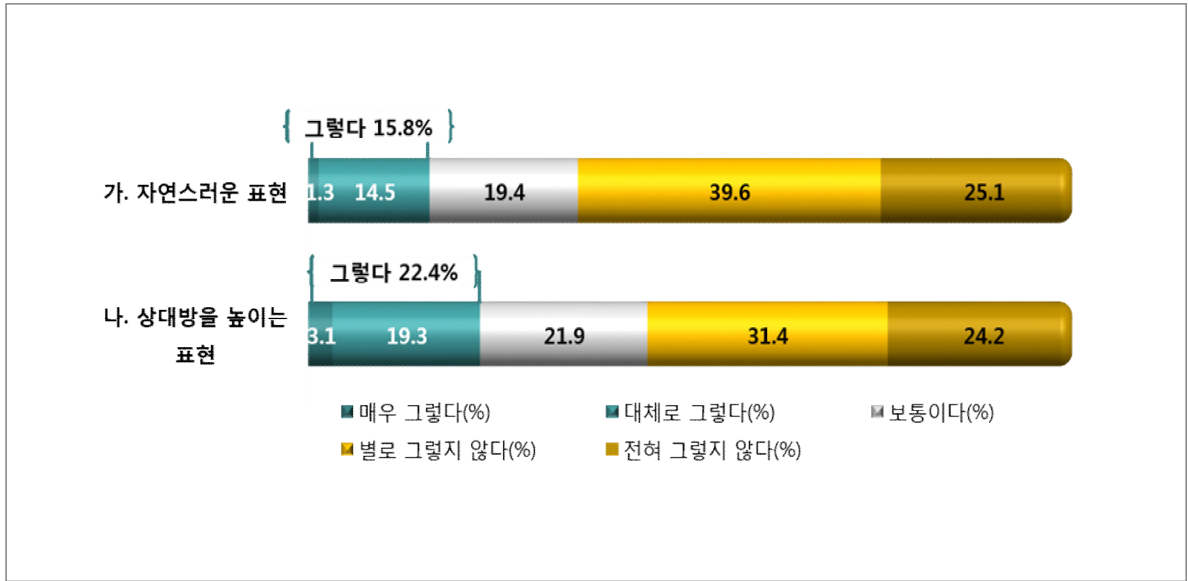
-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때와 직장에서 상사에게 말할 때 경어 사용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감소함.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사물 존칭에 대한 인식

- 사물 존칭에 대한 표현은 자연스럽거나(15.8%)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으로 느낀다(22.4%)에 응답이 낮아, 사물 존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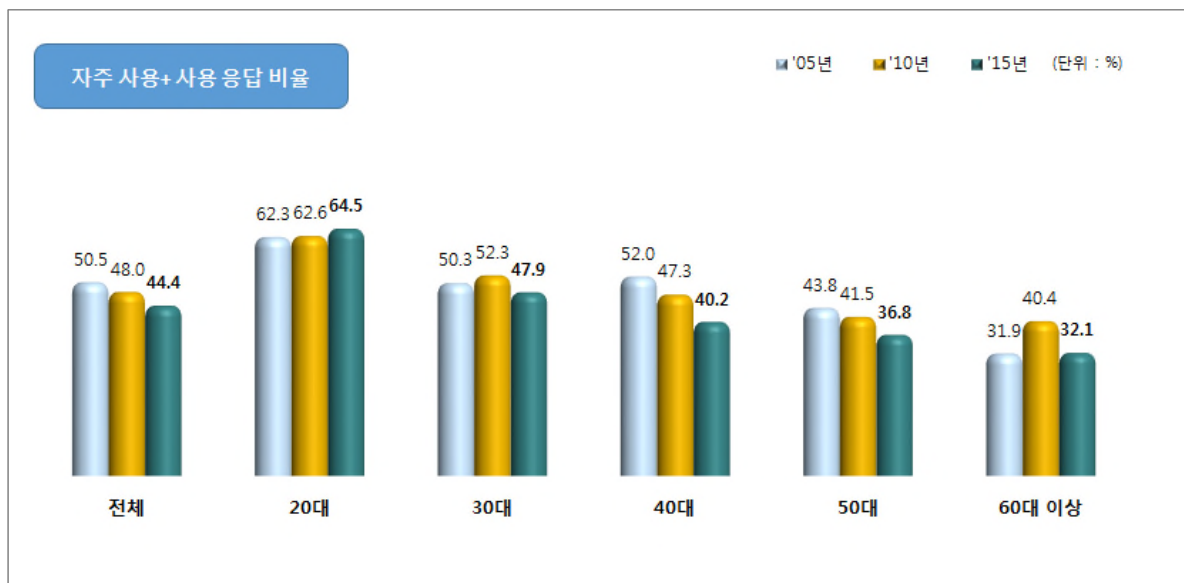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3. 욕설, 비속어

욕설, 비속어 사용빈도는 큰 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하지만 20대의 사용수준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20대와 30대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목격해도 절반 정도는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20-30대의 욕설,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용 자제를 권유할 필요가 있음.

#### ○ 욕설, 비속어 사용 빈도

- 국민 44.4%는 욕설, 비속어를 자주 혹은 가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용 비율은 2005년, 2010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하지만 20대 연령층에서는 조금 늘어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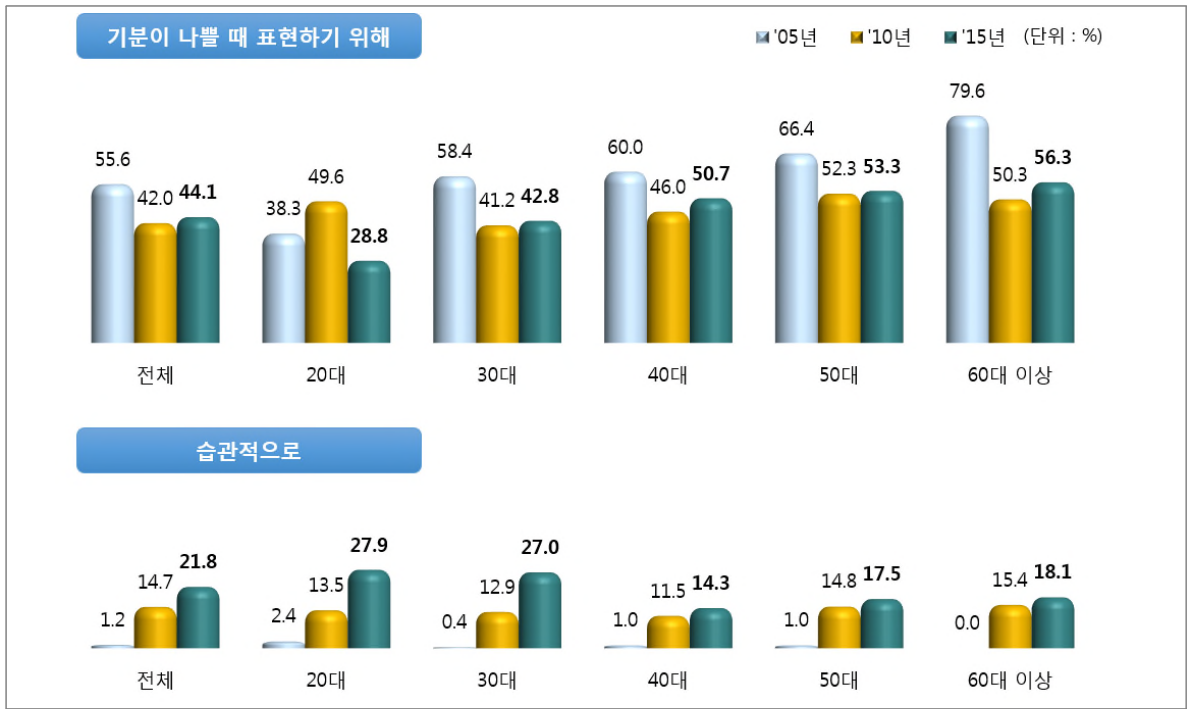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욕설, 비속어 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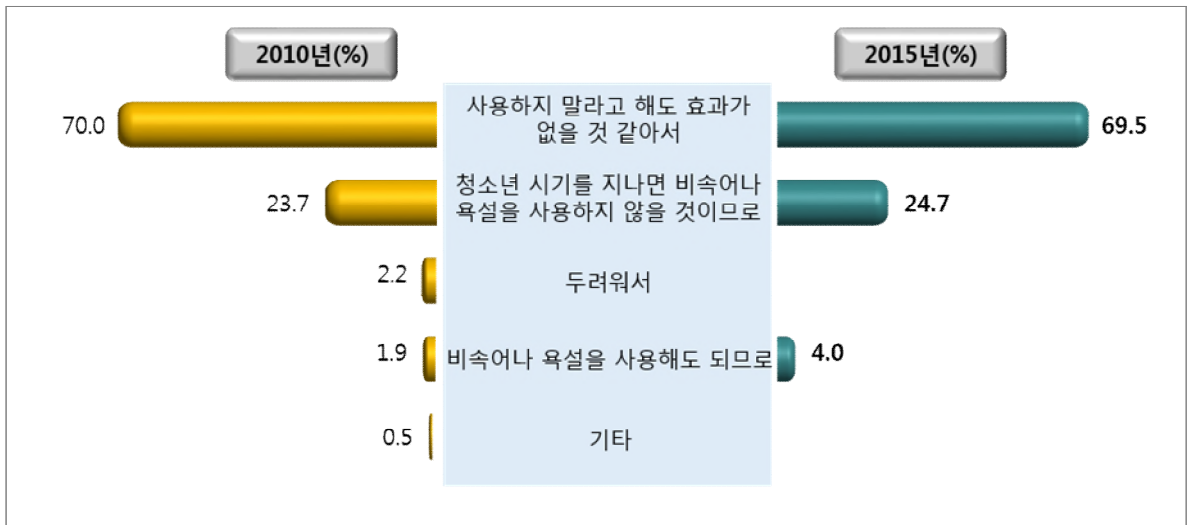
- 욕설과 비속어는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지만 ‘습관적 사용’도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 이유로 높게 나타남. 습관적 사용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20대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점이 20대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단위 : %, 사례수 : 욕설, 비속어 사용자 2222명

○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둔다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으며, 그냥 두는 이유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69.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단위 : %, 사례수 : 욕설, 비속어 사용하는 청소년 그냥 둔다 응답자 2541명

## 4. 표준어/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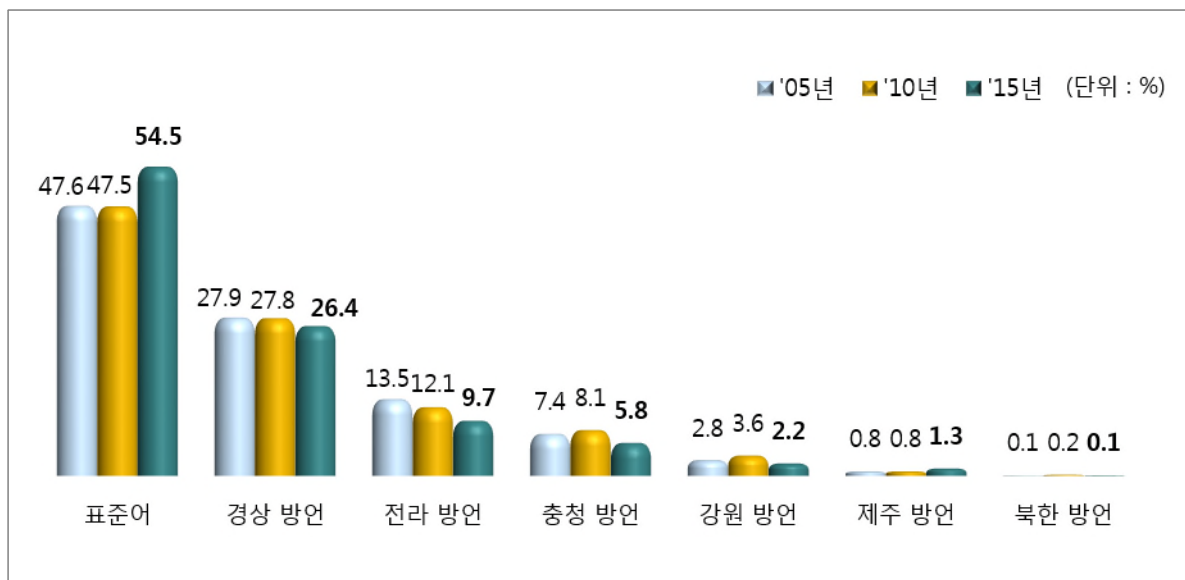
2010년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표준어 사용 비중이 2015년에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강원/충청/제주 지역의 사용 비중이 2010년 대비 크게 증가함.

2010년에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수용도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 방언 사용에 대한 친근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5년에는 상대적으로 친근감이 감소하고, 별 느낌 없다는 응답이 증가해 지역 방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0년까지 지역 방언의 수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방언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증가해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음.

### ○ 표준어 및 지역 방언 사용 실태

- 평소 사용하는 언어로 국민의 절반 정도가 표준어를 사용하였음. 평소 표준어 사용은 2010년에 비해 7%p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 수도권, 강원, 충청권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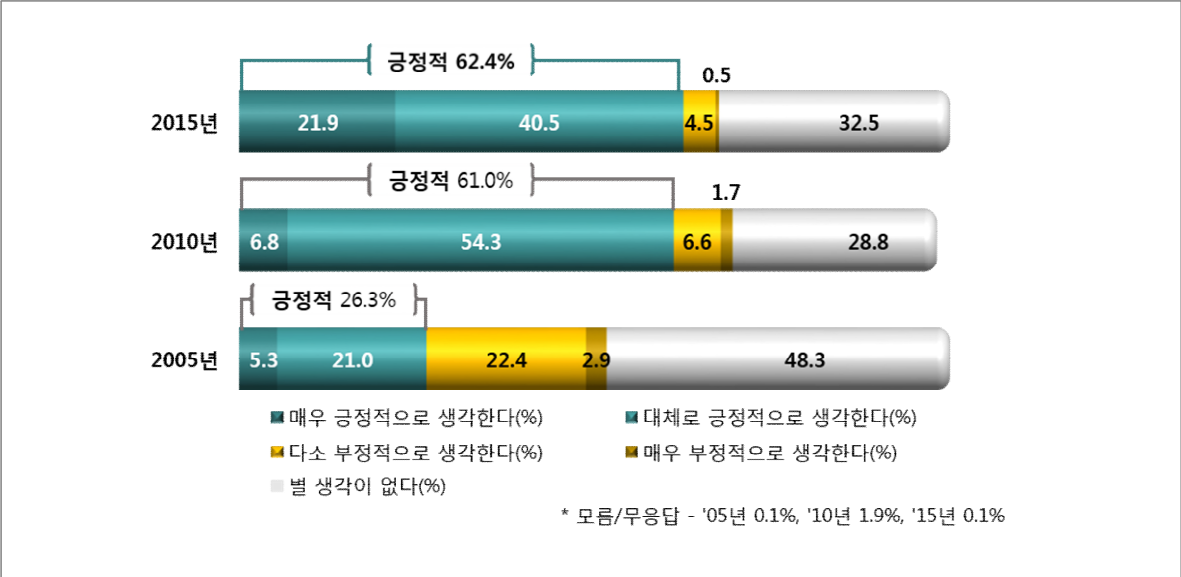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사례수	표준어 사용 추이		
			2005 년	2010 년	2015 년
거주지역	수도권	(2,507)	78.6	74.6	85.3
	강원	(143)	48.9	32.4	49.7
	충청권	(502)	40.3	43.4	53.9
	전라권	(479)	14.6	23.5	28.8
	경상권	(1,269)	8.4	8.7	6.1
	제주	(100)	17.2	25.4	32.0

○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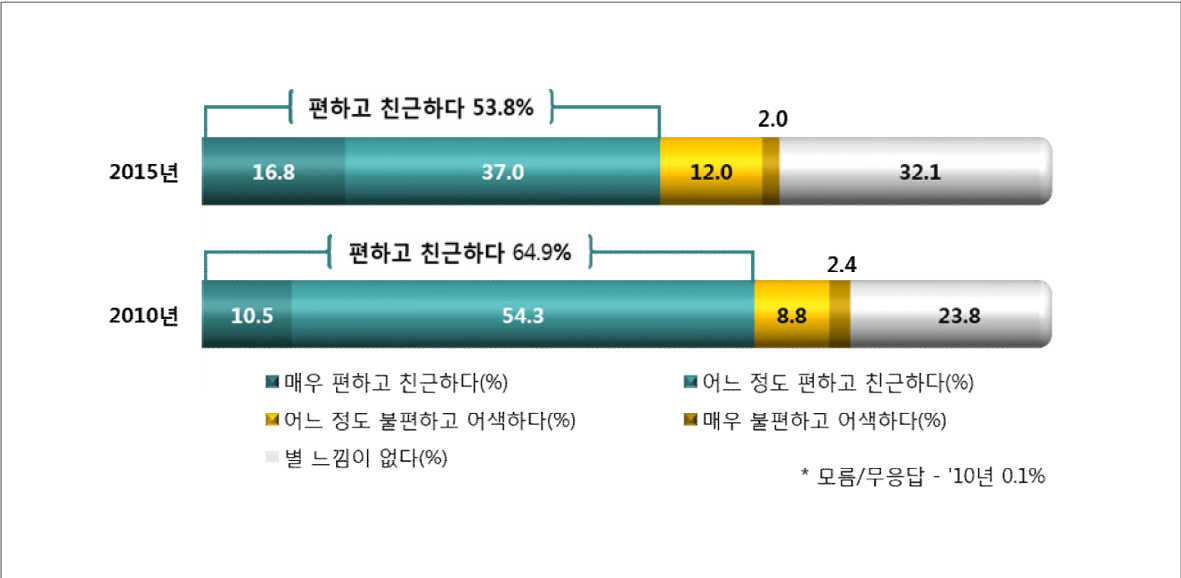
- 지역 방언 사용자들은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2015년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단위 : %, 사례수 : 지역 방언 사용자 2271명

○ 타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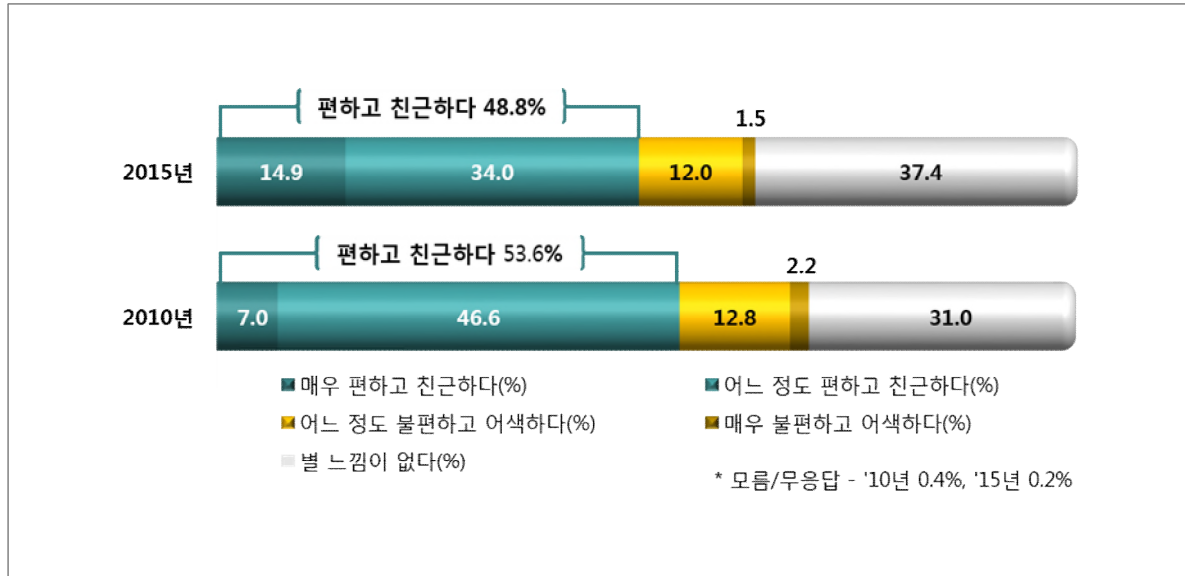
- 타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은 53.8%로 높지만, 2010년 대비 11.1%p 감소하였고, 별 느낌이 없다는 의견은 8.3%p 증가함.



■ 단위 : %, 사례수 : 지역 방언 사용자 2271명

## ○ 표준어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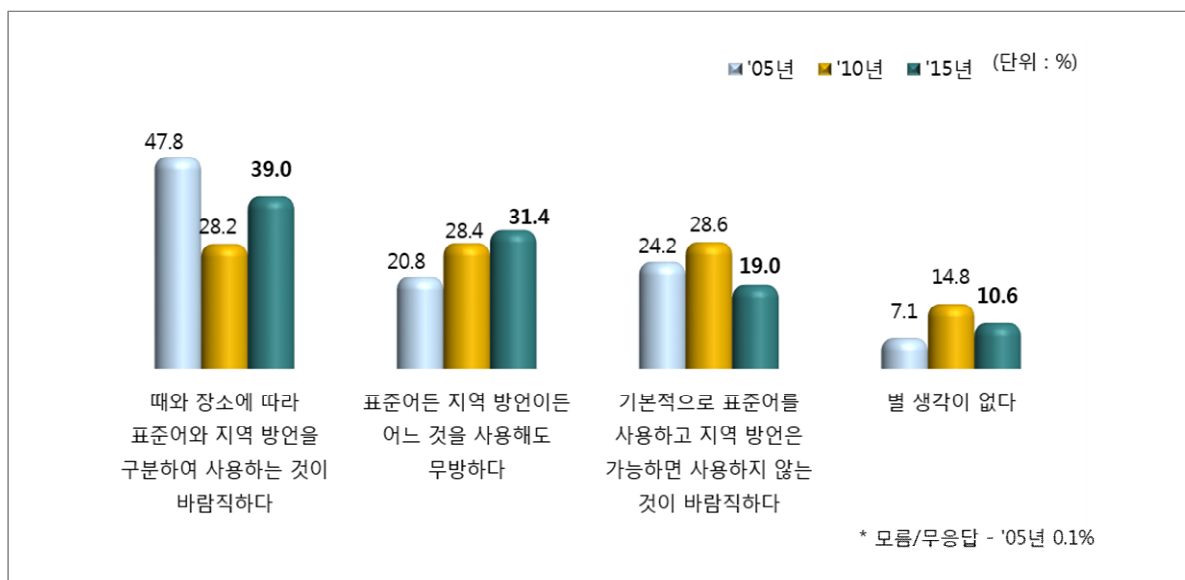
- 표준어 사용자와 대화에서 편하고 친근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10년 대비 감소함. 반면 별 느낌이 없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단위 : %, 사례수 : 지역 방언 사용자 2271명

## ○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해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010년 대비 증가함.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지역 방언 수용성 :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떤 것을 사용해도 된다, 상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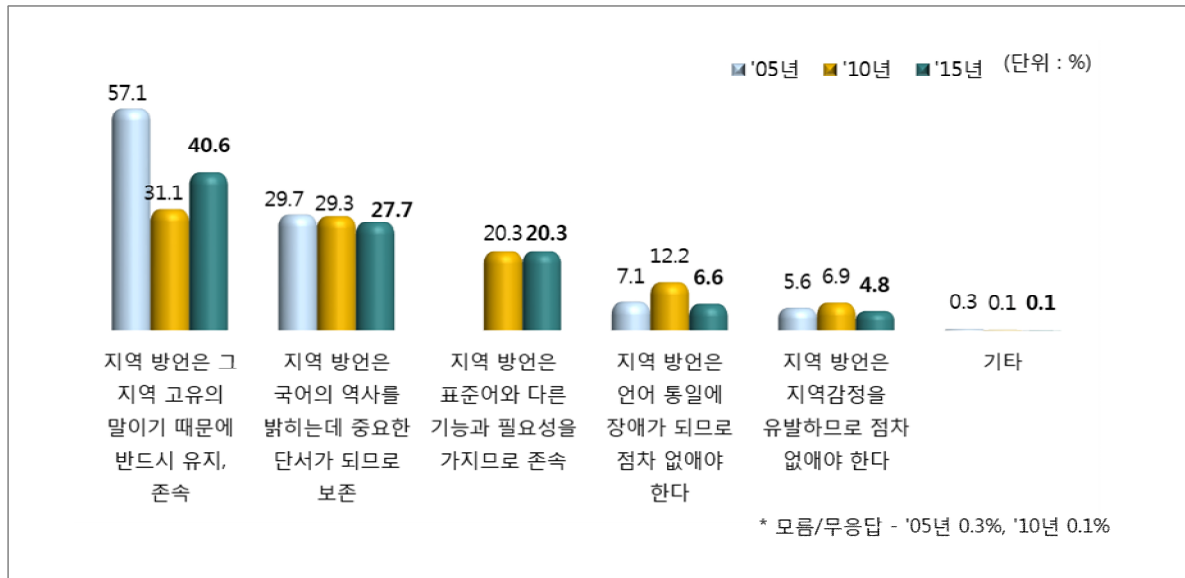
- 2010년은 지역 방언이 매체를 포함해 다양한 상황에서 강세를 보였던 시점이며, 표준어를 주로 사용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200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역 방언 수용성에 큰 변화가 없음.
- 2015년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타 지역 대비 응답률이 매우 높지 않으나 방언을 사용해도 된다는 응답이 19.8%에서 28.6%로 증가해 지역 방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음.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전체		20.8	28.4	31.4
지역별	수도권	19.8	19.8	28.6
	강원	25.0	42.4	48.8
	충청권	22.0	32.9	39.5
	전라권	13.0	36.6	20.9
	경상권	25.2	38.2	35.3
	제주	9.2	38.0	34.0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 지역 방언 존속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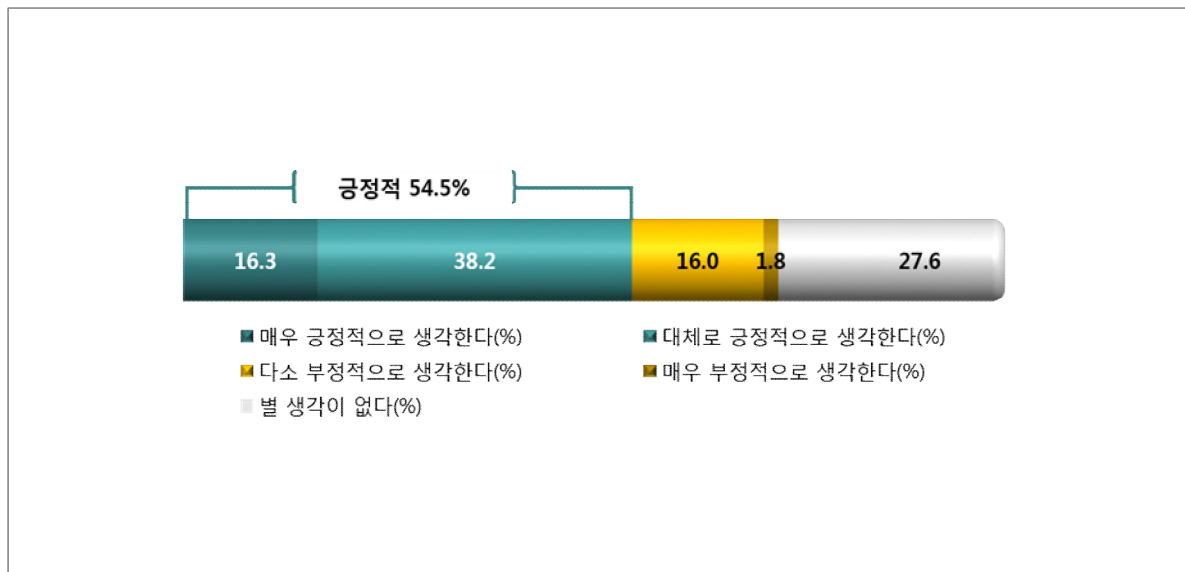
- 지역 방언은 '그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0년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함. 반면 '언어 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낮았음.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 두루 쓰이는 지역 방언의 표준어 인정에 대한 태도

- 두루 쓰이는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지역 방언에 대한 유지, 보존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적인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추세로 나타남.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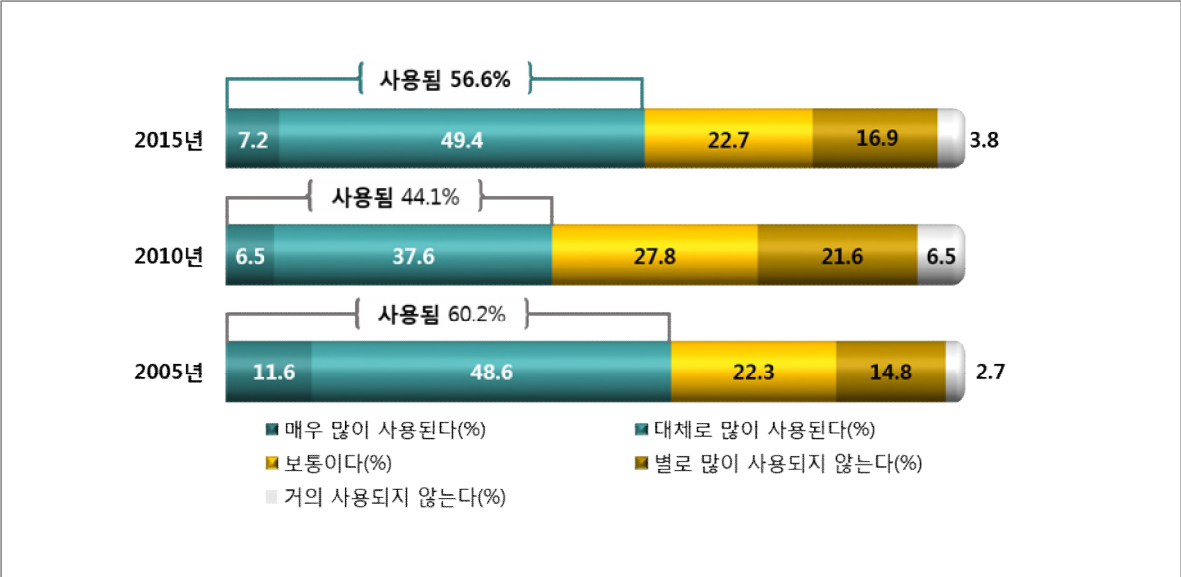
5. 외래어/외국어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은 2010년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5년에는 소폭 증가했으며,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세련되어 보인다가나 학식이 높아 보인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감소하고, 별 느낌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국어순화에 대한 인식 또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높아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순화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

○ 외래어·외국어 사용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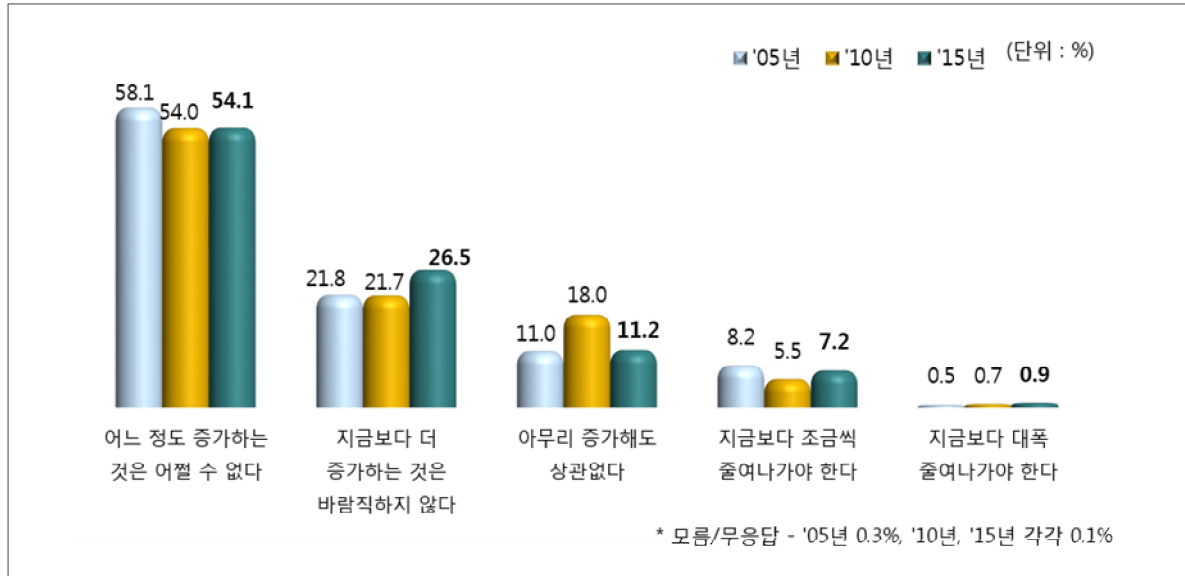
- 평소 읽거나 듣는 말에 외래어·외국어가 사용된다는 응답은 56.6%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 12.5%p 상승함.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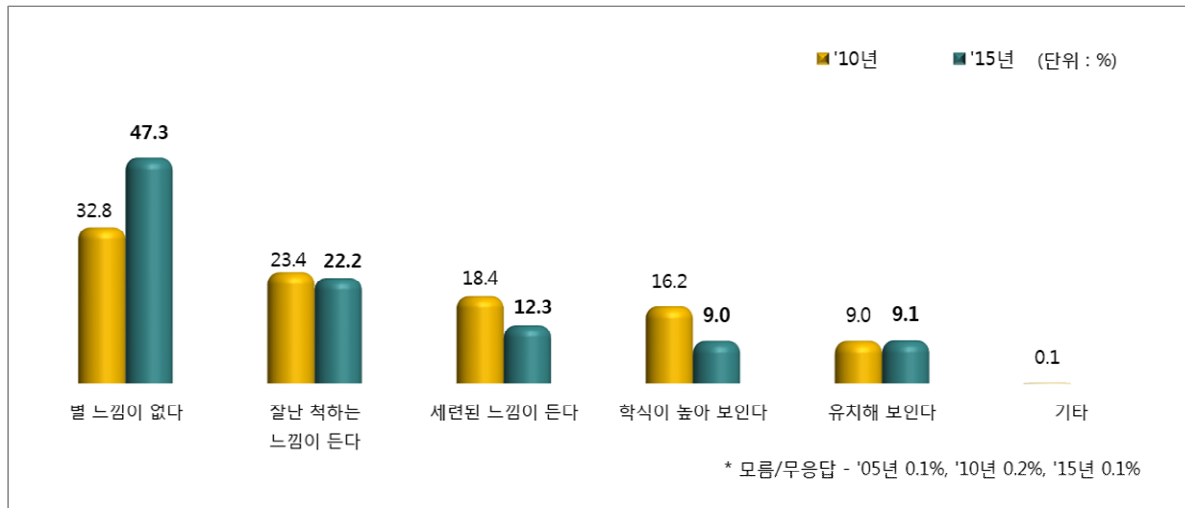
-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가장 높지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응답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증가해도 상관없다'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단위 : %, 사례수 : 외래어/외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응답자 3964명

## ○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련된 느낌을 주거나 학식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별 느낌이 없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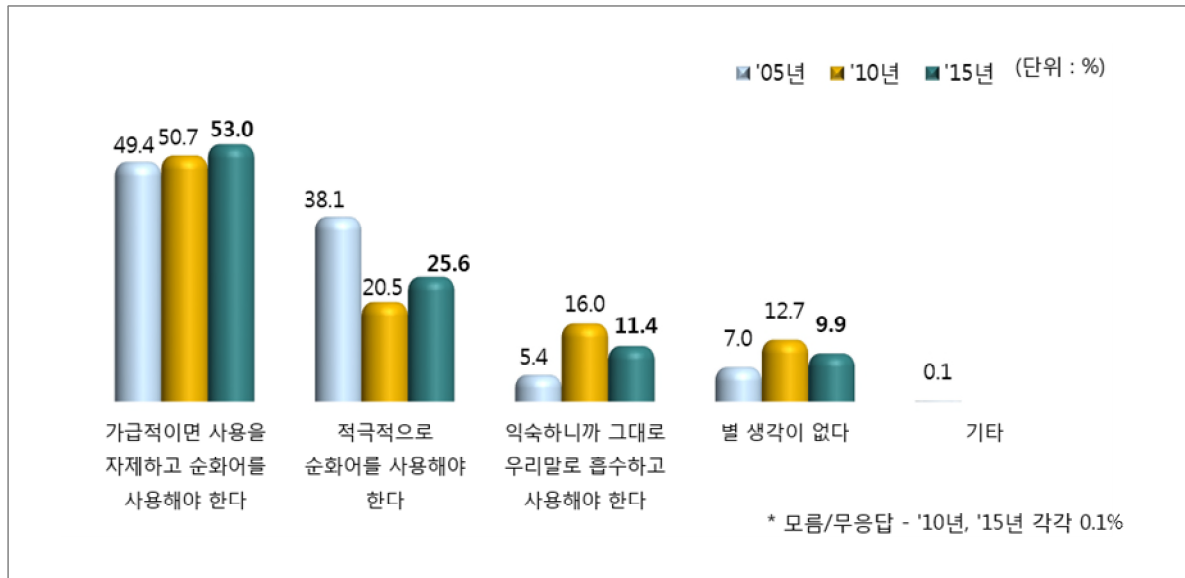
### ○ 외래어/외국어 사용증가에 대한 수용도

-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어쩔 수 없다거나 증가해도 관계없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국어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외국어 사용 능력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외래어/외국어 수용도에서도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국어를 포함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외래어/외국어에 대한 수용도 또한 높게 나타나 국어에 대한 관심이 외래어/외국어에 대한 거부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외래어/외국어 사용증가에 긍정적(%)
성별	남성	53.9
	여성	54.3
연령별	20대	61.2
	30대	57.6
	40대	51.0
	50대	50.4
	60대 이상	47.9
가구소득별	100만원 이하	52.0
	200만원 미만	49.9
	250만원 미만	57.6
	350만원 미만	51.8
	550만원 미만	54.8
	551만원 이상	53.0
학력	초등학교졸업	46.0
	중학교졸업	44.7
	고등학교졸업	53.7
	대학교졸업	55.5
영어능력	영어능력(상)	59.8
	영어능력(중)	56.2
	영어능력(하)	51.9

## ○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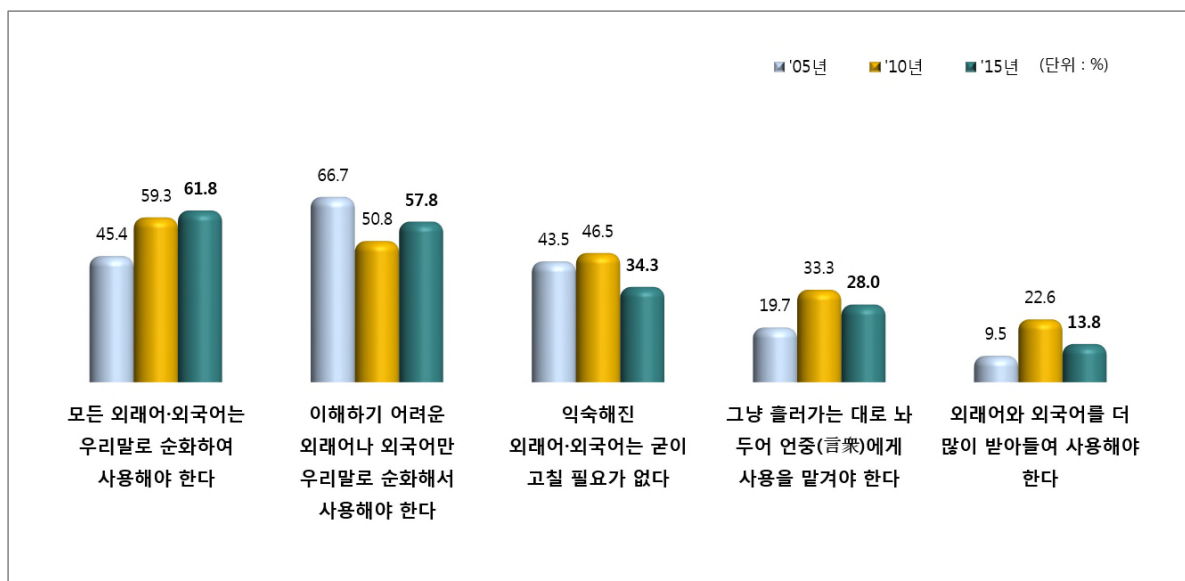
-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는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78.6%로 대부분을 차지함.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전년 대비 증가함. 반면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흡수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 국어 순화에 대해서 '순화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반면 '언중에 사용을 맡겨야 한다'거나 '외국어·외래어를 더 많이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약했음.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은 감소 추세가 뚜렷함.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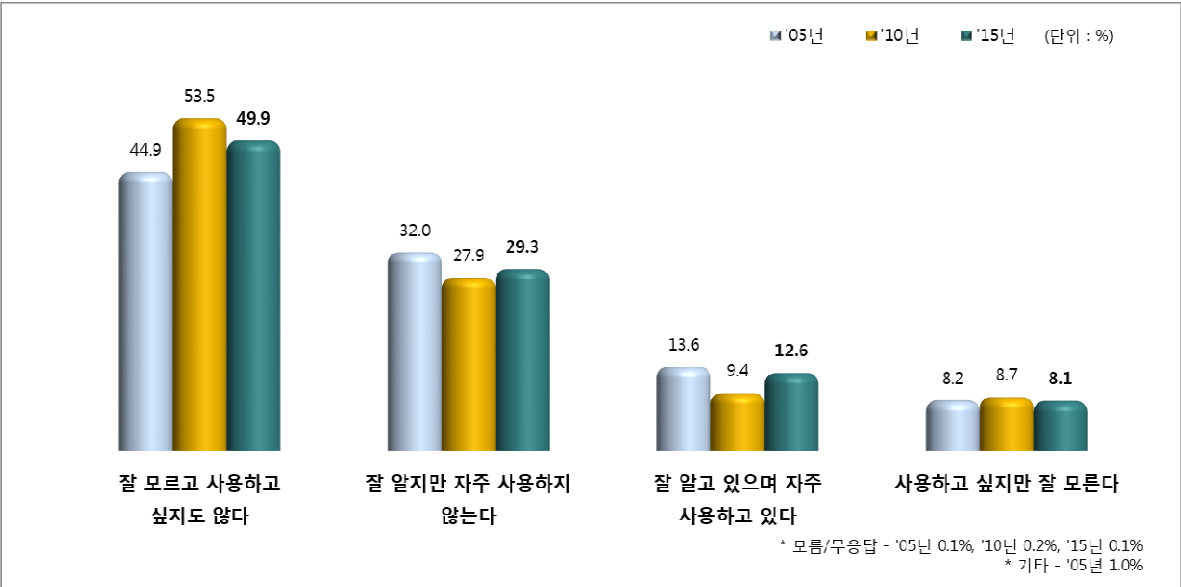
6. 통신 언어

통신 언어는 20대를 중심으로 사용 비중이 2010년 대비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통신 언어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2010년에 잠시 상승했던 통신 언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어휘 증가/친근감 표현) 또한 감소해 통신 언어를 언어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 통신 언어는 ‘잘 모르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특히 20대는 사용 통신 언어 사용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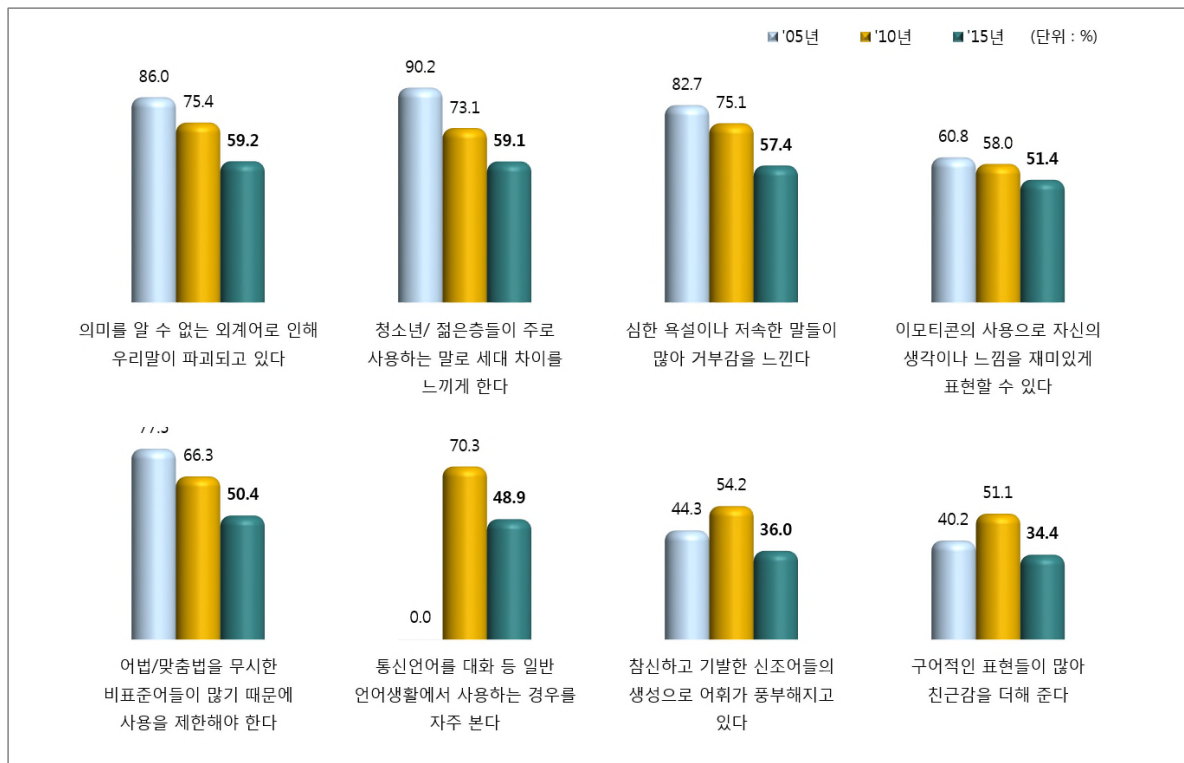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사례수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하고 있다		
			2005 년	2010 년	2015 년
연령	20대	(921)	43.4	24.9	41.6
	30대	(1059)	9.8	9.5	13.1
	40대	(1221)	3.3	5.5	5
	50대	(1128)	0.6	3.5	3.1
	60대 이상	(671)	0.4	2.5	2.2

## ○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 통신 언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등의 부정적 인식은 통신 언어 출현 초창기에 매우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하지만 ‘어휘가 풍부해진다’, ‘친근감을 더해 준다’는 긍정적 인식은 2010년에는 증가하였지만, 2015년 다시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통신 언어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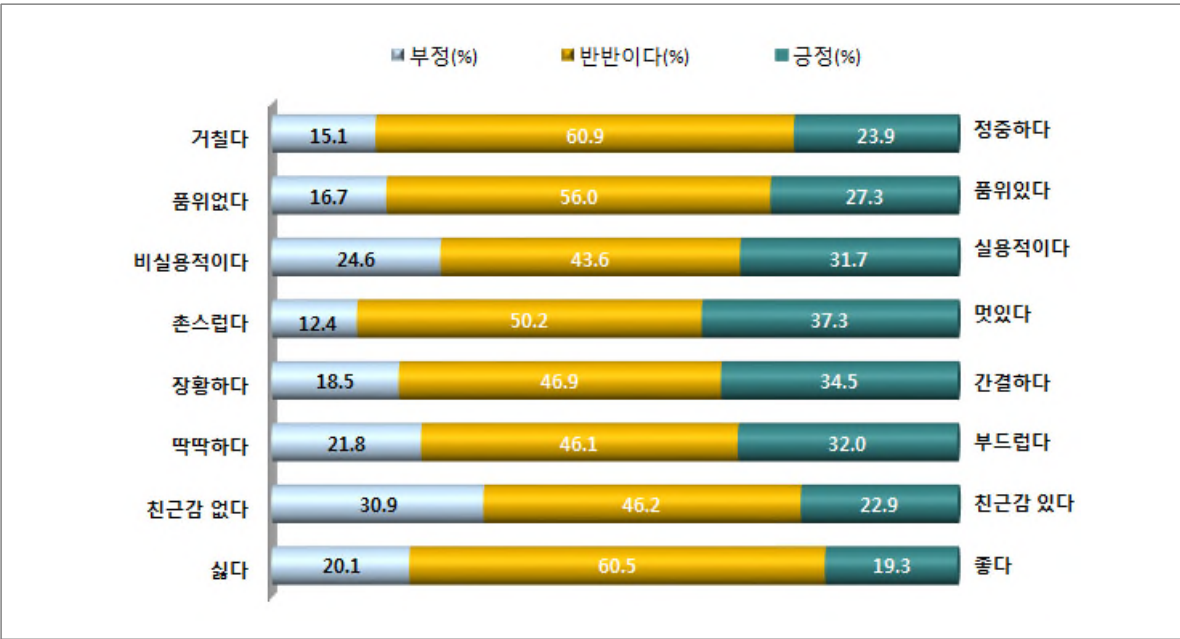
## 7. 외국 문자 사용

한글이 배제된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보다 높지만, 반반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외국어 표기에 대한 반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친근감’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22.9%)보다 부정적 평가(30.9%)가 높게 나타나 빈번한 외국 문자 사용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저항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외국어 표기에 대한 이미지

- 한글 표기가 배제된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로 ‘멋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간결하다’, ‘부드럽다’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들 이미지는 반대 이미지인 ‘촌스럽다’, ‘장황하다’, ‘딱딱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반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친근감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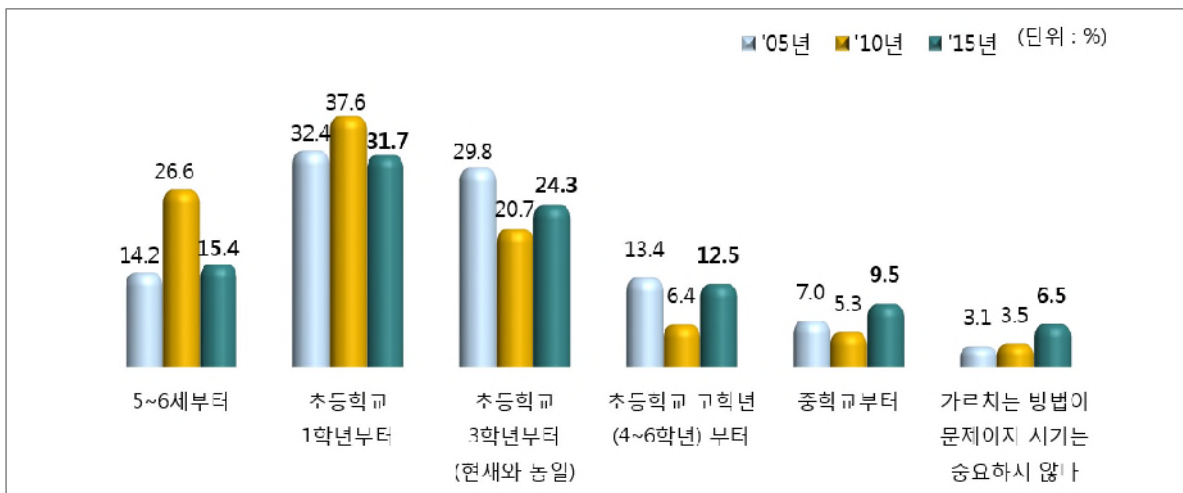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8. 한자/영어 교육

2010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어 교육 시기를 '5-6세부터'라고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5년이 경과한 2015년에는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시기를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남. 한자 교육에서도 동일한 시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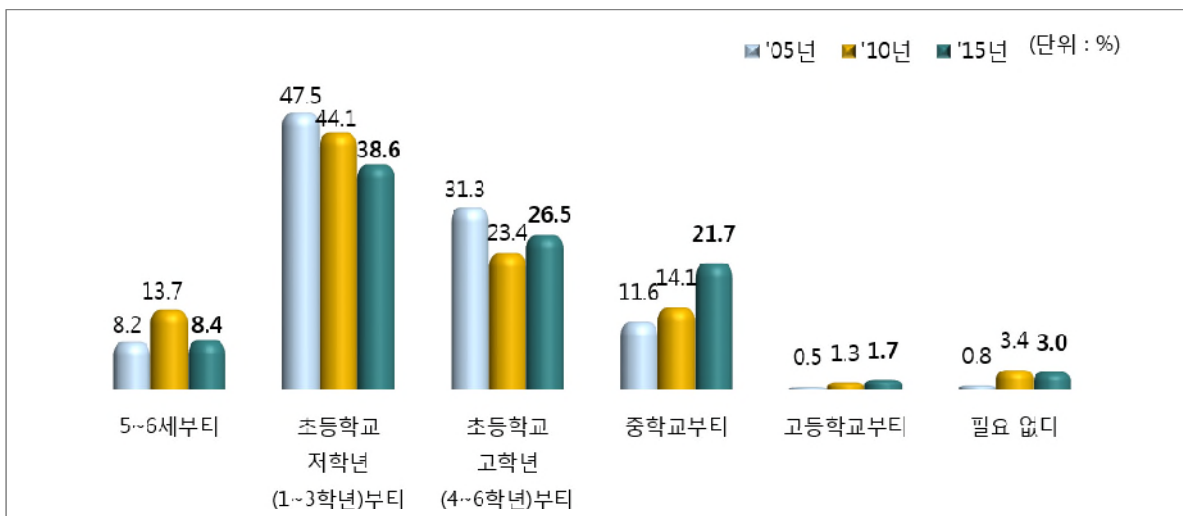
-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시기에 대해 영어 마을 등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매우 높았던 2010년에는 5-6세나 초등학교 1학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했으나, 2015년 조사 결과 영어교육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음.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시기

- 한자 교육 시기도 초등학교 저학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있으며, 4-6학년이나 중학교 부터 실시해도 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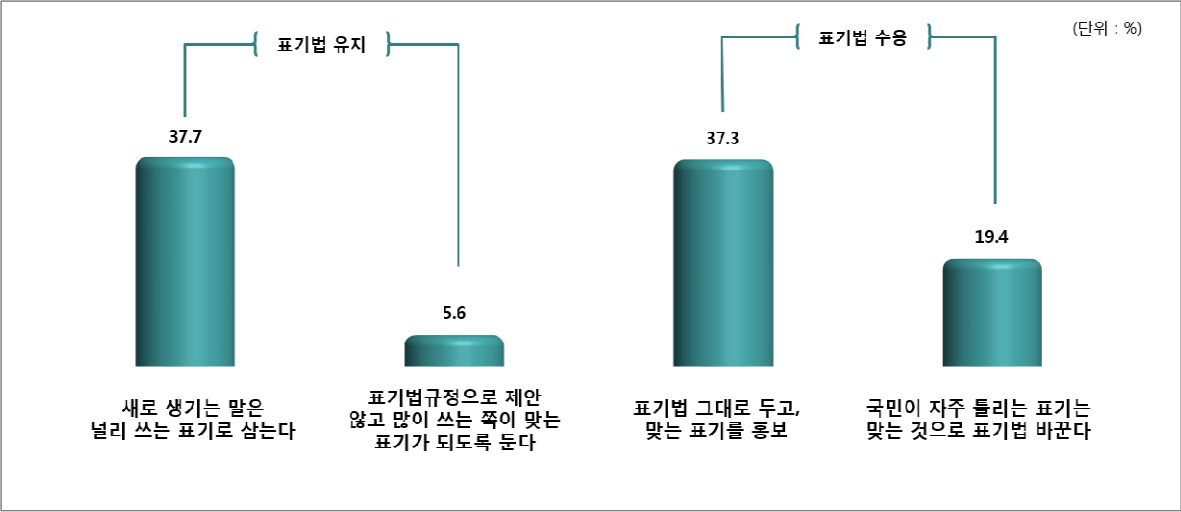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9. 한글 맞춤법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 표기법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기존 표기법을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으로 쉬운 어문규범 마련 및 홍보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언중의 사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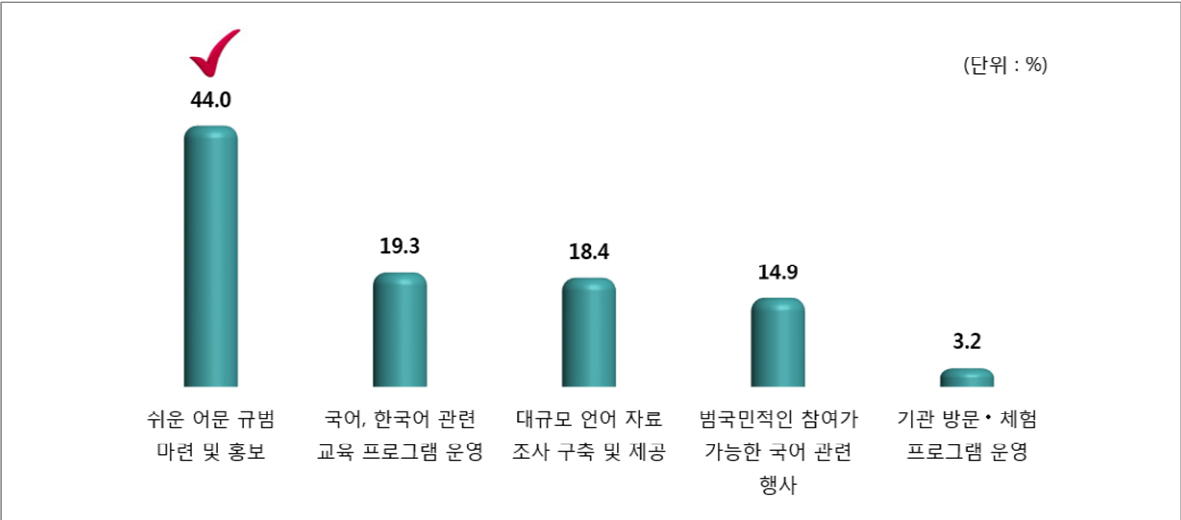
- 국민들이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현행 그대로 둔다거나,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는 ‘표기법 유지’보다는 국민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수용’ 쪽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

- 국립국어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한글 맞춤법과 관련한 ‘쉬운 어문 규범 마련 및 홍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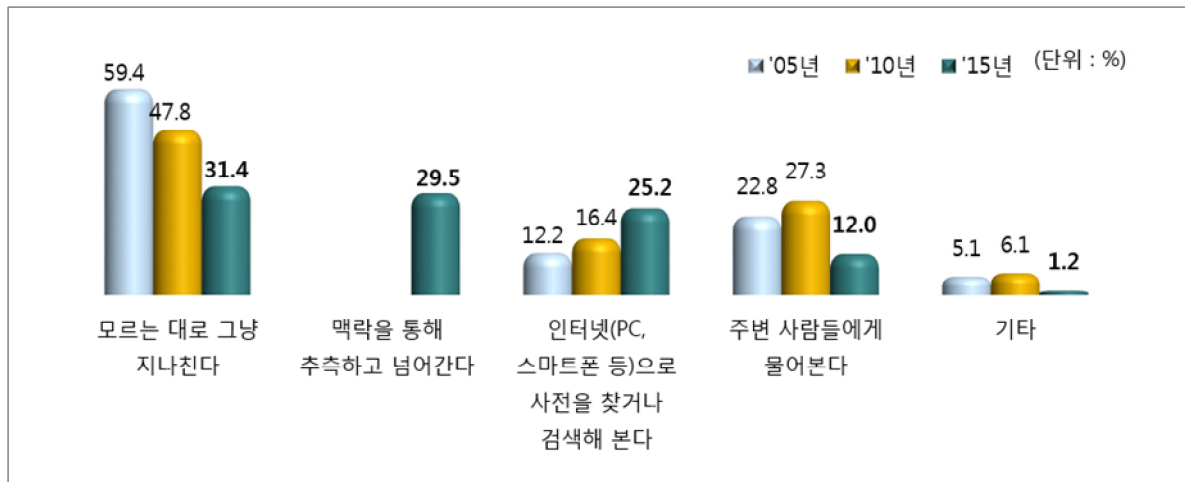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10. 사전 이용

매체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때 30% 정도는 그냥 지나치거나 맥락으로 추측한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0대 이하에서는 인쇄된 사전이 아닌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음.

### ○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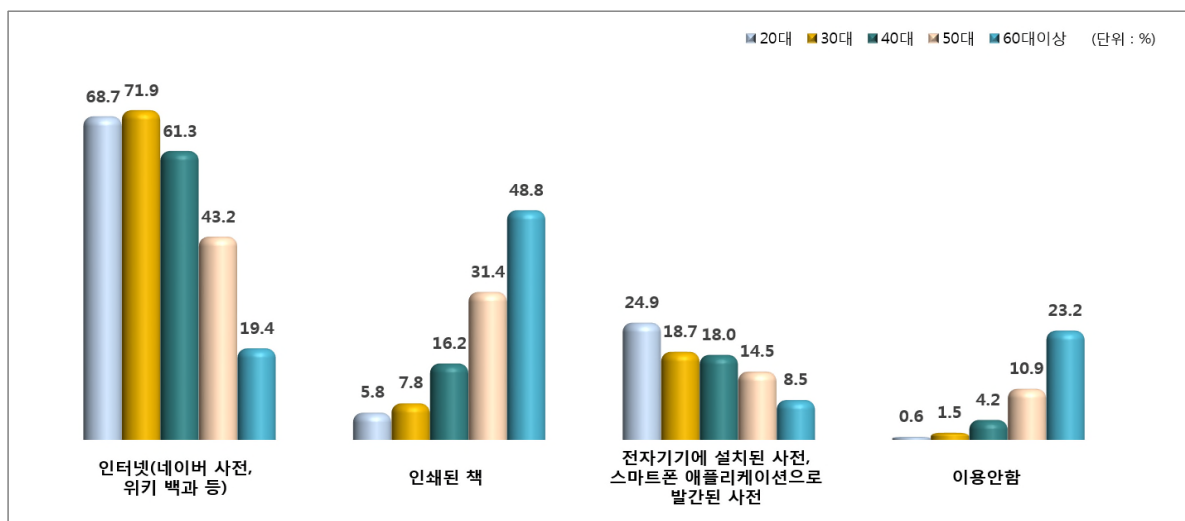
-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맥락을 통해 추측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 주로 이용하는 사전

-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쇄된 책, 전자기기 사전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20-30대를 중심으로 인쇄된 책에서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하였음.



■ 단위 : %, 사례수 : 전체 5000명



## IV.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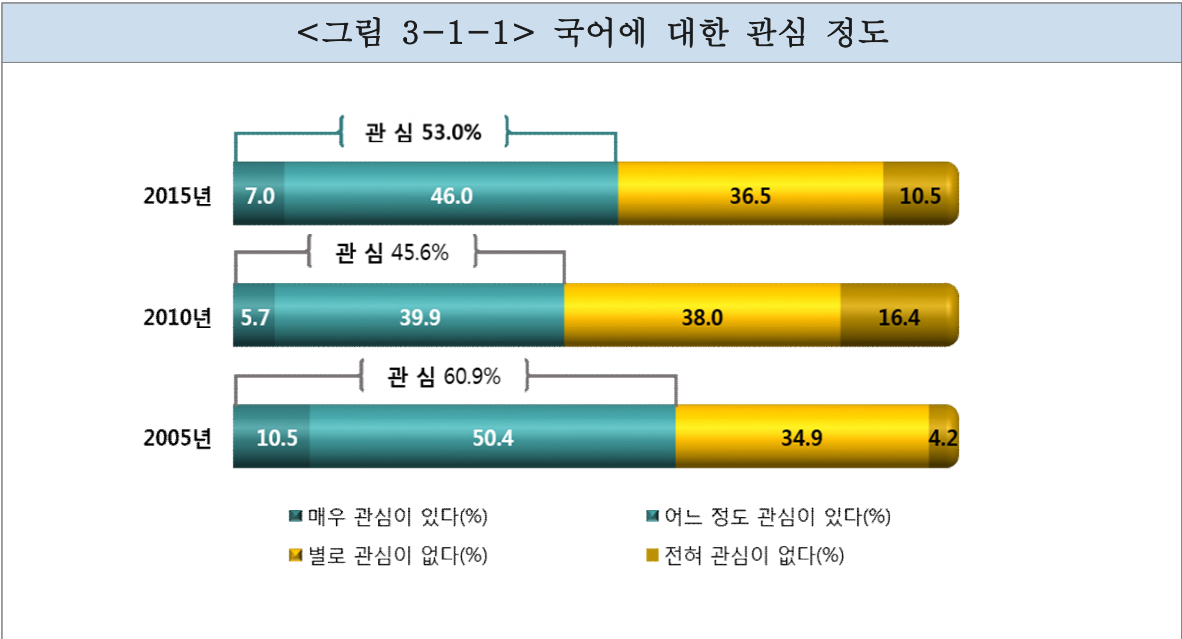
1.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가.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문1

귀하께서는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53.0%(매우 관심 7.0% + 어느 정도 관심 46.0%)가 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7.0%는 국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조사가 최초 실시된 2005년에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45.6%로 하락하였다가 올해 7.4%p 상승함.



응답자 특성

- ➔ '관심 있음' 응답은 30대(58.0%), 제주(63.0%) 및 전라권(62.5%) 지역, 대학교 졸업/재학(56.9%)에서 높게 나타남.
- ➔ '관심 없음'은 60대 이상(50.3%), 충청권(55.0%) 및 경상권(53.5%) 지역, 초등학교 졸업 이하(56.8%)에서 높았음.

<표 3-1-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 관심이 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종합평가	
							관심 있음	관심 없음
전 체		(5,000)	7.0	46.0	36.5	10.5	53.0	47.0
성	남성	(2,542)	7.3	44.5	37.1	11.1	51.8	48.2
	여성	(2,458)	6.7	47.5	36.0	9.9	54.2	45.8
연령	20대	(921)	7.5	44.0	38.0	10.5	51.5	48.5
	30대	(1,059)	6.4	51.6	34.0	8.0	58.0	42.0
	40대	(1,221)	7.4	44.7	38.6	9.3	52.1	47.9
	50대	(1,128)	6.3	46.1	36.9	10.7	52.4	47.6
	60대 이상	(671)	7.9	41.8	34.0	16.3	49.7	50.3
거주지역	수도권	(2,507)	7.4	48.2	37.0	7.3	55.7	44.3
	강원	(143)	8.4	44.0	37.2	10.5	52.3	47.7
	충청권	(502)	5.6	39.4	35.9	19.1	45.0	55.0
	전라권	(479)	6.4	56.1	31.3	6.2	62.5	37.5
	경상권	(1,269)	6.2	40.3	38.2	15.3	46.5	53.5
	제주	(100)	16.0	47.0	30.0	7.0	63.0	37.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8.8	39.7	32.1	19.3	48.5	51.5
	101-200만원	(252)	2.7	47.9	38.6	10.7	50.7	49.3
	201-250만원	(656)	9.1	44.2	35.6	11.1	53.3	46.7
	251-350만원	(886)	6.6	48.5	36.1	8.8	55.1	44.9
	351-550만원	(2,193)	7.1	45.2	37.5	10.3	52.2	47.8
	551만원 이상	(888)	6.8	46.8	35.1	11.3	53.6	46.4
	모름/무응답	(12)	7.9	50.3	41.8	0.0	58.2	41.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3.1	40.0	38.8	18.0	43.2	56.8
	중학교 졸업	(332)	6.0	45.3	36.0	12.6	51.3	48.7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8	43.1	38.9	12.3	48.8	51.2
	대학교 졸업/재학	(2,510)	8.3	48.6	34.7	8.4	56.9	43.1
	모름/무응답	(7)	14.3	71.4	0.0	14.2	85.8	14.2

## 나.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문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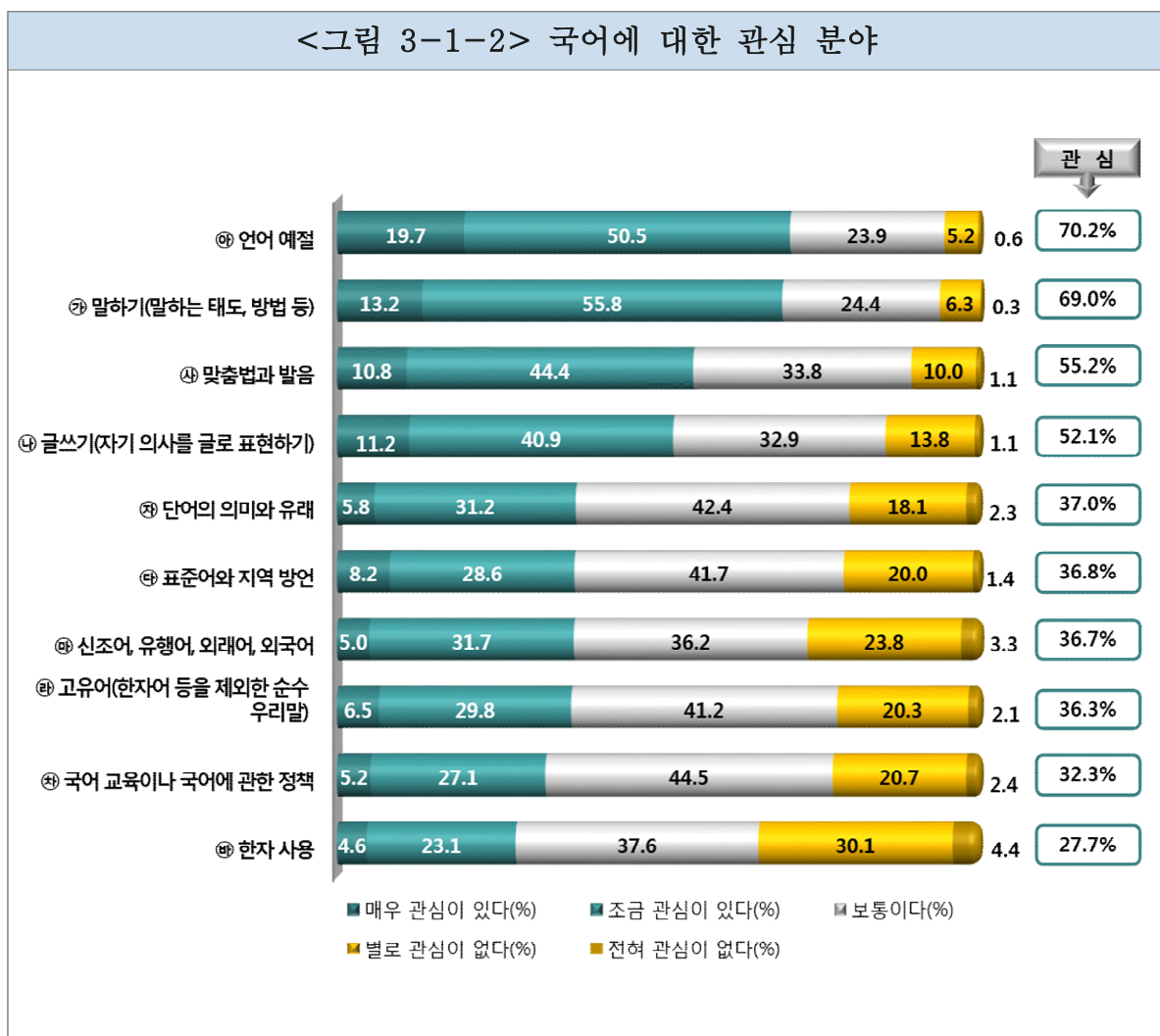
(문1의 1,2,3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국어의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국어 관심자(Base = 관심 있음 + 별로 관심 없음 응답자 4,475명)를 대상으로 국어의 관심 분야를 조사한 결과, ‘언어 예절’에 대한 관심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말하기’가 69.0%로 그 뒤를 이음.

☞ 반면, ‘한자 사용’에 대한 관심은 27.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05년과 2010년에는 ‘말하기, 언어 예절, 글쓰기’가 3순위 안에 꼽혔었으나 올해는 ‘맞춤법과 발음’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12.9%p)하여 ‘언어 예절, 말하기, 맞춤법과 발음’이 1~3위를 차지함.

<그림 3-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응답자 특성

- ➔ ‘언어 예절’에 대한 관심은 40대 이상, 수도권(72.6%) 지역, 가구소득 201만원 이상, 중학교 졸업(77.4%)에서 높게 나타남.
- ➔ ‘말하기’에 대한 관심은 30대 이상, 가구소득 551만원 이상(71.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단위 : 명, %)

		사례수	언어 예절	말하기	맞춤법과 발음	글쓰기	단어의 의미와 유래	표준어와 지역 방언	신조어, 유행어, 외래어, 외국어	고유어	국어교육 이나 국어에 관한 정책	한자 사용
전 체		(4,475)	70.2	69.0	55.2	52.1	37.0	36.8	36.7	36.3	32.3	27.7
성	남성	(2,259)	68.9	68.3	55.6	51.2	38.4	37.4	37.5	37.3	33.7	31.7
	여성	(2,216)	71.6	69.6	54.8	53.1	35.7	36.2	35.8	35.4	31.1	23.7
연령	20대	(825)	63.7	64.7	55.9	54.6	35.0	34.4	50.9	33.8	31.8	22.2
	30대	(974)	66.4	70.5	58.9	54.6	37.8	36.2	40.5	34.6	33.1	24.3
	40대	(1,107)	72.5	70.6	56.1	52.1	36.4	37.0	35.5	37.1	33.7	28.2
	50대	(1,007)	74.7	68.0	53.8	49.9	37.2	38.4	28.7	35.6	31.2	30.8
	60대 이상	(562)	73.9	70.8	48.1	48.0	40.0	37.8	25.7	43.0	31.6	35.1
거주 지역	수도권	(2,323)	72.6	70.3	58.9	52.2	37.4	35.4	37.2	36.9	31.5	26.5
	강원	(128)	52.8	60.5	40.5	45.1	29.1	31.3	35.8	32.7	26.7	22.6
	충청권	(406)	70.5	61.5	52.4	57.6	43.6	45.8	48.3	44.8	41.6	37.2
	전라권	(449)	66.1	69.3	54.1	50.5	36.8	38.3	32.1	30.8	33.0	29.7
	경상권	(1,076)	68.9	70.6	50.4	50.7	34.8	35.0	33.5	33.8	30.7	26.4
	제주	(93)	69.9	60.2	53.8	59.1	38.7	53.8	32.3	46.2	39.8	30.1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91)	63.4	62.6	42.6	53.6	38.4	35.2	27.4	41.7	31.8	26.4
	101-200만원	(225)	66.5	62.0	43.5	44.4	35.5	35.2	30.2	35.1	30.3	27.0
	201-250만원	(583)	71.3	69.4	50.4	54.1	38.9	39.0	31.9	40.4	32.8	26.2
	251-350만원	(808)	69.5	68.2	54.5	51.9	33.4	34.9	36.3	32.3	31.2	27.9
	351-550만원	(1,968)	70.5	69.4	56.8	51.4	37.6	37.4	37.7	35.8	32.3	28.5
	551만원 이상	(788)	71.6	71.5	60.3	54.7	39.0	36.2	41.2	39.0	34.4	27.1
	모름/무응답	(12)	58.2	49.6	41.8	50.1	8.5	42.0	16.7	16.9	16.6	16.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4)	71.8	69.0	44.2	40.1	29.7	28.9	21.2	41.3	27.8	27.8
	중학교 졸업	(290)	77.4	68.2	48.4	49.0	42.7	36.3	27.5	38.5	31.5	32.0
	고등학교 졸업/재학	(1,776)	70.8	67.5	51.5	47.8	34.4	36.0	30.8	34.4	29.4	26.7
	대학교 졸업/재학	(2,299)	68.8	70.2	59.4	56.2	38.8	37.8	43.0	37.4	35.1	27.9
	모름/무응답	(6)	67.1	66.6	50.5	83.2	33.8	50.0	33.2	33.8	32.8	49.6

### 다. 우리말에 대한 인상 평가

문2

다음은 평소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말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말에 대한 인상으로 '뜻이 정확하다'가 68.6%로 가장 높은 평가(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를 받았으며, '아름답다'(66.7%), '품위가 있다'(62.3%), '논리적이다'(60.0%) 등의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한편, 인상에 대한 평가 중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은 '아름답다'가 19.2%로 가장 높았음.

'뜻이 정확하다'는 인상은 2010년 대비 9.4%p 증가했고, 2005년과 2010년에는 '아름답다'는 인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 3-1-3> 우리말에 대한 인상 평가



응답자 특성

- ➔ 우리말에 대해 ‘뜻이 정확하다’는 평가는 타 지역 대비 충청권(72.5%) 거주자에게서 높게 나타남.
- ➔ ‘아름답다’는 평가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라권(76.8%) 및 강원(72.7%) 거주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우리말에 대한 인상 평가

(단위 : 명, %)

		사례수	뜻이 정확하다	아름답다	품위가 있다	논리적이다	발음이 부드럽다	학문, 과학 등의 활동에 유용하다	배우기 쉽다
전 체		(5,000)	68.6	66.7	62.3	60.0	56.3	53.4	50.8
성	남성	(2,542)	69.1	66.2	62.6	60.7	56.9	54.3	51.3
	여성	(2,458)	68.0	67.1	62.0	59.3	55.7	52.6	50.2
연령	20대	(921)	68.5	64.1	60.2	59.7	54.8	53.9	52.3
	30대	(1,059)	68.3	66.5	60.9	63.6	57.4	54.0	51.5
	40대	(1,221)	68.4	66.7	64.6	60.9	56.6	53.7	51.1
	50대	(1,128)	69.4	67.8	62.3	56.7	56.2	52.9	48.6
	60대 이상	(671)	67.9	68.1	63.0	58.6	56.3	52.8	50.3
거주지역	수도권	(2,507)	67.7	69.1	62.0	60.3	58.6	54.1	51.9
	강원	(143)	68.0	72.7	67.8	54.7	46.8	43.5	42.2
	충청권	(502)	72.5	64.3	60.7	60.8	58.7	52.2	53.4
	전라권	(479)	70.8	76.8	75.0	63.2	68.5	60.5	54.0
	경상권	(1,269)	69.2	58.1	59.2	58.8	47.8	51.4	47.5
	제주	(100)	51.0	68.0	48.0	56.0	48.0	51.0	46.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68.3	65.5	60.2	60.2	51.4	52.2	46.8
	101-200만원	(252)	64.1	63.4	65.0	55.9	52.5	45.0	47.6
	201-250만원	(656)	66.6	67.5	64.8	60.9	56.8	52.7	50.3
	251-350만원	(886)	68.2	69.7	61.0	56.1	58.1	48.1	49.4
	351-550만원	(2,193)	70.1	66.3	61.0	61.1	56.0	56.1	51.9
	551만원 이상	(888)	68.0	64.9	64.5	61.9	56.6	55.6	51.3
	모름/무응답	(12)	42.0	50.5	49.9	33.2	50.5	50.3	25.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72.5	67.6	63.7	53.7	53.7	44.9	51.2
	중학교 졸업	(332)	64.1	67.6	66.4	59.5	58.0	52.9	48.9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68.3	66.7	61.0	57.6	55.2	51.5	50.2
	대학교 졸업/재학	(2,510)	69.1	66.5	62.6	62.4	57.1	55.6	51.4
	모름/무응답	(7)	71.3	57.7	71.8	57.7	43.3	42.4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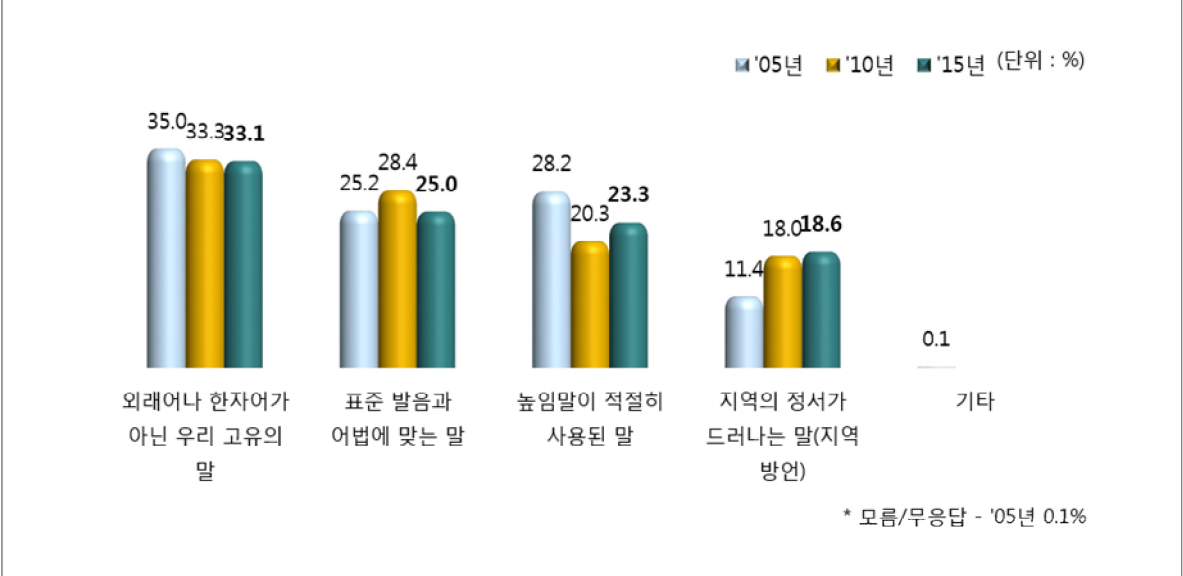
라.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기준

문3

귀하께서는 평소 어떤 말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은 '외래어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33.1%)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 다음으로, '표준 발음과 어법에 맞는 말'(25.0%), '높임말이 적절히 사용된 말'(23.3%), '지역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지역 방언)'(18.6%) 순으로 나타남.
- '우리 고유의 말'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인식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높임말이 적절히 사용된 말', 2010년에는 '표준 발음과 어법에 맞는 말'이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3-1-4>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기준



응답자 특성

- ➔ '우리 고유의 말'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전라권(39.4%) 및 강원(48.5%) 지역, 대학교 졸업/재학(36.7%)에서 높았음.
- ➔ 한편, 60대 이상(30.1%)과 제주(31.0%) 지역, 초등학교 졸업 이하(36.3%)는 '높임말이 적절히 사용된 말', 전라권(34.9%) 지역은 '지역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에 대한 평가가 특히 높았음.

<표 3-1-4>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기준

(단위 : 명, %)

		사례수	외래어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	표준 발음과 어법에 맞는 말	높임말이 적절히 사용된 말	지역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 (지역 방언)
전 체		(5,000)	33.1	25.0	23.3	18.6
성	남성	(2,542)	31.8	25.6	23.6	19.1
	여성	(2,458)	34.4	24.5	23.0	18.1
연령	20대	(921)	36.2	28.1	18.9	16.7
	30대	(1,059)	36.1	27.2	21.3	15.4
	40대	(1,221)	31.0	23.6	24.7	20.7
	50대	(1,128)	31.7	25.8	23.2	19.3
	60대 이상	(671)	29.9	18.8	30.1	21.2
거주지역	수도권	(2,507)	31.4	30.5	26.5	11.6
	강원	(143)	48.5	15.3	22.9	13.3
	충청권	(502)	29.5	23.9	26.1	20.5
	전라권	(479)	39.4	13.8	11.9	34.9
	경상권	(1,269)	34.0	21.1	19.6	25.3
	제주	(100)	29.0	12.0	31.0	28.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31.8	19.4	24.0	24.8
	101-200만원	(252)	32.2	15.5	26.5	25.8
	201-250만원	(656)	32.7	21.4	23.7	22.1
	251-350만원	(886)	35.5	24.4	22.7	17.3
	351-550만원	(2,193)	31.4	26.6	23.2	18.8
	551만원 이상	(888)	35.0	28.0	22.8	14.1
	모름/무응답	(12)	67.0	16.6	16.3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5.9	9.5	36.3	28.4
	중학교 졸업	(332)	30.7	18.7	24.8	25.8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29.3	25.1	25.1	20.5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6.7	26.7	21.0	15.6
	모름/무응답	(7)	42.4	14.3	28.9	14.4

2. 언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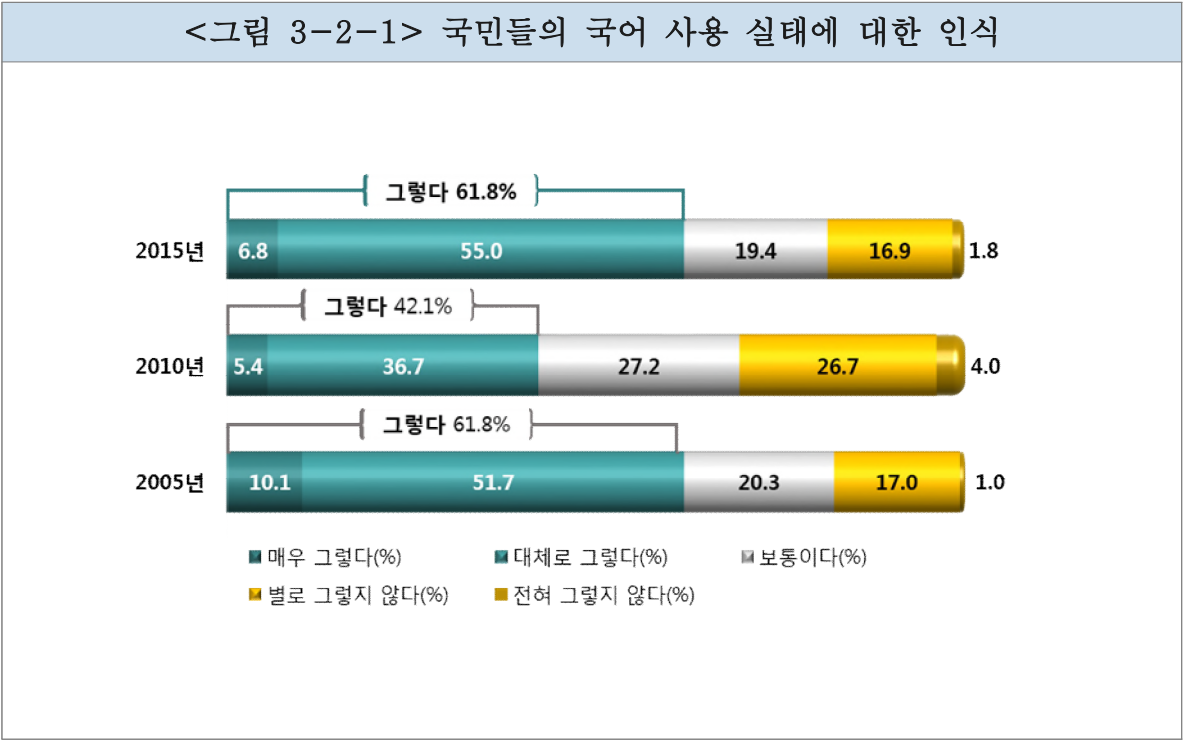
가. 언어 사용

1)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

문4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반(61.8%)이 ‘그렇다’고 동의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응답은 18.7%로 나타남.
-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2010년에 42.1%로 가장 낮았고, 2005년 (61.8%)과 올해는 2010년 대비 19.7%p 높은 수준임.



응답자 특성

- ➔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그렇다)’는 응답은 수도권(68.0%), 전라권(65.7%), 강원(65.5%) 지역에서 높았으며, ‘바르게 사용한다(그렇지 않다)’는 경상권(24.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1>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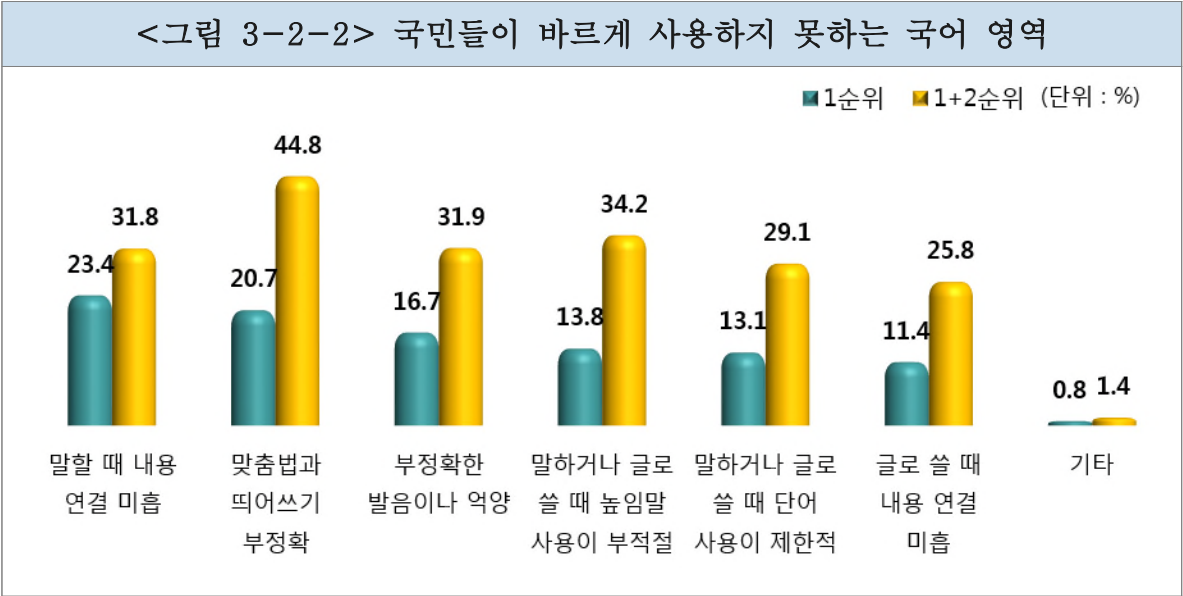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5,000)	1.8	16.9	19.4	55.0	6.8	18.7	19.4	61.8
성	남성	(2,542)	2.0	17.5	19.2	54.8	6.4	19.5	19.2	61.3
	여성	(2,458)	1.6	16.3	19.7	55.2	7.3	17.9	19.7	62.4
연령	20대	(921)	1.3	16.1	19.4	57.3	5.9	17.4	19.4	63.2
	30대	(1,059)	2.2	15.9	19.9	54.6	7.5	18.1	19.9	62.1
	40대	(1,221)	1.6	17.4	19.2	54.8	7.1	18.9	19.2	61.9
	50대	(1,128)	1.9	19.4	18.4	53.5	6.8	21.3	18.4	60.3
	60대 이상	(671)	2.4	14.3	21.1	55.3	6.9	16.7	21.1	62.2
거주지역	수도권	(2,507)	1.4	15.0	15.6	59.7	8.3	16.4	15.6	68.0
	강원	(143)	4.2	14.0	16.2	58.5	7.0	18.3	16.2	65.5
	충청권	(502)	2.6	18.9	24.1	47.2	7.2	21.5	24.1	54.4
	전라권	(479)	0.6	13.7	20.0	61.9	3.7	14.3	20.0	65.7
	경상권	(1,269)	2.4	21.7	24.9	46.0	5.0	24.1	24.9	51.0
	제주	(100)	3.0	12.0	25.0	52.0	8.0	15.0	25.0	6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0.9	16.8	24.8	45.2	12.3	17.6	24.8	57.5
	101-200만원	(252)	1.6	13.1	24.7	55.5	5.2	14.7	24.7	60.7
	201-250만원	(656)	1.8	16.2	20.1	54.9	7.0	18.0	20.1	61.9
	251-350만원	(886)	1.0	14.8	21.2	56.3	6.7	15.8	21.2	63.0
	351-550만원	(2,193)	2.0	18.2	17.8	54.6	7.4	20.2	17.8	62.0
	551만원 이상	(888)	2.3	17.3	19.4	55.7	5.4	19.5	19.4	61.1
	모름/무응답	(12)	0.0	33.6	8.3	58.1	0.0	33.6	8.3	58.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3.1	15.0	30.7	44.0	7.2	18.1	30.7	51.2
	중학교 졸업	(332)	1.2	16.6	21.9	53.6	6.7	17.8	21.9	60.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1.9	16.3	18.2	56.2	7.4	18.2	18.2	63.6
	대학교 졸업/재학	(2,510)	1.8	17.4	19.7	54.8	6.4	19.2	19.7	61.2
	모름/무응답	(7)	0.0	42.9	0.0	42.5	14.6	42.9	0.0	57.1

## 2)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

**문4-1** (문4의 3,4,5번 응답자만)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 중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국민들이 바르게 쓰고 있지 못하는 모습(1순위 기준)으로는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20.7%),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16.7%) 등이 뒤를 이음.
  -  한편, 1, 2순위로 택하는 항목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44.8%),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 부적절'(34.2%),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31.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2005년(1순위 25.1%, 1+2순위 32.3%)과 2010년(1순위 39.0%, 1+2순위 56.2%)에는 '말하기'가 가장 높았음.
- \* 보기 내용 변경으로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응답자 특성

- ➔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 응답은 50대 이상, 경상권(30.9%) 지역에서 높았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은 20대(29.9%), 강원(35.0%) 및 제주(32.9%) 지역,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26.7%)에서 특히 높았음.

<표 3-2-2>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1순위)

(단위 : 명, %)

		사례수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이 부적절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단어사용이 제한적	글로 쓸 때 내용연결 미흡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4,064)	23.4	20.7	16.7	13.8	13.1	11.4	0.8	0.0
성	남성	(2,046)	23.7	19.8	15.8	13.7	13.6	12.4	0.9	0.0
	여성	(2,018)	23.1	21.7	17.5	13.9	12.7	10.3	0.8	0.0
연령	20대	(761)	19.9	29.9	11.4	11.6	13.1	12.8	1.3	0.0
	30대	(867)	21.5	21.2	18.3	12.7	13.6	11.5	1.0	0.0
	40대	(990)	22.7	19.8	17.1	14.7	12.7	12.4	0.5	0.1
	50대	(887)	26.9	17.6	19.6	13.3	12.4	9.5	0.8	0.0
	60대 이상	(559)	26.7	14.2	15.9	18.0	14.2	10.4	0.5	0.0
거주지역	수도권	(2,096)	23.4	22.6	15.7	14.5	13.6	9.0	1.1	0.0
	강원	(117)	11.9	35.0	18.1	15.4	12.9	4.9	1.7	0.0
	충청권	(394)	18.2	20.8	20.6	13.2	12.9	13.7	0.5	0.0
	전라권	(410)	15.1	17.0	13.8	16.9	17.8	19.4	0.0	0.0
	경상권	(962)	30.9	15.4	18.3	10.6	10.9	13.4	0.4	0.1
	제주	(85)	17.6	32.9	16.5	18.8	5.9	5.9	2.4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93)	18.3	26.7	19.3	13.0	11.8	8.7	2.1	0.0
	101-200만원	(215)	23.8	17.1	16.8	19.0	11.6	10.2	1.4	0.0
	201-250만원	(538)	22.3	19.1	15.2	15.3	15.3	12.3	0.6	0.0
	251-350만원	(746)	20.1	21.4	17.4	15.7	14.0	10.7	0.7	0.0
	351-550만원	(1,749)	25.5	20.2	16.6	12.5	12.6	11.7	0.9	0.0
	551만원 이상	(715)	23.3	22.6	16.9	12.6	12.2	11.5	0.8	0.1
	모름/무응답	(8)	0.0	37.0	0.0	12.5	50.5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4)	21.3	17.3	21.1	21.1	9.6	9.6	0.0	0.0
	중학교 졸업	(273)	25.2	12.8	16.9	18.3	14.4	11.3	1.1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1,655)	26.2	20.3	17.5	12.9	12.6	10.0	0.6	0.0
	대학교 졸업/재학	(2,028)	21.1	22.3	15.8	13.7	13.5	12.6	1.0	0.0
	모름/무응답	(4)	0.0	25.7	0.0	0.0	49.2	25.1	0.0	0.0

&lt;표 3-2-3&gt; 국민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어 영역(1+2순위)

(단위 : 명, %)

		사례수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이 부적절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단어사용이 제한적	글로 쓸 때 내용연결 미흡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4,064)	44.8	34.2	31.9	31.8	29.1	25.8	1.4	0.0
성	남성	(2,046)	45.2	33.8	30.8	31.8	29.7	26.6	1.3	0.0
	여성	(2,018)	44.4	34.7	33.1	31.8	28.5	25.0	1.5	0.0
연령	20대	(761)	54.9	32.5	26.1	27.9	29.3	26.3	2.1	0.0
	30대	(867)	44.5	34.2	32.4	29.1	31.1	26.3	1.8	0.0
	40대	(990)	44.4	33.5	31.7	31.9	28.5	27.9	0.9	0.1
	50대	(887)	40.8	35.3	35.5	35.0	27.1	24.4	1.1	0.0
	60대 이상	(559)	38.5	36.4	33.8	36.1	29.8	22.9	1.3	0.0
거주지역	수도권	(2,096)	44.6	37.2	31.3	32.7	30.7	20.7	2.0	0.0
	강원	(117)	63.0	32.5	32.6	19.6	30.9	17.9	3.4	0.0
	충청권	(394)	52.8	31.7	32.5	26.9	25.1	29.7	0.5	0.0
	전라권	(410)	45.1	32.9	29.5	24.8	29.6	37.1	0.2	0.0
	경상권	(962)	38.2	29.7	33.7	37.4	27.9	31.3	0.5	0.1
	제주	(85)	60.0	34.1	35.3	20.0	16.5	25.9	4.7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93)	48.4	33.3	35.5	32.1	28.9	15.2	4.3	0.0
	101-200만원	(215)	43.2	36.7	35.5	31.6	27.4	22.8	1.9	0.0
	201-250만원	(538)	44.8	33.9	30.9	29.9	29.5	27.9	0.9	0.0
	251-350만원	(746)	44.6	36.3	32.5	29.5	29.5	26.0	1.2	0.0
	351-550만원	(1,749)	44.6	33.6	31.0	34.1	28.9	25.5	1.5	0.0
	551만원 이상	(715)	44.9	33.2	33.2	30.4	28.9	27.1	1.3	0.1
	모름/무응답	(8)	87.7	37.1	0.0	0.0	62.4	12.8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4)	37.4	37.7	36.6	31.6	28.9	25.9	0.0	0.0
	중학교 졸업	(273)	39.4	38.0	34.1	35.9	26.9	21.6	1.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1,655)	43.7	34.3	32.8	34.9	27.5	25.2	0.9	0.0
	대학교 졸업/재학	(2,028)	46.7	33.5	30.7	28.8	30.6	26.8	1.9	0.0
	모름/무응답	(4)	75.8	24.2	25.7	0.0	49.2	25.1	0.0	0.0



### 3)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문5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 의견들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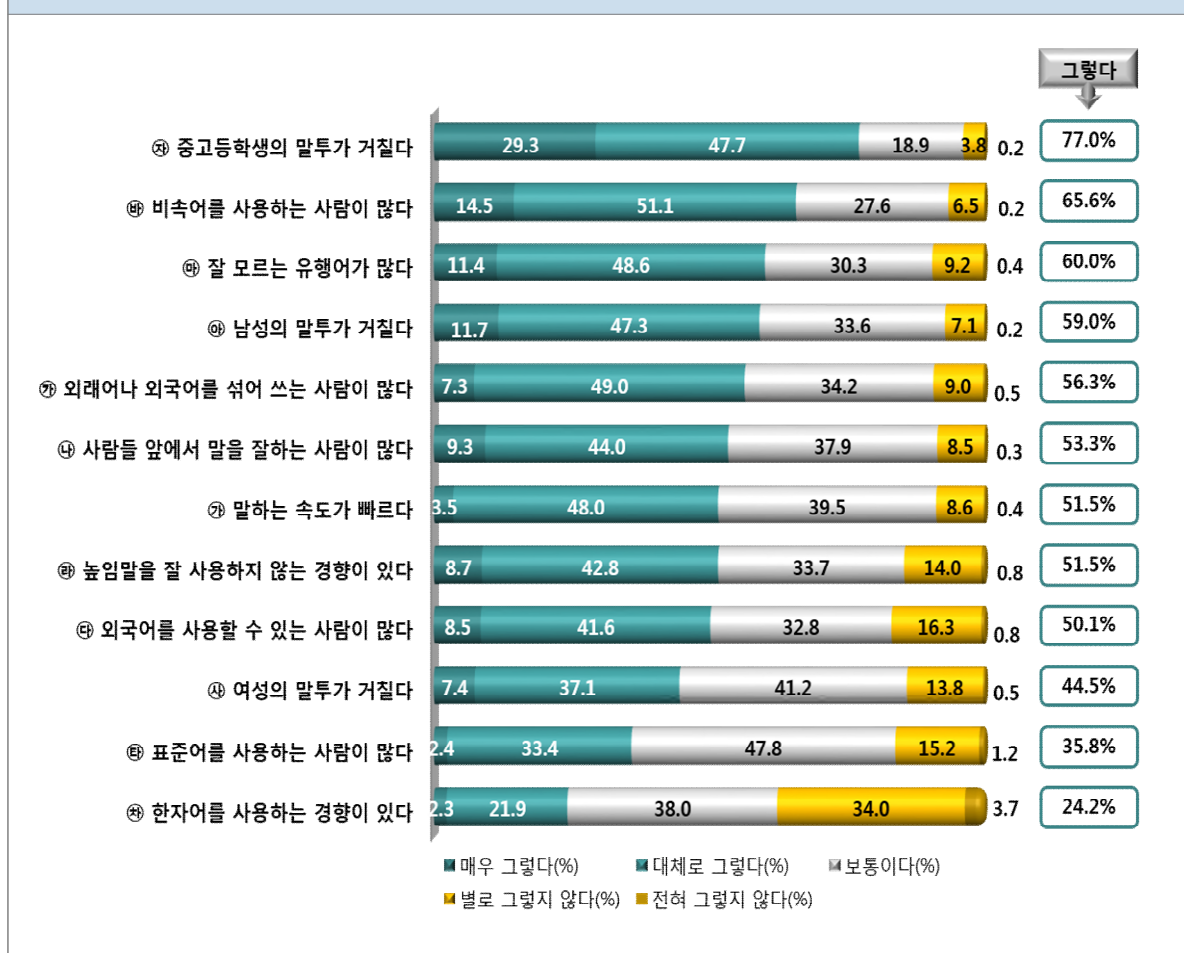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는 응답이 77.0%로 가장 높았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65.6%),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다'(60.0%), '남성의 말투가 거칠다'(59.0%) 등의 순으로 동의하고 있음.

반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에 대한 동의는 24.2%로 가장 낮게 나타남.

2010년에는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67.8%), '남성의 말투가 거칠다'(56.0%),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52.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2005년은 보기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

<그림 3-2-3>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응답자 특성

- ➔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수도권(81.0%)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20대 이상(68.3%), 수도권(71.9%) 및 충청권(70.3%) 거주자에게서 '그렇다'는 인식이 높았음.

<표 3-2-4>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다	남성의 말투가 거칠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쓰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
전 체		(5,000)	77.0	65.6	60.0	59.0	56.3	53.3
성	남성	(2,542)	76.2	64.5	61.0	57.3	56.5	52.9
	여성	(2,458)	77.9	66.8	59.0	61.0	55.9	53.7
연령	20대	(921)	78.1	68.6	46.0	60.6	61.8	52.6
	30대	(1,059)	77.8	64.2	54.6	58.3	58.0	52.3
	40대	(1,221)	77.6	64.3	62.3	58.5	53.2	50.7
	50대	(1,128)	75.2	64.4	67.5	59.8	55.1	56.9
	60대 이상	(671)	76.6	68.3	71.1	58.2	53.3	54.3
거주지역	수도권	(2,507)	81.0	71.9	63.0	60.8	63.7	56.9
	강원	(143)	78.1	67.9	53.8	54.5	44.0	37.3
	충청권	(502)	78.9	70.3	72.1	58.6	64.2	65.7
	전라권	(479)	75.3	44.9	52.4	66.0	47.9	61.2
	경상권	(1,269)	69.2	59.9	53.0	53.9	43.9	42.7
	제주	(100)	75.0	53.0	61.0	58.0	45.0	21.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73.3	62.8	64.6	60.8	38.6	41.7
	101-200만원	(252)	76.2	63.6	59.8	51.4	46.1	47.9
	201-250만원	(656)	78.9	64.6	62.7	58.8	56.0	51.5
	251-350만원	(886)	77.8	64.7	57.4	60.5	54.9	56.1
	351-550만원	(2,193)	77.8	66.7	61.6	60.5	57.4	54.2
	551만원 이상	(888)	74.1	65.8	56.2	56.7	60.4	52.5
	모름/무응답	(12)	49.7	49.8	67.0	41.1	8.2	49.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68.5	63.6	70.8	59.1	45.5	55.1
	중학교 졸업	(332)	73.8	65.0	71.6	56.8	51.0	56.7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77.8	65.7	64.9	61.0	56.0	53.3
	대학교 졸업/재학	(2,510)	77.4	65.7	53.9	57.9	57.8	52.7
	모름/무응답	(7)	57.4	86.2	86.2	28.9	14.2	57.5

<표 3-2-4>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계속)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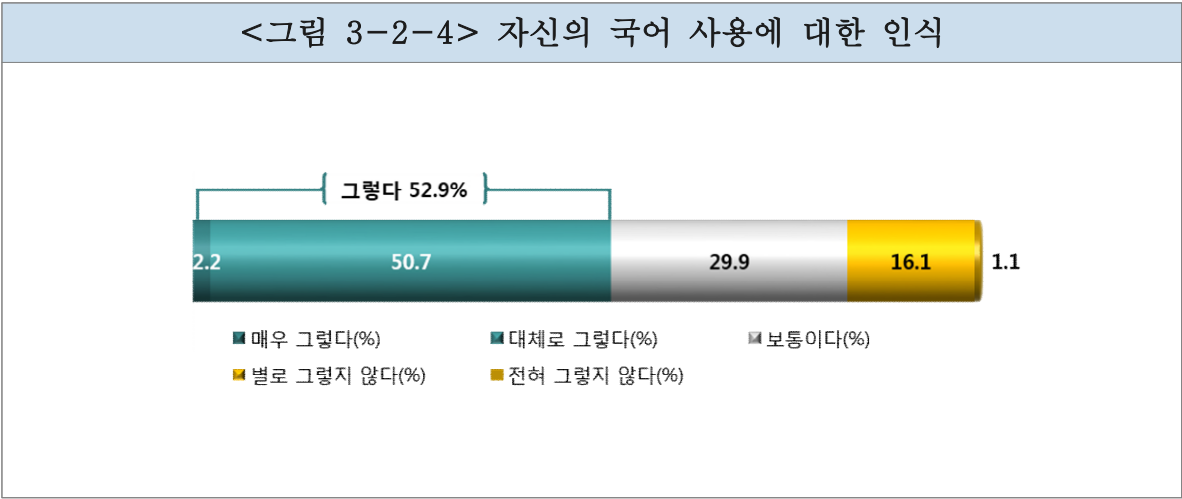
		사례수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높임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여성의 말투가 거칠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전 체		(5,000)	51.5	51.5	50.1	44.5	35.8	24.2
성	남성	(2,542)	50.9	51.4	50.6	45.0	35.7	25.8
	여성	(2,458)	52.2	51.5	49.6	44.0	36.0	22.5
연령	20대	(921)	50.8	45.5	55.4	40.5	34.9	24.3
	30대	(1,059)	50.7	51.3	52.9	42.1	35.3	21.2
	40대	(1,221)	50.9	52.5	47.7	46.3	34.7	24.2
	50대	(1,128)	52.9	53.2	47.4	46.0	35.8	24.1
	60대 이상	(671)	52.7	54.9	47.7	47.7	39.7	28.7
거주지역	수도권	(2,507)	49.0	57.9	54.3	45.8	40.8	23.9
	강원	(143)	36.3	28.7	23.7	42.6	20.4	23.8
	충청권	(502)	60.4	54.2	62.6	46.1	46.4	33.7
	전라권	(479)	62.4	44.9	43.8	49.2	44.4	25.0
	경상권	(1,269)	52.2	44.1	44.5	40.4	21.1	20.6
	제주	(100)	32.0	35.0	22.0	34.0	26.0	26.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4.2	42.5	31.1	39.0	31.9	21.3
	101-200만원	(252)	52.9	50.1	37.4	44.1	28.5	23.4
	201-250만원	(656)	54.1	46.8	44.2	45.2	33.4	22.4
	251-350만원	(886)	50.4	50.7	50.7	46.2	36.6	21.0
	351-550만원	(2,193)	51.8	52.1	51.7	45.0	37.2	25.9
	551만원 이상	(888)	51.2	55.3	56.1	42.0	36.2	25.1
	모름/무응답	(12)	8.5	58.5	41.7	24.7	16.6	16.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52.9	51.2	42.7	57.5	34.6	20.5
	중학교 졸업	(332)	50.0	50.2	49.4	47.7	36.1	29.2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3.2	53.3	47.7	47.0	35.4	24.8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0.4	50.1	52.6	41.4	36.3	23.1
	모름/무응답	(7)	28.9	42.8	42.3	14.6	14.3	42.6

4) 자신의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문6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의 국어 사용에 대해서는 과반(52.9%)이 ‘바르게 쓰고 있다(그렇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바르게 쓰지 못한다(그렇지 않다)’는 부정 평가는 17.2%로 나타남.
- 일반인들의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바르게 사용하지 못함 61.8%) 대비 자신에 대해 관대한 평가(바르게 사용함 52.9%)를 하고 있음.



응답자 특성

- ➔ '바르게 쓰고 있다(그렇다)'는 응답은 전라권(64.8%) 거주자에게서 특히 높았고, '바르게 쓰지 못한다(그렇지 않다)'는 강원(24.4%) 거주자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3-2-5> 자신의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1.1	16.1	29.9	50.7	2.2	0.0	17.2	29.9	52.9	0.0
성	남성	(2,542)	1.3	16.5	29.0	51.0	2.2	0.0	17.8	29.0	53.2	0.0
	여성	(2,458)	0.8	15.8	30.8	50.4	2.2	0.0	16.6	30.8	52.6	0.0
연령	20대	(921)	0.9	17.0	31.2	49.0	1.9	0.0	17.9	31.2	50.9	0.0
	30대	(1,059)	1.2	14.6	29.6	52.4	2.1	0.0	15.9	29.6	54.5	0.0
	40대	(1,221)	0.6	17.3	29.1	51.3	1.8	0.0	17.8	29.1	53.1	0.0
	50대	(1,128)	0.9	16.1	28.3	52.1	2.6	0.0	17.0	28.3	54.7	0.0
	60대 이상	(671)	2.4	15.3	32.6	47.2	2.4	0.1	17.6	32.6	49.6	0.1
거주지역	수도권	(2,507)	0.8	17.1	27.2	52.3	2.6	0.0	17.9	27.2	54.9	0.0
	강원	(143)	1.3	23.1	37.2	36.4	2.0	0.0	24.4	37.2	38.4	0.0
	충청권	(502)	0.6	12.1	37.9	46.8	2.6	0.0	12.7	37.9	49.4	0.0
	전라권	(479)	0.4	11.5	23.3	64.1	0.6	0.0	11.9	23.3	64.8	0.0
	경상권	(1,269)	2.1	16.5	33.8	46.1	1.5	0.0	18.6	33.8	47.6	0.0
	제주	(100)	0.0	20.0	29.0	46.0	5.0	0.0	20.0	29.0	51.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1.7	17.8	32.8	45.1	2.6	0.0	19.5	32.8	47.7	0.0
	101-200만원	(252)	0.4	16.6	36.7	45.1	1.2	0.0	17.0	36.7	46.4	0.0
	201-250만원	(656)	2.1	18.6	30.2	46.9	2.1	0.0	20.8	30.2	49.0	0.0
	251-350만원	(886)	0.8	16.0	28.6	52.1	2.5	0.0	16.8	28.6	54.6	0.0
	351-550만원	(2,193)	1.0	16.3	28.8	52.0	1.9	0.0	17.3	28.8	53.9	0.0
	551만원 이상	(888)	0.9	13.8	31.5	51.0	2.8	0.0	14.7	31.5	53.8	0.0
	모름/무응답	(12)	0.0	8.3	24.3	67.5	0.0	0.0	8.3	24.3	67.5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0.7	15.8	37.1	43.2	3.2	0.0	16.5	37.1	46.4	0.0
	중학교 졸업	(332)	2.4	16.3	29.2	50.2	1.8	0.0	18.7	29.2	52.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1.1	17.2	31.1	48.5	2.0	0.0	18.4	31.1	50.5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0.9	15.3	28.6	52.9	2.3	0.0	16.1	28.6	55.2	0.0
	모름/무응답	(7)	0.0	0.0	28.1	71.9	0.0	0.0	0.0	28.1	71.9	0.0

# 나. 높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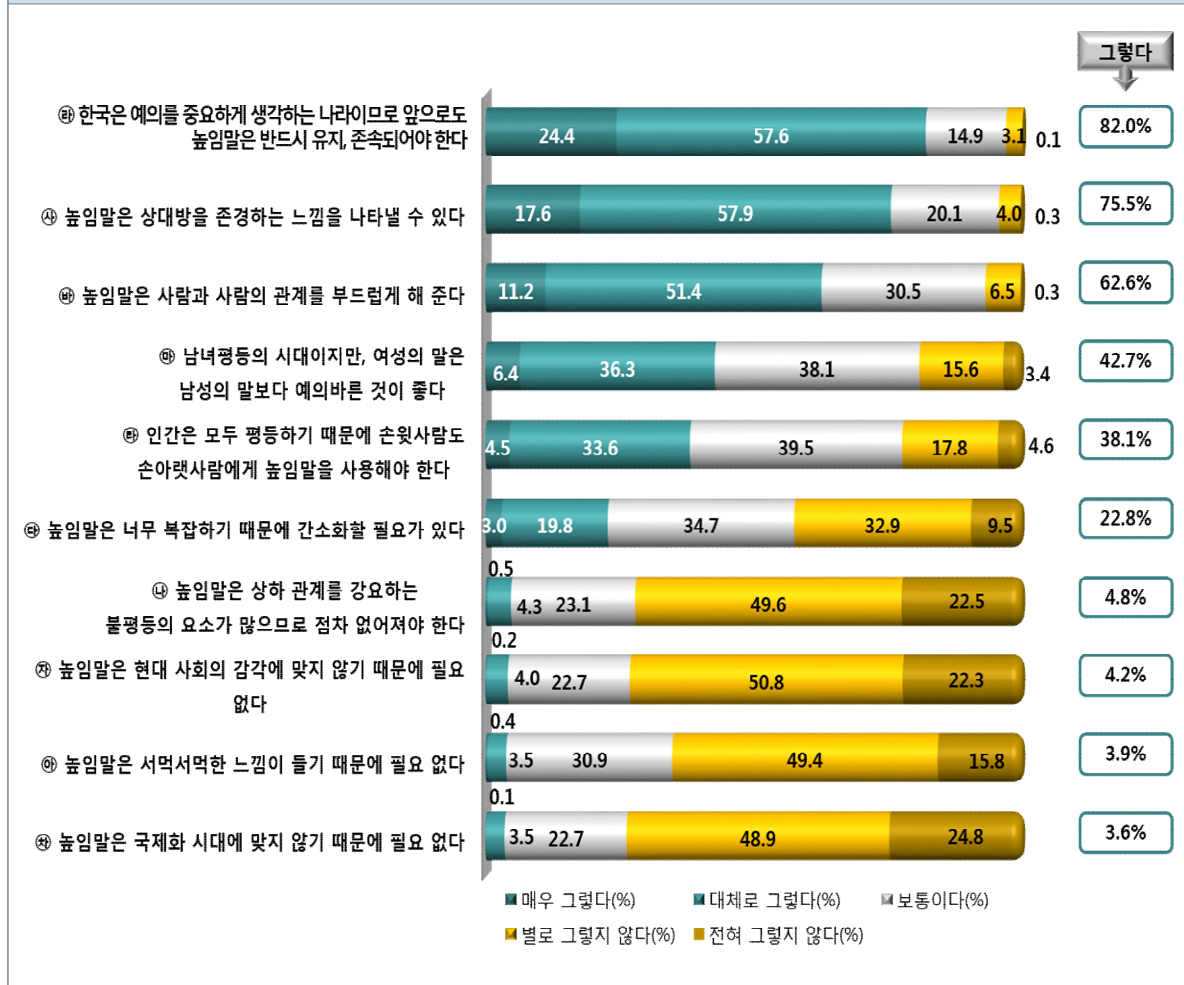
## 1)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

문7

다음은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입니다. 다음 각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므로 앞으로도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가 82.0%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방을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75.5%),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준다’(62.6%) 또한 과반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상하 관계 강요 등 불평등 요소가 많아 없어져야 한다’(4.8%), ‘현대 사회의 감각에 맞지 않아 필요 없다’(4.2%),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어 필요 없다’(3.9%),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아 필요 없다’(3.6%)는 의견들은 긍정 인식이 5% 미만으로 나타남.
- 2005년과 2010년에도 1~3순위 결과가 올해와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3-2-5>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



응답자 특성

- ➡ '높임말은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라권(89.8%) 지역,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남.
- ➡ '상대방을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낸다'의 긍정 50대 이상, 제주(84.0%) 및 전라권(82.1%) 지역에서 높았음.

<표 3-2-6>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높임말은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 준다	여성은 남성의 말보다 예의바른 것이 좋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높임말 사용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한 요소가 많으므로 점차 없어져야 한다	현대사회 감각에 맞지 않게 필요 없다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기에 필요 없다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게 필요 없다
전 체		(5,000)	82.0	75.5	62.6	42.7	38.1	22.8	4.8	4.2	3.9	3.6
성	남성	(2,542)	81.3	76.1	62.8	44.5	36.9	23.7	5.2	4.3	3.8	3.8
	여성	(2,458)	82.6	74.8	62.5	40.9	39.4	21.9	4.3	4.0	4.0	3.3
연령	20대	(921)	75.2	73.9	55.0	36.5	37.3	26.7	5.3	5.1	3.8	3.6
	30대	(1,059)	78.4	75.5	60.9	35.5	36.5	25.2	5.7	5.1	4.1	4.3
	40대	(1,221)	84.0	72.5	60.9	42.9	36.8	22.3	4.4	3.1	4.1	3.4
	50대	(1,128)	85.7	78.0	67.8	48.2	38.7	19.9	4.6	4.1	4.0	3.7
	60대 이상	(671)	86.8	78.7	70.3	53.1	43.4	19.6	3.4	3.6	3.3	2.1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82.6	78.1	62.8	40.6	37.5	22.9	4.9	4.7	4.0	4.0
	강원	(143)	84.6	69.9	59.2	28.6	39.2	16.8	.7	0.7	0.7	0.0
	충청권	(502)	74.7	72.3	62.4	38.7	43.2	35.1	9.6	5.8	6.0	4.6
	전라권	(479)	89.8	82.1	75.9	61.1	39.4	14.6	.8	1.0	0.8	0.8
	경상권	(1,269)	81.1	69.1	58.6	44.7	37.6	21.6	4.7	3.8	4.1	3.5
	제주	(100)	71.0	84.0	55.0	22.0	28.0	21.0	4.0	9.0	7.0	5.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77.9	76.1	59.0	43.3	43.5	22.9	6.2	2.7	4.4	2.7
	101-200만원	(252)	86.1	76.8	61.3	46.8	44.4	12.4	3.2	3.2	2.4	2.0
	201-250만원	(656)	84.3	78.1	64.9	46.2	41.7	21.0	3.1	2.9	3.5	2.1
	251-350만원	(886)	79.0	72.3	61.8	38.7	36.4	21.2	6.5	4.8	4.1	3.9
	351-550만원	(2,193)	83.0	75.9	62.7	43.5	37.0	22.9	4.3	4.3	4.2	3.7
	551만원 이상	(888)	80.3	75.2	62.8	41.5	37.8	28.7	5.5	4.4	3.7	4.4
	모름/무응답	(12)	49.9	75.2	33.3	8.5	33.1	8.5	16.4	33.2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87.4	78.6	69.8	55.5	56.4	18.9	4.8	3.1	3.9	0.8
	중학교 졸업	(332)	87.6	75.6	70.4	57.5	42.2	18.0	3.6	4.3	4.2	3.9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83.1	74.6	63.2	44.9	39.3	20.4	4.9	4.1	3.9	3.5
	대학교 졸업/재학	(2,510)	80.1	76.0	60.8	38.3	35.7	25.6	4.8	4.3	3.9	3.7
	모름/무응답	(7)	57.5	71.8	71.8	43.1	42.8	14.3	13.8	13.8	14.4	0.0



## 2) 가정에서의 높임말 사용

문8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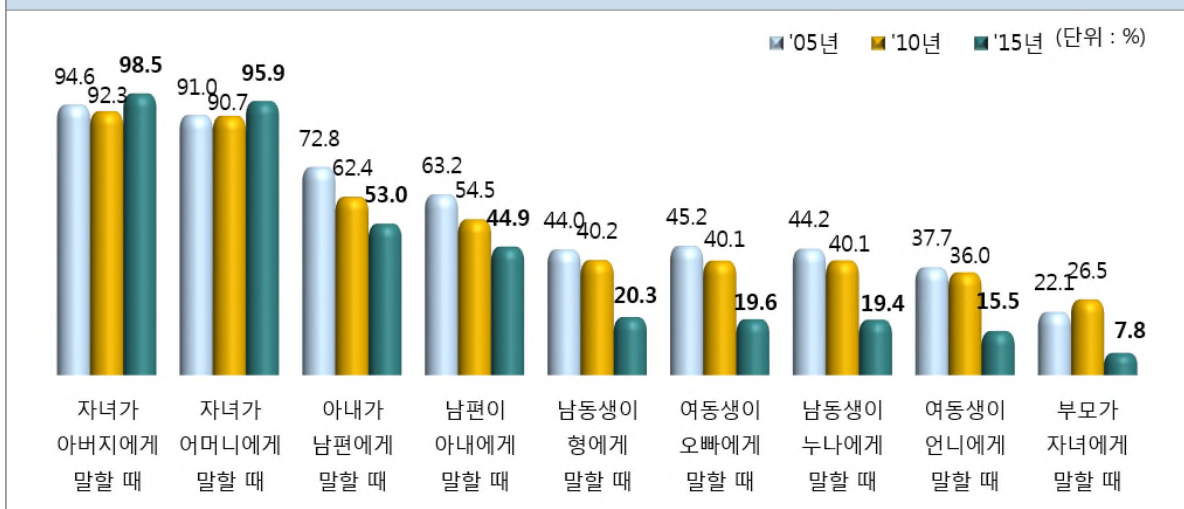
가정에서 높임말 사용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부모님께(아버지 98.5%, 어머니 95.9%) 말할 때'가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부부 간의 대화' 상황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53.0%)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4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과 2010년에도 부모님께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부부 간이라도 남편에게 더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이어져오고 있음. 반면, 형제자매 간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5년과 2010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2005년과 2010년에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와 비교함.

<그림 3-2-6> 가정에서의 높임말 사용



응답자 특성

- ➡ ‘아버지에게’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청권(100.0%), 제주(100.0%), 수도권(99.6%)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충청권(98.6%) 지역은 ‘어머니에게’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부부 간의 대화’ 상황에 대해서는 타 지역 대비 전라권 지역에서 견해 차이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7> 가정에서의 높임말 사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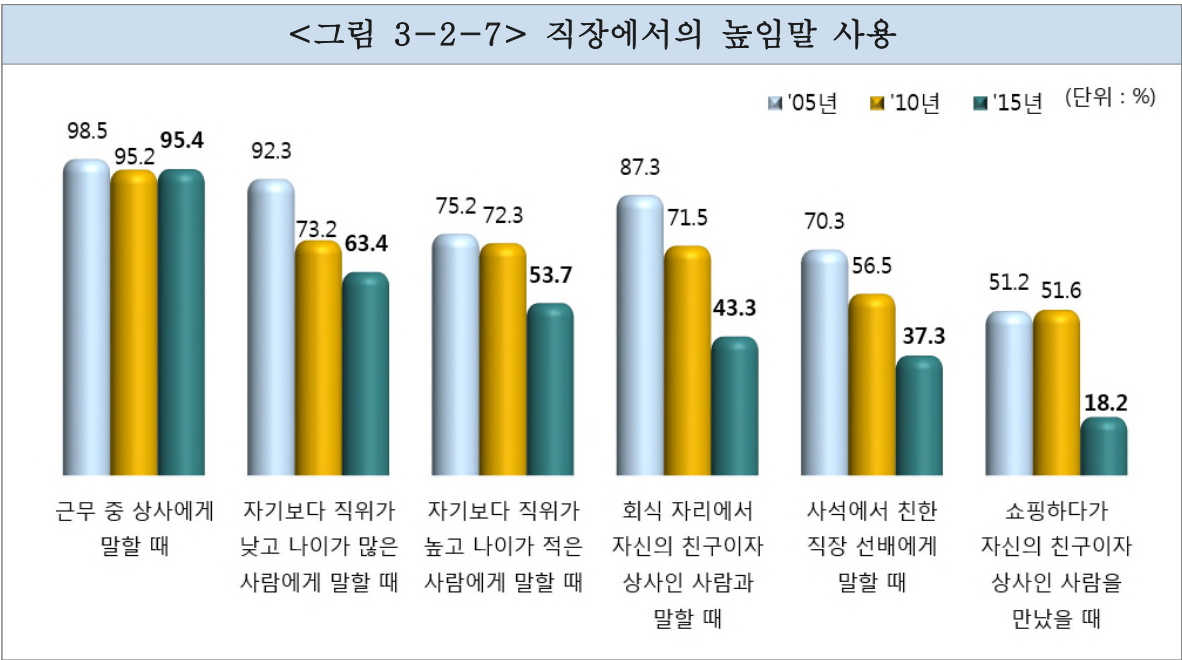
		사례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자녀가 어머니에게 말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	남동생이 형에게 말할 때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할 때	남동생이 누나에게 말할 때	여동생이 언니에게 말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전 체		(5,000)	98.5	95.9	53.0	44.9	20.3	19.6	19.4	15.5	7.8
성	남성	(2,542)	98.6	96.3	51.6	42.2	21.9	21.6	21.1	17.1	8.0
	여성	(2,458)	98.4	95.4	54.4	47.8	18.7	17.4	17.6	13.7	7.6
연령	20대	(921)	98.6	94.9	42.9	37.8	15.2	16.0	14.2	11.9	6.4
	30대	(1,059)	98.0	95.2	51.0	43.6	17.9	17.6	17.5	14.3	8.1
	40대	(1,221)	98.4	96.3	52.7	45.2	21.2	17.9	20.8	14.9	9.4
	50대	(1,128)	98.8	96.2	57.8	48.5	21.6	21.5	19.9	16.7	6.6
	60대 이상	(671)	98.8	96.9	62.2	50.5	27.3	27.0	26.0	20.9	8.5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99.6	97.1	50.3	43.1	17.8	14.8	15.9	11.6	9.4
	강원	(143)	94.4	91.7	73.4	59.5	15.4	15.4	18.3	14.7	9.1
	충청권	(502)	100.0	98.6	61.0	51.6	13.2	11.8	12.6	7.0	4.8
	전라권	(479)	96.7	96.9	62.0	60.3	59.4	64.0	60.0	59.0	9.4
	경상권	(1,269)	96.8	92.4	48.8	38.7	12.5	14.2	12.2	8.3	5.0
	제주	(100)	100.0	95.0	60.0	42.0	38.0	39.0	39.0	38.0	12.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99.1	97.3	62.0	52.3	26.6	26.6	28.4	17.7	8.7
	101-200만원	(252)	97.2	94.8	55.1	48.7	20.3	21.0	21.0	16.6	10.4
	201-250만원	(656)	97.6	94.8	60.2	50.6	26.4	25.8	26.5	22.1	7.8
	251-350만원	(886)	99.0	96.4	52.2	43.9	22.1	20.8	21.8	17.8	10.6
	351-550만원	(2,193)	98.8	96.3	51.6	43.3	18.3	17.7	17.1	13.4	7.1
	551만원 이상	(888)	98.2	94.9	50.5	44.2	18.3	17.3	15.8	12.7	6.2
	모름/무응답	(12)	100.0	100.0	16.1	16.1	16.3	8.2	8.2	8.2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99.2	96.9	59.0	52.6	29.1	29.2	27.5	15.7	7.9
	중학교 졸업	(332)	98.8	95.7	59.7	50.3	25.3	24.1	22.8	18.9	6.7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98.5	96.0	53.6	43.9	19.9	18.9	19.0	14.6	8.6
	대학교 졸업/재학	(2,510)	98.4	95.7	51.4	44.7	19.6	19.1	18.8	15.7	7.4
	모름/무응답	(7)	100.0	100.0	14.6	14.6	13.8	0.0	0.0	0.0	0.0

3) 직장에서의 높임말 사용

문9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직장에서 높임말 사용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근무 중 상사에게 말할 때’라는 응답이 9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자기보다 직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63.4%), ‘자기보다 직위가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53.7%)가 높게 나타나 직위보다는 나이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이자 상사인 경우에는 ‘회식’(43.3%)과 ‘쇼핑(사석)’(18.2%) 등 공적 및 사적인 공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남.
- 2005년과 2010년에도 상사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기타 상황에 따라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2005년과 2010년에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와 비교함.



응답자 특성

- ➔ ‘근무 중 상사에게’는 제주(98.0%)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전라권(81.3%) 지역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직위가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는 20대(58.7%), 강원(64.3%) 및 제주(64.0%) 지역, 대학교 졸업/재학(5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8> 직장에서의 높임말 사용

(단위 : 명, %)

		사례 수	근무 중 상사에게 말할 때	자기보다 직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	자기보다 직위가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	회사/직장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람과 말할 때	사석에서 친한 직장 선배에게 말할 때	쇼핑하다가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람을 만났을 때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95.4	63.4	53.7	43.3	37.3	18.2	0.0
성	남성	(2,542)	95.6	62.4	52.7	42.8	38.0	17.5	0.0
	여성	(2,458)	95.3	64.3	54.7	43.8	36.6	18.9	0.0
연령	20대	(921)	95.0	65.1	58.7	44.6	37.5	17.7	0.0
	30대	(1,059)	95.0	63.0	54.9	44.1	36.7	19.5	0.0
	40대	(1,221)	96.8	62.4	50.8	41.8	37.9	18.8	0.0
	50대	(1,128)	95.7	63.6	53.8	41.6	36.4	16.3	0.1
	60대 이상	(671)	93.7	63.0	50.1	45.5	38.6	19.1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97.3	59.3	54.6	41.9	33.6	17.8	0.0
	강원	(143)	97.3	73.4	64.3	25.2	37.1	12.6	0.0
	충청권	(502)	97.2	64.8	56.8	50.0	39.7	17.6	0.0
	전라권	(479)	93.8	81.3	55.8	68.6	75.0	25.9	0.0
	경상권	(1,269)	91.2	62.4	47.9	35.4	29.4	16.6	0.0
	제주	(100)	98.0	71.0	64.0	47.0	39.0	23.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96.5	66.4	54.0	39.8	32.8	17.7	0.0
	101-200만원	(252)	93.2	63.4	52.7	45.6	40.8	20.6	0.0
	201-250만원	(656)	95.1	67.6	52.1	47.1	38.6	21.1	0.0
	251-350만원	(886)	95.3	62.4	49.2	44.2	37.3	18.8	0.0
	351-550만원	(2,193)	96.2	62.6	53.8	42.3	36.4	17.2	0.0
	551만원 이상	(888)	94.4	62.9	59.5	41.4	38.5	17.5	0.1
	모름/무응답	(12)	100.0	41.4	41.4	58.1	24.4	16.3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93.8	70.1	51.9	42.4	31.5	16.4	0.0
	중학교 졸업	(332)	95.2	63.9	50.0	47.6	38.4	15.6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95.1	61.0	49.2	41.7	35.0	17.8	0.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95.8	65.0	58.0	44.0	39.4	19.0	0.0
	모름/무응답	(7)	100.0	29.1	0.0	42.4	14.6	13.8	0.0

#### 4) 학교에서의 높임말 사용

문10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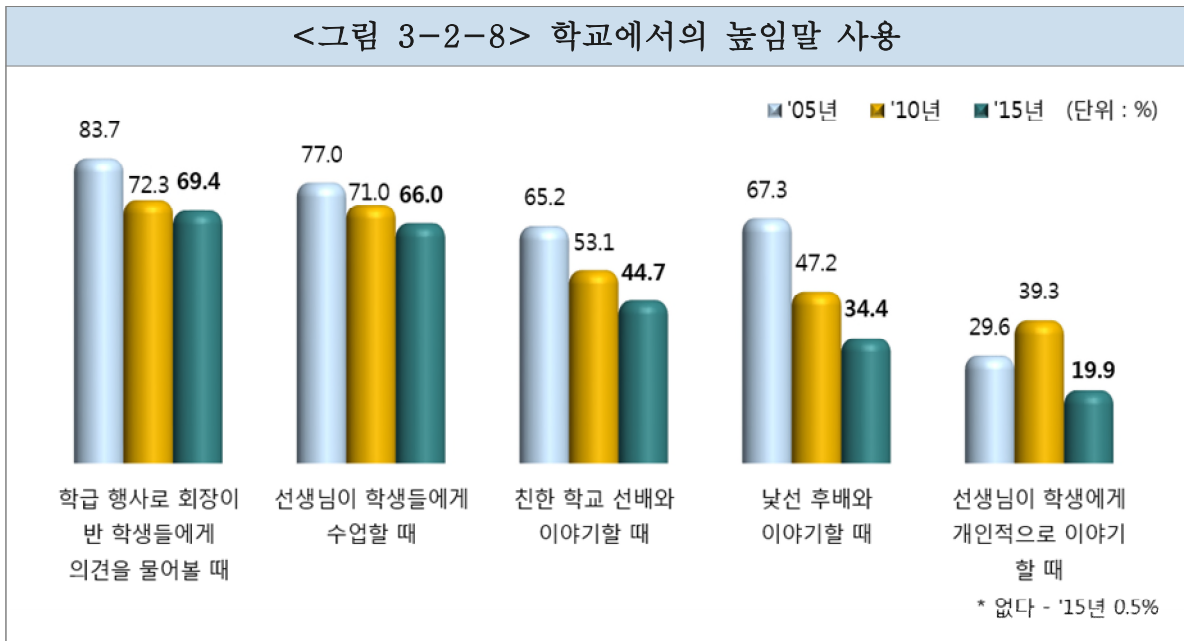
학교에서 높임말 사용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가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는 66.0%로 조사되었으나,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9.9%에 그침.

2005년과 2010년 대비 모든 상황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와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음.

\* 2005년과 2010년에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와 비교함.

<그림 3-2-8> 학교에서의 높임말 사용



응답자 특성

- ➔ 타 지역 대비 전라권 거주자에게서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78.7%),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80.7%), '친한 학교 선배와 이야기할 때'(73.3%)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9> 학교에서의 높임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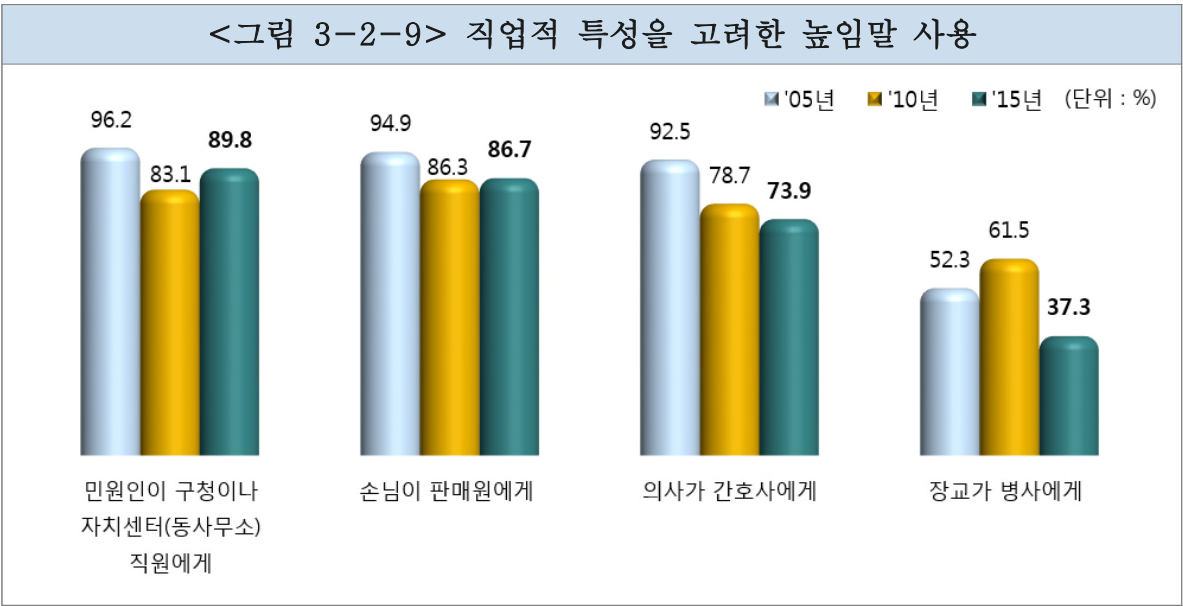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친한 학교 선배와 이야기할 때	낯선 후배와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69.4	66.0	44.7	34.4	19.9	0.5	0.0
성	남성	(2,542)	68.8	65.1	46.2	34.6	21.3	0.4	0.0
	여성	(2,458)	70.0	66.9	43.2	34.2	18.6	0.5	0.0
연령	20대	(921)	69.7	64.4	44.0	33.9	20.8	0.3	0.0
	30대	(1,059)	68.1	65.9	43.9	34.7	21.0	0.4	0.1
	40대	(1,221)	70.9	64.9	44.0	35.6	19.8	0.3	0.0
	50대	(1,128)	69.1	66.3	45.4	35.3	18.4	0.5	0.1
	60대 이상	(671)	68.9	69.6	47.2	30.8	20.1	0.9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70.0	60.8	43.0	35.0	19.1	0.9	0.1
	강원	(143)	66.0	79.1	40.6	44.4	24.5	0.0	0.0
	충청권	(502)	69.5	69.2	43.1	30.2	19.5	0.0	0.0
	전라권	(479)	78.7	80.7	73.3	24.4	18.8	0.0	0.0
	경상권	(1,269)	64.7	67.0	38.3	37.6	21.8	0.0	0.0
	제주	(100)	74.0	76.0	45.0	32.0	18.0	1.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70.9	71.8	49.7	24.9	20.2	0.0	0.0
	101-200만원	(252)	73.4	66.0	43.2	32.1	17.2	0.4	0.0
	201-250만원	(656)	66.1	75.0	46.7	32.6	19.4	0.2	0.0
	251-350만원	(886)	71.4	66.8	42.9	30.0	23.7	0.6	0.0
	351-550만원	(2,193)	70.2	64.1	44.5	34.9	19.4	0.6	0.1
	551만원 이상	(888)	66.8	62.2	45.7	40.5	18.7	0.2	0.0
	모름/무응답	(12)	41.5	83.5	24.5	32.9	25.1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72.4	67.0	43.4	36.2	14.9	0.0	0.0
	중학교 졸업	(332)	70.3	69.4	43.1	30.1	20.6	0.3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68.5	64.8	42.6	33.1	20.0	0.5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69.9	66.4	46.7	36.0	20.1	0.5	0.0
	모름/무응답	(7)	57.7	85.4	29.0	14.4	13.8	0.0	0.0

### 5)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높임말 사용

문11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

-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민원인이 구청이나 자치센터(동사무소) 직원에게’ 라는 응답이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손님이 점원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86.7%의 높은 비율을 보임.
  -  다음으로 ‘의사가 간호사에게는 73.9%, ‘장교가 병사에게는 37.3%가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민원인이 구청, 자치센터 직원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10년 전인 2005년보다는 감소했으나, 2010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결과이며, ‘손님이 점원에게’는 2005년 감소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05년과 2010년에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와 비교함.





응답자 특성

- ➔ '민원인이 구청이나 자치센터(동사무소) 직원에게'는 충청권(93.4%)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81.8%) 지역에서는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컸음.
- ➔ 한편, 전라권 지역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93.7%), '장교가 병사에게'(49.5%)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 지역보다 10-2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10>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높임말 사용

(단위 : 명, %)

		사례수	민원인이 구청이나 자치센터 직원에게	손님이 판매원에게	의사가 간호사에게	장교가 병사에게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89.8	86.7	73.9	37.3	0.0
성	남성	(2,542)	89.8	86.4	73.8	35.7	0.0
	여성	(2,458)	89.9	87.1	74.0	39.0	0.0
연령	20대	(921)	88.8	87.1	71.3	39.9	0.0
	30대	(1,059)	89.9	86.7	74.0	35.8	0.0
	40대	(1,221)	89.8	86.3	75.4	36.3	0.0
	50대	(1,128)	90.1	86.0	74.0	37.4	0.1
	60대 이상	(671)	90.8	88.0	74.3	38.1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88.6	85.3	72.1	35.3	0.0
	강원	(143)	81.8	86.0	75.4	39.8	0.0
	충청권	(502)	93.4	79.7	69.4	39.8	0.0
	전라권	(479)	91.9	92.1	93.7	49.5	0.0
	경상권	(1,269)	90.9	90.2	71.8	35.6	0.0
	제주	(100)	90.0	89.0	70.0	34.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89.3	86.8	66.6	36.4	0.0
	101-200만원	(252)	89.6	87.3	78.2	41.3	0.0
	201-250만원	(656)	86.9	87.4	73.0	40.6	0.0
	251-350만원	(886)	91.8	88.8	74.2	44.2	0.0
	351-550만원	(2,193)	90.9	86.4	73.5	35.1	0.0
	551만원 이상	(888)	87.8	84.9	75.0	32.5	0.1
	모름/무응답	(12)	66.1	66.4	74.8	41.9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91.4	86.7	78.9	33.1	0.0
	중학교 졸업	(332)	91.0	84.6	75.6	38.7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89.5	86.5	70.8	39.1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90.0	87.2	75.9	35.8	0.0
	모름/무응답	(7)	71.2	71.3	71.0	56.6	0.0


6) 사물 존칭에 대한 인식


문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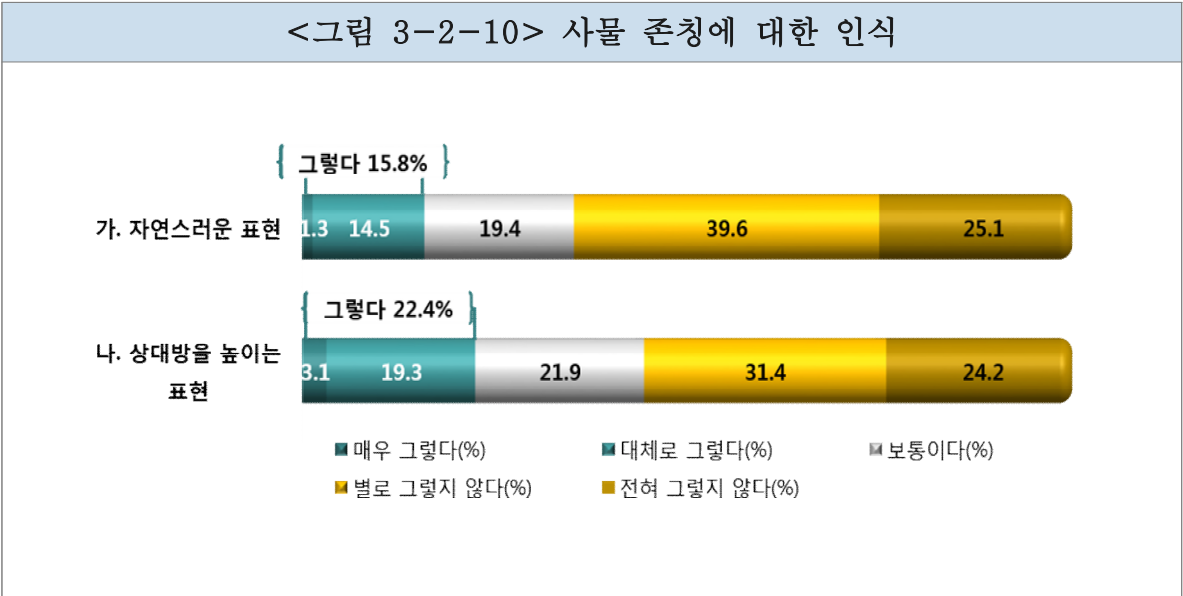
다음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요금은 2,000원이세요.
- 이 상품은 품질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사물 존칭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5.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과반(64.7%)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임.

 한편,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2.4%로 나타났지만 55.6%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응답자 특성

- ➔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응답은 경상권(29.3%) 지역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임.
- ➔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경상권(35.0%) 지역에서 두드러졌으며, 제주(29.0%) 지역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11> 사물 존칭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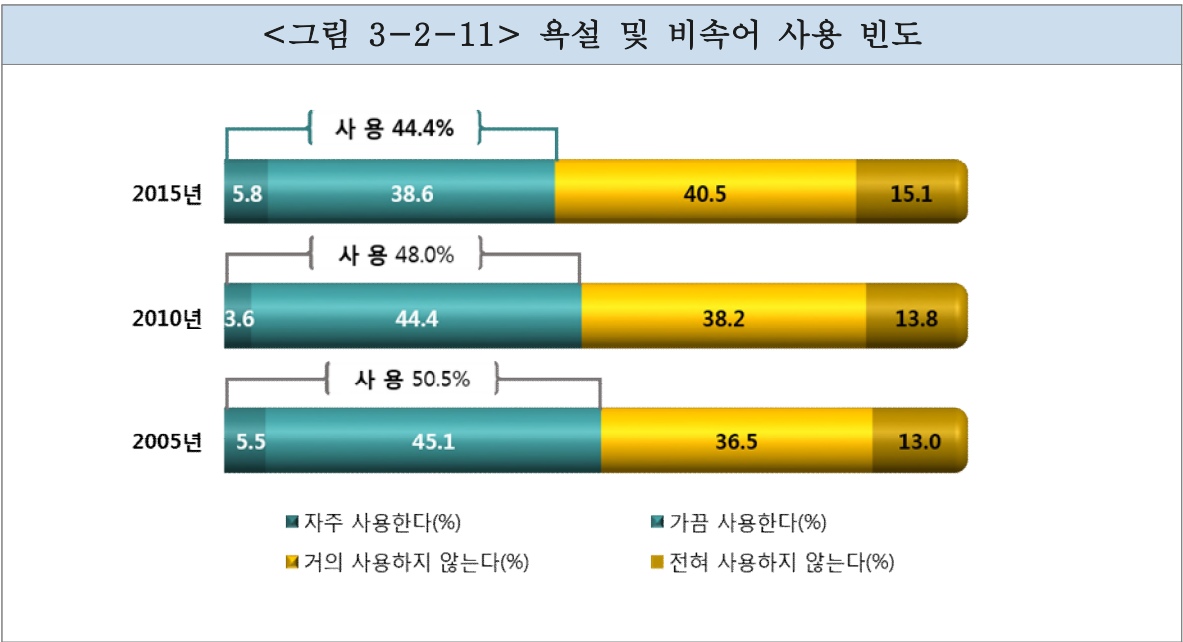
		사례수	자연스러운 표현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
전 체		(5,000)	15.8	22.4
성	남성	(2,542)	16.3	22.6
	여성	(2,458)	15.3	22.3
연령	20대	(921)	16.4	21.8
	30대	(1,059)	15.1	22.1
	40대	(1,221)	18.0	23.4
	50대	(1,128)	13.4	21.6
	60대 이상	(671)	15.9	23.4
거주지역	수도권	(2,507)	9.8	18.8
	강원	(143)	7.6	12.7
	충청권	(502)	18.7	19.7
	전라권	(479)	10.9	12.7
	경상권	(1,269)	29.3	35.0
	제주	(100)	14.0	29.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19.4	23.7
	101-200만원	(252)	13.1	19.9
	201-250만원	(656)	20.2	25.9
	251-350만원	(886)	13.1	21.7
	351-550만원	(2,193)	17.4	23.9
	551만원 이상	(888)	11.7	17.7
	모름/무응답	(12)	8.4	8.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2.8	22.9
	중학교 졸업	(332)	19.4	26.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15.2	23.9
	대학교 졸업/재학	(2,510)	15.4	20.8
	모름/무응답	(7)	0.0	14.6

다. 욕설 및 비속어

1)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

문13	귀하께서는 <u>욕설이나 비속어</u> 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	--

- ☞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44.4% = 자주 5.8% + 가끔 38.6%)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05년 이후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 폭은 크지 않으며,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05년보다 0.3%p 높은 5.8%로 조사됨.



응답자 특성

- ➔ 연령이 낮을수록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대는 절반 이상(64.5%)이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52.3%), 강원(59.1%) 지역도 절반 이상의 사용률을 보임.
- ➔ 반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63.7%), 연령이 높을수록, 전라권(66.6%), 경상권(61.5%), 제주(60.0%) 지역,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높았음.

<표 3-2-12>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

(단위 : 명, %)

		사례수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종합평가	
							사용	비사용
전 체		(5,000)	5.8	38.6	40.5	15.1	44.4	55.6
성	남성	(2,542)	7.5	44.7	36.0	11.7	52.3	47.7
	여성	(2,458)	4.1	32.2	45.1	18.6	36.3	63.7
연령	20대	(921)	14.9	49.6	28.5	7.1	64.5	35.5
	30대	(1,059)	5.0	42.9	41.0	11.1	47.9	52.1
	40대	(1,221)	4.3	35.8	46.7	13.1	40.2	59.8
	50대	(1,128)	2.9	33.9	43.2	20.0	36.8	63.2
	60대 이상	(671)	2.4	29.7	40.1	27.8	32.1	67.9
거주지역	수도권	(2,507)	6.6	41.8	37.6	13.9	48.4	51.6
	강원	(143)	9.8	49.3	31.1	9.8	59.1	40.9
	충청권	(502)	8.4	38.1	42.8	10.8	46.4	53.6
	전라권	(479)	2.5	30.8	48.2	18.5	33.4	66.6
	경상권	(1,269)	4.2	34.3	42.6	18.9	38.5	61.5
	제주	(100)	4.0	36.0	51.0	9.0	40.0	6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8.8	39.0	36.3	16.0	47.8	52.2
	101-200만원	(252)	6.0	35.3	39.8	19.0	41.2	58.8
	201-250만원	(656)	7.0	33.4	41.2	18.4	40.3	59.7
	251-350만원	(886)	5.1	38.8	42.3	13.8	43.9	56.1
	351-550만원	(2,193)	6.0	40.0	40.0	13.9	46.1	53.9
	551만원 이상	(888)	4.8	39.5	39.9	15.8	44.4	55.6
	모름/무응답	(12)	0.0	41.4	58.6	0.0	41.4	58.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0.8	29.2	41.7	28.3	30.0	70.0
	중학교 졸업	(332)	3.0	26.5	44.0	26.5	29.5	70.5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0	36.8	41.4	16.9	41.8	58.2
	대학교 졸업/재학	(2,510)	7.2	42.1	39.2	11.5	49.3	50.7
	모름/무응답	(7)	0.0	43.3	42.5	14.2	43.3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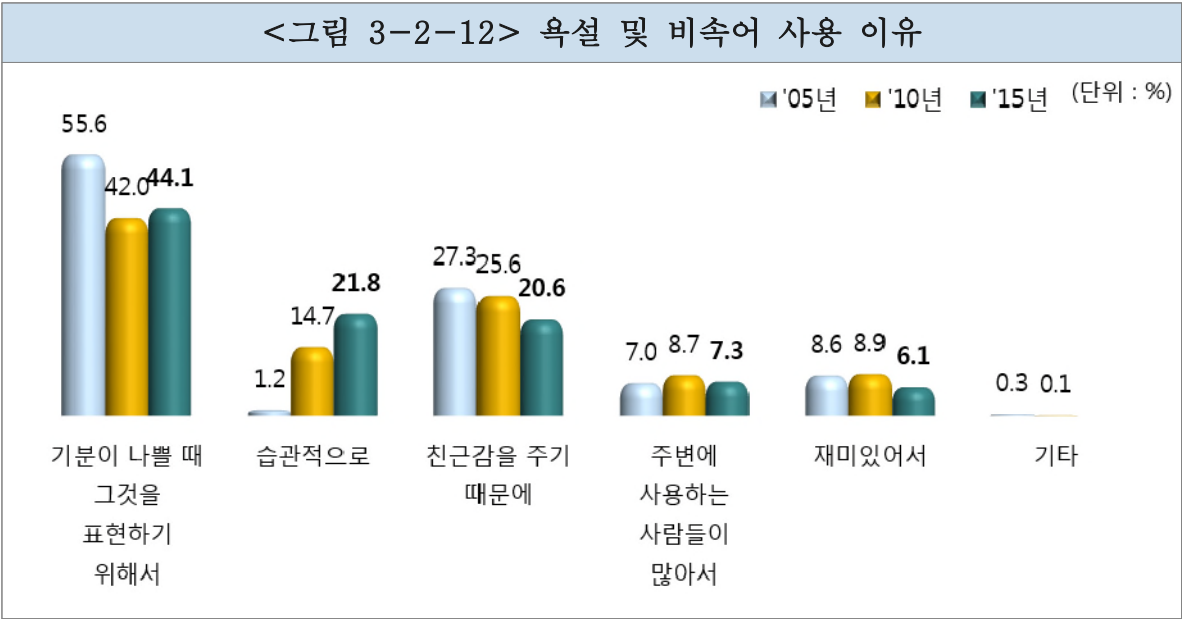
## 2)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이유

문13-1

(문13의 1,2번 응답자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이유(Base=2,222명)로는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습관적으로'(21.8%),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20.6%),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7.3%), '재미있어서'(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분이 나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005년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이지만, 2010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함.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폭도 큰 편임.

<그림 3-2-12>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이유



응답자 특성

- ➔ '기분이 나쁠 때 표현'한다는 응답은 여성(47.3%), 40대 이상, 제주(55.0%) 및 경상권(53.6%) 지역에서 높았음.
- ➔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0-30대, 충청권(38.2%) 지역,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전라권 지역에서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30.8%)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3-2-13>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이유

(단위 : 명, %)




		사례수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용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미있어서
전 체		(2,222)	44.1	21.8	20.6	7.3	6.1
성	남성	(1,329)	42.0	22.9	22.6	7.2	5.3
	여성	(893)	47.3	20.1	17.7	7.5	7.4
연령	20대	(594)	28.8	27.9	26.3	8.6	8.4
	30대	(507)	42.8	27.0	16.0	7.7	6.5
	40대	(491)	50.7	14.3	20.6	7.6	6.9
	50대	(415)	53.3	17.5	20.5	4.8	3.9
	60대 이상	(215)	56.3	18.1	16.8	7.4	1.4
거주지역	수도권	(1,216)	45.8	19.1	20.5	8.6	5.9
	강원	(85)	43.3	25.9	22.5	4.8	3.5
	충청권	(233)	23.6	38.2	27.0	4.3	6.9
	전라권	(159)	29.6	15.9	30.8	12.4	11.3
	경상권	(489)	53.6	21.5	15.1	4.9	4.9
	제주	(40)	55.0	25.0	12.5	0.0	7.5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54)	35.3	25.8	24.1	3.6	11.2
	101-200만원	(104)	46.4	26.8	18.3	3.7	4.8
	201-250만원	(265)	41.8	25.4	22.2	6.8	3.8
	251-350만원	(389)	40.7	21.8	23.2	7.5	6.9
	351-550만원	(1,011)	45.5	21.3	18.9	8.0	6.3
	551만원 이상	(394)	46.0	19.1	22.0	7.3	5.5
	모름/무응답	(5)	59.4	0.0	0.0	0.0	40.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8)	50.1	26.3	10.8	10.2	2.6
	중학교 졸업	(98)	48.1	23.5	26.5	0.9	1.0
	고등학교 졸업/재학	(846)	50.2	18.2	19.5	6.4	5.7
	대학교 졸업/재학	(1,237)	39.4	23.9	21.3	8.4	6.9
	모름/무응답	(3)	66.2	33.8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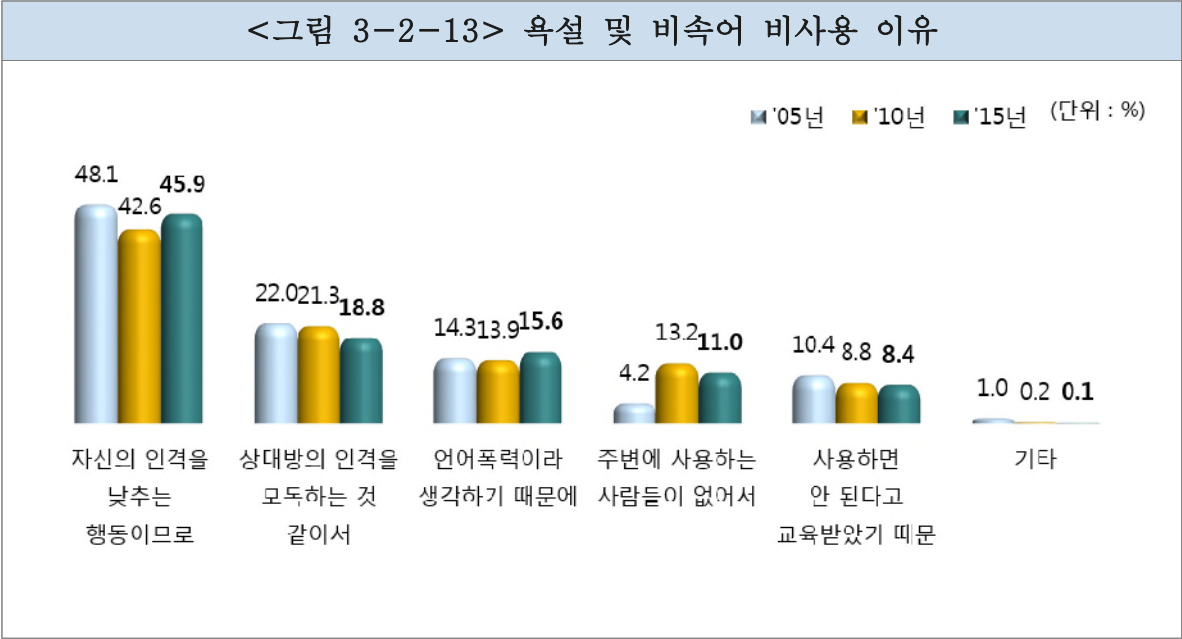
### 3) 욕설 및 비속어 비사용 이유

문13-2

(문13의 3,4번 응답자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Base=2,778명)로는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45.9%)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18.8%),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15.6%),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11.0%),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5년, 2010년에도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는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한편,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010년 크게 증가한 이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2-13> 욕설 및 비속어 비사용 이유



응답자 특성

- ➔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 라는 응답은 강원(53.3%) 및 충청권(51.7%) 지역, 가구소득 351-550만원(49.0%),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한편,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는 강원(27.9%) 지역,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는 제주(28.3%) 지역,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전라권(21.6%) 지역에서 특히 높았음.

<표 3-2-14> 욕설 및 비속어 비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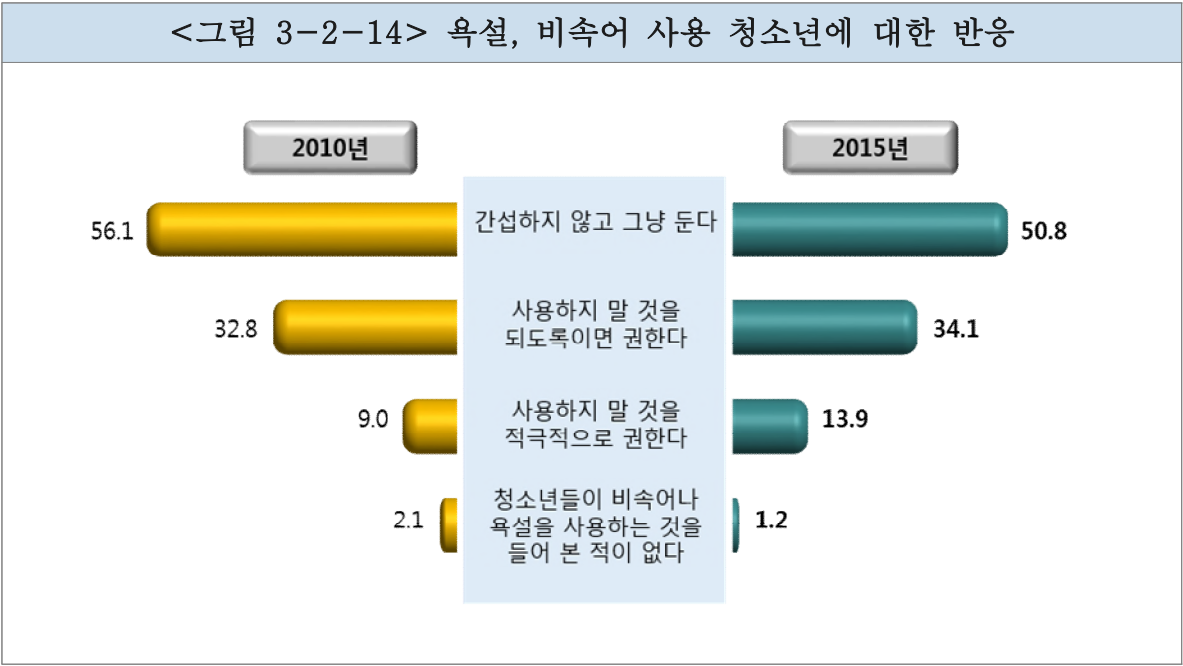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녀교육상	모름/무응답
전 체		(2,778)	45.9	18.8	15.6	11.0	8.4	0.1	0.2
성	남성	(1,213)	46.7	18.7	17.5	9.9	6.7	0.1	0.3
	여성	(1,565)	45.2	19.0	14.1	11.9	9.6	0.1	0.1
연령	20대	(327)	43.5	20.8	16.4	9.5	9.6	0.3	0.0
	30대	(552)	47.7	18.7	15.8	10.5	6.7	0.2	0.5
	40대	(730)	47.7	19.5	15.3	10.7	6.7	0.0	0.1
	50대	(713)	43.3	17.6	16.5	12.8	9.5	0.0	0.3
	60대 이상	(456)	46.4	18.7	13.8	10.6	10.3	0.2	0.0
거주지역	수도권	(1,291)	48.5	19.9	15.2	8.1	7.9	0.2	0.2
	강원	(58)	53.3	27.9	6.7	7.0	5.1	0.0	0.0
	충청권	(269)	51.7	14.6	21.9	8.9	3.0	0.0	0.0
	전라권	(320)	36.6	16.4	20.9	21.6	4.7	0.0	0.0
	경상권	(780)	43.5	18.8	11.6	13.2	12.5	0.0	0.4
	제주	(60)	36.7	20.0	28.3	3.3	11.7	0.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59)	37.3	23.8	12.0	13.7	13.2	0.0	0.0
	101-200만원	(148)	34.5	22.9	18.8	13.0	10.7	0.0	0.0
	201-250만원	(391)	42.9	19.0	15.0	11.5	11.3	0.3	0.0
	251-350만원	(497)	46.3	18.7	14.5	13.5	6.8	0.0	0.2
	351-550만원	(1,182)	49.0	18.2	15.8	9.6	7.0	0.2	0.2
	551만원 이상	(494)	44.6	18.4	16.1	10.7	9.6	0.0	0.6
	모름/무응답	(7)	56.4	28.9	14.7	0.0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9)	39.7	15.8	11.2	17.9	15.5	0.0	0.0
	중학교 졸업	(234)	42.6	18.8	17.2	12.9	8.5	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1,178)	45.9	20.4	15.2	10.6	7.6	0.2	0.1
	대학교 졸업/재학	(1,273)	46.8	17.6	16.0	10.6	8.6	0.1	0.4
	모름/무응답	(4)	74.7	25.3	0.0	0.0	0.0	0.0	0.0

4)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 대한 반응

문14 귀하께서는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으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는 의견이 절반 (50.8%)을 차지함.
- ☞ 다음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되도록이면 권한다’(34.1%), ‘사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13.9%)가 뒤를 이었으며, ‘청소년들이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음.
- ☞ 2010년 대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는 의견은 5.3%p 감소한 반면, 사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또는 ‘되도록’ 권한다는 의견은 각각 4.9%p, 1.3%p 증가함.



응답자 특성

- ➔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54.4%) 지역, 대학교 졸업/재학(53.4%)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용하지 말 것을 되도록 권한다'는 연령이 높을수록, 제주(41.0%) 지역,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한편, 제주(21.0%)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는 응답 또한 타 지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15>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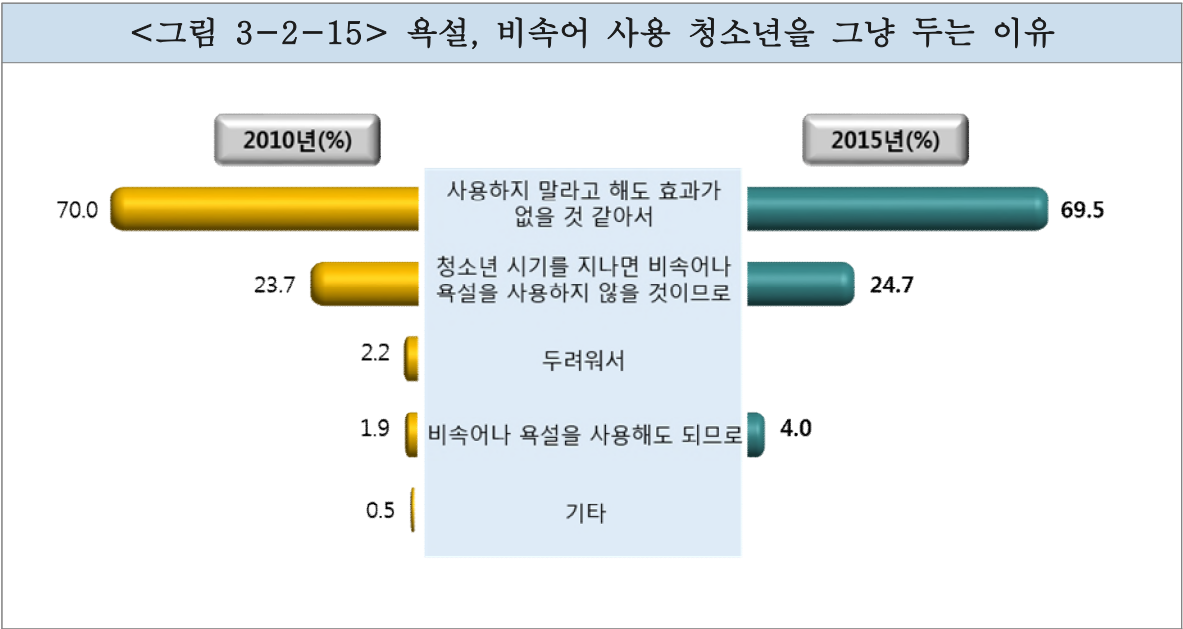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	사용하지 말 것을 되도록이면 권한다	사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청소년들이 비속어, 욕설 사용하는 것 들어본 적 없다
전 체		(5,000)	50.8	34.1	13.9	1.2
성	남성	(2,542)	51.2	33.2	14.5	1.0
	여성	(2,458)	50.4	35.0	13.3	1.3
연령	20대	(921)	69.0	23.3	6.6	1.1
	30대	(1,059)	52.3	34.5	11.9	1.3
	40대	(1,221)	45.9	36.8	16.4	0.8
	50대	(1,128)	44.1	36.4	17.9	1.6
	60대 이상	(671)	43.8	39.6	15.5	1.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54.4	33.7	11.3	0.6
	강원	(143)	43.4	38.4	16.8	1.4
	충청권	(502)	47.2	36.9	15.5	0.4
	전라권	(479)	46.4	37.2	14.2	2.3
	경상권	(1,269)	48.7	31.7	17.4	2.3
	제주	(100)	38.0	41.0	21.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0.8	39.0	17.6	2.6
	101-200만원	(252)	50.4	35.3	12.3	2.0
	201-250만원	(656)	46.8	36.9	15.2	1.1
	251-350만원	(886)	50.8	34.1	13.7	1.4
	351-550만원	(2,193)	51.0	34.1	13.9	0.9
	551만원 이상	(888)	54.4	31.2	13.0	1.4
	모름/무응답	(12)	57.6	25.5	16.9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5.7	32.3	19.7	2.4
	중학교 졸업	(332)	40.9	39.8	17.4	1.8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9.4	35.1	14.4	1.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3.4	32.7	12.7	1.2
	모름/무응답	(7)	71.5	14.2	14.3	0.0

5)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문14-1 (문14의 3번 응답자만) 그럼 서로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Base=2,541명)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69.5%)를 가장 많이 꼽음.
- ☞ 다음으로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비속어, 욕설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가 24.7%로 나타났으며,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해도 되므로’는 4.0%에 불과했음.
- ☞ 그냥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2010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해도 된다’는 응답이 2.1%p 소폭 증가함.



응답자 특성

- ➔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여성(71.4%), 60대 이상(75.6%), 제주(81.6%)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 반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0-50대(40대 27.1%, 50대 26.1%), 충청권(33.7%) 지역, 가구소득 201-250만원(28.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3-2-16> 욕설, 비속어 사용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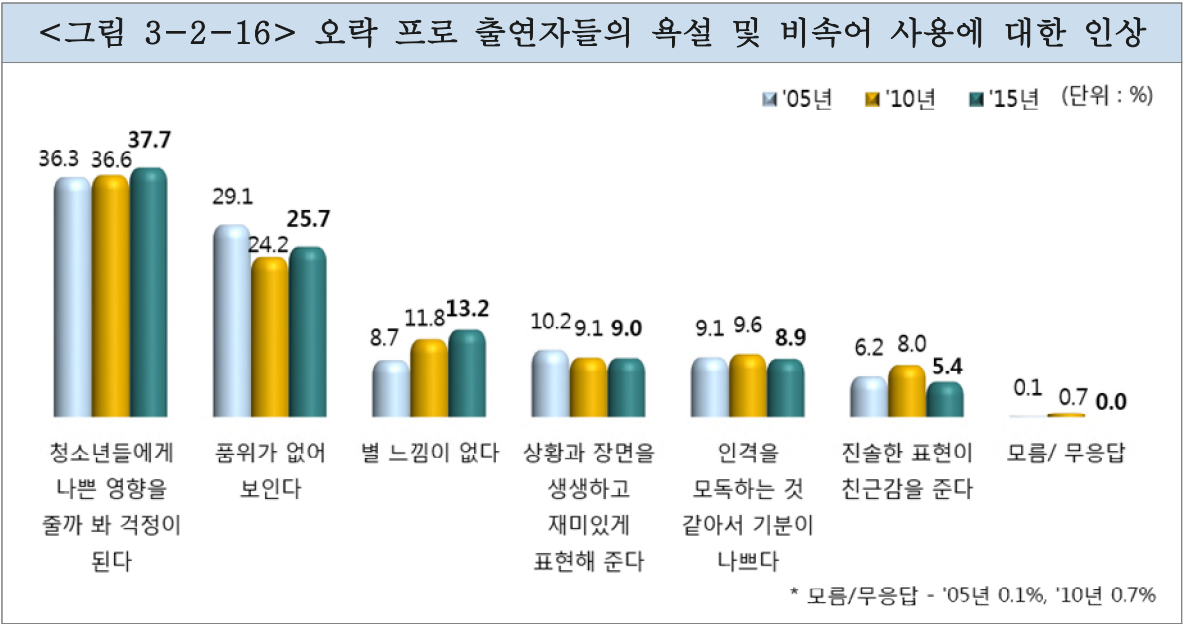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비속어, 욕설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해도 되므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2,541)	69.5	24.7	4.0	1.4	0.4
성	남성	(1,302)	67.8	26.3	4.4	1.2	0.4
	여성	(1,239)	71.4	23.0	3.7	1.6	0.3
연령	20대	(635)	68.4	24.8	4.8	1.4	0.5
	30대	(554)	71.7	23.8	3.8	0.7	0.0
	40대	(560)	67.7	27.1	3.6	1.1	0.5
	50대	(498)	67.0	26.1	3.9	2.6	0.4
	60대 이상	(294)	75.6	19.0	4.0	1.0	0.3
거주지역	수도권	(1,365)	70.4	23.5	4.7	1.1	0.3
	강원	(62)	67.5	19.6	1.6	9.8	1.5
	충청권	(237)	64.6	33.7	1.7	0.0	0.0
	전라권	(222)	65.8	25.6	4.5	3.1	1.0
	경상권	(617)	70.4	24.6	3.7	1.0	0.3
	제주	(38)	81.6	15.8	0.0	2.6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6)	65.1	24.1	10.8	0.0	0.0
	101-200만원	(127)	69.4	26.7	3.1	0.8	0.0
	201-250만원	(307)	65.1	28.1	3.9	2.6	0.3
	251-350만원	(450)	68.5	25.1	4.2	1.6	0.7
	351-550만원	(1,120)	71.9	23.2	3.6	1.2	0.2
	551만원 이상	(484)	68.6	25.2	4.5	1.2	0.4
	모름/무응답	(7)	43.4	28.7	14.2	0.0	13.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8)	72.2	24.4	0.0	1.7	1.7
	중학교 졸업	(136)	66.9	26.5	5.8	0.7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1,000)	69.9	24.1	4.2	1.5	0.2
	대학교 졸업/재학	(1,342)	69.3	25.0	3.9	1.3	0.5
	모름/무응답	(5)	80.7	0.0	19.3	0.0	0.0

6)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문15 다음 <보기>는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한 욕설이나 비속어 표현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된다’(37.7%)가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는 ‘품위가 없어 보인다’(25.7%), ‘상황과 장면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표현해 준다’(9.0%),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별 느낌이 없다’는 응답은 13.2%로 조사됨.
-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된다’와 ‘품위가 없어 보인다’는 부정적 의견이 2005년 이후 과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별 느낌이 없다’는 응답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을 점점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응답자 특성

- ➔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된다'는 응답은 여성(40.3%), 40대 이상(40대 43.3%, 50대 42.4%, 60대 이상 41.5%), 제주(54.0%) 및 전라권(44.2%) 지역,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40.8%, 101-200만원 44.4%),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 '품위가 없어 보인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 느낌이 없다'는 20대(21.4%), 전라권(16.9%) 지역, 가구소득 251-350만원(1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2-17>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단위 : 명, %)

		사례수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된다	품위가 없어 보인다	별 느낌이 없다	상황과 장면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표현해 준다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진솔한 표현이 친근감을 준다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37.7	25.7	13.2	9.0	8.9	5.4	0.0	0.0
성	남성	(2,542)	35.2	26.0	13.6	10.1	9.2	5.8	0.0	0.0
	여성	(2,458)	40.3	25.5	12.8	7.8	8.5	5.1	0.0	0.0
연령	20대	(921)	24.7	21.8	21.4	16.9	6.6	8.7	0.0	0.0
	30대	(1,059)	35.1	25.2	15.9	10.6	8.5	4.6	0.0	0.1
	40대	(1,221)	43.3	26.1	9.9	6.8	8.7	5.1	0.1	0.0
	50대	(1,128)	42.4	28.0	8.4	5.7	11.2	4.3	0.0	0.0
	60대 이상	(671)	41.5	27.3	12.2	5.2	8.7	5.1	0.0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33.7	27.9	15.1	8.9	9.2	5.2	0.0	0.0
	강원	(143)	39.2	25.0	6.2	14.7	8.5	5.6	0.0	0.7
	충청권	(502)	41.1	19.1	7.5	11.2	15.9	5.2	0.0	0.0
	전라권	(479)	44.2	18.8	16.9	7.2	7.1	5.8	0.0	0.0
	경상권	(1,269)	40.4	27.3	11.9	8.2	5.9	6.3	0.0	0.0
	제주	(100)	54.0	18.0	5.0	11.0	11.0	1.0	0.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0.8	23.9	11.3	10.7	5.3	8.0	0.0	0.0
	101-200만원	(252)	44.4	24.3	6.3	10.4	9.2	5.5	0.0	0.0
	201-250만원	(656)	39.2	24.2	14.3	6.8	9.8	5.3	0.2	0.2
	251-350만원	(886)	37.9	27.2	16.8	8.7	6.9	2.5	0.0	0.0
	351-550만원	(2,193)	38.0	24.8	12.3	8.8	9.6	6.4	0.0	0.0
	551만원 이상	(888)	33.5	28.4	13.1	10.7	8.5	5.9	0.0	0.0
	모름/무응답	(12)	33.9	17.0	32.7	0.0	16.5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9.7	21.2	7.0	8.7	11.1	2.4	0.0	0.0
	중학교 졸업	(332)	47.4	25.0	10.2	3.6	7.8	6.0	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39.3	26.7	12.7	7.2	9.4	4.7	0.0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4.7	25.2	14.3	11.2	8.4	6.1	0.0	0.0
	모름/무응답	(7)	0.0	57.5	28.0	0.0	14.4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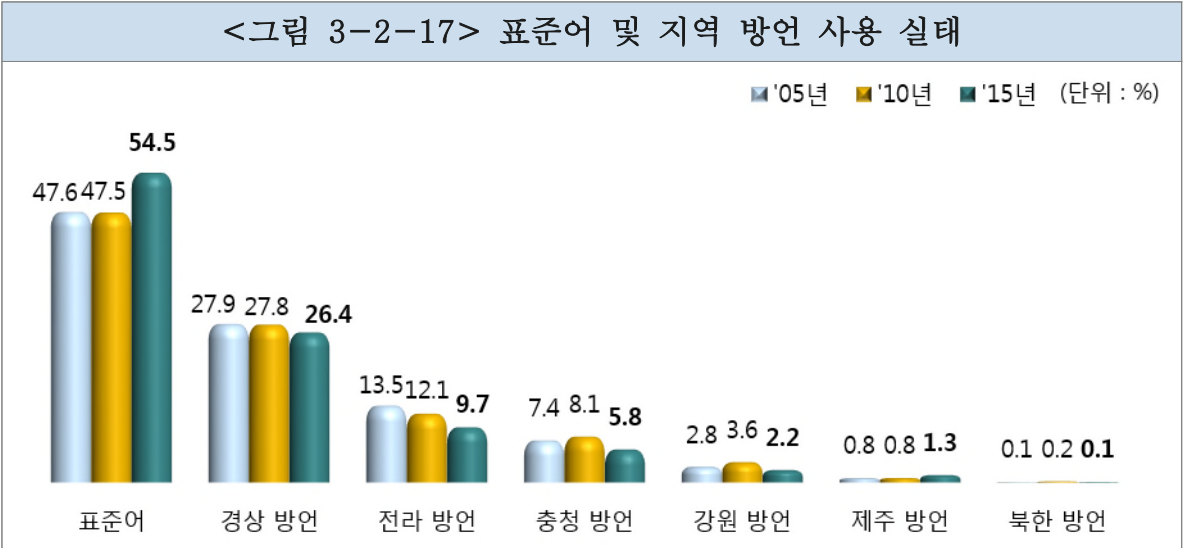


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

1) 표준어 및 지역 방언 사용 실태

문16	다음 중 귀하께서 <u>평소 사용하는 말</u> 은 어떤 것입니까?
-----	---------------------------------------

- 국민의 절반 이상(54.5%)은 평소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함.
- 지역 방언 중에서는 ‘경상 방언’이 2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라 방언’(9.7%), ‘충청 방언’(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준어’ 사용 비율은 2005년, 2010년에 47%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올해 7%p 상승하여 절반을 넘었고, 제주 방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방언의 사용 비율은 소폭씩 감소함.



응답자 특성

- ➔ '표준어' 사용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 251만원 이상(251-350만원 58.7%, 351-550만원 55.1%, 551만원 이상 60.0%), 대학교 졸업/재학(62.0%)에서 높았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53.9%)과 강원(49.7%) 지역에서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한편, 경상권 지역은 대부분이 경상 방언(93.5%)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어(6.1%)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음.

<표 3-2-18> 표준어 및 지역 방언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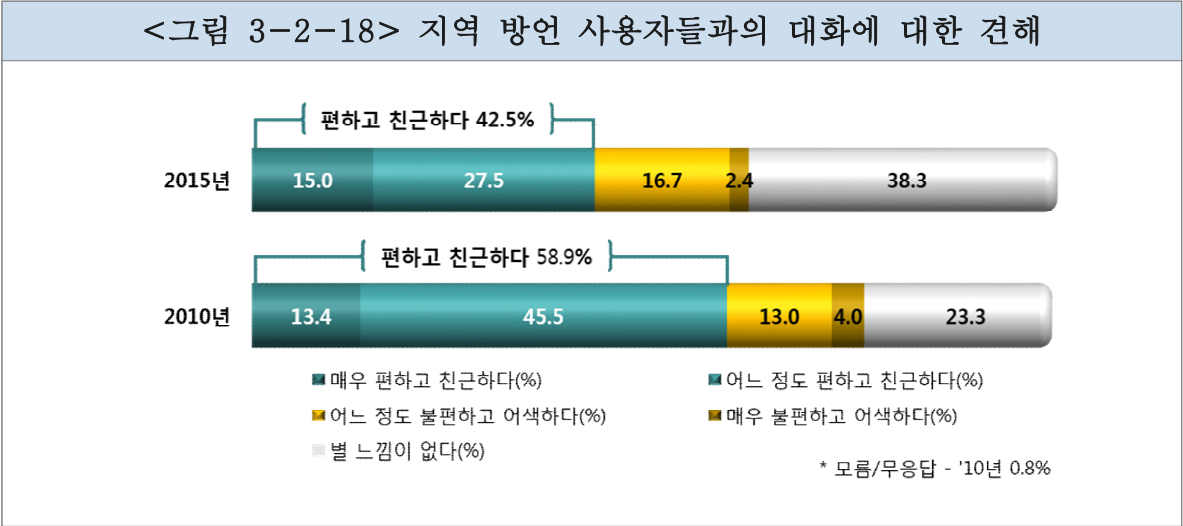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표준어	경상방언	전라방언	충청방언	강원방언	제주방언	북한방언
전 체		(5,000)	54.5	26.4	9.7	5.8	2.2	1.3	0.1
성	남성	(2,542)	55.1	26.2	10.0	5.4	2.1	1.3	0.0
	여성	(2,458)	53.9	26.7	9.4	6.2	2.4	1.3	0.1
연령	20대	(921)	64.6	22.9	6.4	3.7	1.2	1.1	0.1
	30대	(1,059)	62.9	23.5	7.1	3.4	2.0	1.0	0.1
	40대	(1,221)	53.6	26.5	10.5	6.0	2.1	1.2	0.1
	50대	(1,128)	46.9	28.9	12.0	8.0	2.8	1.6	0.0
	60대 이상	(671)	41.7	31.8	13.2	8.4	3.3	1.6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85.3	4.4	5.4	3.2	1.4	0.1	0.1
	강원	(143)	49.7	3.5	1.4	0.0	45.4	0.0	0.0
	충청권	(502)	53.9	2.6	0.6	41.3	1.6	0.0	0.0
	전라권	(479)	28.8	0.0	71.0	0.2	0.0	0.0	0.0
	경상권	(1,269)	6.1	93.5	0.2	0.0	0.1	0.2	0.0
	제주	(100)	32.0	4.0	1.0	1.0	1.0	61.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0.7	25.6	12.4	8.9	5.3	7.1	0.0
	101-200만원	(252)	37.9	25.1	14.7	8.7	9.2	3.6	0.8
	201-250만원	(656)	47.6	23.0	15.3	7.5	4.9	1.8	0.0
	251-350만원	(886)	58.7	20.8	12.5	5.8	1.2	0.9	0.1
	351-550만원	(2,193)	55.1	28.5	8.0	5.8	1.6	1.0	0.0
	551만원 이상	(888)	60.0	30.1	5.4	3.3	0.5	0.8	0.0
	모름/무응답	(12)	83.2	16.8	0.0	0.0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7.3	41.1	12.0	11.8	6.3	1.6	0.0
	중학교 졸업	(332)	29.4	38.0	17.3	10.2	3.9	0.9	0.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1.0	26.8	11.3	6.8	2.9	1.2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62.0	23.9	7.3	4.1	1.3	1.4	0.0
	모름/무응답	(7)	71.5	28.5	0.0	0.0	0.0	0.0	0.0

2) 지역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문16-1 (문16의 1번 응답자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표준어 사용자(Base=2,729명)를 대상으로 지역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이 42.5%(매우 15.0% + 어느 정도 27.5%)로 나타남.
- 반면,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응답은 19.1%(매우 2.4% + 어느 정도 16.7%)로 나타났으며, ‘별 느낌이 없다’는 38.3%로 조사됨.
- 2010년 대비 ‘편하고 친근하다’라는 의견이 16.4%p의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불편하고 어색하다’의 상승폭(▲2.1%p)은 상대적으로 작았음.



응답자 특성

- ➔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은 전라권(48.7%) 및 충청권(32.1%) 지역,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26.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응답은 60대 이상(32.7%), 제주(40.6%) 및 전라권(40.3%) 지역에서 높았음.
- ➔ 반면,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경상권(6.5%)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수도권(19.3%) 지역, 가구소득 551만원 이상(23.9%)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19> 지역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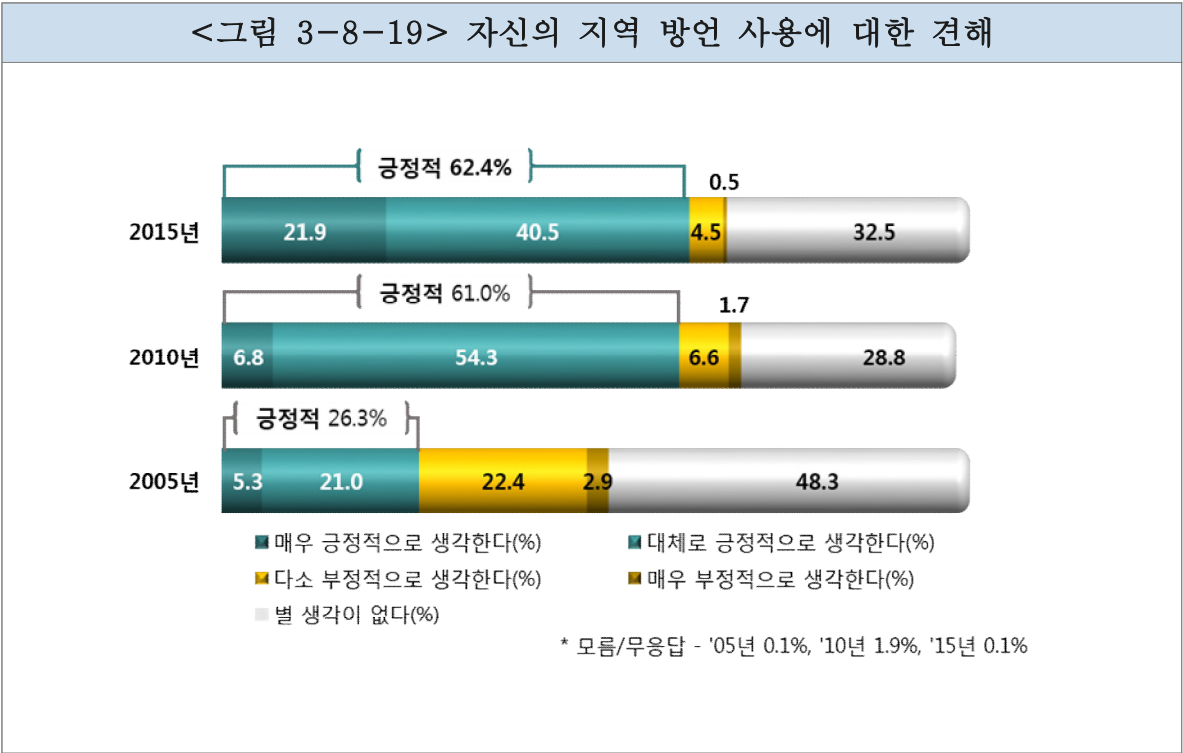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별 느낌이 없다
전 체		(2,729)	2.4	16.7	27.5	15.0	38.3
성	남성	(1,402)	2.3	16.6	26.8	15.7	38.6
	여성	(1,327)	2.5	16.9	28.3	14.3	38.0
연령	20대	(598)	2.2	18.7	23.7	16.1	39.3
	30대	(665)	2.3	15.8	26.6	16.5	38.8
	40대	(655)	2.4	17.0	27.8	14.5	38.3
	50대	(530)	3.2	17.9	29.8	13.5	35.7
	60대 이상	(281)	1.5	12.1	32.7	13.5	40.2
거주지역	수도권	(2,140)	2.7	19.3	26.2	10.7	41.1
	강원	(71)	1.4	10.1	39.3	14.1	35.1
	충청권	(271)	0.4	6.3	28.8	32.1	32.5
	전라권	(138)	0.0	5.1	40.3	48.7	5.8
	경상권	(77)	6.5	11.6	19.4	10.6	51.9
	제주	(32)	3.1	12.5	40.6	28.1	15.6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6)	0.0	10.9	28.3	26.2	34.6
	101-200만원	(96)	3.1	9.3	30.1	15.6	41.8
	201-250만원	(313)	3.2	14.1	28.7	12.7	41.3
	251-350만원	(520)	1.0	13.9	29.4	17.9	37.8
	351-550만원	(1,210)	2.7	16.2	27.7	15.7	37.8
	551만원 이상	(534)	2.8	23.9	24.6	11.3	37.5
	모름/무응답	(10)	0.0	30.0	0.0	0.0	7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0.0	8.4	37.0	11.3	43.2
	중학교 졸업	(98)	3.1	12.5	25.1	19.4	39.9
	고등학교 졸업/재학	(1,034)	2.1	16.4	27.7	14.9	38.9
	대학교 졸업/재학	(1,557)	2.6	17.2	27.4	15.0	37.8
	모름/무응답	(5)	0.0	60.7	0.0	0.0	39.3

3)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문16-2 (문16의 2~7번 응답자만)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 방언 사용자(Base=2,271명)를 대상으로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과반(62.4% = 매우 21.9% + 대체로 40.5%)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5.0%(매우 0.5% + 다소 4.5%)에 불과했으며, 32.5%는 '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함.
-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는 2005년 '긍정' 비율이 26.3%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2010년 이후 6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매우 긍정' 비율은 2010년(6.8%) 대비 올해 15.1%p로 큰 폭으로 상승했음.



응답자 특성

- ➔ ‘매우 긍정’ 응답은 20대(26.0%), 제주(36.8%) 및 충청권(36.0%) 지역, 가구소득 101-200만원(25.8%)에서 높게 나타남.
- ➔ 반면,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0대(7.4%), 강원(9.7%) 지역, 가구소득 551만원 이상(7.1%),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2-20>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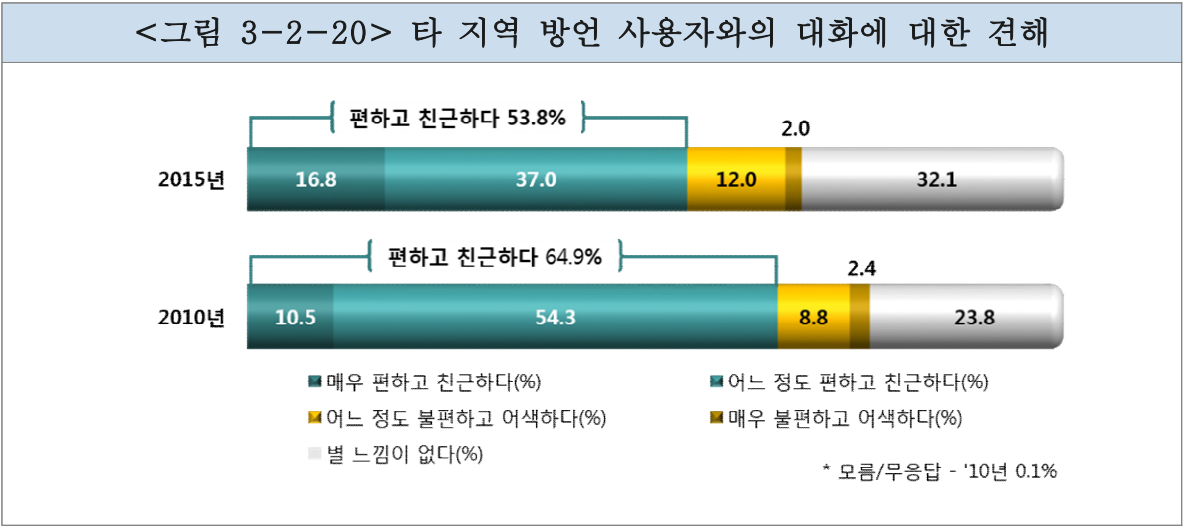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별 생각이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2,271)	0.5	4.5	40.5	21.9	32.5	0.1
성	남성	(1,140)	0.6	5.0	40.9	22.9	30.5	0.1
	여성	(1,131)	0.4	4.0	40.1	20.9	34.6	0.1
연령	20대	(323)	0.6	2.2	30.6	26.0	40.5	0.0
	30대	(394)	0.2	7.4	42.5	20.3	29.7	0.0
	40대	(566)	0.7	4.2	41.2	20.7	33.1	0.2
	50대	(598)	0.3	5.0	42.1	22.4	30.0	0.2
	60대 이상	(390)	0.5	3.1	43.3	21.3	31.8	0.0
거주지역	수도권	(367)	0.8	6.0	38.5	14.9	39.3	0.5
	강원	(72)	0.0	9.7	32.0	24.9	33.3	0.0
	충청권	(231)	0.0	0.9	41.4	36.0	21.7	0.0
	전라권	(341)	0.9	5.6	46.5	19.4	27.5	0.0
	경상권	(1,192)	0.4	4.3	39.6	21.1	34.5	0.0
	제주	(68)	0.0	0.0	42.6	36.8	20.6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7)	0.0	3.0	52.0	19.5	25.5	0.0
	101-200만원	(156)	0.0	4.4	35.4	25.8	33.8	0.6
	201-250만원	(343)	1.2	3.0	47.7	20.4	27.7	0.0
	251-350만원	(366)	0.3	5.2	43.1	21.3	30.1	0.0
	351-550만원	(983)	0.6	4.0	41.5	22.4	31.4	0.1
	551만원 이상	(354)	0.0	7.1	28.3	21.2	43.4	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92)	1.2	2.0	43.3	24.3	29.2	0.0
	중학교 졸업	(234)	0.0	2.6	40.0	23.4	33.9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990)	0.7	4.3	42.3	21.7	30.7	0.2
	대학교 졸업/재학	(953)	0.3	5.4	38.6	21.5	34.3	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4) 타 지역 방언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문16-3 (문16의 2~7번 응답자만)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지역 방언 사용자(Base=2,271명)를 대상으로 자신과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이 53.8%(매우 16.8% + 어느 정도 37.0%)로 나타남.
- 반면,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응답은 14.0%(매우 2.0% + 어느 정도 12.0%)로 나타났으며, ‘별 느낌이 없다’는 32.1%로 조사됨.
- 2010년 대비 ‘편하고 친근하다’라는 의견이 11.1%p의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불편하고 어색하다’의 상승폭(▲2.8%p)은 상대적으로 작았음.



응답자 특성

- ➔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은 60대 이상(20.2%), 충청권(21.2%) 지역에서 높았고,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는 전라권(44.7%) 지역, 가구소득 201-250만원(44.4%), 중학교 졸업(42.8%)에서 높았음.
- ➔ 반면,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응답은 제주(27.9%) 및 강원(18.1%)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21> 타 지역 방언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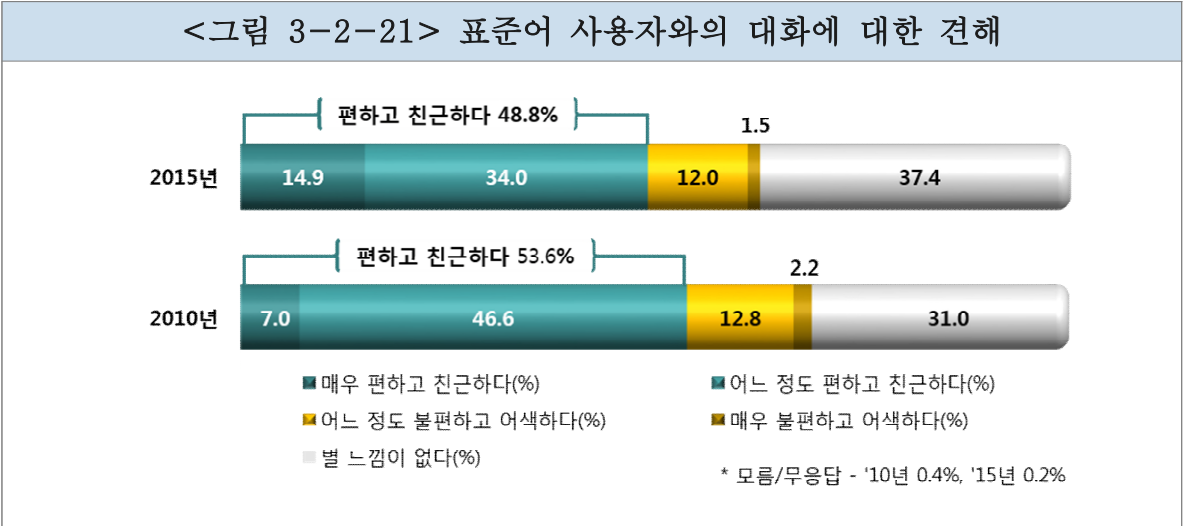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별 느낌이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2,271)	2.0	12.0	37.0	16.8	32.1	0.0
성	남성	(1,140)	2.3	11.5	37.6	16.7	31.8	0.1
	여성	(1,131)	1.7	12.6	36.4	17.0	32.4	0.0
연령	20대	(323)	1.6	11.8	28.5	18.0	40.2	0.0
	30대	(394)	2.3	15.7	38.7	14.4	28.9	0.0
	40대	(566)	1.4	14.2	37.6	15.7	31.2	0.0
	50대	(598)	3.0	9.6	38.4	16.7	32.1	0.2
	60대 이상	(390)	1.3	9.3	39.3	20.2	29.9	0.0
거주지역	수도권	(367)	0.8	8.5	41.1	15.2	34.1	0.3
	강원	(72)	5.5	18.1	25.0	11.0	40.3	0.0
	충청권	(231)	0.4	7.0	41.9	21.2	29.5	0.0
	전라권	(341)	0.3	8.0	44.7	17.0	30.0	0.0
	경상권	(1,192)	2.8	14.0	33.8	16.8	32.6	0.0
	제주	(68)	4.4	27.9	27.9	17.6	22.1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7)	0.0	13.6	35.6	17.8	33.0	0.0
	101-200만원	(156)	1.9	12.8	31.0	15.5	38.2	0.6
	201-250만원	(343)	2.4	9.7	44.4	17.4	26.2	0.0
	251-350만원	(366)	0.8	11.5	41.4	13.9	32.3	0.0
	351-550만원	(983)	2.3	11.9	37.4	17.3	31.1	0.0
	551만원 이상	(354)	2.3	14.8	27.2	18.4	37.4	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92)	1.2	8.8	33.6	15.3	41.1	0.0
	중학교 졸업	(234)	2.6	6.8	42.8	17.9	3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990)	1.2	10.9	38.2	18.6	31.1	0.1
	대학교 졸업/재학	(953)	2.7	14.9	34.8	14.9	32.7	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5) 표준어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문16-4 (문16의 2~7번 응답자만)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지역 방언 사용자(Base=2,271명)를 대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느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이 48.8%(매우 14.9% + 어느 정도 34.0%)로 나타남.
- 반면,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응답은 13.5%(매우 1.5% + 어느 정도 12.0%)로 나타났으며, ‘별 느낌이 없다’는 37.4%로 조사됨.
- 2010년 대비 ‘편하고 친근하다’라는 의견이 4.8%p 감소했으나,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의 상승(▲7.9%p)이 두드러짐.



응답자 특성

- ➔ 충청권 및 전라권 지역은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와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강원(4.1%) 지역에서 다소 높았고,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응답은 제주(32.4%) 지역에서 특히 높았음.

<표 3-2-22> 표준어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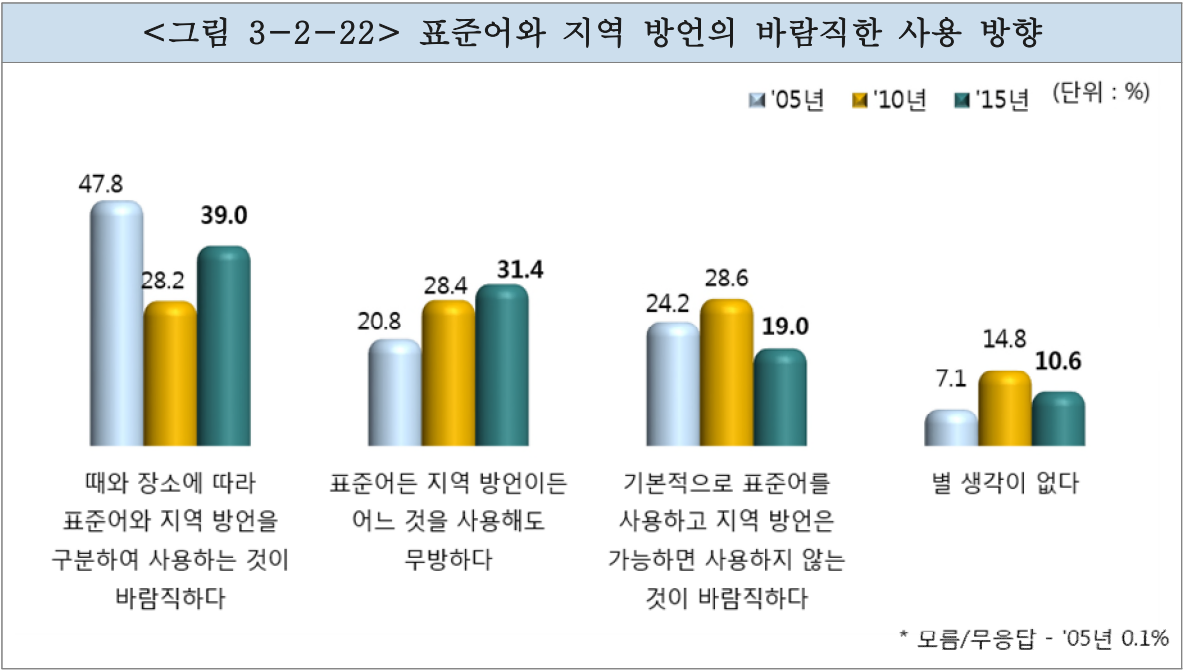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별 느낌이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2,271)	1.5	12.0	34.0	14.9	37.4	0.2
성	남성	(1,140)	1.8	11.9	33.6	15.6	36.8	0.3
	여성	(1,131)	1.2	12.2	34.3	14.1	38.1	0.0
연령	20대	(323)	2.2	8.0	23.8	18.6	47.4	0.0
	30대	(394)	2.0	14.7	35.1	14.7	33.3	0.3
	40대	(566)	1.1	14.7	34.9	15.5	33.8	0.0
	50대	(598)	1.8	10.7	37.4	13.7	35.9	0.5
	60대 이상	(390)	0.8	11.0	34.6	12.7	40.9	0.0
거주지역	수도권	(367)	0.6	7.3	29.2	15.2	46.7	1.1
	강원	(72)	4.1	5.4	27.8	13.9	48.7	0.0
	충청권	(231)	0.0	2.2	41.0	19.5	37.3	0.0
	전라권	(341)	0.3	9.9	45.7	18.9	25.1	0.0
	경상권	(1,192)	2.3	15.2	31.7	12.9	37.9	0.0
	제주	(68)	2.9	32.4	23.5	11.8	29.4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7)	0.0	11.6	32.8	14.9	40.7	0.0
	101-200만원	(156)	0.0	10.1	32.1	12.8	44.4	0.6
	201-250만원	(343)	1.2	11.1	39.1	13.6	34.7	0.3
	251-350만원	(366)	1.4	11.0	38.6	13.8	35.2	0.0
	351-550만원	(983)	2.1	12.3	33.3	15.4	36.8	0.1
	551만원 이상	(354)	1.4	14.5	27.2	16.4	40.3	0.3
	모름/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92)	1.2	11.8	33.6	9.7	43.6	0.0
	중학교 졸업	(234)	1.3	9.4	38.4	11.4	39.6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990)	1.2	12.3	34.4	16.0	35.8	0.3
	대학교 졸업/재학	(953)	2.0	12.5	32.6	14.9	38.0	0.1
	모름/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6)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문17      귀하께서는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사용 방향에 대해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가 31.4%,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9.0%로 조사되었으며, ‘별 생각이 없다’는 10.6%로 나타남.
- ‘구분하여 사용’은 2010년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10%p 이상 상승하였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010년 대비 9.6%p 하락함.



응답자 특성

- ➔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제주(59.0%) 및 전라권(45.2%) 지역,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강원(48.8%) 지역,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101-200만원 41.6%, 100만원 이하 42.4%),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2-23>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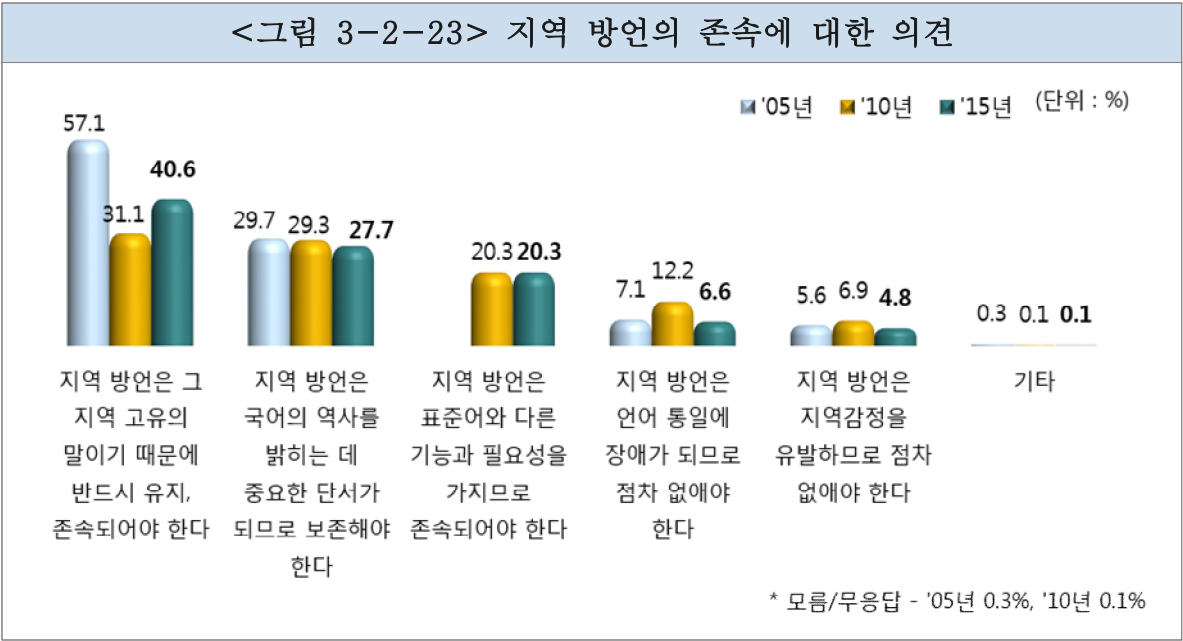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 지역 방언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기본으로 표준어 사용/지역 방언 사용하지 않는 것 바람직하다	별 생각이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39.0	31.4	19.0	10.6	0.0
성	남성	(2,542)	37.9	31.2	19.7	11.1	0.1
	여성	(2,458)	40.2	31.5	18.2	10.1	0.0
연령	20대	(921)	38.5	33.0	17.2	11.3	0.0
	30대	(1,059)	41.1	30.9	18.0	9.9	0.1
	40대	(1,221)	40.4	29.5	19.5	10.5	0.1
	50대	(1,128)	38.8	30.8	20.3	10.1	0.0
	60대 이상	(671)	34.4	34.3	19.8	11.5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39.8	28.6	21.5	10.1	0.0
	강원	(143)	39.3	48.8	5.6	6.3	0.0
	충청권	(502)	41.1	39.5	12.5	6.9	0.0
	전라권	(479)	45.2	20.9	20.8	13.1	0.0
	경상권	(1,269)	32.9	35.3	18.6	13.1	0.1
	제주	(100)	59.0	34.0	4.0	3.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36.3	42.4	12.4	8.9	0.0
	101-200만원	(252)	30.6	41.6	14.2	13.5	0.0
	201-250만원	(656)	36.9	32.7	17.8	12.7	0.0
	251-350만원	(886)	36.0	30.9	21.2	11.8	0.0
	351-550만원	(2,193)	40.9	31.9	18.2	9.1	0.0
	551만원 이상	(888)	42.0	25.2	21.8	10.9	0.1
	모름/무응답	(12)	41.7	33.5	16.9	7.9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2.1	50.5	15.5	11.9	0.0
	중학교 졸업	(332)	31.2	38.9	17.7	12.1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37.8	31.2	20.1	11.0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42.0	29.5	18.4	10.0	0.1
	모름/무응답	(7)	28.2	57.4	14.3	0.0	0.0

### 7) 지역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문18** 다음은 지역 방언의 존속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동의하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 지역 방언의 존속과 관련된 의견들 중 국민들은 ‘방언은 그 지역 고유의 말이므로 반드시 유지, 존속’(40.6%)에 가장 동의하고 있으며, 이어서 존속에 대한 의견이 ‘지역 방언은 국어의 역사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보존’(27.7%), ‘지역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기능과 필요성 가지므로 존속’(20.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지역 방언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언어 통일에 장애가 되므로’(6.6%), ‘지역감정을 유발하므로’(4.8%)의 순으로 꼽힘.
-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0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었으나 올해 반등하였고, 기타 존속 의견은 소폭 감소하거나 동일 수준으로 유지됨. 반면,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2010년 대비 모두 하락하였음.



응답자 특성

- ➔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제주(66.0%) 거주자에게서 특히 높았음.
- ➔ '국어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이므로 존속해야 한다'는 전라권(34.2%) 거주자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3-2-24> 지역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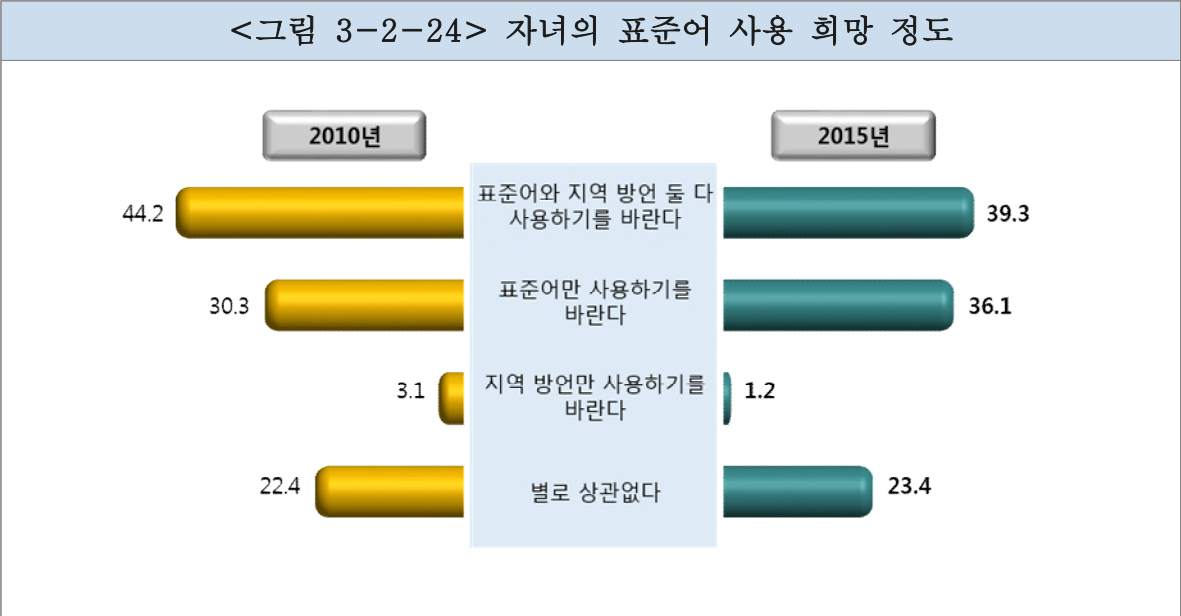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지역 방언은 그 지역 고유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	지역 방언은 국어 역사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보존	지역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기능 과필요성 가지므로 존속	지역 방언은 언어 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점차 없애야 한다	지역 방언은 지역 감정을 유발하므로 점차 없애야 한다	없다
전 체		(5,000)	40.6	27.7	20.3	6.6	4.8	0.1
성	남성	(2,542)	41.0	27.1	19.7	6.8	5.4	0.1
	여성	(2,458)	40.2	28.3	20.8	6.5	4.2	0.0
연령	20대	(921)	41.4	25.6	21.9	6.9	3.9	0.2
	30대	(1,059)	41.2	25.9	20.1	7.1	5.6	0.1
	40대	(1,221)	38.8	27.9	20.3	7.6	5.4	0.0
	50대	(1,128)	40.0	30.3	19.0	6.1	4.5	0.0
	60대 이상	(671)	42.6	28.5	20.3	4.6	4.0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37.6	28.4	20.2	8.4	5.2	0.1
	강원	(143)	44.5	17.6	33.0	2.1	2.7	0.0
	충청권	(502)	35.7	25.3	25.5	4.4	9.1	0.0
	전라권	(479)	48.3	34.2	7.5	6.9	3.1	0.0
	경상권	(1,269)	43.0	27.4	21.5	4.8	3.2	0.1
	제주	(100)	66.0	8.0	22.0	2.0	2.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6.3	28.2	18.4	4.4	1.8	0.9
	101-200만원	(252)	47.9	21.8	22.7	2.4	5.2	0.0
	201-250만원	(656)	43.4	27.8	19.2	5.3	4.2	0.0
	251-350만원	(886)	39.3	29.4	19.0	6.6	5.8	0.0
	351-550만원	(2,193)	41.1	27.8	19.9	6.5	4.7	0.0
	551만원 이상	(888)	35.7	26.9	23.1	9.5	4.6	0.1
	모름/무응답	(12)	33.2	58.6	0.0	8.2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0.3	31.4	22.0	1.5	4.8	0.0
	중학교 졸업	(332)	40.9	32.1	18.0	5.4	3.6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1.7	27.9	18.8	6.6	5.1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9.7	26.7	21.7	7.1	4.7	0.1
	모름/무응답	(7)	42.9	43.3	0.0	13.8	0.0	0.0

8)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문19 귀하께서는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느 것을 사용 하길 바라십니까?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둘 다 사용’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음.
-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36.1%로 그 뒤를 이었고,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음.
- 2010년 대비 ‘둘 다 사용’은 4.9%p 하락했고, ‘표준어만 사용’은 5.8%p 상승함.



응답자 특성

- ➔ '둘 다 사용'하길 바라는 응답은 40대 이상, 제주(83.0%), 강원(56.6%), 전라권(54.5%), 경상권(49.7%) 지역,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중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 각각 44.2%)에서 높았음.
- ➔ 한편, '표준어만 사용'하길 바라는 응답은 30대(41.2%), 수도권(49.0%) 지역, 가구소득과 학력이 높을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2-25>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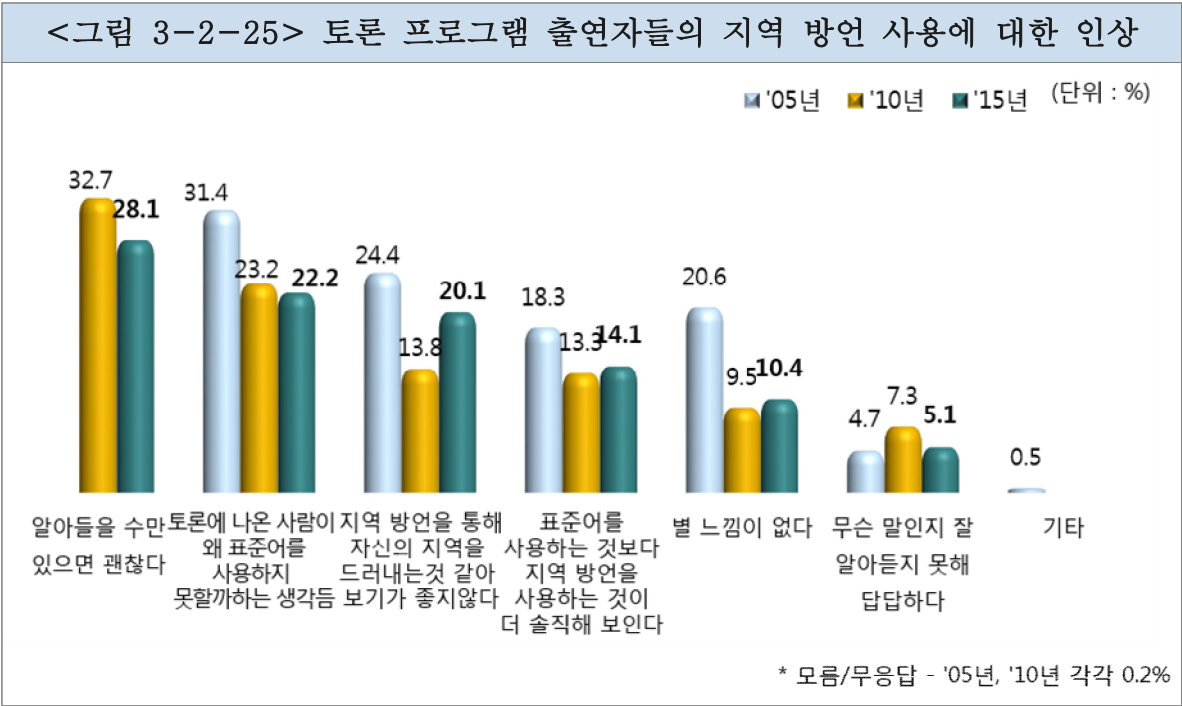
		사례수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 하기를 바란다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별로 상관없다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전 체		(5,000)	39.3	36.1	23.4	1.2
성	남성	(2,542)	38.5	37.3	23.1	1.2
	여성	(2,458)	40.1	34.8	23.8	1.3
연령	20대	(921)	35.3	36.3	27.2	1.3
	30대	(1,059)	35.1	41.2	22.7	1.0
	40대	(1,221)	42.6	35.9	20.6	0.9
	50대	(1,128)	41.3	34.9	22.8	1.0
	60대 이상	(671)	41.8	30.0	25.7	2.4
거주지역	수도권	(2,507)	28.3	49.0	21.7	1.0
	강원	(143)	56.6	21.2	22.2	0.0
	충청권	(502)	39.2	31.7	27.9	1.2
	전라권	(479)	54.5	23.8	20.2	1.5
	경상권	(1,269)	49.7	20.9	27.6	1.8
	제주	(100)	83.0	7.0	8.0	2.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54.1	17.6	27.4	0.8
	101-200만원	(252)	51.1	24.3	23.8	0.8
	201-250만원	(656)	43.0	29.5	25.6	1.9
	251-350만원	(886)	38.1	37.1	23.0	1.7
	351-550만원	(2,193)	38.2	37.9	22.8	1.1
	551만원 이상	(888)	35.4	41.3	22.5	0.8
	모름/무응답	(12)	16.9	16.5	66.6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4.2	18.0	36.2	1.5
	중학교 졸업	(332)	44.2	27.0	26.3	2.4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39.2	35.3	24.3	1.3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8.4	38.9	21.7	1.0
	모름/무응답	(7)	42.8	28.8	28.4	0.0



### 9)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문20	텔레비전의 대담 또는 토론 프로에 나온 <u>토론자가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신 지역 방언을 사용</u>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가장 크게 받으십니까?
-----	---

-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토론자들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토론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22.2%), '지역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20.1%),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14.1%) 순으로 높았음.
-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는 의견은 2010년에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4.6%p 낮아졌으며,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은 2010년 10.6%p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6.3%p 상승함.



응답자 특성

- ➔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는 응답은 강원(41.4%), 충청권(37.3%), 제주(36.0%) 지역,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31.0%, 101-200만원 32.9%), 초등학교 졸업 이하(39.4%)에서 높았음.
- ➔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30대(25.2%), 제주(30.0%)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26>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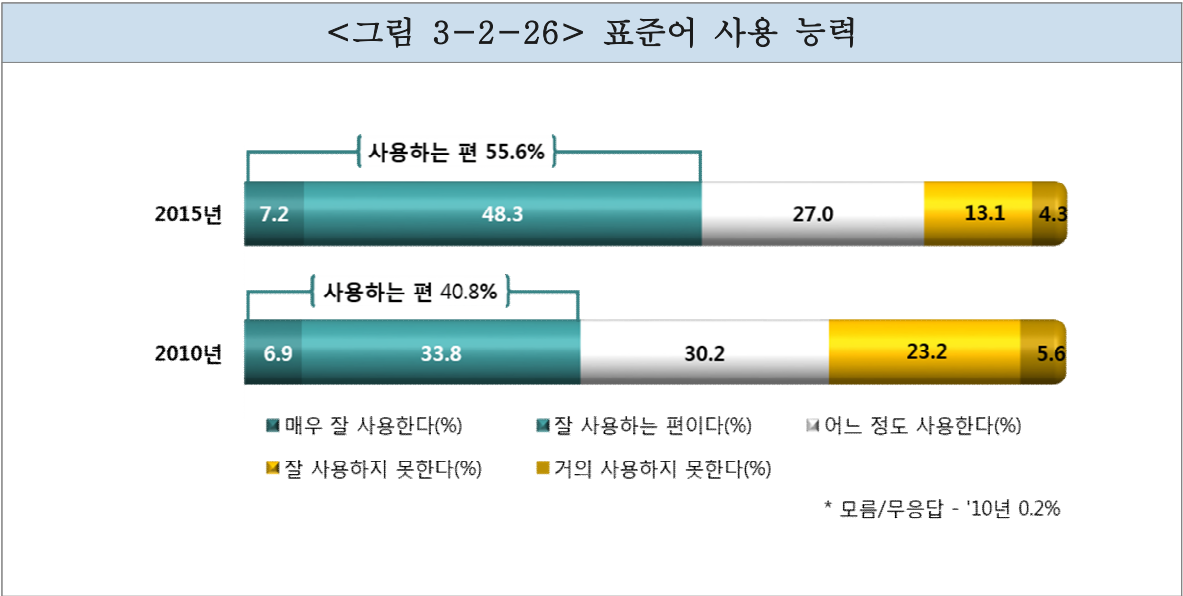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토론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하는 생각 든다	지역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 같아 보기 좋지 않다	표준어 사용하는 것보다 지역 방언 사용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	별 느낌이 없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28.1	22.2	20.1	14.1	10.4	5.1	0.0
성	남성	(2,542)	27.5	21.6	20.6	14.5	11.0	4.8	0.0
	여성	(2,458)	28.7	22.8	19.7	13.6	9.7	5.4	0.0
연령	20대	(921)	30.6	19.6	19.0	14.6	11.6	4.6	0.1
	30대	(1,059)	25.9	25.2	21.4	13.2	8.9	5.5	0.0
	40대	(1,221)	27.2	20.6	21.7	13.3	12.2	4.9	0.0
	50대	(1,128)	29.1	22.6	19.6	15.1	8.9	4.7	0.0
	60대 이상	(671)	28.1	23.1	18.0	14.3	10.2	6.3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26.7	24.5	20.5	11.0	11.3	6.0	0.0
	강원	(143)	41.4	16.8	14.6	14.0	9.0	4.1	0.0
	충청권	(502)	37.3	20.2	13.5	16.3	7.4	5.4	0.0
	전라권	(479)	18.1	21.8	28.2	20.4	7.7	3.8	0.0
	경상권	(1,269)	28.9	18.6	20.8	16.7	11.2	3.8	0.1
	제주	(100)	36.0	30.0	7.0	16.0	5.0	6.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31.0	23.9	17.7	11.4	11.6	4.4	0.0
	101-200만원	(252)	32.9	18.0	15.9	15.4	11.5	6.2	0.0
	201-250만원	(656)	25.6	22.1	19.2	16.2	11.1	5.8	0.0
	251-350만원	(886)	25.2	22.7	22.6	13.9	9.5	6.1	0.0
	351-550만원	(2,193)	28.9	22.5	19.6	13.6	10.5	4.8	0.0
	551만원 이상	(888)	29.1	22.1	21.2	13.8	9.7	4.2	0.0
	모름/무응답	(12)	25.1	16.9	25.0	8.4	24.6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39.4	19.0	15.7	11.8	10.3	3.8	0.0
	중학교 졸업	(332)	25.1	20.3	18.6	16.8	12.7	6.6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29.8	22.0	19.4	14.1	10.3	4.6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26.6	22.9	21.2	13.8	10.2	5.4	0.0
	모름/무응답	(7)	28.2	0.0	28.7	28.9	0.0	14.2	0.0

10) 표준어 사용 능력

문21	귀하께서는 <u>표준어를 얼마나 잘 사용</u>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자신의 표준어 사용 능력에 대해 절반 이상(55.6% = 매우 잘 사용 7.2% + 잘 사용 48.3%)이 ‘긍정적(사용함)’인 평가를 했으며, ‘부정적(사용 못함)’ 평가는 17.4%로 나타남.
- 한편,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응답은 27.0%로 조사됨.
- 2010년 대비 ‘긍정적’ 평가는 14.8%p 증가했으며, ‘부정적’ 평가는 11.4%p 감소함.



응답자 특성

- ➔ ‘긍정적(사용함)’ 평가는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72.7%) 지역, 가구소득 251만원 이상(251-350만원 56.5%, 351-550만원 58.0%, 551만원 이상 58.6%),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부정적(사용 못함)’ 평가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상권(40.7%) 지역,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201-250만원 22.1%, 101-200만원 21.7%, 100만원 이하 25.6%),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27> 표준어 사용 능력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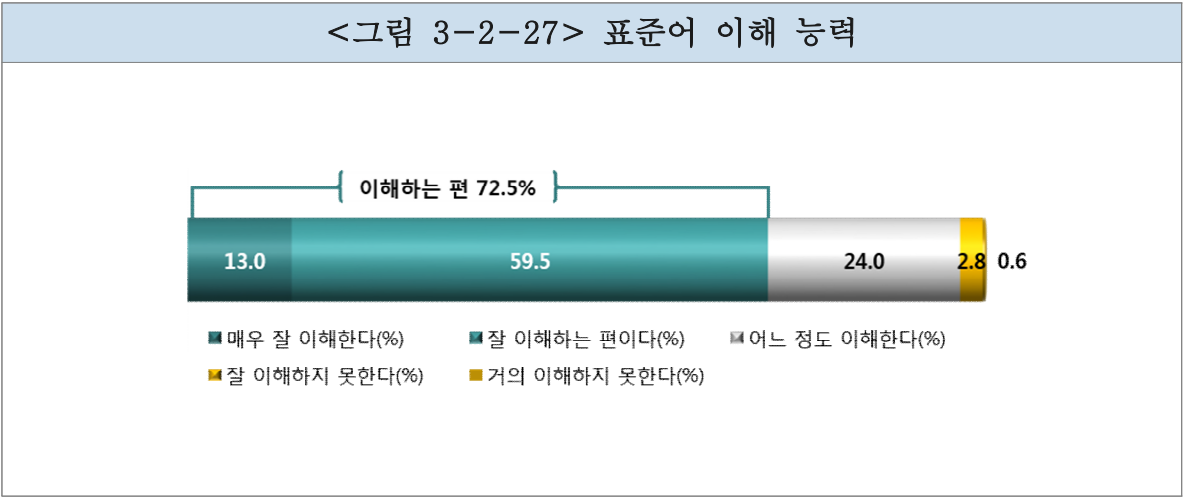
		사례수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잘 사용하지 못한다	어느정도 사용한다	잘 사용하는 편이다	매우 잘 사용한다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사용 못함	보통	사용함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4.3	13.1	27.0	48.3	7.2	0.0	17.4	27.0	55.6	0.0
성	남성	(2,542)	5.2	12.2	28.1	47.2	7.3	0.0	17.4	28.1	54.5	0.0
	여성	(2,458)	3.4	14.0	25.9	49.4	7.2	0.1	17.4	25.9	56.6	0.1
연령	20대	(921)	3.1	8.6	23.3	55.2	9.6	0.2	11.7	23.3	64.8	0.2
	30대	(1,059)	3.4	10.7	24.1	52.9	9.0	0.0	14.0	24.1	61.8	0.0
	40대	(1,221)	3.4	13.4	28.3	48.1	6.8	0.0	16.8	28.3	54.9	0.0
	50대	(1,128)	5.4	16.6	28.7	42.9	6.4	0.0	22.0	28.7	49.3	0.0
	60대 이상	(671)	7.4	16.2	31.5	41.3	3.6	0.0	23.6	31.5	44.9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0.8	6.1	20.4	61.5	11.2	0.0	6.9	20.4	72.7	0.0
	강원	(143)	3.5	10.4	42.0	42.6	1.4	0.0	13.9	42.0	44.0	0.0
	충청권	(502)	0.6	5.6	33.3	53.5	6.9	0.0	6.2	33.3	60.5	0.0
	전라권	(479)	6.9	17.4	30.6	42.6	2.5	0.0	24.3	30.6	45.1	0.0
	경상권	(1,269)	12.1	28.6	33.8	23.3	2.1	0.1	40.7	33.8	25.4	0.1
	제주	(100)	1.0	9.0	37.0	46.0	7.0	0.0	10.0	37.0	53.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5.2	20.4	28.3	37.3	8.8	0.0	25.6	28.3	46.1	0.0
	101-200만원	(252)	6.8	15.0	37.0	32.9	8.3	0.0	21.7	37.0	41.3	0.0
	201-250만원	(656)	4.8	17.3	28.9	43.4	5.6	0.0	22.1	28.9	49.0	0.0
	251-350만원	(886)	3.8	11.2	28.5	50.0	6.4	0.0	15.0	28.5	56.5	0.0
	351-550만원	(2,193)	3.7	12.7	25.6	50.7	7.3	0.1	16.4	25.6	58.0	0.1
	551만원 이상	(888)	5.3	11.4	24.7	49.8	8.8	0.0	16.7	24.7	58.6	0.0
	모름/무응답	(12)	0.0	0.0	25.5	74.5	0.0	0.0	0.0	25.5	74.5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11.7	22.9	29.9	33.1	2.4	0.0	34.6	29.9	35.4	0.0
	중학교 졸업	(332)	9.5	16.6	36.6	33.2	4.2	0.0	26.1	36.6	37.3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0	16.5	29.0	45.0	5.5	0.0	20.5	29.0	50.5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6	9.3	23.9	53.8	9.3	0.1	12.9	23.9	63.1	0.1
	모름/무응답	(7)	0.0	0.0	42.9	57.1	0.0	0.0	0.0	42.9	57.1	0.0

11) 표준어 이해 능력

문22      귀하께서는 타인이 사용하는 표준어를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인이 사용하는 표준어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72.5%(매우 잘 이해 13.0% + 잘 이해 59.5%)가 ‘긍정적(이해함)’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부정적(이해 못함)’ 평가는 3.4%에 불과했음.

한편,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응답은 24.0%로 조사됨.



응답자 특성

- ➔ ‘긍정적(이해함)’ 평가는 연령이 낮을수록, 제주(84.0%) 및 수도권(81.4%) 지역, 가구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반면, ‘부정적(이해 못함)’ 평가는 전라권(6.9%) 및 경상권(5.0%)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28> 표준어 이해 능력


(단위 : 명, %)


		사례수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이해한다	잘 이해하는 편이다	매우 잘 이해한다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이해 못함	보통	이해함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0.6	2.8	24.0	59.5	13.0	0.0	3.4	24.0	72.5	0.0
성	남성	(2,542)	0.7	3.2	22.8	59.8	13.5	0.1	3.8	22.8	73.3	0.1
	여성	(2,458)	0.5	2.4	25.2	59.2	12.6	0.0	3.0	25.2	71.8	0.0
연령	20대	(921)	0.4	2.3	15.1	66.8	15.4	0.0	2.7	15.1	82.2	0.0
	30대	(1,059)	0.2	1.7	22.1	60.2	15.7	0.0	1.9	22.1	76.0	0.0
	40대	(1,221)	0.4	2.8	25.5	59.5	11.8	0.0	3.2	25.5	71.3	0.0
	50대	(1,128)	0.6	3.7	26.6	56.0	13.0	0.0	4.4	26.6	69.0	0.0
	60대 이상	(671)	1.8	3.8	31.9	54.4	7.8	0.3	5.6	31.9	62.2	0.3
거주지역	수도권	(2,507)	0.4	1.9	16.3	66.3	15.1	0.0	2.3	16.3	81.4	0.0
	강원	(143)	0.7	2.7	28.6	58.1	9.8	0.0	3.4	28.6	67.9	0.0
	충청권	(502)	0.0	1.8	34.1	54.7	9.3	0.0	1.8	34.1	64.1	0.0
	전라권	(479)	1.5	5.4	26.5	57.2	9.4	0.0	6.9	26.5	66.5	0.0
	경상권	(1,269)	0.8	4.2	34.5	49.1	11.3	0.1	5.0	34.5	60.4	0.1
	제주	(100)	1.0	1.0	14.0	61.0	23.0	0.0	2.0	14.0	84.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0.9	0.9	37.2	53.0	8.0	0.0	1.8	37.2	61.0	0.0
	101-200만원	(252)	0.8	3.6	34.9	45.7	14.7	0.4	4.3	34.9	60.4	0.4
	201-250만원	(656)	1.4	3.2	30.3	53.5	11.6	0.0	4.6	30.3	65.1	0.0
	251-350만원	(886)	0.7	2.8	25.0	58.8	12.6	0.1	3.5	25.0	71.4	0.1
	351-550만원	(2,193)	0.3	2.7	22.6	61.0	13.3	0.0	3.0	22.6	74.4	0.0
	551만원 이상	(888)	0.6	2.8	17.2	65.3	14.1	0.0	3.4	17.2	79.4	0.0
	모름/무응답	(12)	0.0	0.0	8.6	91.4	0.0	0.0	0.0	8.6	91.4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4	2.3	48.0	40.2	7.1	0.0	4.7	48.0	47.3	0.0
	중학교 졸업	(332)	2.2	3.9	37.9	47.9	7.5	0.6	6.1	37.9	55.4	0.6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0.5	3.4	26.8	57.9	11.4	0.0	4.0	26.8	69.3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0.4	2.2	18.7	63.3	15.4	0.0	2.5	18.7	78.8	0.0
	모름/무응답	(7)	0.0	0.0	28.8	71.2	0.0	0.0	0.0	28.8	71.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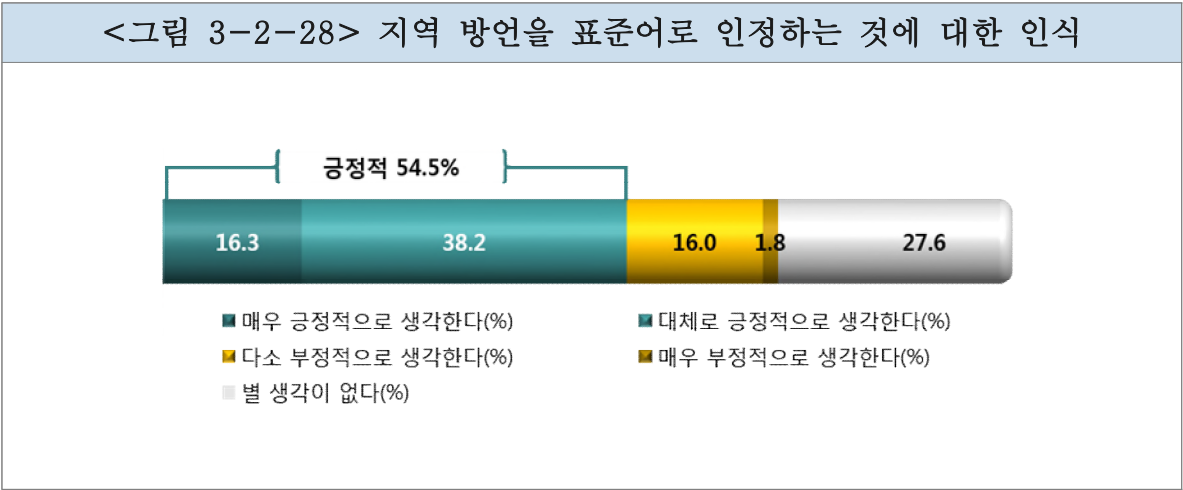
12)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

문23

다음 <보기>는 표준어와 같은 의미로 두루 쓰이는 지역 방언입니다.  
이러한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지(=부추), 건덕지(=건더기), 찌짐(=부침개) 등 표준어와 같은 의미로 두루 쓰이는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절반 이상(54.5% = 매우 16.3% + 대체로 38.2%)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은 17.8%로 나타남.

 한편, ‘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7.6%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

- ➔ '매우 긍정적'은 전라권(27.9%) 지역에서 특히 높았고, '대체로 긍정적'은 연령이 높을수록, 충청권(50.2%) 지역, 가구소득 101-200만원(43.3%), 201-250만원(42.9%), 중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43.7%, 초등학교 졸업 이하 43.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매우 부정적'은 제주(9.0%) 지역에서 특히 높았음.

<표 3-2-29>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별 생각이 없다
전 체		(5,000)	1.8	16.0	38.2	16.3	27.6
성	남성	(2,542)	1.5	15.9	37.1	17.1	28.4
	여성	(2,458)	2.2	16.1	39.3	15.6	26.8
연령	20대	(921)	1.6	15.4	32.6	14.3	36.1
	30대	(1,059)	2.4	17.3	36.3	16.0	28.1
	40대	(1,221)	2.0	17.1	37.8	17.7	25.5
	50대	(1,128)	1.9	16.5	41.5	16.2	23.8
	60대 이상	(671)	0.9	12.1	44.1	17.4	25.4
거주지역	수도권	(2,507)	2.3	22.3	32.5	10.6	32.3
	강원	(143)	1.4	13.4	45.5	15.3	24.3
	충청권	(502)	0.6	7.6	50.2	21.3	20.3
	전라권	(479)	1.9	12.1	36.2	27.9	22.0
	경상권	(1,269)	0.9	8.4	44.1	21.9	24.7
	제주	(100)	9.0	21.0	45.0	10.0	15.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1.8	14.1	37.4	16.8	29.9
	101-200만원	(252)	1.6	11.6	43.3	16.6	26.9
	201-250만원	(656)	2.0	12.0	42.9	16.6	26.5
	251-350만원	(886)	1.0	17.6	36.3	16.1	28.9
	351-550만원	(2,193)	2.1	16.9	39.7	16.6	24.8
	551만원 이상	(888)	2.1	16.7	31.9	15.6	33.6
	모름/무응답	(12)	0.0	8.3	16.9	25.5	49.3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0.8	10.3	43.3	18.9	26.7
학력	중학교 졸업	(332)	0.9	9.8	43.7	19.3	26.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1.2	15.8	39.1	16.5	27.3
	대학교 졸업/재학	(2,510)	2.5	17.3	36.6	15.6	28.0
	모름/무응답	(7)	0.0	29.1	0.0	42.8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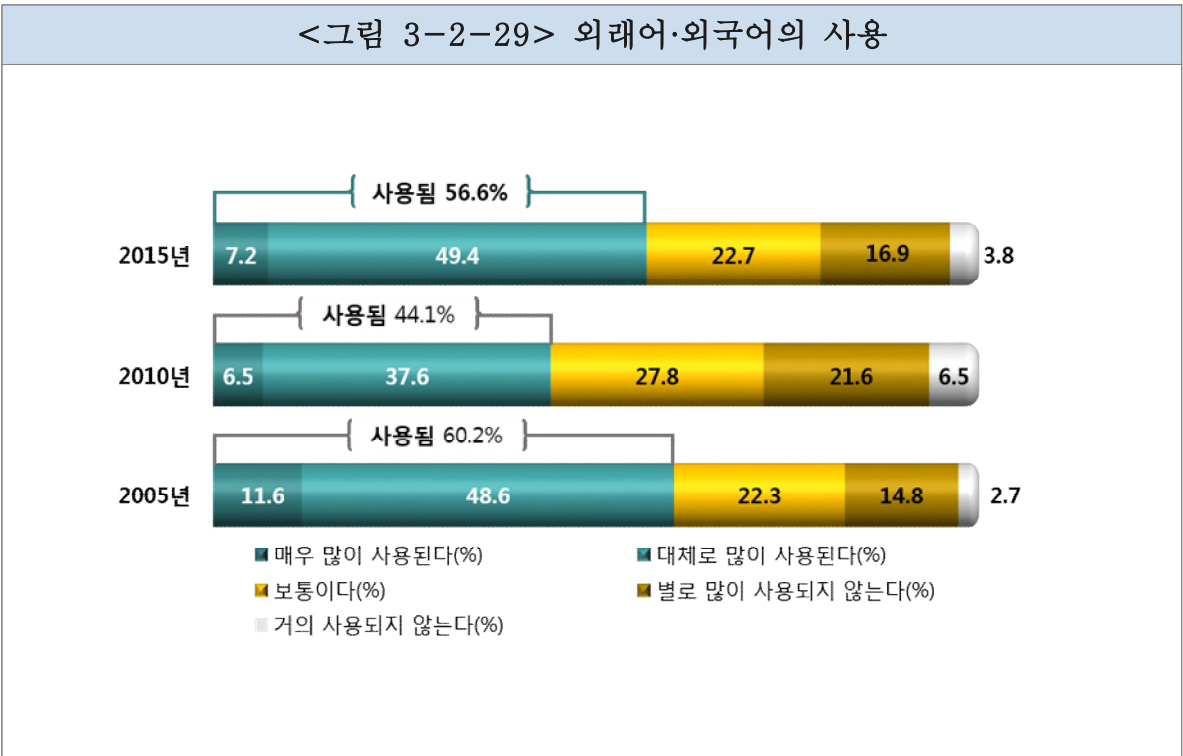


마. 외래어 · 외국어와 순화어

1) 외래어 · 외국어의 사용

문24	귀하께서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u>외래어나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u>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 또는 외국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많이 사용된다’라는 응답이 56.6%(매우 7.2% + 대체로 49.4%)를 차지함.
- 반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8%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22.7%로 조사됨.
- ‘많이 사용된다’는 응답은 2010년에 16.1%p 감소되었다가 올해 다시 12.5%p 상승했음.



응답자 특성

- ➔ '많이 사용된다'는 응답은 20대(72.7%), 수도권(63.8%) 지역, 가구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식은 외래어·외국어 접촉 빈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반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제주(32.0%), 강원(28.8%), 충청권(26.9%) 지역, 소득 및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30>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단위 : 명, %)

		사례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이 사용된다	매우 많이 사용된다	종합평가		
								사용하지 않음	보통	사용함
전 체		(5,000)	3.8	16.9	22.7	49.4	7.2	20.8	22.7	56.6
성	남성	(2,542)	3.3	16.9	21.9	50.3	7.6	20.2	21.9	57.9
	여성	(2,458)	4.4	16.9	23.5	48.5	6.7	21.3	23.5	55.2
연령	20대	(921)	0.9	9.7	16.7	60.3	12.4	10.6	16.7	72.7
	30대	(1,059)	1.6	15.7	22.9	53.0	6.8	17.3	22.9	59.8
	40대	(1,221)	3.3	18.0	26.9	46.3	5.4	21.3	26.9	51.8
	50대	(1,128)	6.3	19.6	22.7	45.9	5.6	25.8	22.7	51.5
	60대 이상	(671)	8.3	22.4	22.4	40.4	6.5	30.7	22.4	46.9
거주지역	수도권	(2,507)	2.6	15.0	18.6	56.5	7.3	17.6	18.6	63.8
	강원	(143)	11.1	17.7	18.3	47.3	5.6	28.8	18.3	52.9
	충청권	(502)	5.0	21.9	27.9	34.7	10.5	26.9	27.9	45.2
	전라권	(479)	3.8	18.7	24.6	48.8	4.1	22.5	24.6	53.0
	경상권	(1,269)	4.5	17.6	28.7	42.7	6.5	22.1	28.7	49.2
	제주	(100)	9.0	23.0	17.0	39.0	12.0	32.0	17.0	51.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12.6	25.0	14.1	35.2	13.1	37.6	14.1	48.3
	101-200만원	(252)	7.9	20.7	20.3	43.9	7.1	28.7	20.3	51.1
	201-250만원	(656)	5.9	20.1	23.0	44.4	6.6	26.0	23.0	51.0
	251-350만원	(886)	3.3	17.1	26.1	46.8	6.8	20.4	26.1	53.6
	351-550만원	(2,193)	3.1	17.4	22.6	50.3	6.6	20.5	22.6	56.9
	551만원 이상	(888)	2.3	11.4	21.3	56.6	8.5	13.6	21.3	65.1
	모름/무응답	(12)	8.4	7.9	0.0	75.5	8.2	16.3	0.0	83.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14.2	22.0	25.1	33.9	4.8	36.3	25.1	38.6
	중학교 졸업	(332)	10.0	22.4	22.6	37.4	7.6	32.4	22.6	45.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7	20.0	22.9	46.9	5.5	24.7	22.9	52.4
	대학교 졸업/재학	(2,510)	1.7	13.5	22.4	53.8	8.6	15.2	22.4	62.4
	모름/무응답	(7)	14.3	14.4	14.6	56.6	0.0	28.8	14.6	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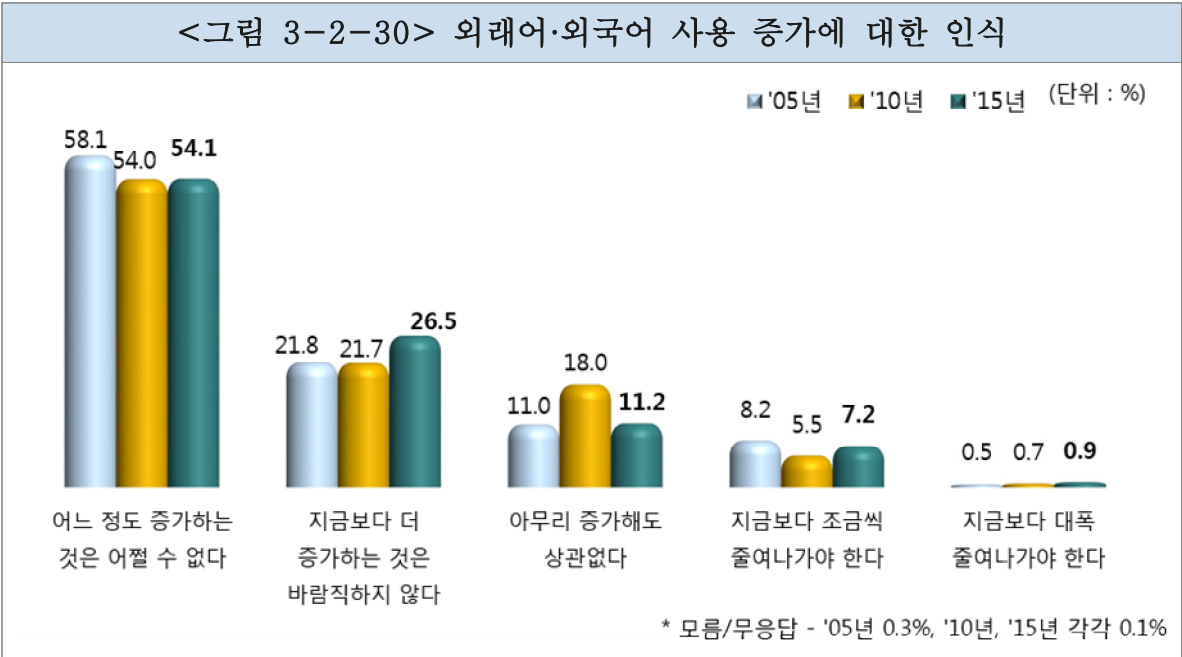
## 2)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문24-1

(문24의 3,45번 응답자만)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상생활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4.1%)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응답함.
- 다음으로,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 해도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5%),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11.2%),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7.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절반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올해 4.8%p 증가함.

<그림 3-2-30>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응답자 특성

- ➔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경상권(58.7%) 지역, 가구소득 201-250만원(57.6%)에서 높게 나타남.
- ➔ 반면,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을수록, 전라권(32.7%) 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3-2-31>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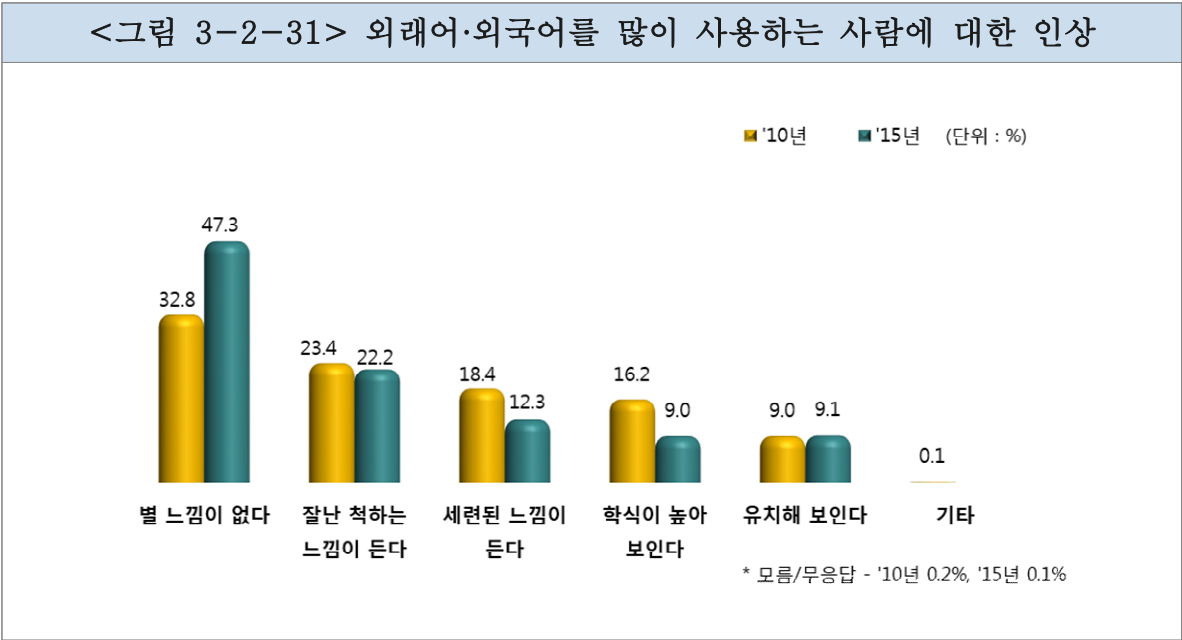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세계화시대 맞이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해도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화시대 맞이하여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보다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모름/ 무응답
전 체		(3,964)	54.1	26.5	11.2	7.2	0.9	0.1
성	남성	(2,030)	53.9	26.8	11.6	6.7	0.9	0.0
	여성	(1,934)	54.3	26.2	10.7	7.8	0.8	0.2
연령	20대	(824)	61.2	20.8	13.0	4.5	0.5	0.0
	30대	(876)	57.6	22.5	13.0	5.9	0.9	0.0
	40대	(961)	51.0	27.9	11.8	7.8	1.2	0.3
	50대	(837)	50.4	30.9	8.4	9.3	0.8	0.1
	60대 이상	(466)	47.9	33.5	8.2	9.6	0.6	0.2
거주지역	수도권	(2,066)	55.4	26.2	11.6	5.8	1.0	0.0
	강원	(102)	56.7	18.8	9.8	12.7	2.0	0.0
	충청권	(367)	45.2	29.1	10.6	14.2	0.8	0.0
	전라권	(372)	43.1	32.7	13.8	9.1	0.5	0.8
	경상권	(989)	58.7	25.0	9.5	6.1	0.6	0.1
	제주	(68)	51.5	23.5	13.2	10.3	1.5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71)	52.0	28.4	8.4	11.3	0.0	0.0
	101-200만원	(180)	49.9	26.8	16.7	6.6	0.0	0.0
	201-250만원	(486)	57.6	21.9	11.7	8.2	0.4	0.2
	251-350만원	(706)	51.8	27.2	11.2	9.0	0.6	0.1
	351-550만원	(1,744)	54.8	27.0	10.4	6.5	1.1	0.1
	551만원 이상	(767)	53.0	27.9	11.4	6.4	1.2	0.1
	모름/무응답	(10)	79.6	10.1	10.3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1)	46.0	34.6	8.6	10.9	0.0	0.0
	중학교 졸업	(225)	44.7	29.9	11.1	13.8	0.4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1,524)	53.7	27.6	9.7	7.9	0.9	0.1
	대학교 졸업/재학	(2,129)	55.5	25.2	12.3	5.9	0.9	0.1
	모름/무응답	(5)	100.0	0.0	0.0	0.0	0.0	0.0

3)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문25	일상생활에서 <u>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을</u> 주로 받으십니까?
-----	---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개별 항목별 결과에서는 '별 느낌이 없다' 응답이 47.3%,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 응답이 22.2%, '세련된 느낌이 든다' 응답이 12.3%, '유치해 보인다' 응답이 9.1%, '학식이 높아 보인다' 응답이 9.0%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개별 항목에서는 '별 느낌이 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49.0%), 강원(52.5%) 지역, 101-200만원(54.8%) 등으로 나타남.

<표 3-2-32>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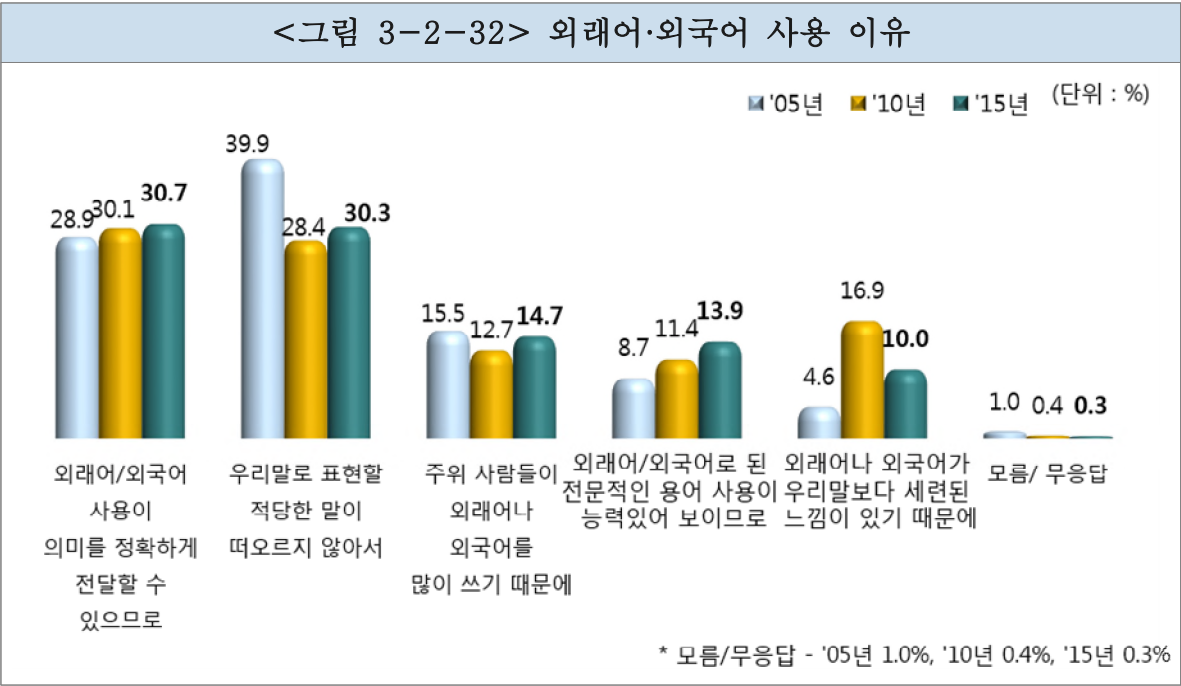
		사례수	별 느낌이 없다	잘난 느낌이 든다	세련된 느낌이 든다	유치해 보인다	학식이 높아 보인다	모름/ 무응답
전 체		(3,964)	47.3	22.2	12.3	9.1	9.0	0.1
성	남성	(2,030)	49.0	21.4	12.4	8.7	8.3	0.2
	여성	(1,934)	45.5	23.0	12.2	9.6	9.6	0.1
연령	20대	(824)	50.0	18.3	15.8	7.3	8.3	0.3
	30대	(876)	49.2	18.8	12.3	11.2	8.2	0.2
	40대	(961)	45.5	22.9	13.5	9.9	8.2	0.0
	50대	(837)	46.4	25.7	10.2	8.8	8.8	0.1
	60대 이상	(466)	45.0	25.6	8.9	7.6	12.8	0.1
거주지역	수도권	(2,066)	48.2	24.6	10.6	8.4	8.1	0.1
	강원	(102)	52.5	20.2	9.2	7.0	11.2	0.0
	충청권	(367)	35.6	23.1	22.6	5.8	12.8	0.2
	전라권	(372)	50.3	23.2	10.3	13.7	2.5	0.0
	경상권	(989)	48.6	16.9	12.8	10.3	11.1	0.2
	제주	(68)	45.0	22.0	10.0	11.0	12.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71)	50.4	17.8	12.4	7.1	12.3	0.0
	101-200만원	(180)	54.8	19.7	10.3	6.0	8.7	0.4
	201-250만원	(486)	47.6	26.3	9.3	7.8	9.0	0.1
	251-350만원	(706)	46.1	24.1	10.9	11.0	7.8	0.1
	351-550만원	(1,744)	46.0	21.5	13.8	9.4	9.0	0.2
	551만원 이상	(767)	48.4	20.4	12.9	8.7	9.6	0.0
	모름/무응답	(10)	74.9	8.3	0.0	8.3	8.5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7.4	22.7	6.4	6.3	17.2	0.0
	중학교 졸업	(332)	46.4	24.2	10.3	9.8	9.3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5.5	23.9	12.5	8.6	9.3	0.2
	대학교 졸업/재학	(2,510)	48.8	20.4	12.7	9.7	8.2	0.1
	모름/무응답	(7)	70.9	29.1	0.0	0.0	0.0	0.0

4)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유

문26

귀하께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으로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30.3%)라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주위 사람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14.7%), ‘외래어,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1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과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능력 있어 보임’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010년 대비 6.9%p 하락함.



응답자 특성

- ➔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은 30대(35.5%), 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는 40대 이상, 강원(39.9%) 및 제주(38.0%) 거주자에게서 높게 나타남.

<표 3-2-33>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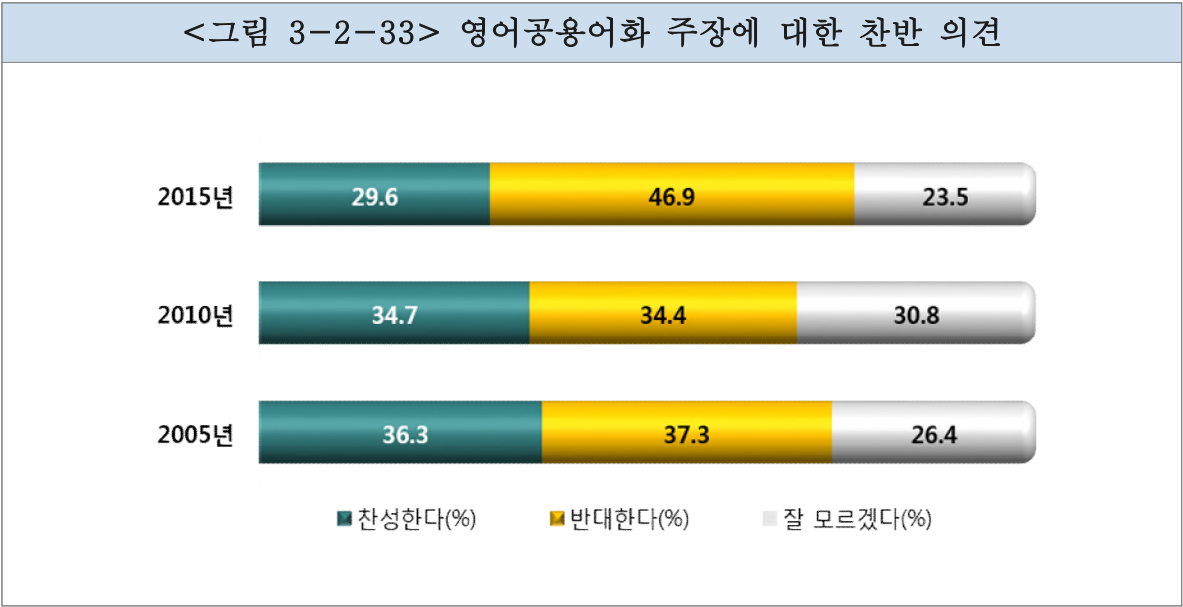
		사례수	외래어, 외국어 사용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외래어,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 사용 능력이 있어 보이므로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자연스럽게 말이 나온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30.7	30.3	14.7	13.9	10.0	0.1	0.3
성	남성	(2,542)	31.4	30.3	14.4	14.1	9.6	0.2	0.1
	여성	(2,458)	30.0	30.2	14.9	13.7	10.6	0.1	0.5
연령	20대	(921)	31.5	27.7	16.2	14.3	9.5	0.5	0.3
	30대	(1,059)	35.5	27.6	13.0	13.4	10.5	0.0	0.0
	40대	(1,221)	28.8	32.6	13.3	14.8	10.2	0.0	0.2
	50대	(1,128)	28.7	31.4	16.6	13.0	9.9	0.0	0.4
	60대 이상	(671)	28.7	31.7	14.6	13.7	10.2	0.3	0.8
거주지역	수도권	(2,507)	31.2	34.7	15.0	10.7	8.0	0.2	0.3
	강원	(143)	16.1	39.9	19.6	4.9	17.4	0.0	2.1
	충청권	(502)	33.0	18.8	19.3	18.4	10.4	0.2	0.0
	전라권	(479)	30.7	29.3	15.2	16.2	8.6	0.0	0.0
	경상권	(1,269)	30.5	24.7	11.6	18.9	14.2	0.0	0.2
	제주	(100)	31.0	38.0	13.0	9.0	4.0	1.0	4.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17.8	31.0	21.2	14.0	10.7	2.6	2.7
	101-200만원	(252)	29.4	34.4	12.3	13.1	10.0	0.4	0.4
	201-250만원	(656)	28.9	30.3	16.3	15.1	9.0	0.0	0.5
	251-350만원	(886)	29.0	32.2	14.2	14.9	9.4	0.0	0.2
	351-550만원	(2,193)	32.1	29.1	14.4	13.0	11.0	0.1	0.3
	551만원 이상	(888)	32.2	30.1	14.3	14.4	8.9	0.1	0.0
	모름/무응답	(12)	33.9	16.3	33.2	0.0	16.5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6.8	26.0	11.0	21.8	12.0	0.8	1.6
	중학교 졸업	(332)	27.1	29.7	18.6	16.7	6.7	0.0	1.2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29.1	31.9	13.8	13.0	11.9	0.1	0.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2.7	29.2	14.9	13.8	8.9	0.1	0.3
	모름/무응답	(7)	0.0	28.8	42.3	14.6	14.2	0.0	0.0



5)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문27	예전부터 공공기관의 문서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고, 온 국민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사용해야 한다는 영어공용어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u>영어공용어화 주장</u>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29.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6.9%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잘 모르겠다’는 23.5%로 조사됨.
- 영어공용어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올해 크게 상승(▲12.5%p)하였음.



응답자 특성

- ➔ 영어공용어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50대 51.8%, 60대 이상 50.3%), 강원(54.0%) 지역, 중학교 졸업(54.5%)에서 높게 나타남.
- ➔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20-30대(20대 32.0%, 30대 33.2%) 수도권(33.5%) 및 충청권(33.3%) 지역, 대학교 졸업/재학(32.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2-34>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명, %)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29.6	46.9	23.5
성	남성	(2,542)	29.5	48.1	22.4
	여성	(2,458)	29.7	45.6	24.7
연령	20대	(921)	32.0	43.1	24.9
	30대	(1,059)	33.2	42.8	24.0
	40대	(1,221)	30.5	46.8	22.7
	50대	(1,128)	27.1	51.8	21.1
	60대 이상	(671)	23.0	50.3	26.7
거주지역	수도권	(2,507)	33.5	45.1	21.4
	강원	(143)	16.6	54.0	29.3
	충청권	(502)	33.3	50.2	16.5
	전라권	(479)	25.9	49.1	25.0
	경상권	(1,269)	23.4	47.3	29.2
	제주	(100)	28.0	48.0	24.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21.5	44.9	33.7
	101-200만원	(252)	27.8	38.8	33.4
	201-250만원	(656)	23.4	49.6	27.0
	251-350만원	(886)	27.9	48.7	23.4
	351-550만원	(2,193)	31.8	47.0	21.2
	551만원 이상	(888)	32.1	45.8	22.0
	모름/무응답	(12)	16.7	8.4	74.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3.7	36.2	40.1
	중학교 졸업	(332)	21.0	54.5	24.5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27.9	48.9	23.2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2.4	44.7	22.9
	모름/무응답	(7)	28.4	57.2	14.3

### 6)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인식

문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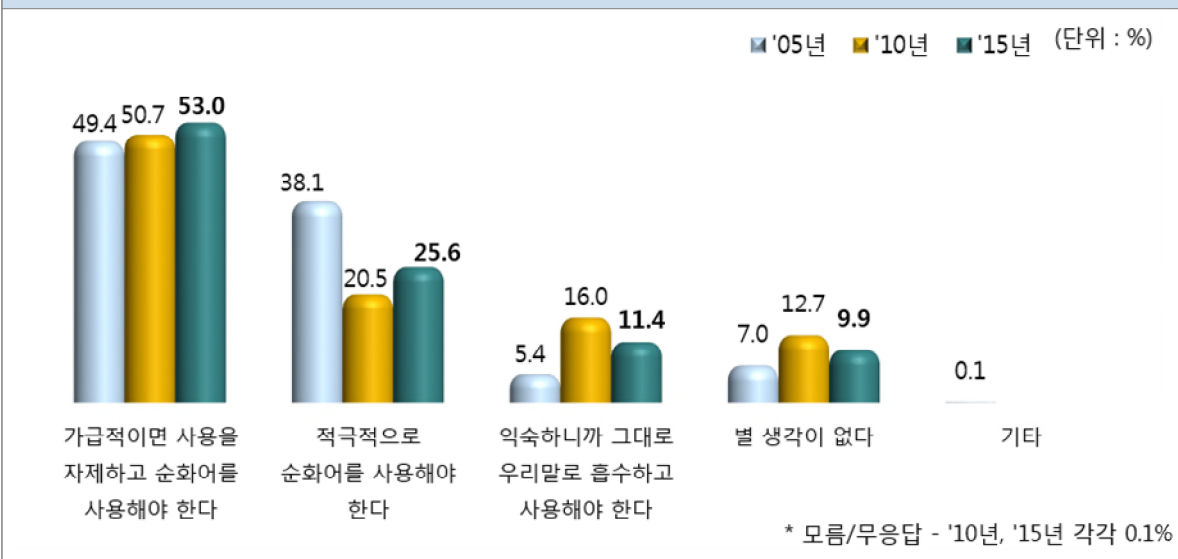
다음 <보기>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온 외래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절반 이상(53.0%)이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25.6%),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흡수하고 사용해야 한다'(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9.9%로 조사됨.

'가급적 사용 자제, 순화어 사용' 응답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순화어 사용'은 2010년 17.6%p 하락한 이후 올해 5.1%p 상승하였음.

<그림 3-2-34>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인식



응답자 특성

- ➔ '가급적 사용 자제, 순화어 사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하(40대 55.2%, 30대 54.1%, 20대 53.0%), 가구소득 251-550만원(251-350만원 54.8%, 351-550만원 5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적극적으로 순화어 사용' 응답은 50대(29.0%), 제주(32.0%) 및 충청권(29.5%) 거주자에게서 높게 나타남.

<표 3-2-35>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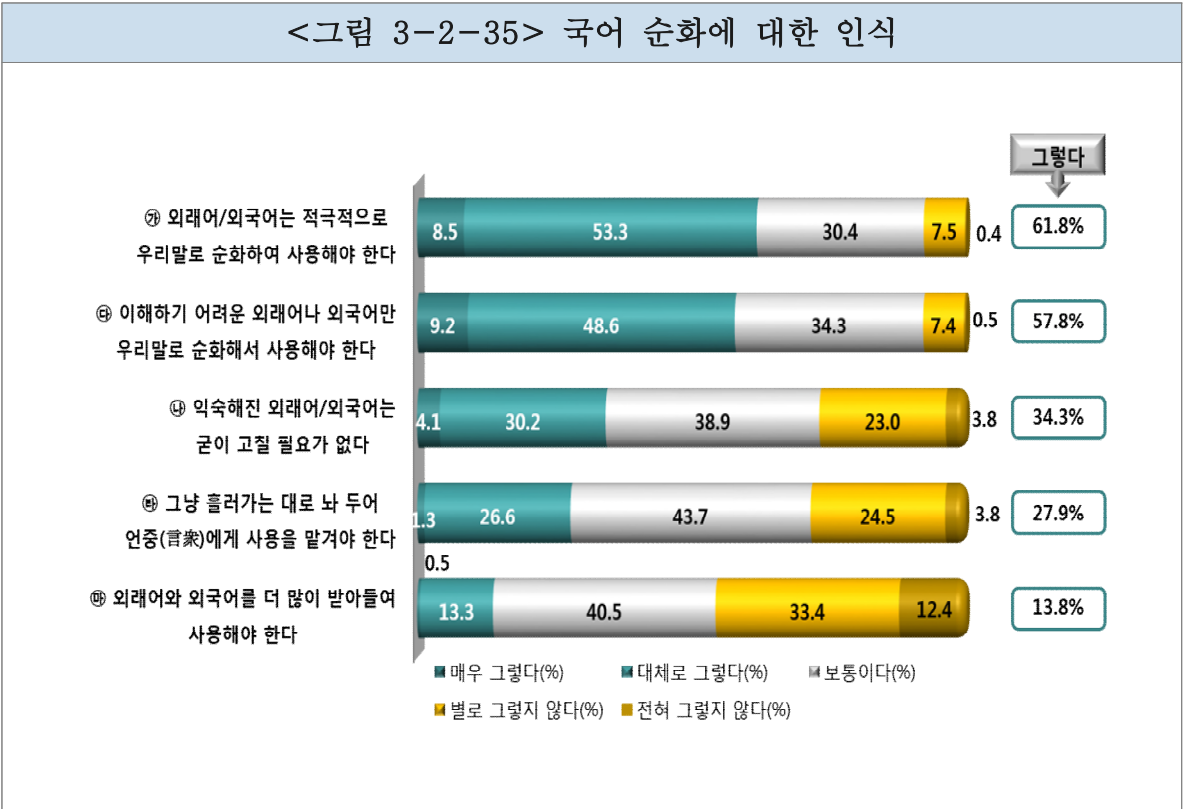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흡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별 생각이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53.0	25.6	11.4	9.9	0.1
성	남성	(2,542)	53.1	25.8	11.6	9.4	0.0
	여성	(2,458)	53.0	25.4	11.1	10.3	0.2
연령	20대	(921)	53.0	24.0	11.8	11.0	0.2
	30대	(1,059)	54.1	23.9	11.8	10.2	0.0
	40대	(1,221)	55.2	24.2	11.9	8.6	0.1
	50대	(1,128)	51.9	29.0	10.3	8.8	0.1
	60대 이상	(671)	49.5	27.5	10.9	12.1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54.9	26.9	8.2	9.8	0.0
	강원	(143)	56.0	20.9	9.1	11.9	2.0
	충청권	(502)	54.0	29.5	9.0	7.5	0.0
	전라권	(479)	55.4	25.0	11.3	8.3	0.0
	경상권	(1,269)	47.7	21.8	19.0	11.4	0.0
	제주	(100)	53.0	32.0	8.0	7.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7.0	27.3	9.7	16.0	0.0
	101-200만원	(252)	52.8	19.8	11.6	15.5	0.4
	201-250만원	(656)	49.9	26.2	12.4	11.6	0.0
	251-350만원	(886)	54.8	23.8	10.8	10.4	0.2
	351-550만원	(2,193)	55.0	25.7	11.2	8.1	0.0
	551만원 이상	(888)	49.8	28.0	11.9	10.1	0.1
	모름/무응답	(12)	33.6	50.3	8.2	7.9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5.7	18.8	16.5	19.0	0.0
	중학교 졸업	(332)	48.4	23.4	14.9	13.3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3.2	26.0	10.4	10.3	0.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3.9	25.9	11.5	8.6	0.0
	모름/무응답	(7)	43.3	42.9	13.8	0.0	0.0

7)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문29 귀하께서는 국어 순화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어 순화에 대한 의견들 중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61.8%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57.8%),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34.3%),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 두어 언중에게 사용을 맡겨야 한다'(2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2005년 45.4% → 2010년 59.3% → 2015년 61.8%)하고 있으나, 2005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음.



응답자 특성

- ➔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50대 이상, 전라권(72.1%) 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전라권(66.1%) 및 수도권(60.8%) 지역,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36>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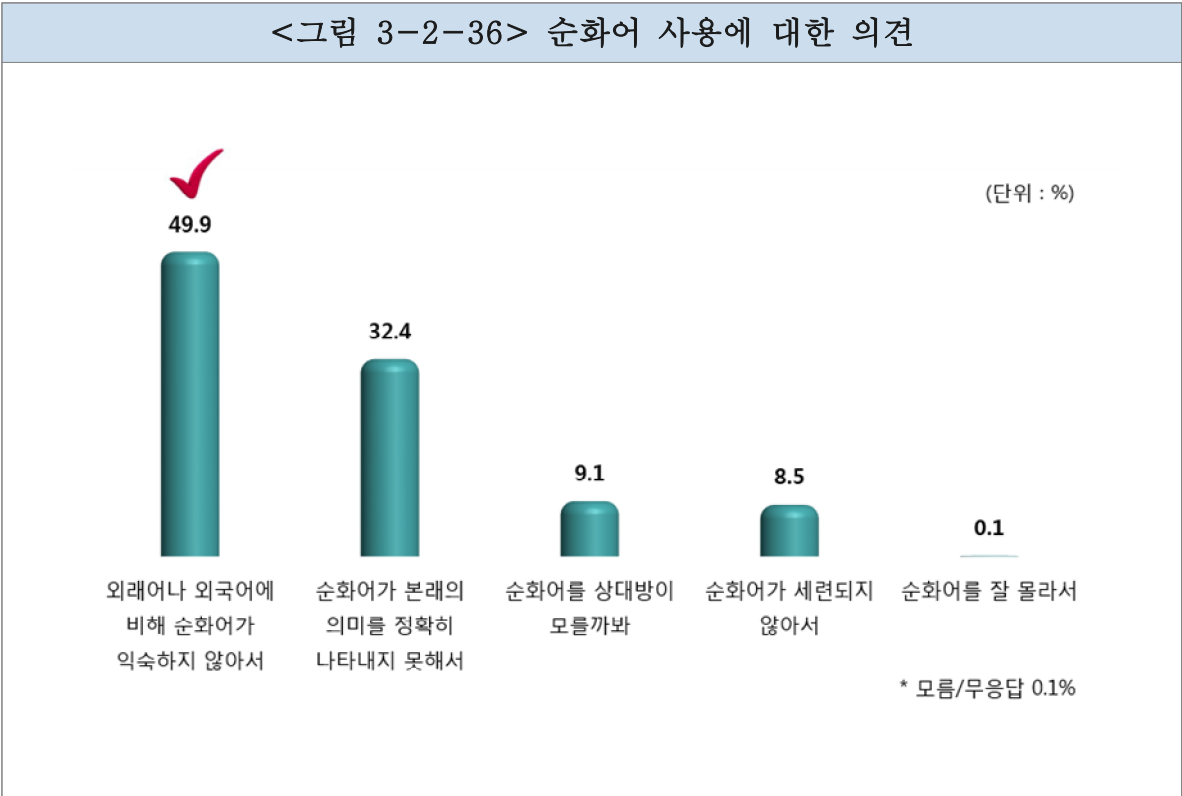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남 두어 언중 에게 사용을 맡겨야 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를 더 많이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
전 체		(5,000)	61.8	57.8	34.3	27.9	13.8
성	남성	(2,542)	61.0	58.4	34.9	28.1	14.6
	여성	(2,458)	62.6	57.1	33.8	27.8	12.9
연령	20대	(921)	55.3	54.1	37.0	29.6	12.1
	30대	(1,059)	59.0	58.5	36.7	27.8	14.6
	40대	(1,221)	62.0	57.2	35.1	28.8	14.9
	50대	(1,128)	67.0	59.7	32.9	26.9	14.0
	60대 이상	(671)	65.7	59.4	28.0	26.2	12.3
거주지역	수도권	(2,507)	61.3	60.8	34.6	30.2	14.2
	강원	(143)	51.2	48.2	23.0	15.5	4.2
	충청권	(502)	63.9	55.5	41.5	30.7	13.9
	전라권	(479)	72.1	66.1	29.0	18.2	12.2
	경상권	(1,269)	60.0	51.2	35.1	28.6	15.0
	제주	(100)	50.0	50.0	25.0	14.0	9.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60.2	54.0	25.6	19.6	7.1
	101-200만원	(252)	60.8	53.9	27.4	25.8	12.7
	201-250만원	(656)	62.8	57.7	31.4	26.8	11.8
	251-350만원	(886)	58.4	57.4	37.2	27.9	14.7
	351-550만원	(2,193)	62.1	59.9	34.8	28.1	14.1
	551만원 이상	(888)	64.0	54.4	35.5	30.3	14.8
	모름/무응답	(12)	58.7	67.2	33.8	25.1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66.9	61.2	34.7	32.3	14.9
	중학교 졸업	(332)	64.5	64.4	28.8	28.1	12.9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62.7	56.8	32.9	28.7	15.3
	대학교 졸업/재학	(2,510)	60.4	57.5	36.2	27.1	12.6
	모름/무응답	(7)	57.6	43.2	28.8	28.4	0.0

8)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의견

문30      일부 사람들이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의 절반가량(49.9%)이 '외래어가 순화어나 외국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음으로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32.4%), '순화어를 상대방이 모를까봐'(9.1%), '순화어가 세련되지 않아서'(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

- ➔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20대(54.4%), 제주(58.0%) 및 충청권(53.0%) 지역, 중학교 졸업(54.1%)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는 30-40대, 전라권(36.9%) 및 강원(36.2%)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37>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사례수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	순화어를 상대방이 모를까봐	순화어가 세련되지 않아서	순화어를 잘 몰라서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49.9	32.4	9.1	8.5	0.1	0.1
성	남성	(2,542)	49.7	32.3	9.0	8.8	0.2	0.0
	여성	(2,458)	50.0	32.5	9.2	8.2	0.0	0.1
연령	20대	(921)	54.4	27.3	8.9	9.1	0.3	0.0
	30대	(1,059)	46.9	34.2	9.4	9.2	0.1	0.2
	40대	(1,221)	50.7	35.0	6.9	7.4	0.0	0.0
	50대	(1,128)	48.6	32.8	11.1	7.5	0.0	0.0
	60대 이상	(671)	48.9	31.1	9.3	10.2	0.2	0.3
거주지역	수도권	(2,507)	49.3	32.6	8.1	9.7	0.2	0.0
	강원	(143)	43.7	36.2	16.7	2.7	0.0	0.7
	충청권	(502)	53.0	33.6	7.6	5.8	0.0	0.0
	전라권	(479)	51.0	36.9	4.8	7.4	0.0	0.0
	경상권	(1,269)	49.3	29.9	12.1	8.7	0.0	0.1
	제주	(100)	58.0	25.0	12.0	3.0	1.0	1.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6.3	28.3	14.0	9.7	0.9	0.9
	101-200만원	(252)	48.3	32.6	11.9	6.7	0.0	0.4
	201-250만원	(656)	51.8	31.6	7.4	8.7	0.1	0.3
	251-350만원	(886)	49.3	30.9	10.2	9.4	0.2	0.0
	351-550만원	(2,193)	49.3	34.3	8.0	8.4	0.0	0.0
	551만원 이상	(888)	51.2	30.3	10.5	8.0	0.0	0.0
	모름/무응답	(12)	58.3	16.8	8.3	16.6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8.1	34.6	11.0	5.5	0.0	0.8
	중학교 졸업	(332)	54.1	26.2	9.8	9.6	0.0	0.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8.8	33.5	9.3	8.3	0.0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0.2	32.2	8.7	8.6	0.2	0.1
	모름/무응답	(7)	57.4	14.4	0.0	28.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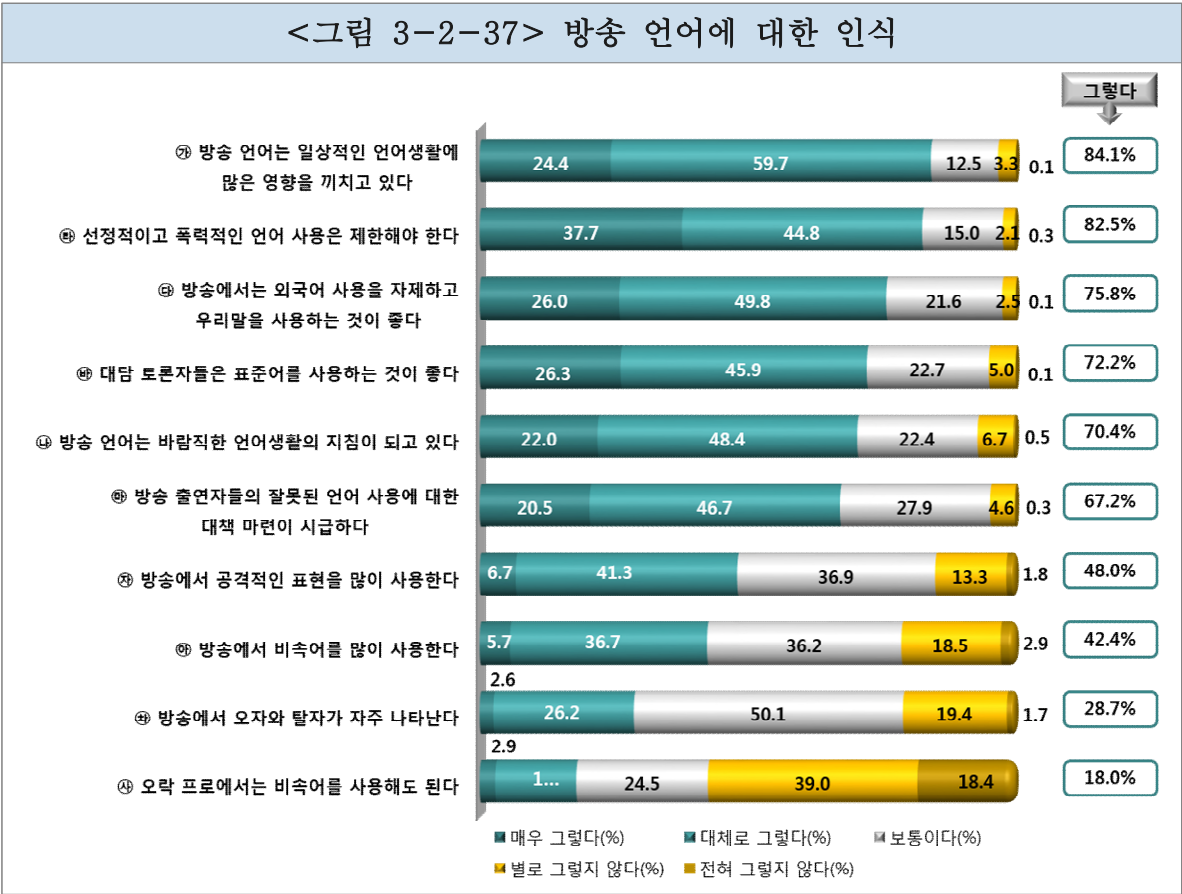
바. 대중매체의 언어

1)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문31

귀하께서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방송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84.1%)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82.5%)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 다음으로, ‘방송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75.8%), ‘대담 토론자들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72.2%) 등의 제안 의견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방송 언어는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다’(70.4%)는 긍정적인 인식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 ☞ ‘일상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 끼친다’는 의견은 2005년 90.9%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 81.5%로 감소하였다가 올해 84.1%로 다소 높아짐. ‘선정적/폭력적 언어 사용 제한’, ‘토론자 표준어 사용’, ‘외국어 사용 자제’, ‘대책 마련 시급’ 등 제안적인 의견들은 2010년 감소하였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

- ➔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 끼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 가구소득 101-200만원(89.7%), 초등학교 졸업 이하(9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선정적이고 폭력적 언어 사용 제한’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주(87.0%) 지역의 긍정 비율 또한 두드러짐.

<표 3-2-38>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담 토론자들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다
전 체		(5,000)	84.1	82.5	75.8	72.2	70.4
성	남성	(2,542)	84.0	81.5	74.5	72.3	70.6
	여성	(2,458)	84.2	83.5	77.1	72.1	70.1
연령	20대	(921)	81.4	78.5	68.5	70.2	61.4
	30대	(1,059)	84.1	82.1	74.1	72.6	70.9
	40대	(1,221)	82.4	83.3	76.2	71.9	71.5
	50대	(1,128)	86.0	83.9	79.6	74.0	75.0
	60대 이상	(671)	87.9	84.7	81.3	71.5	72.2
거주지역	수도권	(2,507)	85.8	85.4	76.3	77.8	73.5
	강원	(143)	81.0	85.4	74.2	66.5	59.4
	충청권	(502)	83.5	81.1	77.9	69.7	73.5
	전라권	(479)	82.7	78.9	79.5	76.0	77.1
	경상권	(1,269)	81.9	77.8	72.8	60.9	63.3
	제주	(100)	84.0	87.0	75.0	78.0	52.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79.6	74.5	74.4	70.6	54.9
	101-200만원	(252)	89.7	86.2	75.1	74.9	69.4
	201-250만원	(656)	86.4	82.6	80.2	70.0	68.9
	251-350만원	(886)	82.8	80.1	73.9	71.7	73.5
	351-550만원	(2,193)	83.2	83.9	76.6	72.4	71.6
	551만원 이상	(888)	85.0	81.2	72.9	73.3	68.2
	모름/무응답	(12)	67.1	75.2	67.3	50.3	33.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90.5	83.6	84.2	69.8	80.1
	중학교 졸업	(332)	86.4	85.8	81.0	67.9	70.5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83.6	82.4	76.3	72.6	71.7
	대학교 졸업/재학	(2,510)	83.9	82.1	74.2	72.6	68.9
	모름/무응답	(7)	72.0	71.5	86.2	43.4	57.6

&lt;표 3-2-38&gt;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계속)

(단위 : 명, %)

		사례수	방송 출연자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방송에서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방송에서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	방송에서 오자와 탈자가 자주 나타난다	오락 프로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해도 된다
전 체		(5,000)	67.2	48.0	42.4	28.7	18.0
성	남성	(2,542)	66.6	46.7	41.3	27.8	18.8
	여성	(2,458)	67.7	49.4	43.5	29.8	17.2
연령	20대	(921)	62.8	48.2	40.0	28.4	18.2
	30대	(1,059)	64.2	50.6	41.8	29.1	18.1
	40대	(1,221)	68.6	46.5	42.9	29.5	19.6
	50대	(1,128)	69.2	47.2	43.7	28.4	16.7
	60대 이상	(671)	71.9	47.9	43.5	27.9	17.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71.5	51.7	47.0	31.8	17.9
	강원	(143)	65.8	33.6	39.8	21.0	17.4
	충청권	(502)	65.2	50.6	47.0	38.6	29.7
	전라권	(479)	73.2	52.8	34.2	23.1	9.8
	경상권	(1,269)	57.1	40.4	34.7	23.0	16.7
	제주	(100)	70.0	38.0	46.0	14.0	2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62.0	32.7	33.7	19.4	11.5
	101-200만원	(252)	62.3	40.1	38.5	26.9	17.7
	201-250만원	(656)	66.8	49.3	45.0	28.0	18.1
	251-350만원	(886)	67.1	46.2	40.0	27.9	16.5
	351-550만원	(2,193)	67.2	48.8	42.0	28.9	19.0
	551만원 이상	(888)	69.8	51.1	45.9	31.5	18.1
	모름/무응답	(12)	41.9	58.6	42.1	24.7	8.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55.0	46.4	37.0	25.2	20.4
	중학교 졸업	(332)	68.6	47.0	40.7	28.3	15.2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68.6	47.5	43.3	30.1	18.5
	대학교 졸업/재학	(2,510)	66.4	48.6	42.3	28.0	17.9
	모름/무응답	(7)	57.7	57.7	14.4	0.0	13.8

## 2)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문32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누리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통신 언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보기>와 같은 통신 언어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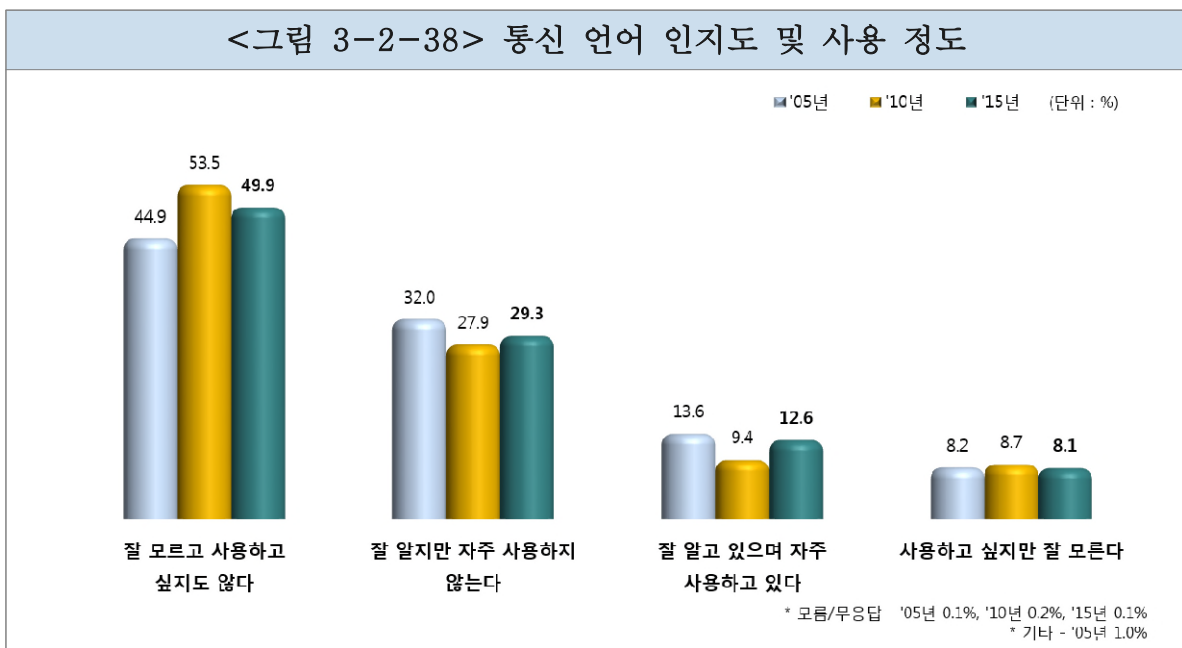
모바일 메신저나 누리소통망 등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통신 언어에 대해 '잘 모르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잘 알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29.3%),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하고 있다'(12.6%), '사용하고 싶지만 잘 모른다'(8.1%) 순으로 나타남.

2010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잘 모르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2005년에는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44.9%)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005년의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 항목은 2010-2015년 제외되어 기존의 '기타'와 함께 묶음.

<그림 3-2-38>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 응답자 특성

- ➔ '잘 모르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충청권(57.7%), 전라권(54.0%), 경상권(53.1%) 지역,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잘 알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20-30대, 수도권(33.7%) 지역,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lt;표 3-2-39&gt;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단위 : 명, %)

		사례수	잘 모르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잘 알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싶지만 잘 모르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49.9	29.3	12.6	8.1	0.1
성	남성	(2,542)	49.0	30.4	12.6	7.8	0.1
	여성	(2,458)	50.9	28.3	12.5	8.3	0.0
연령	20대	(921)	12.6	42.2	41.6	3.5	0.1
	30대	(1,059)	31.1	48.4	13.1	7.2	0.2
	40대	(1,221)	59.5	25.9	5.0	9.7	0.0
	50대	(1,128)	71.1	15.3	3.1	10.5	0.0
	60대 이상	(671)	77.7	11.4	2.2	8.7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46.8	33.7	13.7	5.7	0.1
	강원	(143)	37.8	30.9	12.5	18.9	0.0
	충청권	(502)	57.7	21.7	11.0	9.6	0.0
	전라권	(479)	54.0	25.3	5.8	15.0	0.0
	경상권	(1,269)	53.1	25.7	13.2	7.9	0.1
	제주	(100)	48.0	21.0	18.0	13.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60.3	19.3	11.4	9.1	0.0
	101-200만원	(252)	56.0	23.0	8.7	12.3	0.0
	201-250만원	(656)	60.0	21.4	8.3	10.2	0.0
	251-350만원	(886)	50.6	32.4	10.3	6.6	0.1
	351-550만원	(2,193)	48.2	30.5	13.4	7.8	0.1
	551만원 이상	(888)	43.6	31.6	17.5	7.3	0.0
	모름/무응답	(12)	8.4	75.2	0.0	16.4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83.5	6.4	0.0	10.1	0.0
	중학교 졸업	(332)	80.7	8.4	1.8	9.1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61.4	22.0	7.0	9.6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4.9	39.2	19.2	6.6	0.1
	모름/무응답	(7)	29.0	42.5	14.2	1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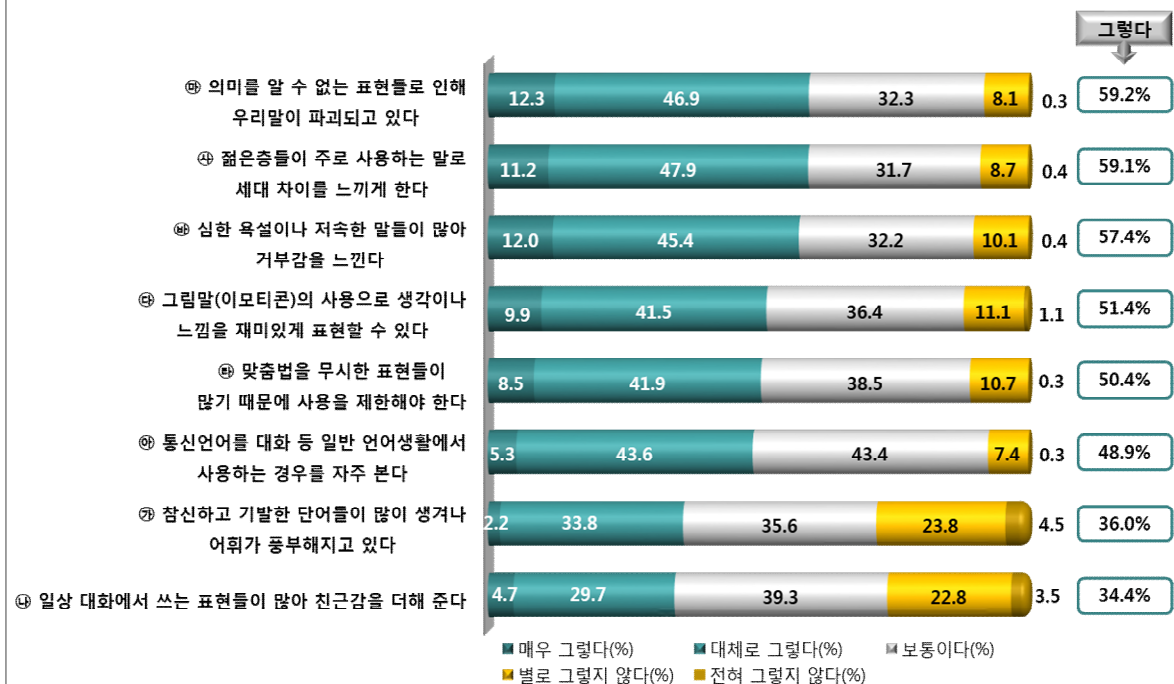
### 3)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문33

귀하께서는 통신 언어에 대한 다음 평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신 언어에 대한 평가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59.2%),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59.1%)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 다음으로 '심한 욕설,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57.4%), '그림말의 사용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한다'(51.4%), '맞춤법을 무시한 표현들이 많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50.4%)는 평가에 대해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 이어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비율은 16.2%p 감소했고, 2005년(90.2%)에 가장 높게 나타난 '청소년/젊은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3-2-39>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

- ➔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는 인식은 50대(66.0%), 제주(68.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 '젊은 층들이 주요 사용하는 말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함'은 연령이 높을수록, 제주(66.0%) 및 강원(64.3%) 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음.

&lt;표 3-2-40&gt;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 수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심한 욕설,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	그림말의 사용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맞춤법을 무시한 표현들이 많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통신 언어를 대화 등 일반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참신하고 기발한 단어들이 생겨나 어휘가 풍부해지고 있다	일상 대화에서 쓰는 표현이 많아 친근감을 더해준다
전 체		(5,000)	59.2	59.1	57.4	51.4	50.4	48.9	36.0	34.4
성	남성	(2,542)	59.4	58.7	57.0	51.5	49.5	49.1	38.3	36.4
	여성	(2,458)	59.0	59.6	57.8	51.4	51.3	48.6	33.7	32.4
연령	20대	(921)	48.0	47.2	43.8	68.0	37.8	51.1	46.8	50.6
	30대	(1,059)	57.2	52.2	54.9	58.0	45.3	50.2	38.2	36.1
	40대	(1,221)	61.7	60.3	60.6	48.1	54.3	47.3	34.7	31.0
	50대	(1,128)	66.0	67.9	62.7	44.2	59.9	48.2	31.9	29.0
	60대 이상	(671)	61.8	69.3	65.1	36.4	52.2	47.7	27.3	25.2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62.5	61.6	58.3	52.0	53.2	53.9	32.1	33.7
	강원	(143)	53.9	64.3	57.4	49.5	43.7	53.1	23.1	23.0
	충청권	(502)	60.7	61.6	66.0	53.3	55.0	57.2	53.8	42.8
	전라권	(479)	57.9	54.4	58.5	51.2	42.8	36.4	35.5	34.6
	경상권	(1,269)	52.7	53.9	51.7	50.4	46.9	39.8	39.9	35.0
	제주	(100)	68.0	66.0	58.0	44.0	46.0	51.0	16.0	2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48.9	60.1	52.3	40.6	42.5	45.1	24.9	25.5
	101-200만원	(252)	56.3	64.3	60.7	48.1	51.6	52.0	31.5	28.2
	201-250만원	(656)	61.8	62.6	61.6	48.0	50.7	48.7	35.0	31.5
	251-350만원	(886)	56.7	56.2	57.4	50.3	48.4	46.0	33.8	31.4
	351-550만원	(2,193)	59.7	58.5	57.6	52.2	50.9	49.2	37.8	35.7
	551만원 이상	(888)	60.9	59.4	53.8	55.9	51.5	50.7	37.7	39.6
	모름/무응답	(12)	50.1	50.2	33.3	16.7	41.6	41.5	8.5	16.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62.8	70.1	70.9	34.1	48.7	46.3	30.8	25.9
	중학교 졸업	(332)	62.6	66.2	61.9	34.7	56.8	44.6	28.6	24.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61.1	61.4	60.1	46.9	53.1	46.9	34.0	30.8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7.1	55.8	54.0	58.2	47.4	51.2	38.9	39.2
	모름/무응답	(7)	29.0	43.3	29.0	43.1	42.8	42.8	43.2	14.2

## 사. 외국 문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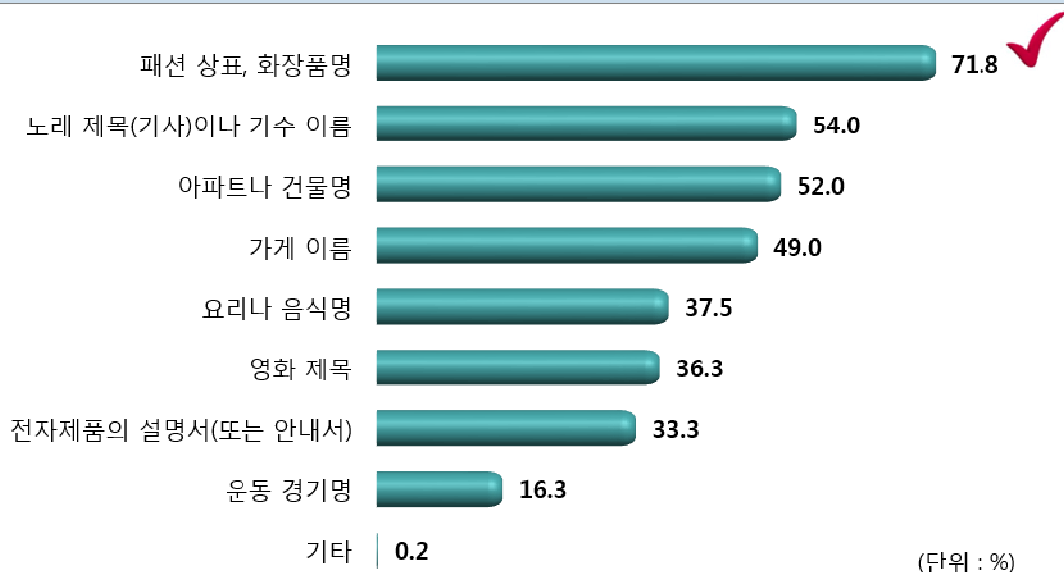
### 1)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 표기가 많은 분야

문 34

최근 들어 간판이나 각종 안내판에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의 외국어만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표기 없이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로 표기되는 사례**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 표기가 많은 분야로 '패션 상표, 화장품명'(71.8%)을 가장 많이 꼽음.  
 다음으로 '노래 제목(가사)이나 가수 이름'(54.0%), '아파트나 건물명'(52.0%), '가게 이름'(49.0%), '요리나 음식명'(3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40>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 표기가 많은 분야





## 응답자 특성

- ➔ '패션 상표, 화장품명' 응답은 여성(74.5%), 제주(90.0%) 지역, 가구소득 551만원 이상(75.2%)에서 높게 나타남.
- ➔ '노래 제목(가사)이나 가수 이름'은 20대(61.2%), 충청권(58.0%) 지역, 가구소득 551만원 이상(60.7%), 대학교 졸업/재학(5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lt;표 3-2-41&gt;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 표기가 많은 분야

(단위 : 명, %)

		사례수	패션 상표, 화장품명	노래 제목 (가사)이나 가수 이름	아파트나 건물명	가게 이름	요리나 음식명	영화 제목	전자제품 설명서 (또는 안내서)	운동 경기명
전 체		(5,000)	71.8	54.0	52.0	49.0	37.5	36.3	33.3	16.3
성	남성	(2,542)	69.2	55.3	51.9	48.6	37.2	37.5	34.9	16.7
	여성	(2,458)	74.5	52.7	52.2	49.4	37.8	35.1	31.6	15.8
연령	20대	(921)	73.3	61.2	50.2	49.9	38.9	41.0	30.6	17.2
	30대	(1,059)	71.7	55.3	52.4	45.9	38.5	38.0	33.8	17.8
	40대	(1,221)	72.4	51.6	50.9	49.2	37.3	33.7	32.1	15.2
	50대	(1,128)	71.3	52.3	52.0	51.4	37.1	36.4	36.4	16.2
	60대 이상	(671)	69.6	49.5	56.3	48.4	34.8	32.0	33.1	14.5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74.4	53.0	51.1	47.0	42.9	34.9	33.9	17.0
	강원	(143)	75.7	51.2	43.5	53.3	40.6	42.2	35.7	19.7
	충청권	(502)	74.0	58.0	40.5	61.7	41.4	39.4	29.9	8.4
	전라권	(479)	71.5	47.7	70.7	39.4	28.0	45.0	40.8	21.0
	경상권	(1,269)	63.9	57.0	53.8	49.5	28.7	33.3	31.3	16.0
	제주	(100)	90.0	57.0	35.0	70.0	34.0	46.0	22.0	12.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73.3	49.7	52.3	53.9	35.3	32.7	28.3	17.0
	101-200만원	(252)	72.6	51.6	52.0	58.8	35.0	33.0	33.3	14.3
	201-250만원	(656)	71.7	52.0	50.0	52.8	33.7	36.6	33.6	12.5
	251-350만원	(886)	71.0	51.5	53.4	45.0	35.4	36.8	31.5	18.1
	351-550만원	(2,193)	70.7	53.6	51.3	47.2	37.6	36.1	32.9	15.2
	551만원 이상	(888)	75.2	60.7	54.3	51.3	43.2	37.8	36.6	20.4
	모름/무응답	(12)	41.8	25.1	24.8	50.1	16.6	33.7	8.2	16.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64.6	48.2	56.5	53.4	31.5	32.2	35.5	9.4
	중학교 졸업	(332)	73.5	46.8	51.7	51.2	34.6	34.8	36.7	13.2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71.0	51.1	52.8	49.8	36.2	33.7	32.9	14.5
	대학교 졸업/재학	(2,510)	72.6	57.6	51.3	47.9	39.3	38.9	33.0	18.5
	모름/무응답	(7)	71.9	57.4	28.0	42.9	0.0	28.5	43.2	0.0

## 2) 외국어 표기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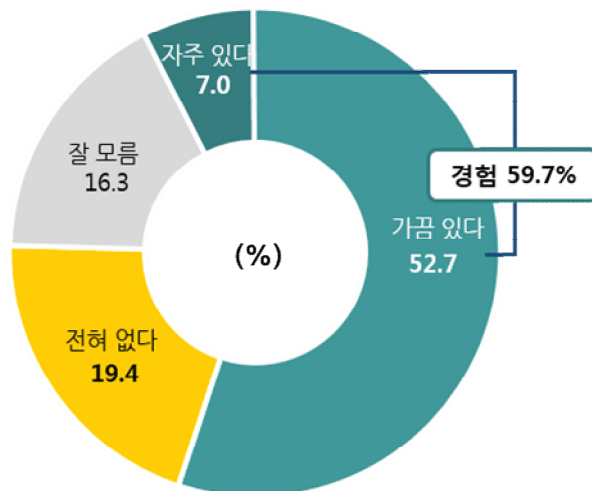
문35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가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되어있어 '곤란했다'는 응답은 59.7%(자주 7.0% + 가끔 52.7%)로 조사됨.

☞ 반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9.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6.3%로 나타남.

<그림 3-2-41> 외국어 표기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 응답자 특성

- ➔ '자주 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14.3%), 강원(14.9%) 및 제주(12.0%) 지역,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17.7%),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특히 높았음.
- ➔ 반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경상권(22.5%) 지역,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lt;표 3-2-42&gt; 외국어 표기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단위 : 명, %)

		사례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잘 모르겠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7.0	52.7	19.4	16.3	4.6
성	남성	(2,542)	7.0	52.8	20.1	15.7	4.5
	여성	(2,458)	7.1	52.5	18.7	17.0	4.7
연령	20대	(921)	4.6	46.0	28.0	17.6	3.8
	30대	(1,059)	4.0	50.7	25.1	15.3	4.8
	40대	(1,221)	5.6	55.6	18.3	15.5	5.0
	50대	(1,128)	9.1	57.0	13.5	15.5	4.9
	60대 이상	(671)	14.3	52.0	10.7	19.0	4.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6.2	52.4	19.5	15.3	6.6
	강원	(143)	14.9	55.3	6.2	20.1	3.5
	충청권	(502)	9.6	54.0	16.9	13.1	6.4
	전라권	(479)	3.5	64.9	18.0	11.3	2.3
	경상권	(1,269)	7.8	47.3	22.5	21.2	1.2
	제주	(100)	12.0	58.0	15.0	14.0	1.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17.7	48.7	14.1	14.1	5.4
	101-200만원	(252)	10.7	55.5	12.6	16.7	4.4
	201-250만원	(656)	9.1	51.9	16.4	17.8	4.7
	251-350만원	(886)	6.3	54.1	18.5	16.7	4.4
	351-550만원	(2,193)	5.5	52.7	21.0	15.9	5.0
	551만원 이상	(888)	7.9	51.5	21.1	16.2	3.3
	모름/무응답	(12)	0.0	50.3	16.3	7.9	25.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15.7	52.1	9.3	17.4	5.6
	중학교 졸업	(332)	14.5	49.6	11.7	20.6	3.6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8.2	56.0	15.8	14.9	5.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4.7	50.4	23.8	16.9	4.2
	모름/무응답	(7)	14.3	43.2	28.0	0.0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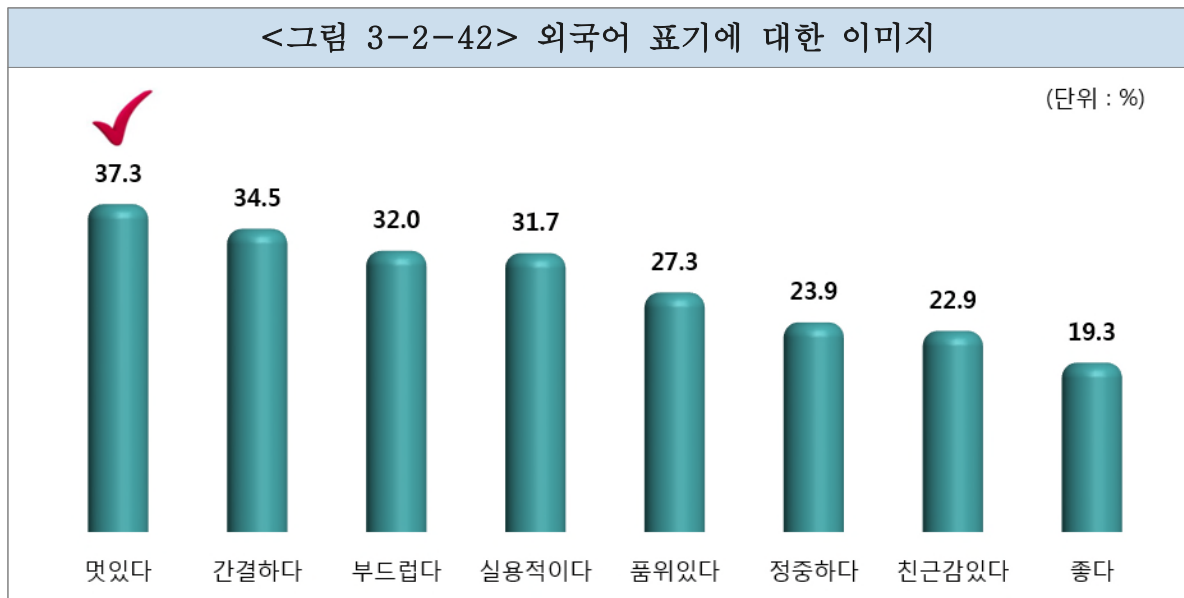
### 3) 외국어 표기에 대한 이미지

문36

한글 표기가 배제된 외국어 표기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외국어 표기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멋있다'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간결하다'(34.5%), '부드럽다'(32.0%), '실용적이다'(31.7%)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30%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 외국어 표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 지역, 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lt;표 3-2-43&gt; 외국어 표기에 대한 이미지


(단위 : 명, %)


		사례수	멋있다	간결하다	부드럽다	실용적이다	품위있다	정중하다	친근감있다	좋다
전 체		(5,000)	37.3	34.5	32.0	31.7	27.3	23.9	22.9	19.3
성	남성	(2,542)	37.0	35.0	31.8	32.5	27.6	24.0	23.1	19.5
	여성	(2,458)	37.6	33.9	32.1	31.0	26.9	23.7	22.7	19.0
연령	20대	(921)	42.9	38.7	38.2	38.1	31.5	22.7	27.1	24.4
	30대	(1,059)	37.7	37.3	34.5	33.9	29.3	25.4	26.4	20.3
	40대	(1,221)	38.5	35.4	29.4	31.4	25.6	22.9	21.5	19.9
	50대	(1,128)	34.9	31.4	29.7	28.6	25.1	24.8	20.1	15.8
	60대 이상	(671)	30.9	27.7	28.0	25.5	24.8	23.1	18.8	15.5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39.7	37.7	35.6	33.1	27.0	22.1	24.5	21.5
	강원	(143)	27.9	21.1	25.2	19.6	19.6	18.1	11.9	10.3
	충청권	(502)	36.5	31.1	27.5	28.1	32.6	18.7	28.5	20.1
	전라권	(479)	30.9	29.1	27.7	39.4	26.7	27.8	16.7	14.4
	경상권	(1,269)	37.2	34.4	29.6	29.4	27.4	28.9	21.8	17.8
	제주	(100)	27.0	18.0	24.0	27.0	18.0	17.0	15.0	15.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36.1	24.7	22.0	16.9	26.5	20.2	20.3	15.0
	101-200만원	(252)	27.7	30.3	27.0	25.9	17.1	23.1	19.9	14.7
	201-250만원	(656)	29.8	29.9	26.5	29.6	23.1	21.4	20.3	14.5
	251-350만원	(886)	35.8	33.8	29.9	31.8	23.3	23.1	19.7	17.2
	351-550만원	(2,193)	38.3	35.7	33.2	32.3	29.6	23.9	23.7	20.1
	551만원 이상	(888)	44.3	38.1	37.7	35.7	31.9	27.3	27.1	24.9
	모름/무응답	(12)	58.4	16.6	33.7	8.3	0.0	0.0	16.6	8.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5.8	21.3	18.2	18.1	18.8	22.8	16.5	13.2
	중학교 졸업	(332)	29.7	27.7	21.9	22.0	19.9	21.7	16.9	14.8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38.2	34.2	32.3	30.9	27.6	24.7	21.2	18.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8.2	36.2	33.6	34.4	28.4	23.5	25.4	21.2
	모름/무응답	(7)	28.4	42.3	57.1	14.2	28.9	29.1	28.1	13.8

#### 4) 외국어 표기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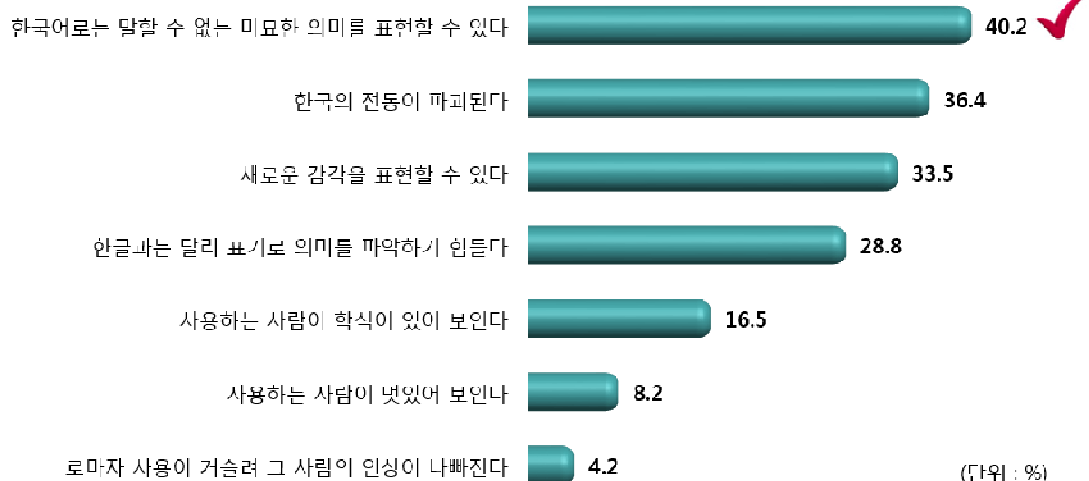
문37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외국어 표기에 대해 ‘한국어로는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이 파괴된다’(36.4%), ‘새로운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33.5%), ‘한글과는 달리 표기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2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43> 외국어 표기에 대한 견해



응답자 특성

- ➔ '한국어로는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충청권(44.8%), 강원(44.0%), 수도권(43.9%) 지역, 가구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반면, '한국의 전통이 파괴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강원(50.5%) 지역,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44> 외국어 표기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사례수	한국어로는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이 파괴된다	새로운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한글과는 달리 표기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사용하는 사람이 학식이 있어 보인다	사용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로마자 사용이 거슬려 그 사람의 인상이 나빠진다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40.2	36.4	33.5	28.8	16.5	8.2	4.2	0.1
성	남성	(2,542)	40.5	36.0	33.5	29.2	16.3	8.2	4.4	0.1
	여성	(2,458)	39.8	36.9	33.6	28.4	16.8	8.1	3.9	0.1
연령	20대	(921)	48.7	26.9	40.4	23.3	19.0	9.8	3.4	0.1
	30대	(1,059)	43.6	32.4	40.0	23.4	15.3	8.9	2.4	0.1
	40대	(1,221)	38.8	35.9	33.6	29.8	17.8	8.4	3.9	0.0
	50대	(1,128)	37.4	42.6	26.4	33.6	16.2	7.8	5.3	0.1
	60대 이상	(671)	30.1	46.4	25.6	34.9	13.4	5.0	6.5	0.1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43.9	32.0	38.2	29.7	12.4	7.5	3.8	0.1
	강원	(143)	44.0	50.5	35.6	42.8	13.2	4.2	5.7	0.0
	충청권	(502)	44.8	43.9	24.5	29.9	19.1	7.2	3.6	0.2
	전라권	(479)	32.3	32.0	29.0	36.7	19.0	8.7	5.4	0.0
	경상권	(1,269)	33.5	42.1	29.2	21.3	23.6	10.6	4.6	0.0
	제주	(100)	39.0	40.0	34.0	38.0	10.0	4.0	2.0	1.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30.1	45.2	28.2	33.9	20.4	5.3	4.5	0.0
	101-200만원	(252)	32.4	47.9	28.6	35.7	12.7	3.2	3.6	0.4
	201-250만원	(656)	39.9	39.8	28.8	32.5	13.6	7.2	3.9	0.1
	251-350만원	(886)	39.3	35.8	31.5	28.9	14.0	8.6	4.6	0.0
	351-550만원	(2,193)	40.3	34.3	35.1	28.0	17.7	8.3	4.1	0.1
	551만원 이상	(888)	44.8	35.5	36.9	25.7	19.2	10.0	4.2	0.0
	모름/무응답	(12)	16.8	32.8	41.9	8.5	8.4	16.7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0.4	48.0	16.7	37.9	15.6	5.5	3.9	0.0
	중학교 졸업	(332)	30.4	51.8	22.6	32.9	15.4	4.8	4.2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36.7	38.9	29.8	30.9	15.9	7.4	4.3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45.3	31.9	38.8	26.1	17.2	9.3	4.1	0.1
	모름/무응답	(7)	28.9	29.0	28.5	28.8	28.5	28.4	0.0	0.0

### 3.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가. 국어 교육

##### 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했던 경험

문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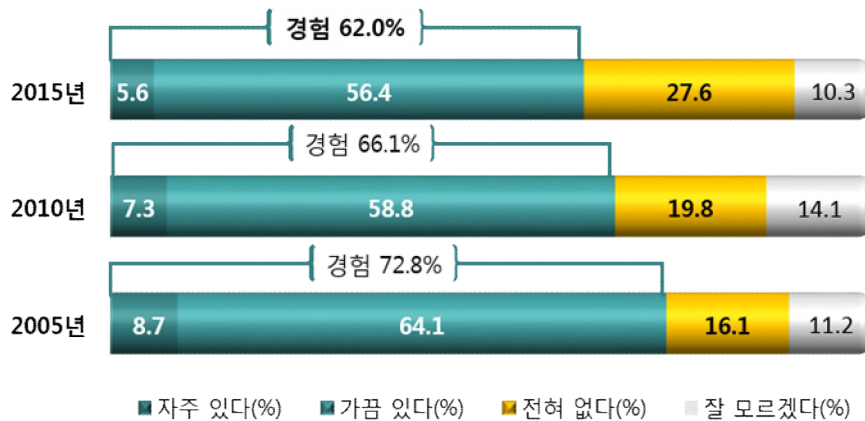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은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온 의미를 모르는 말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62.0%(자주 5.6% + 가끔 56.4%)가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반면, 27.6%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경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혀 없다'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혀 없다'는 2010년 대비 다소 큰 폭으로 증가(▲7.8%p)함.

<그림 3-3-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했던 경험





## 응답자 특성

- ➔ '가끔 있다'는 응답은 여성(58.1%),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 있다'는 60대 이상(9.4%), 충청권(10.0%) 지역,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았음.
- ➔ 반면, '전혀 없다'는 남성(29.9%), 연령이 낮을수록, 경상권(32.1%) 지역, 가구소득 251만원 이상,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lt;표 3-3-1&gt;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했던 경험

(단위 : 명, %)

		사례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5.6	56.4	27.6	10.3
성	남성	(2,542)	4.8	54.8	29.9	10.5
	여성	(2,458)	6.5	58.1	25.3	10.2
연령	20대	(921)	4.7	47.3	35.4	12.6
	30대	(1,059)	3.8	54.6	32.3	9.4
	40대	(1,221)	5.7	59.8	26.0	8.5
	50대	(1,128)	5.9	61.3	23.0	9.8
	60대 이상	(671)	9.4	57.3	20.3	13.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5.7	56.4	28.9	9.1
	강원	(143)	7.1	63.0	8.3	21.6
	충청권	(502)	10.0	62.6	16.5	10.9
	전라권	(479)	1.7	62.6	28.7	7.1
	경상권	(1,269)	4.9	51.2	32.1	11.9
	제주	(100)	8.0	55.0	18.0	19.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7.9	55.0	20.2	16.9
	101-200만원	(252)	7.5	58.7	20.6	13.1
	201-250만원	(656)	7.0	58.5	22.0	12.5
	251-350만원	(886)	5.4	58.2	27.6	8.9
	351-550만원	(2,193)	5.2	55.1	30.3	9.4
	551만원 이상	(888)	5.1	55.8	28.2	10.9
	모름/무응답	(12)	0.0	67.2	24.9	7.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10.9	57.5	16.5	15.1
	중학교 졸업	(332)	10.3	60.5	16.6	12.6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6.0	59.4	25.3	9.3
	대학교 졸업/재학	(2,510)	4.4	53.4	31.5	10.7
	모름/무응답	(7)	0.0	72.0	28.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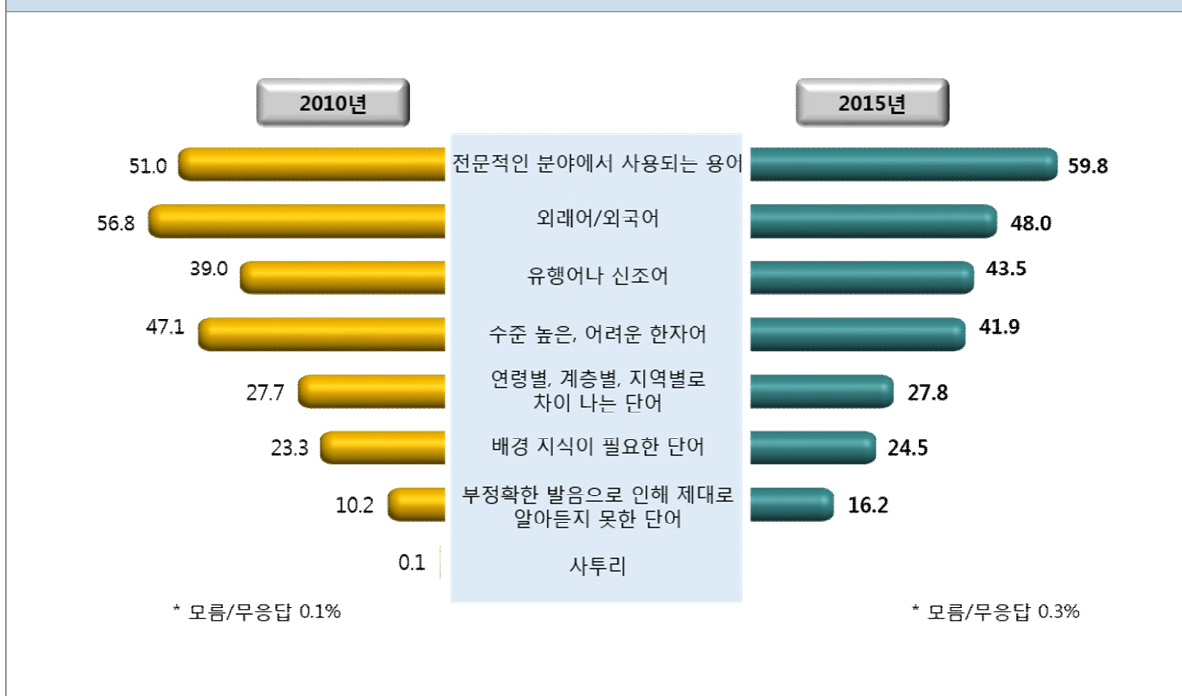
## 2)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르는 말 유형

문38-1

(문38의 1,2번 응답자만) 그림 주로 어떤 말들이 문제였습니까? (3개 선택)

-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르는 말의 유형으로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59.8%로 가장 많이 꼽힘.
- 다음으로 '외래어·외국어'(48.0%), '유행어나 신조어'(43.5%),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4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전문용어'와 '유행어나 신조어'는 각각 8.8%p, 4.5%p 증가한 반면, '외래어·외국어'는 8.8%p 감소함.

<그림 3-3-2> 신문·TV에서 나오는 모르는 말 유형



## 응답자 특성

- ➔ 모르는 말의 유형으로 '전문용어'를 꼽은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제주(68.3%), 충청권(66.5%), 전라권(64.8%) 지역,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외래어·외국어'는 연령이 높을수록, 충청권(67.3%) 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음.

&lt;표 3-3-2&gt; 신문·TV에서 나오는 모르는 말 유형

(단위 : 명, %)

		사례수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외래어· 외국어	유행어나 신조어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로 차이 나는 단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단어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제대로 알아들지 못한 단어	모름/ 무응답
전 체		(3,101)	59.8	48.0	43.5	41.9	27.8	24.5	16.2	0.3
성	남성	(1,515)	59.2	48.5	43.2	41.1	28.0	24.7	16.6	0.3
	여성	(1,586)	60.3	47.4	43.7	42.6	27.6	24.3	15.9	0.3
연령	20대	(479)	63.7	38.3	24.8	56.8	25.7	32.4	15.8	0.2
	30대	(617)	63.4	40.0	39.6	48.4	26.9	26.5	14.9	0.3
	40대	(799)	58.2	47.4	44.2	40.0	30.0	25.8	16.7	0.4
	50대	(758)	58.8	54.5	53.2	33.5	28.3	20.7	15.9	0.3
	60대 이상	(448)	55.2	59.0	50.9	34.5	26.6	17.1	18.2	0.4
거주 지역	수도권	(1,555)	59.4	48.3	49.1	43.0	25.1	19.7	15.0	0.1
	강원	(100)	60.6	43.4	46.0	35.7	42.4	16.9	27.1	0.0
	충청권	(364)	66.5	67.3	44.2	40.4	32.4	25.0	14.9	0.0
	전라권	(308)	64.8	36.1	41.3	44.8	37.2	45.5	16.1	0.0
	경상권	(711)	54.0	44.4	31.3	40.2	26.4	26.5	18.8	1.1
	제주	(63)	68.3	33.3	46.0	36.5	15.9	25.4	6.3	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71)	55.1	41.1	34.0	42.0	31.3	23.9	23.9	1.3
	101-200만원	(167)	56.2	48.1	47.9	34.7	33.7	18.5	21.9	0.0
	201-250만원	(430)	60.4	52.1	43.7	35.6	31.1	21.9	17.9	0.9
	251-350만원	(563)	61.6	48.3	38.3	46.4	28.1	25.7	17.4	0.2
	351-550만원	(1,322)	60.3	47.5	43.5	42.8	28.9	24.7	14.9	0.3
	551만원 이상	(540)	57.7	46.6	49.0	42.0	20.4	26.2	14.0	0.0
	모름/무응답	(8)	62.9	25.1	12.6	50.2	0.0	37.2	12.2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7)	49.6	70.1	36.8	41.3	20.5	14.9	28.6	0.0
	중학교 졸업	(235)	53.2	61.3	46.7	35.0	29.5	16.6	19.8	0.8
	고등학교 졸업/재학	(1,325)	59.7	50.9	47.7	40.1	28.9	23.0	15.3	0.4
	대학교 졸업/재학	(1,449)	61.6	41.7	39.5	44.6	27.0	27.6	15.7	0.2
	모름/무응답	(5)	40.1	39.8	40.2	39.7	20.4	39.8	0.0	0.0

### 3)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문38-2

(문38의 12번 응답자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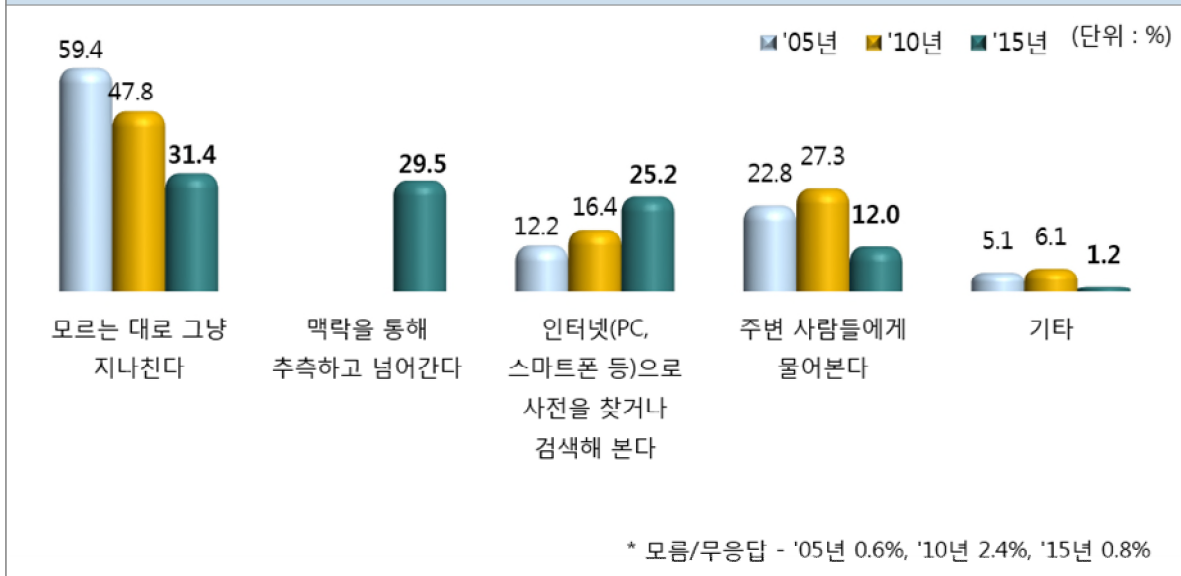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Base=3,101명)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29.5%)는 응답이 그 뒤를 이어 과반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터넷으로 사전을 찾거나 검색해 본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처럼 적극적인 대응은 각각 25.2%, 12.0%로 나타남.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는 의견이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PC, 스마트폰 등)으로 사전을 찾거나 검색해 본다’는 2010년 대비 8.8%p 증가함.

\* 2015년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 보기 추가로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그림 3-3-3> 신문·TV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 응답자 특성

- ➔ 소극적 대응 방안 중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 강원(40.1%) 및 전라권(39.8%) 지역, 가구소득 및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적극적 대응 방안 중 '인터넷으로 사전을 찾거나 검색해 본다'는 연령이 낮을수록, 강원(33.8%) 및 제주(33.3%) 지역, 가구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lt;표 3-3-3&gt; 신문·TV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단위 : 명, %)

		사례수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	인터넷으로 사전을 찾거나 검색해 본다	주변사람들 에게 물어본다	전자 사전을 찾아본다	종이 사전을 찾아본다	모름/ 무응답
전 체		(3,101)	31.4	29.5	25.2	12.0	1.0	0.2	0.8
성	남성	(1,515)	32.3	29.1	26.5	10.4	1.0	0.2	0.6
	여성	(1,586)	30.5	29.9	23.9	13.5	1.0	0.3	0.9
연령	20대	(479)	23.3	27.5	41.4	5.7	0.6	0.2	1.2
	30대	(617)	22.1	30.5	37.6	8.3	1.0	0.0	0.6
	40대	(799)	28.2	31.8	24.5	13.1	1.6	0.3	0.5
	50대	(758)	37.4	27.8	17.4	15.8	0.8	0.4	0.5
	60대 이상	(448)	48.3	29.1	5.1	15.4	0.5	0.2	1.3
거주 지역	수도권	(1,555)	29.3	31.0	24.6	13.2	1.0	0.1	0.7
	강원	(100)	40.1	15.0	33.8	11.1	0.0	0.0	0.0
	충청권	(364)	28.6	32.7	23.9	12.7	0.8	0.5	0.8
	전라권	(308)	39.8	27.8	26.2	3.9	2.0	0.3	0.0
	경상권	(711)	33.4	27.4	24.6	12.6	0.7	0.0	1.4
	제주	(63)	20.6	30.2	33.3	12.7	0.0	3.2	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71)	53.6	25.3	8.4	11.4	0.0	0.0	1.3
	101-200만원	(167)	46.1	26.3	17.4	9.0	0.7	0.0	0.6
	201-250만원	(430)	38.4	24.8	22.1	12.1	1.4	0.5	0.7
	251-350만원	(563)	33.8	32.1	22.9	9.6	0.7	0.2	0.7
	351-550만원	(1,322)	27.4	29.4	27.9	13.2	1.1	0.3	0.7
	551만원 이상	(540)	25.9	32.2	27.8	12.2	0.9	0.0	0.9
	모름/무응답	(8)	12.3	37.9	37.2	12.6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7)	56.0	32.4	2.3	5.8	1.2	0.0	2.3
	중학교 졸업	(235)	48.6	29.7	6.4	12.7	0.9	0.4	1.3
	고등학교 졸업/재학	(1,325)	36.1	29.3	18.9	14.5	0.7	0.2	0.3
	대학교 졸업/재학	(1,449)	22.8	29.4	35.3	9.9	1.2	0.3	1.0
	모름/무응답	(5)	19.9	40.4	19.8	19.9	0.0	0.0	0.0

#### 4)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문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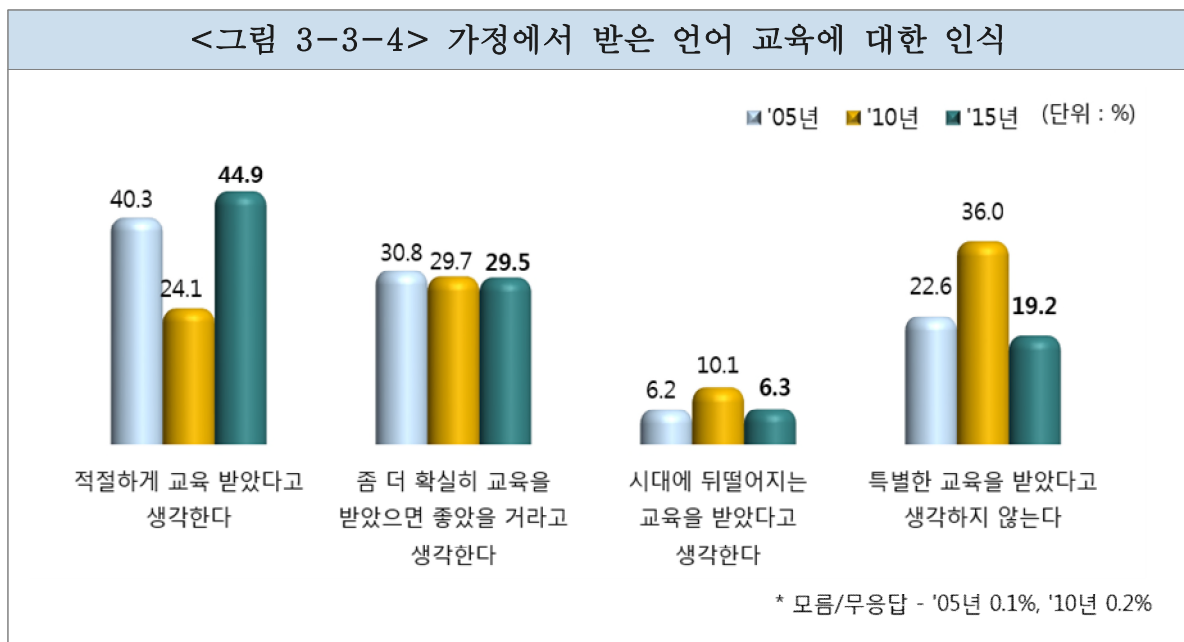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자신이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29.5%),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9.2%),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6.3%) 순으로 나타남.

'적절하게 교육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05년 가장 높게 나타났었으나 2010년 크게 하락하였고,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20.8%p)함. 반면,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10년 크게 증가했었으나 올해에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그림 3-3-4>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

- ➔ '적절하게 교육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20대(51.2%), 전라권(62.2%) 지역, 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0대(33.3%), 경상권(31.9%) 및 수도권(30.4%)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lt;표 3-3-4&gt;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적절하게 교육받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44.9	29.5	19.2	6.3	0.0
성	남성	(2,542)	45.7	29.1	18.9	6.2	0.0
	여성	(2,458)	44.1	29.9	19.6	6.4	0.0
연령	20대	(921)	51.2	26.0	18.3	4.5	0.0
	30대	(1,059)	45.6	29.6	18.8	5.9	0.0
	40대	(1,221)	47.7	29.0	17.6	5.6	0.0
	50대	(1,128)	39.9	33.3	20.1	6.7	0.0
	60대 이상	(671)	38.7	28.7	22.6	9.8	0.1
거주지역	수도권	(2,507)	43.9	30.4	20.5	5.2	0.0
	강원	(143)	39.1	18.2	35.8	6.9	0.0
	충청권	(502)	49.4	25.3	17.0	8.4	0.0
	전라권	(479)	62.2	27.4	3.7	6.7	0.0
	경상권	(1,269)	40.5	31.9	20.4	7.3	0.0
	제주	(100)	30.0	26.0	35.0	9.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36.4	22.0	34.5	7.1	0.0
	101-200만원	(252)	41.9	26.4	25.8	5.9	0.0
	201-250만원	(656)	43.4	29.2	19.9	7.5	0.0
	251-350만원	(886)	44.7	30.7	19.5	5.0	0.1
	351-550만원	(2,193)	45.3	30.6	17.4	6.7	0.0
	551만원 이상	(888)	46.9	28.1	19.4	5.7	0.0
	모름/무응답	(12)	66.4	8.5	16.5	8.5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5.1	22.2	38.5	14.2	0.0
	중학교 졸업	(332)	32.2	32.9	24.9	9.8	0.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3.2	32.2	18.8	5.8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49.1	27.2	17.9	5.8	0.0
	모름/무응답	(7)	28.0	43.3	14.3	14.3	0.0

## 5)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문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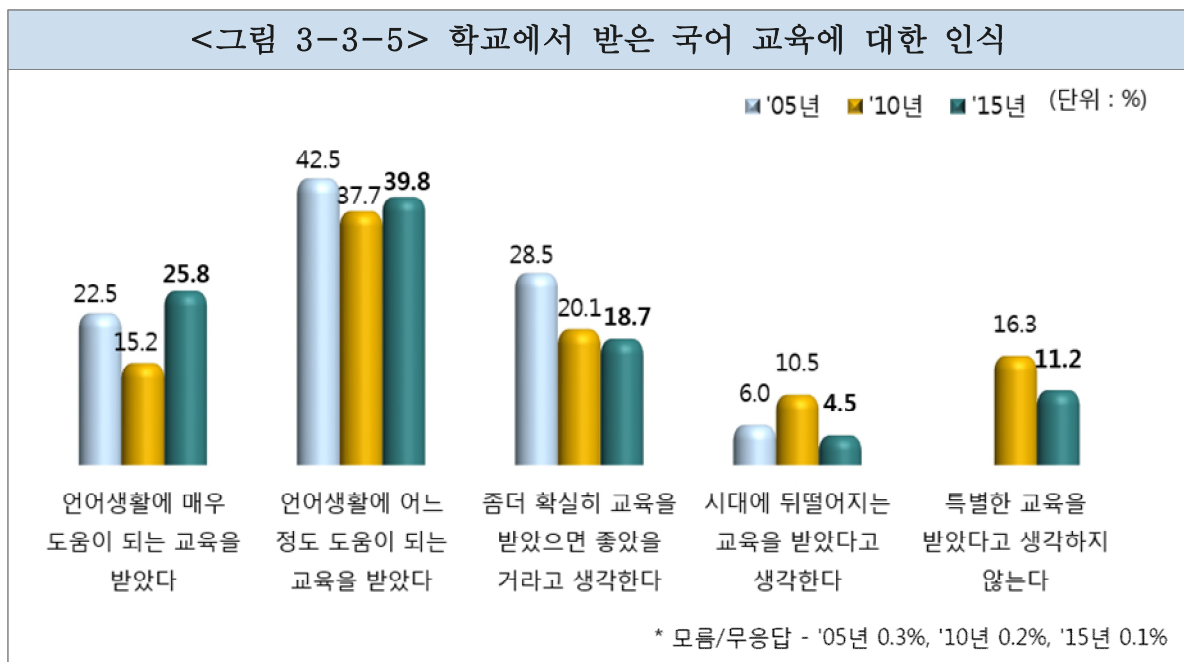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자신이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는 의견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25.8%로 나타나 과반(65.6%)이 학교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18.7%),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1.2%),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4.5%) 순으로 나타남.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010년 대비 10.6%p의 큰 폭으로 상승함.

<그림 3-3-5>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

- ➡ ‘매우 도움 되는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라권(51.6%) 거주자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반면,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제주(28.0%) 및 충청권(24.5%)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lt;표 3-3-5&gt;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39.8	25.8	18.7	11.2	4.5	0.1
성	남성	(2,542)	39.9	26.4	18.5	11.0	4.0	0.0
	여성	(2,458)	39.6	25.2	18.9	11.4	4.9	0.1
연령	20대	(921)	38.6	26.3	18.5	12.8	3.7	0.1
	30대	(1,059)	39.5	26.7	19.3	11.2	3.3	0.1
	40대	(1,221)	41.5	27.4	17.4	9.9	3.8	0.0
	50대	(1,128)	39.9	24.5	19.9	9.9	5.8	0.1
	60대 이상	(671)	38.5	23.2	18.3	13.7	6.3	0.0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41.8	23.8	20.4	10.0	3.9	0.1
	강원	(143)	39.2	16.7	17.4	21.0	5.6	0.0
	충청권	(502)	44.6	13.7	24.5	13.3	3.8	0.0
	전라권	(479)	26.1	51.6	16.1	2.1	4.2	0.0
	경상권	(1,269)	39.4	27.0	13.4	14.8	5.3	0.1
	제주	(100)	36.0	11.0	28.0	13.0	12.0	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31.0	22.2	14.9	24.8	7.1	0.0
	101-200만원	(252)	36.2	27.3	17.9	15.1	3.6	0.0
	201-250만원	(656)	35.1	26.8	20.4	11.8	5.9	0.0
	251-350만원	(886)	36.5	26.8	22.7	10.9	3.2	0.0
	351-550만원	(2,193)	42.6	25.3	17.6	9.5	4.9	0.1
	551만원 이상	(888)	41.6	25.6	16.9	12.3	3.6	0.0
	모름/무응답	(12)	41.8	25.3	8.3	16.5	0.0	8.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5.2	21.2	16.5	30.8	6.3	0.0
	중학교 졸업	(332)	34.3	24.2	20.7	12.3	8.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1.9	24.5	19.0	10.4	4.3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9.5	27.4	18.3	10.7	4.0	0.1
	모름/무응답	(7)	57.5	14.3	0.0	14.3	0.0	13.8

## 6)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

문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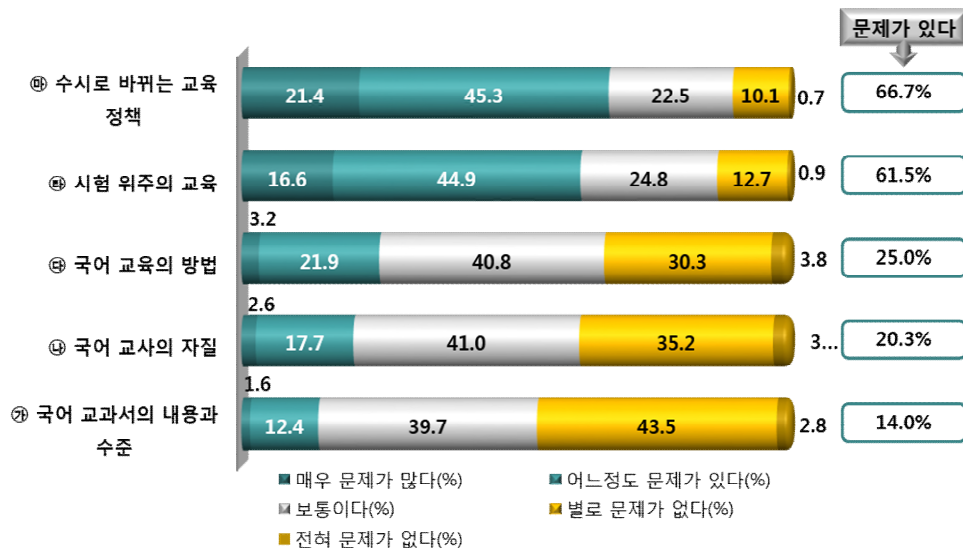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 대해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66.7%)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시험 위주의 교육’(61.5%) 또한 과반에게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다음으로 ‘국어를 학습하는 방법’(25.0%), ‘국어를 가르치는 방법’(20.3%),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14.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2010년에도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2005년에는 ‘시험 위주의 교육’을 가장 문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6>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



## 응답자 특성

- ➔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에 대한 지적은 20대(69.7%), 제주(76.0%) 및 전라권(71.8%) 지역, 가구소득 251-350만원(71.2%),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임.
- ➔ '시험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도 20대(65.0%), 제주(73.0%) 및 전라권(67.8%) 지역, 학력이 높을수록 문제점으로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lt;표 3-3-6&gt;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

(단위 : 명, %)

		사례수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	시험 위주의 교육	국어를 학습하는 방법	국어를 가르치는 방법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
전 체		(5,000)	66.7	61.5	25.0	20.3	14.0
성	남성	(2,542)	66.8	62.5	24.8	19.3	13.7
	여성	(2,458)	66.6	60.6	25.3	21.3	14.2
연령	20대	(921)	69.7	65.0	29.6	26.2	15.9
	30대	(1,059)	66.3	59.7	27.2	20.9	15.0
	40대	(1,221)	68.0	61.5	24.2	18.7	13.1
	50대	(1,128)	65.9	62.6	22.8	18.2	13.6
	60대 이상	(671)	62.1	58.1	20.6	17.9	11.8
거주지역	수도권	(2,507)	68.0	61.3	24.0	20.9	15.5
	강원	(143)	64.1	56.5	26.7	23.0	14.7
	충청권	(502)	68.1	59.1	25.9	17.4	10.6
	전라권	(479)	71.8	67.8	22.4	16.3	10.3
	경상권	(1,269)	61.1	60.1	26.0	20.1	12.8
	제주	(100)	76.0	73.0	45.0	40.0	23.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54.0	51.4	20.3	20.3	14.1
	101-200만원	(252)	61.5	56.3	23.8	23.5	15.5
	201-250만원	(656)	64.2	58.2	25.8	22.1	14.9
	251-350만원	(886)	71.2	62.9	26.0	18.7	12.6
	351-550만원	(2,193)	67.8	63.3	24.4	20.1	13.2
	551만원 이상	(888)	65.0	61.6	26.2	20.5	16.0
	모름/무응답	(12)	24.6	16.4	8.2	8.2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5.7	42.5	17.4	16.6	10.9
	중학교 졸업	(332)	62.0	57.5	19.3	15.7	12.1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65.1	60.1	23.1	17.9	13.7
	대학교 졸업/재학	(2,510)	69.7	64.3	27.8	23.1	14.5
	모름/무응답	(7)	57.0	28.9	14.2	14.2	14.2

## 나. 한자 교육

### 1)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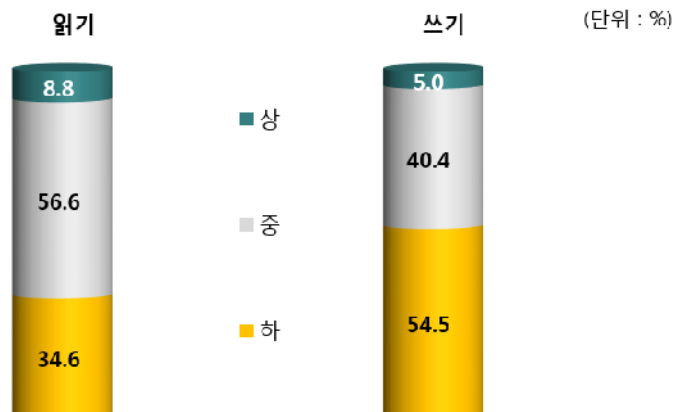
문42

한자를 읽고 쓰는 귀하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한자 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읽기 능력은 과반(56.6%)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중'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반면, 쓰기 능력은 전혀 쓸 수 없는 '하'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과반(54.5%)을 차지함.

읽기와 쓰기 능력 모두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상'에 해당된다는 응답은 10% 미만에 불과했음.

<그림 3-3-7>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 응답자 특성

- ➔ 읽기 능력에 대해 ‘중’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강원(42.8%) 및 경상권(45.2%) 지역,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에서는 ‘하’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쓰기 능력이 ‘하’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경상권(68.6%) 지역,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lt;표 3-3-7&gt;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단위 : 명, %)

		사례수	읽기			쓰기			
			상	중	하	상	중	하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8.8	56.6	34.6	5.0	40.4	54.5	0.0
성	남성	(2,542)	11.2	58.8	30.0	5.9	44.3	49.8	0.0
	여성	(2,458)	6.3	54.3	39.4	4.1	36.5	59.4	0.0
연령	20대	(921)	8.6	51.5	39.9	5.4	37.2	57.4	0.0
	30대	(1,059)	7.7	57.4	34.9	5.4	38.8	55.9	0.0
	40대	(1,221)	7.6	60.2	32.2	4.4	42.1	53.5	0.0
	50대	(1,128)	10.5	57.9	31.6	5.0	44.2	50.7	0.1
	60대 이상	(671)	10.0	53.6	36.4	5.3	38.1	56.6	0.0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10.6	59.5	29.9	6.9	44.6	48.5	0.0
	강원	(143)	4.2	53.0	42.8	2.8	42.4	54.7	0.0
	충청권	(502)	7.4	57.2	35.5	2.8	44.0	53.2	0.0
	전라권	(479)	7.9	61.8	30.3	5.1	42.8	52.2	0.0
	경상권	(1,269)	6.5	48.3	45.2	2.5	28.9	68.6	0.1
	제주	(100)	11.0	68.0	21.0	6.0	51.0	43.0	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5.3	47.7	47.0	2.7	34.4	62.9	0.0
	101-200만원	(252)	7.6	48.6	43.8	4.0	33.6	62.4	0.0
	201-250만원	(656)	7.4	52.7	39.8	4.8	37.1	58.1	0.0
	251-350만원	(886)	7.4	58.7	33.9	4.2	41.2	54.6	0.0
	351-550만원	(2,193)	9.4	57.7	32.9	5.1	41.3	53.6	0.0
	551만원 이상	(888)	10.3	58.0	31.7	6.3	42.6	51.1	0.0
	모름/무응답	(12)	25.0	58.1	16.9	25.0	49.9	25.1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8	29.0	66.2	4.0	18.1	77.9	0.0
	중학교 졸업	(332)	8.5	46.4	45.1	4.3	31.5	64.2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7.3	55.9	36.8	4.0	39.3	56.7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10.3	60.0	29.8	6.0	43.7	50.3	0.0
	모름/무응답	(7)	14.3	57.1	28.6	14.3	14.4	71.2	0.0

## 2) 현행 한자 교육의 적절성

문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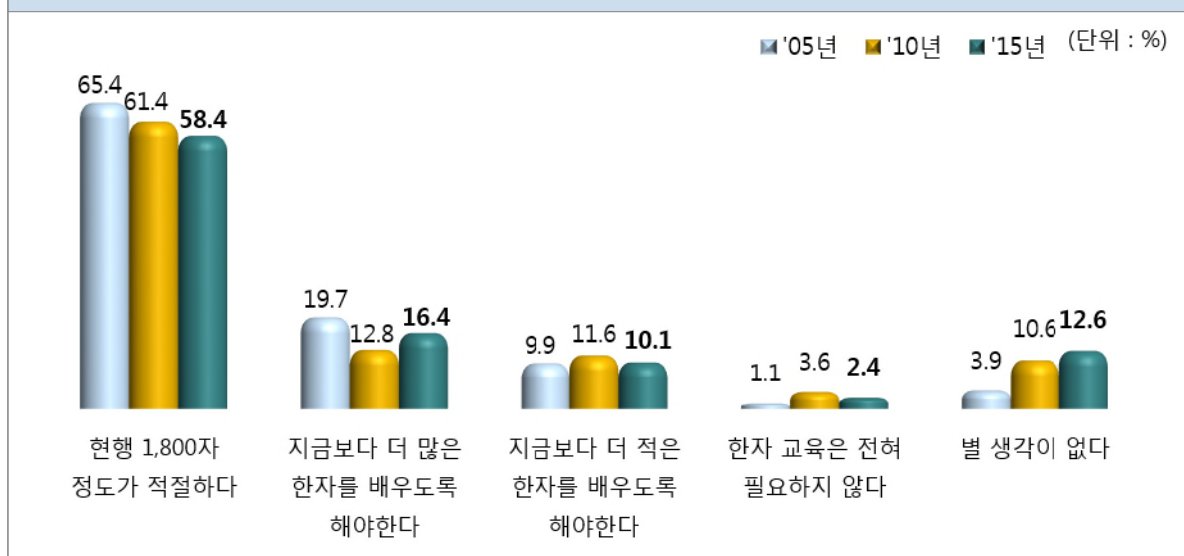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800자의 한자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한자 교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중국의 상용한자는 각각 2,136자, 3,500자로 규정되어 있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800자를 배우게 되어있는 현행 한자 교육에 대해 '현행 1,800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16.4%), '지금보다 더 적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2.6%로 조사됨.

현행 1,800자 교육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3-8> 현행 한자 교육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

- ➔ '현행 1,800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0대(62.3%), 수도권(62.5%) 지역, 가구소득 251만원 이상(251-350만원 59.8%, 351-550만원 59.4%, 551만원 이상 59.7%)에서 높게 나타남.
- ➔ '지금보다 더 많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꼽은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충청권(22.7%) 및 강원(22.2%) 지역, 중학교 졸업(21.1%)에서 높았음.

&lt;표 3-3-8&gt; 현행 한자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현행 1,800자 정도가 적절하다	지금보다 더 많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적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한자 교육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 생각이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58.4	16.4	10.1	2.4	12.6	0.0
성	남성	(2,542)	58.9	16.2	10.2	2.7	12.0	0.0
	여성	(2,458)	58.0	16.7	10.0	2.0	13.3	0.0
연령	20대	(921)	55.1	11.5	13.1	3.8	16.4	0.0
	30대	(1,059)	57.7	15.0	10.8	2.5	13.8	0.1
	40대	(1,221)	62.3	15.3	10.3	2.6	9.5	0.0
	50대	(1,128)	59.5	20.3	8.6	1.5	10.1	0.0
	60대 이상	(671)	55.3	20.8	7.0	1.0	15.8	0.0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62.5	15.7	8.4	2.4	11.0	0.0
	강원	(143)	55.5	22.2	7.6	2.8	11.8	0.0
	충청권	(502)	46.9	22.7	20.9	0.8	8.8	0.0
	전라권	(479)	58.0	15.1	2.5	1.4	23.0	0.0
	경상권	(1,269)	55.6	15.5	12.0	3.1	13.7	0.0
	제주	(100)	57.0	12.0	16.0	4.0	11.0	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48.9	21.0	8.8	5.3	15.9	0.0
	101-200만원	(252)	50.0	19.1	11.5	0.8	18.6	0.0
	201-250만원	(656)	56.5	17.0	7.5	1.7	17.4	0.0
	251-350만원	(886)	59.8	15.8	9.5	1.7	13.1	0.1
	351-550만원	(2,193)	59.4	15.5	11.6	2.6	10.8	0.0
	551만원 이상	(888)	59.7	17.6	8.9	2.9	10.9	0.0
	모름/무응답	(12)	58.8	16.6	0.0	0.0	24.6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51.4	14.1	8.7	1.6	24.3	0.0
	중학교 졸업	(332)	50.6	21.1	9.0	1.8	17.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9.2	17.6	9.0	1.9	12.3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9.2	14.9	11.3	2.8	11.7	0.0
	모름/무응답	(7)	71.5	14.3	0.0	0.0	14.2	0.0

### 3)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문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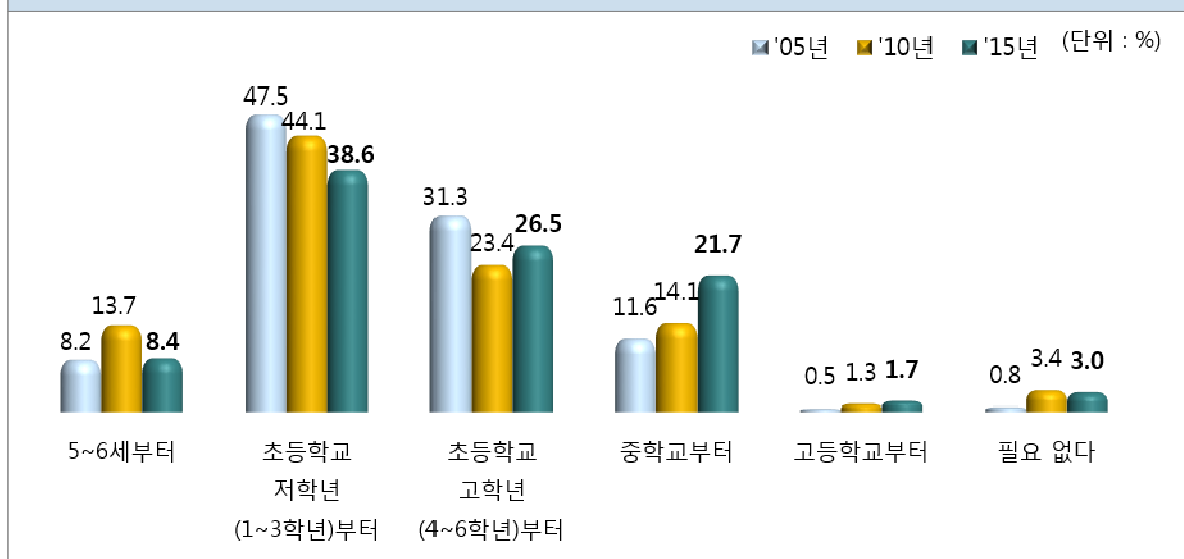
한자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자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26.5%)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어 현행보다 이른 초등학교 시기에 한자 교육을 실시하길 바라는 비율이 65.1%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과 동일하게 '중학교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고, 취학 전인 '5~6세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은 8.4%로 조사됨.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 3-3-9>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 응답자 특성

- ➔ 현행보다 이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 이상, 충청권(58.2%) 및 전라권(53.0%) 지역, 가구소득 101-200만원(46.8%)에서 높았음.
- ➔ 반면, 현행과 동일한 '중학교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제주(30.0%) 지역 및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27.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lt;표 3-3-9&gt;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단위 : 명, %)

		사례수	5-6 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1-3 학년) 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4-6 학년) 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부터	필요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8.4	38.6	26.5	21.7	1.7	3.0	0.0
성	남성	(2,542)	7.9	38.1	26.4	22.4	1.8	3.5	0.0
	여성	(2,458)	9.0	39.0	26.7	21.1	1.6	2.6	0.0
연령	20대	(921)	10.6	35.6	23.2	23.5	3.0	4.0	0.0
	30대	(1,059)	8.4	34.8	30.5	21.2	1.6	3.4	0.1
	40대	(1,221)	8.4	40.0	26.8	21.0	1.2	2.7	0.0
	50대	(1,128)	7.7	41.5	25.6	20.8	1.8	2.5	0.0
	60대 이상	(671)	6.9	40.9	25.6	23.2	0.8	2.7	0.0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7.8	35.0	27.6	25.0	1.2	3.4	0.0
	강원	(143)	12.6	34.3	25.2	23.1	2.1	2.8	0.0
	충청권	(502)	8.1	58.2	22.1	8.6	1.6	1.4	0.0
	전라권	(479)	6.9	53.0	23.8	14.2	0.8	1.3	0.0
	경상권	(1,269)	9.4	33.3	28.1	22.5	3.1	3.5	0.0
	제주	(100)	15.0	34.0	17.0	30.0	0.0	4.0	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12.4	33.6	20.4	27.4	1.8	4.4	0.0
	101-200만원	(252)	7.6	46.8	23.7	18.7	0.8	2.4	0.0
	201-250만원	(656)	10.7	40.2	23.1	21.2	2.0	2.8	0.0
	251-350만원	(886)	6.8	40.3	30.8	17.8	2.1	2.2	0.0
	351-550만원	(2,193)	8.1	38.3	26.1	23.1	1.5	2.9	0.0
	551만원 이상	(888)	8.9	34.8	27.4	22.6	1.7	4.6	0.0
	모름/무응답	(12)	16.1	25.1	25.5	33.3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10.3	38.3	28.4	20.7	0.8	1.5	0.0
	중학교 졸업	(332)	7.0	41.3	25.8	22.0	0.3	3.6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7.9	41.2	24.8	21.7	1.7	2.7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9.0	36.1	27.9	21.8	1.9	3.3	0.0
	모름/무응답	(7)	13.8	28.6	43.2	0.0	0.0	0.0	14.4

## 다. 외국어 교육

### 1)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문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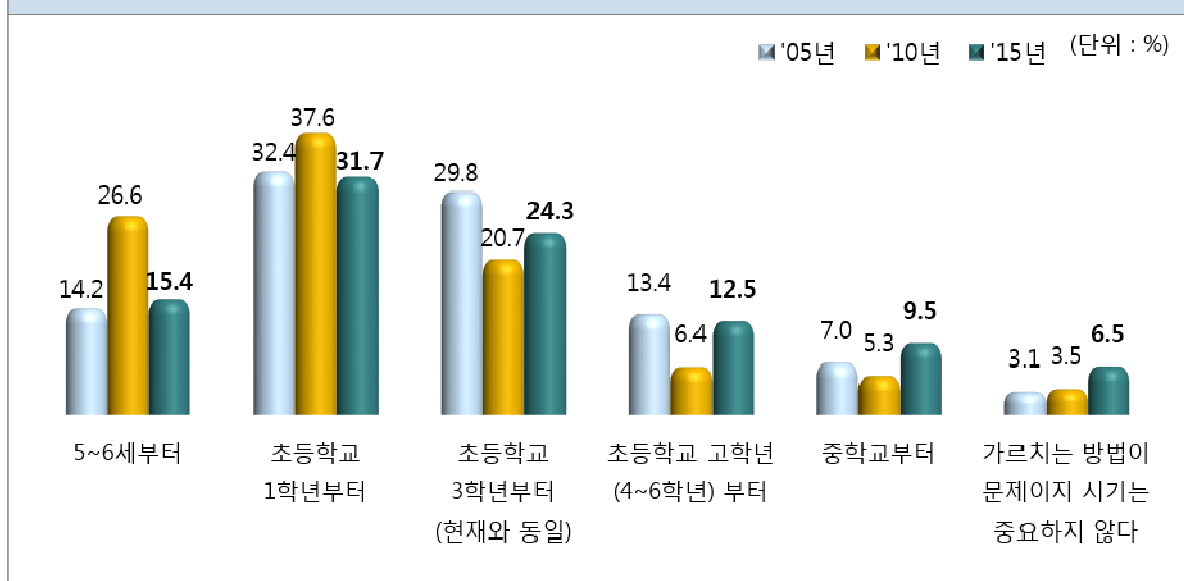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교육은 현행보다 이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과 동일한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가 24.3%로 그 뒤를 이음.

다음으로는 취학 전인 '5-6세부터'(15.4%), 현행보다 늦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12.5%), '중학교부터'(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5%는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이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5년과 2010년, 2015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부터'는 2010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다소 상승했고, '5-6세부터'는 2010년 급증하였다가 올해 11.2%p 하락하였음.

<그림 3-3-10>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 응답자 특성

- ➔ 현행보다 이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충청권(40.7%) 및 전라권(37.5%)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은 한자 교육에 대해서도 이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 한편, 취학 전인 '5-6세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0대, 제주(19.0%) 및 수도권(18.4%) 지역, 가구소득 551만원 이상(20.5%),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lt;표 3-3-10&gt;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단위 : 명, %)

		사례수	5-6 세부터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초등학교 3 학년부터 (현재와 동일)	초등학교 고학년 (4-6 학년)부터	중학교부터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이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15.4	31.7	24.3	12.5	9.5	6.5	0.0
성	남성	(2,542)	14.6	31.2	23.0	13.4	11.1	6.6	0.0
	여성	(2,458)	16.3	32.3	25.7	11.4	7.9	6.4	0.0
연령	20대	(921)	17.0	29.5	22.7	11.6	9.8	9.3	0.0
	30대	(1,059)	17.5	32.2	23.9	11.4	8.1	6.8	0.1
	40대	(1,221)	14.8	32.2	24.8	13.7	7.9	6.5	0.0
	50대	(1,128)	14.3	32.4	25.7	12.5	10.0	5.2	0.0
	60대 이상	(671)	13.1	32.0	24.2	12.9	13.5	4.3	0.0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18.4	30.6	21.5	12.9	10.5	6.0	0.0
	강원	(143)	14.7	25.7	26.7	19.0	9.8	4.2	0.0
	충청권	(502)	10.6	40.7	24.9	11.7	5.0	7.2	0.0
	전라권	(479)	5.6	37.5	29.0	14.9	7.3	5.7	0.0
	경상권	(1,269)	15.1	29.1	27.7	10.4	10.1	7.7	0.0
	제주	(100)	19.0	30.0	24.0	10.0	11.0	6.0	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12.4	28.2	21.3	8.9	21.4	7.9	0.0
	101-200만원	(252)	12.7	31.3	27.3	13.5	9.2	6.0	0.0
	201-250만원	(656)	13.1	31.4	24.8	15.0	9.7	6.0	0.0
	251-350만원	(886)	12.7	34.4	23.3	12.1	9.5	7.9	0.1
	351-550만원	(2,193)	15.7	31.9	23.7	13.0	9.2	6.4	0.0
	551만원 이상	(888)	20.5	29.1	26.0	9.9	8.9	5.6	0.0
	모름/무응답	(12)	8.2	50.7	41.1	0.0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10.3	29.9	21.8	18.3	14.2	5.5	0.0
	중학교 졸업	(332)	10.3	32.6	26.8	10.6	14.2	5.4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14.5	31.4	25.8	11.9	9.7	6.7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17.1	32.0	22.9	12.9	8.5	6.5	0.0
	모름/무응답	(7)	42.8	14.3	42.9	0.0	0.0	0.0	0.0

## 2)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문46

귀하께서는 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운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배우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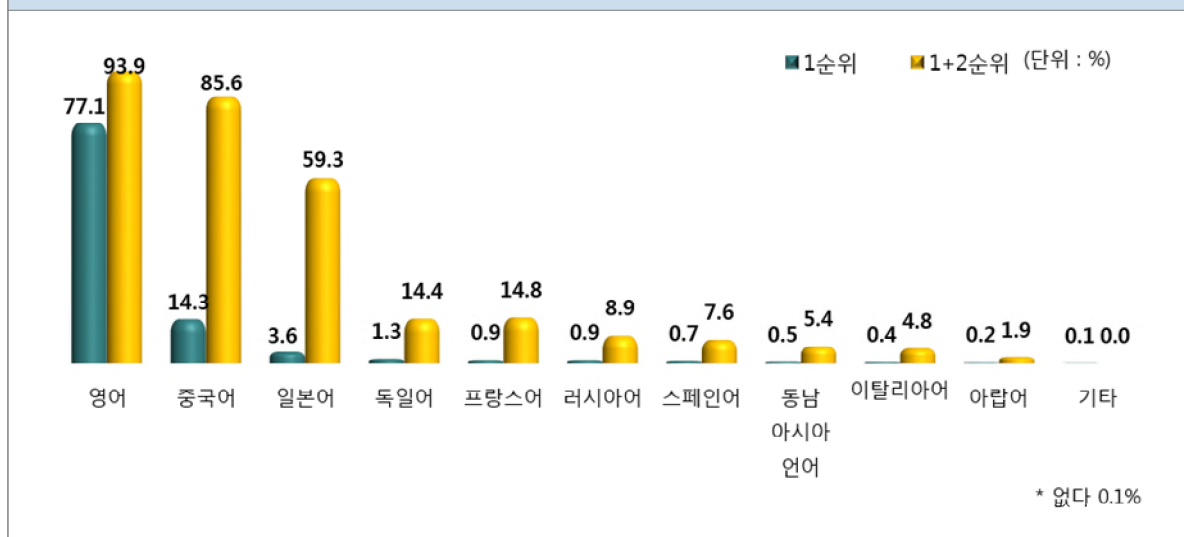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1순위 기준)로는 '영어'가 7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어'(14.3%), '일본어'(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할 경우 순위의 변동은 크지 않았으나, '중국어'는 85.6%, '일본어'는 59.3%까지 높아졌으며, 영어는 93.9%로 나타나 10명 중 9명 이상이 배우길 희망하고 있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영어'를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로 꼽았으며, 2순위까지 고려할 경우 '중국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일본어'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05년과 2010년에는 2순위까지 질문하였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각 년도의 1+2순위를 기준으로 비교함.

<그림 3-3-11>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 응답자 특성

- ➔ 국어 외에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1순위 기준)로 '영어'를 꼽은 비율은 여성(78.8%), 전라권(80.2%) 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 한편, '중국어'는 남성(15.8%), 충청권(17.5%) 및 제주(17.0%) 지역에서 높았음.

&lt;표 3-3-11&gt;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1순위)

(단위 : 명, %)

		사례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동남아시아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전 체		(5,000)	77.1	14.3	3.6	1.3	0.9	0.9	0.7	0.5	0.4	0.2
성	남성	(2,542)	75.5	15.8	3.7	1.5	0.8	0.9	0.6	0.6	0.4	0.2
	여성	(2,458)	78.8	12.7	3.5	1.1	1.1	0.8	0.7	0.4	0.5	0.2
연령	20대	(921)	74.6	11.4	4.8	2.9	1.7	1.2	1.2	0.4	1.3	0.3
	30대	(1,059)	77.7	14.2	3.5	1.3	0.8	0.9	0.6	0.5	0.5	0.1
	40대	(1,221)	77.6	14.6	3.0	1.2	0.8	0.8	0.7	0.8	0.2	0.2
	50대	(1,128)	76.4	16.0	3.2	0.6	0.9	0.9	0.7	0.5	0.1	0.2
	60대 이상	(671)	79.8	14.6	3.8	0.4	0.3	0.5	0.0	0.0	0.0	0.0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77.6	14.2	3.4	1.0	0.9	0.8	0.8	0.5	0.5	0.2
	강원	(143)	78.4	10.5	4.9	2.2	0.7	1.4	2.0	0.0	0.0	0.0
	충청권	(502)	69.8	17.5	4.8	1.2	2.0	0.6	0.4	2.4	0.6	0.0
	전라권	(479)	80.2	11.6	2.5	2.7	0.6	1.5	0.4	0.0	0.2	0.0
	경상권	(1,269)	78.4	14.3	3.5	1.3	0.6	1.0	0.5	0.1	0.3	0.2
	제주	(100)	69.0	17.0	7.0	3.0	2.0	0.0	0.0	0.0	1.0	1.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79.9	10.5	3.5	1.8	1.7	0.0	0.0	0.9	1.8	0.0
	101-200만원	(252)	75.5	13.8	6.0	2.0	0.4	0.8	0.4	0.0	0.4	0.0
	201-250만원	(656)	76.4	13.5	3.0	1.8	0.8	1.6	0.6	0.8	0.3	0.4
	251-350만원	(886)	78.2	14.1	3.7	0.6	1.1	0.3	0.6	0.7	0.4	0.1
	351-550만원	(2,193)	76.4	15.2	3.4	1.3	0.8	1.0	0.8	0.5	0.5	0.2
	551만원 이상	(888)	78.2	13.4	3.7	1.6	1.2	0.8	0.7	0.1	0.2	0.0
	모름/무응답	(12)	83.4	8.4	0.0	0.0	0.0	0.0	0.0	8.2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81.2	12.5	3.9	0.0	0.0	0.0	0.0	0.0	0.0	0.0
	중학교 졸업	(332)	81.1	12.6	4.2	0.6	0.3	0.3	0.0	0.6	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78.9	13.9	3.0	0.8	0.7	1.0	0.4	0.7	0.1	0.2
	대학교 졸업/재학	(2,510)	74.9	14.9	4.0	1.9	1.2	0.9	1.0	0.3	0.7	0.1
	모름/무응답	(7)	86.2	0.0	0.0	0.0	0.0	0.0	0.0	13.8	0.0	0.0

<표 3-3-12>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다른 언어(1+2+3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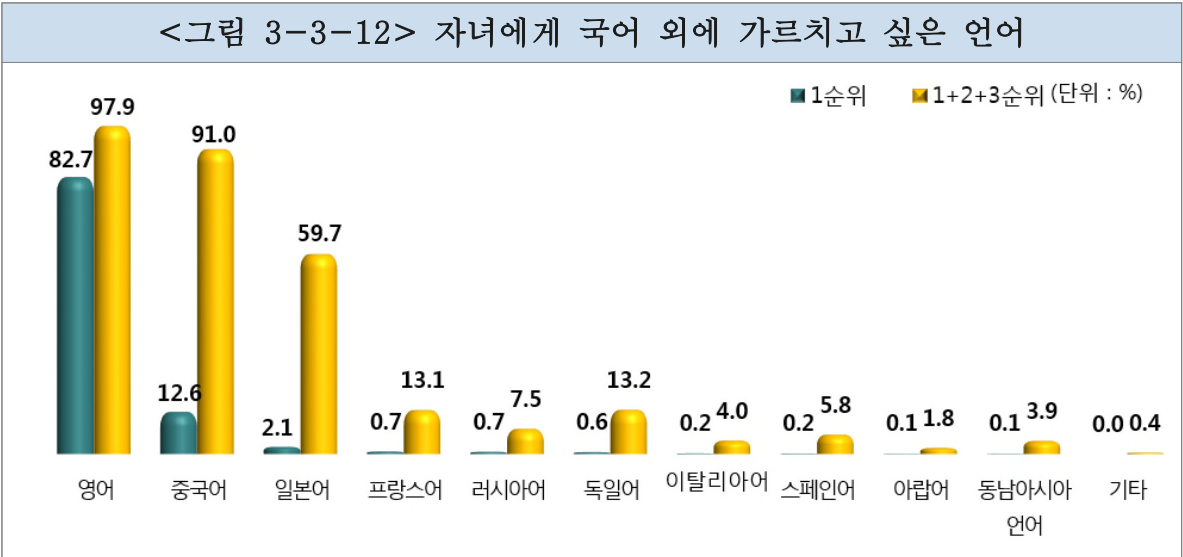
		사례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동남아시아 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전 체		(5,000)	93.9	85.6	59.3	14.8	14.4	8.9	7.6	5.4	4.8	1.9
성	남성	(2,542)	93.7	85.8	59.6	12.7	15.2	10.1	7.2	5.9	4.2	2.2
	여성	(2,458)	94.1	85.3	59.0	17.0	13.6	7.7	8.0	4.8	5.5	1.6
연령	20대	(921)	90.0	79.9	52.2	20.9	18.9	9.4	11.3	3.9	8.0	3.0
	30대	(1,059)	92.5	83.8	58.1	16.1	15.5	10.0	8.5	6.1	5.9	1.1
	40대	(1,221)	95.3	86.3	58.3	15.5	14.3	7.7	7.9	6.6	3.3	1.9
	50대	(1,128)	95.4	88.2	63.1	11.3	11.7	9.1	5.6	4.8	3.7	2.2
	60대 이상	(671)	96.6	90.2	66.1	9.2	11.2	8.1	3.8	4.8	3.5	1.1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93.8	86.4	57.2	16.6	12.9	8.3	9.5	4.4	4.4	2.4
	강원	(143)	92.4	82.6	66.7	19.3	12.7	6.3	6.3	4.2	8.4	0.0
	충청권	(502)	94.2	83.4	53.1	15.7	20.8	8.6	5.2	7.4	6.0	1.6
	전라권	(479)	94.1	86.7	66.2	11.6	17.4	10.8	4.2	4.4	2.8	1.1
	경상권	(1,269)	94.7	84.8	62.0	11.5	14.1	10.0	5.8	6.8	5.4	1.4
	제주	(100)	87.0	84.0	63.0	17.0	11.0	4.0	13.0	6.0	7.0	3.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92.1	83.2	65.4	10.6	15.2	5.3	8.0	4.4	9.7	1.7
	101-200만원	(252)	92.9	85.4	61.6	15.4	11.8	9.8	6.0	5.1	4.7	1.2
	201-250만원	(656)	92.3	83.8	59.1	13.4	15.2	10.1	5.5	7.2	4.6	3.0
	251-350만원	(886)	95.3	85.4	62.3	12.5	11.5	8.7	7.9	7.2	4.5	1.6
	351-550만원	(2,193)	94.0	85.7	59.1	15.6	15.4	9.2	7.3	4.7	4.4	1.9
	551만원 이상	(888)	94.2	87.2	55.7	16.6	15.1	7.5	10.0	3.8	5.5	1.5
	모름/무응답	(12)	91.8	83.9	41.7	8.2	0.0	17.0	8.2	8.2	8.3	8.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96.9	89.8	67.8	7.1	12.6	5.5	0.9	5.4	2.4	0.8
	중학교 졸업	(332)	96.1	88.3	67.0	8.6	11.7	8.5	1.8	7.0	2.4	0.9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95.7	87.4	61.8	14.0	12.5	8.8	5.5	5.8	3.4	1.9
	대학교 졸업/재학	(2,510)	92.0	83.5	55.7	16.7	16.5	9.2	10.4	4.7	6.4	2.1
	모름/무응답	(7)	86.2	100.0	71.3	14.3	0.0	14.3	0.0	13.8	0.0	0.0

3)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언어

문47

귀하의 자녀에게 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가르친다면 어떤 언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가르치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언어(1순위 기준)로 '영어'(82.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국어'(12.6%), '일본어'(2.1%) 등이 뒤를 이음.
- 1~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할 경우 '중국어'는 91.0%로 '영어'(97.9%) 못지않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어'는 59.7%까지 선호도가 높아짐.



응답자 특성

- ➔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장 가르치고 싶은 언어(1순위 기준)로 '영어'를 꼽은 비율은 60대 이상(86.8%), 강원(91.7%) 지역,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89.5%), 중학교 졸업(89.2%)에서 높게 나타남.
- ➔ 한편, '중국어'를 꼽은 비율은 40-50대(40대 14.0%, 50대 14.2%), 제주(21.0%), 전라권(19.2%), 충청권(18.1%) 지역에서 높았음.

<표 3-3-13>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언어(1순위)

(단위 : 명, %)

		사례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동남아시아 언어
전 체		(5,000)	82.7	12.6	2.1	0.7	0.7	0.6	0.2	0.2	0.1	0.1
성	남성	(2,542)	81.8	13.0	2.6	0.7	0.7	0.5	0.2	0.2	0.2	0.2
	여성	(2,458)	83.5	12.2	1.7	0.8	0.6	0.6	0.2	0.2	0.1	0.0
연령	20대	(921)	82.9	10.6	2.4	1.2	0.6	1.2	0.5	0.2	0.2	0.1
	30대	(1,059)	81.5	12.8	3.5	0.8	0.5	0.5	0.1	0.1	0.2	0.1
	40대	(1,221)	82.3	14.0	1.4	0.9	0.6	0.5	0.0	0.2	0.2	0.1
	50대	(1,128)	81.6	14.2	1.5	0.4	1.1	0.4	0.2	0.3	0.0	0.3
	60대 이상	(671)	86.8	9.5	2.1	0.3	0.4	0.3	0.3	0.0	0.1	0.0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84.3	10.5	2.2	0.9	0.8	0.6	0.2	0.2	0.2	0.1
	강원	(143)	91.7	5.5	2.1	0.0	0.0	0.0	0.0	0.7	0.0	0.0
	충청권	(502)	74.9	18.1	4.0	1.2	0.6	0.2	0.6	0.0	0.0	0.4
	전라권	(479)	75.8	19.2	2.5	0.4	0.6	0.8	0.0	0.4	0.2	0.0
	경상권	(1,269)	84.7	12.1	1.3	0.4	0.5	0.5	0.1	0.1	0.2	0.1
	제주	(100)	74.0	21.0	1.0	1.0	1.0	1.0	0.0	1.0	0.0	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89.5	5.3	1.8	1.7	0.0	0.9	0.0	0.0	0.0	0.0
	101-200만원	(252)	81.4	12.7	2.4	0.8	1.2	0.4	0.4	0.8	0.0	0.0
	201-250만원	(656)	84.1	11.4	2.1	0.3	0.8	0.8	0.3	0.0	0.3	0.0
	251-350만원	(886)	81.8	13.7	2.5	0.4	0.6	0.5	0.1	0.2	0.1	0.1
	351-550만원	(2,193)	81.2	13.8	2.1	1.0	0.7	0.6	0.2	0.2	0.1	0.2
	551만원 이상	(888)	85.6	10.3	2.0	0.7	0.6	0.3	0.2	0.1	0.1	0.0
	모름/무응답	(12)	91.5	8.5	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85.8	12.6	0.8	0.0	0.0	0.8	0.0	0.0	0.0	0.0
	중학교 졸업	(332)	89.2	7.5	1.2	0.6	0.9	0.0	0.3	0.0	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82.6	12.7	2.6	0.3	0.7	0.5	0.1	0.1	0.2	0.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81.7	13.1	1.9	1.2	0.6	0.7	0.3	0.2	0.1	0.1
	모름/무응답	(7)	85.7	14.3	0.0	0.0	0.0	0.0	0.0	0.0	0.0	0.0



&lt;표 3-3-14&gt; 자녀에게 국어 외에 가르치고 싶은 다른 언어(1+2+3순위)

(단위 : 명, %)




		사례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동남아시아 언어	아랍어
전 체		(5,000)	97.9	91.0	59.7	13.2	13.1	7.5	5.8	4.0	3.9	1.8
성	남성	(2,542)	98.1	90.7	59.0	13.7	11.9	8.5	5.7	4.3	4.1	2.0
	여성	(2,458)	97.7	91.3	60.5	12.7	14.4	6.6	6.0	3.8	3.7	1.5
연령	20대	(921)	97.3	87.1	51.5	16.6	17.5	7.0	8.3	6.4	3.4	3.2
	30대	(1,059)	98.2	90.4	60.1	13.7	12.8	7.6	6.1	4.5	3.9	1.0
	40대	(1,221)	97.5	92.2	59.0	12.7	13.5	7.6	6.0	2.7	5.0	2.0
	50대	(1,128)	97.8	92.0	62.8	12.0	11.8	8.3	4.5	3.5	4.3	1.4
	60대 이상	(671)	99.0	93.3	66.6	11.0	9.4	7.0	4.2	3.3	2.0	1.2
거주 지역	수도권	(2,507)	98.0	91.6	57.2	12.5	14.6	7.2	7.3	3.9	3.6	1.8
	강원	(143)	97.9	83.1	60.4	17.4	17.6	3.6	8.3	4.9	2.1	0.7
	충청권	(502)	98.6	91.8	58.5	13.8	12.3	6.4	3.4	6.4	5.4	2.6
	전라권	(479)	95.9	90.9	67.6	14.6	9.8	8.3	4.5	2.1	4.7	1.3
	경상권	(1,269)	98.4	90.6	62.1	13.5	11.2	9.4	3.6	3.7	3.9	1.7
	제주	(100)	95.0	89.0	59.0	13.0	16.0	1.0	13.0	6.0	2.0	2.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13)	98.3	86.7	63.7	8.0	16.0	4.5	8.0	7.9	1.8	2.6
	101-200만원	(252)	96.4	90.6	62.8	11.8	11.9	9.9	4.8	4.4	3.6	1.6
	201-250만원	(656)	97.6	89.6	59.3	16.1	10.2	8.1	6.2	4.1	4.1	2.3
	251-350만원	(886)	98.6	91.2	64.3	10.2	11.2	8.0	5.3	3.4	4.2	1.5
	351-550만원	(2,193)	97.7	91.1	59.4	13.8	14.0	7.8	4.9	3.4	4.3	2.0
	551만원 이상	(888)	98.2	92.2	55.0	14.0	15.3	5.7	8.3	5.4	2.9	1.1
	모름/무응답	(12)	100.0	83.9	58.9	0.0	0.0	8.5	16.4	8.3	0.0	8.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95.3	81.9	13.4	5.4	0.0	1.6	0.0	0.8	1.6	0.0
	중학교 졸업	(332)	97.0	76.2	13.6	4.2	1.5	3.0	0.6	1.2	0.6	0.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95.5	79.2	13.7	3.7	2.1	2.4	0.9	1.1	0.8	0.4
	대학교 졸업/재학	(2,510)	94.0	77.9	12.2	4.3	4.3	2.6	2.1	1.6	0.4	0.5
	모름/무응답	(7)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라. 어문 규범

### 1)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문48

국어 표기법 중 국민들이 자주 틀리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국민들이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중 '새로 생기는 말은 널리 쓰는 표기를 맞는 표기로 삼는다'가 37.7%, '표기법 바꾸면 혼란이 생기므로 그대로 두고, 맞는 표기를 홍보한다'가 37.3%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국민들 편의 위해 자주 틀리는 표기는 맞는 것으로 표기법 바꾼다'(19.4%), '표기법 규정으로 제안하지 않고 많이 쓰는 쪽이 맞는 표기가 되도록 둔다'(5.6%)로 나타남.
-  2005년과 2010년에는 '맞춤법은 꼭 지켜야 하므로 맞는 표기를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그림 3-3-13>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특성

- ➔ '새로 생기는 말은 널리 쓰는 표기를 맞는 표기로 삼는다'는 응답은 50대(40.8%), 전라권(49.7%) 및 충청권(43.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 '표기법을 바꾸면 혼란이 생기므로 그대로 두고, 맞는 표기를 홍보한다'는 제주(47.0%) 지역, 가구소득 551만원 이상(41.1%),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음.

&lt;표 3-3-15&gt;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사례수	새로 생기는 말은 널리 쓰는 표기를 맞는 표기로 삼는다	표기법 바꾸면 혼란이 생기므로 그대로 두고, 맞는 표기를 홍보	국민들 편의 위해 자주 틀리는 표기는 맞는 것으로 표기법 바꾼다	표기법 규정으로 제안 않고 많이 쓰는 쪽이 맞는 표기가 되도록 둔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37.7	37.3	19.4	5.6	0.0
성	남성	(2,542)	37.6	37.3	19.5	5.7	0.0
	여성	(2,458)	37.8	37.3	19.4	5.5	0.0
연령	20대	(921)	35.9	38.5	19.3	6.3	0.0
	30대	(1,059)	37.3	35.0	21.6	6.1	0.0
	40대	(1,221)	38.0	37.5	19.8	4.7	0.0
	50대	(1,128)	40.8	36.7	16.9	5.7	0.0
	60대 이상	(671)	35.1	39.8	19.9	5.1	0.1
거주지역	수도권	(2,507)	35.9	40.0	19.5	4.6	0.0
	강원	(143)	34.2	34.2	24.7	6.9	0.0
	충청권	(502)	43.0	22.1	25.9	9.0	0.0
	전라권	(479)	49.7	32.5	16.1	1.7	0.0
	경상권	(1,269)	36.1	39.3	17.2	7.4	0.0
	제주	(100)	25.0	47.0	22.0	5.0	1.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38.9	37.2	17.8	6.1	0.0
	101-200만원	(252)	34.5	36.0	21.1	8.3	0.0
	201-250만원	(656)	35.1	39.5	20.0	5.2	0.2
	251-350만원	(886)	39.5	36.5	18.1	5.9	0.0
	351-550만원	(2,193)	38.6	35.6	20.6	5.2	0.0
	551만원 이상	(888)	36.1	41.1	17.2	5.6	0.0
	모름/무응답	(12)	58.4	16.3	17.1	8.2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28.4	44.0	19.6	7.9	0.0
	중학교 졸업	(332)	36.1	40.0	16.7	6.9	0.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38.6	37.0	19.0	5.5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7.5	36.9	20.2	5.3	0.0
	모름/무응답	(7)	85.6	14.4	0.0	0.0	0.0

## 마. 사전 이용

### 1)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

문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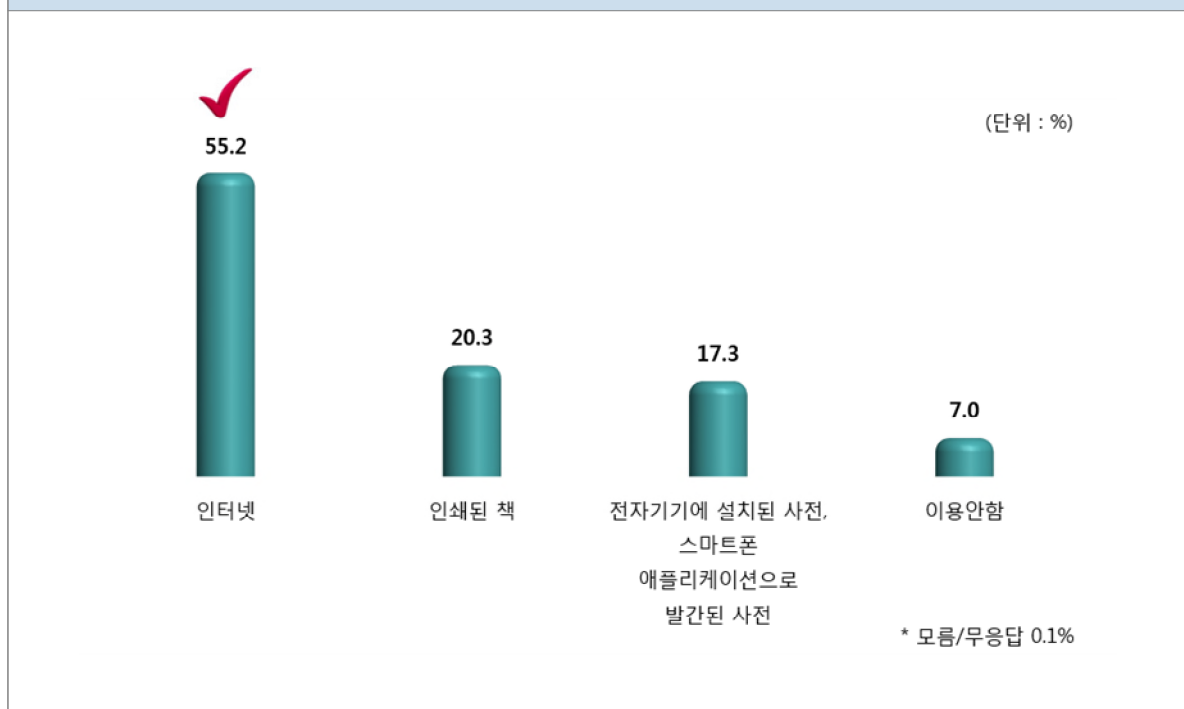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사전을 이용하십니까?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인쇄된 책’(20.3%), ‘전자기기에 설치된 사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간된 사전’(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7.0%는 사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2010년 조사 시에는 ‘종이 사전’을 이용하는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사전’ 이용 비율은 21.2%로 조사되었음.

<그림 3-3-14>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



## 응답자 특성

- ➔ '인터넷'을 통해 이용한다는 응답은 20-30대(20대 68.7%, 30대 71.9%), 수도권(61.9%) 및 강원(60.9%) 지역, 가구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인쇄된 책' 이용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전라권(32.0%) 및 경상권(29.9%) 지역, 소득이 낮을수록, 중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51.0%, 초등학교 졸업 이하 40.2%)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lt;표 3-3-16&gt; 사전을 이용하는 매체

(단위 : 명, %)

		사례수	인터넷 (네이버 사전, 위키 백과 등)	인쇄된 책	전자기기에 설치된 사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으로 발간된 사전	이용 안 함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55.2	20.3	17.3	7.0	0.1
성	남성	(2,542)	55.5	20.3	18.5	5.6	0.1
	여성	(2,458)	54.9	20.3	16.1	8.5	0.1
연령	20대	(921)	68.7	5.8	24.9	0.6	0.0
	30대	(1,059)	71.9	7.8	18.7	1.5	0.1
	40대	(1,221)	61.3	16.2	18.0	4.2	0.2
	50대	(1,128)	43.2	31.4	14.5	10.9	0.1
	60대 이상	(671)	19.4	48.8	8.5	23.2	0.1
거주지역	수도권	(2,507)	61.9	14.0	18.2	5.7	0.2
	강원	(143)	60.9	14.0	16.9	8.3	0.0
	충청권	(502)	49.4	17.3	19.7	13.5	0.0
	전라권	(479)	52.4	32.0	11.0	4.6	0.0
	경상권	(1,269)	44.6	29.9	17.3	8.1	0.0
	제주	(100)	58.0	23.0	15.0	4.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30.0	30.3	12.4	26.4	0.8
	101-200만원	(252)	34.2	37.2	12.0	16.7	0.0
	201-250만원	(656)	43.7	32.9	13.1	10.4	0.0
	251-350만원	(886)	57.4	19.2	17.7	5.6	0.1
	351-550만원	(2,193)	59.1	17.2	17.9	5.7	0.1
	551만원 이상	(888)	61.1	14.1	20.8	4.0	0.0
	모름/무응답	(12)	58.8	0.0	33.3	7.9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0	40.2	6.4	48.6	0.7
	중학교 졸업	(332)	15.9	51.0	8.7	24.4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0.6	26.8	14.8	7.7	0.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66.7	10.1	21.0	2.1	0.1
	모름/무응답	(7)	57.2	0.0	28.5	14.3	0.0

## 2)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

문50

이용하시는 국어사전에 대해 평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해 '뜻을 읽어 봐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11.2%), '찾아도 없는 단어가 많다'(6.2%),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다'(3.6%)는 불만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불만이 없다'는 의견이 54.2%로 가장 높았음.

한편, 26.7%가 '국어사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2005년과 2010년에도 '뜻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찾아도 없는 단어가 많다',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다'는 응답이 각각 1~3위를 차지함.

<그림 3-3-15>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



## 응답자 특성

- ➔ '뜻을 읽어봐도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제주(20.0%) 및 충청권(17.0%) 지역,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 한편, '국어사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전라권(40.7%) 지역,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중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36.7%, 초등학교 졸업 이하 59.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lt;표 3-3-17&gt;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

(단위 : 명, %)



		사례수	불만 없음	국어사전을 이용하지 않는다	뜻을 읽어 봐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찾아도 없는 단어가 많다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다
전 체		(5,000)	54.2	26.7	11.2	6.2	3.6
성	남성	(2,542)	56.0	25.2	10.2	6.2	3.5
	여성	(2,458)	52.3	28.2	12.2	6.1	3.6
연령	20대	(921)	56.4	20.2	13.5	6.5	5.3
	30대	(1,059)	53.9	23.6	13.2	7.5	3.8
	40대	(1,221)	54.7	26.2	12.0	6.2	3.5
	50대	(1,128)	53.8	29.8	8.8	5.5	3.2
	60대 이상	(671)	50.9	36.0	7.5	4.6	1.5
거주지역	수도권	(2,507)	55.6	23.0	12.7	5.7	4.4
	강원	(143)	56.0	30.0	7.7	4.2	3.5
	충청권	(502)	55.4	19.3	17.0	10.0	5.0
	전라권	(479)	46.5	40.7	6.4	6.4	1.2
	경상권	(1,269)	54.0	31.6	7.5	5.5	2.3
	제주	(100)	48.0	22.0	20.0	9.0	2.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39.1	42.3	13.3	2.6	4.3
	101-200만원	(252)	49.2	34.1	9.9	5.2	2.4
	201-250만원	(656)	51.8	30.4	10.0	7.0	1.8
	251-350만원	(886)	53.8	25.6	11.7	6.7	4.3
	351-550만원	(2,193)	54.9	25.9	11.6	6.1	3.4
	551만원 이상	(888)	57.4	23.1	10.5	6.0	4.9
	모름/무응답	(12)	75.1	7.9	17.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31.5	59.7	4.0	4.0	1.6
	중학교 졸업	(332)	52.5	36.7	6.3	3.6	1.2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3.8	29.0	9.8	6.1	2.7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5.9	21.7	13.3	6.7	4.7
	모름/무응답	(7)	42.7	43.0	14.3	0.0	0.0

## 바.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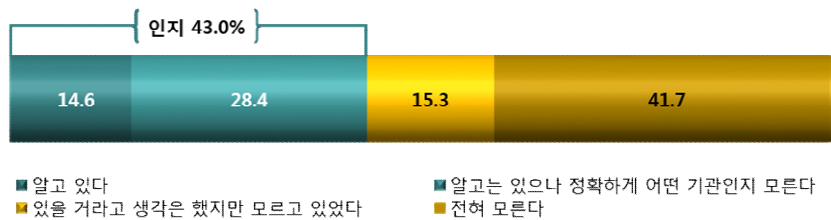
### 1) 국립국어원 인지도

문51

귀하께서는 국립국어원을 알고 있습니까?

-  국립국어원에 대해 43.0%가 인지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6%로 나타남.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15.3%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함.

<그림 3-3-16> 국립국어원 인지도





## 응답자 특성

- ➔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16.3%),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16.2%) 지역, 가구소득 551만원 이상(19.1%),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 반면, '전혀 모른다'는 여성(44.7%) 60대 이상(59.4%), 전라권(45.6%) 지역, 가구소득 및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lt;표 3-3-18&gt; 국립국어원 인지도



(단위 : 명, %)

		사례수	전혀 모른다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 모른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다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41.7	28.4	15.3	14.6	0.0
성	남성	(2,542)	38.7	29.4	15.5	16.3	0.0
	여성	(2,458)	44.7	27.3	15.0	12.9	0.0
연령	20대	(921)	37.7	28.6	14.9	18.8	0.0
	30대	(1,059)	34.7	34.5	14.6	16.3	0.0
	40대	(1,221)	38.4	30.2	16.6	14.8	0.0
	50대	(1,128)	44.6	26.0	16.1	13.3	0.0
	60대 이상	(671)	59.4	19.1	12.8	8.5	0.1
거주지역	수도권	(2,507)	40.0	28.5	15.3	16.2	0.0
	강원	(143)	44.5	29.7	11.1	14.7	0.0
	충청권	(502)	42.8	30.6	12.2	14.4	0.0
	전라권	(479)	45.6	27.6	17.4	9.4	0.0
	경상권	(1,269)	43.1	26.5	15.9	14.4	0.1
	제주	(100)	37.0	41.0	16.0	6.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58.5	20.4	12.4	8.8	0.0
	101-200만원	(252)	58.4	22.7	13.0	6.0	0.0
	201-250만원	(656)	52.0	24.0	10.8	13.1	0.2
	251-350만원	(886)	38.5	30.7	17.3	13.5	0.0
	351-550만원	(2,193)	39.9	29.3	15.7	15.0	0.0
	551만원 이상	(888)	34.5	29.8	16.5	19.1	0.0
	모름/무응답	(12)	58.4	16.7	8.3	16.6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77.8	12.7	8.6	0.8	0.0
	중학교 졸업	(332)	63.2	18.7	12.0	6.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5.9	27.2	16.0	10.9	0.0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3.6	31.5	15.3	19.5	0.0
	모름/무응답	(7)	43.3	13.8	28.6	14.3	0.0

## 2)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

문52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쉬운 어문 규범 마련 및 홍보'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19.3%), '대규모 언어 자료 조사 구축 및 제공'(18.4%), '범국민적인 참여가 가능한 국어 관련 행사'(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17>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



## 응답자 특성

- ➔ '쉬운 어문 규범 마련 및 홍보'는 강원(50.5%) 및 수도권(49.4%) 지역, 가구소득 101-200만원(48.8%), 초등학교 졸업 이하(50.6%)에서 높게 나타남.
- ➔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꼽은 비율은 충청권(26.1%) 지역에서 특히 높았음.

&lt;표 3-3-19&gt; 국립국어원 중점 추진 사항

(단위 : 명, %)

		사례수	쉬운 어문 규범 마련 및 홍보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규모 언어 자료 조사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범국민적인 참여가 가능한 국어 관련 행사	기관 방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어 공표	모름/ 무응답
전 체		(5,000)	44.0	19.3	18.4	14.9	3.2	0.0	0.2
성	남성	(2,542)	42.8	19.4	19.2	15.0	3.3	0.0	0.2
	여성	(2,458)	45.2	19.3	17.5	14.8	3.0	0.0	0.2
연령	20대	(921)	44.2	18.8	17.6	15.8	3.4	0.0	0.3
	30대	(1,059)	41.3	20.2	19.6	14.2	4.3	0.0	0.3
	40대	(1,221)	44.8	19.2	18.8	15.0	2.0	0.0	0.1
	50대	(1,128)	45.2	20.3	17.5	14.0	2.8	0.0	0.2
	60대 이상	(671)	44.2	17.4	18.2	16.2	3.7	0.2	0.1
거주지역	수도권	(2,507)	49.4	18.8	17.4	11.2	2.8	0.0	0.3
	강원	(143)	50.5	17.5	13.2	15.2	2.8	0.0	0.7
	충청권	(502)	34.7	26.1	22.1	14.1	3.0	0.0	0.0
	전라권	(479)	33.3	20.0	20.2	25.2	1.2	0.0	0.0
	경상권	(1,269)	40.2	17.4	19.3	18.3	4.6	0.0	0.2
	제주	(100)	44.0	23.0	10.0	18.0	5.0	0.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3.3	15.9	16.8	15.2	8.9	0.0	0.0
	101-200만원	(252)	48.8	17.9	15.2	14.5	3.1	0.0	0.4
	201-250만원	(656)	41.3	19.8	19.7	15.5	3.6	0.0	0.0
	251-350만원	(886)	43.4	18.1	19.6	16.1	2.5	0.0	0.2
	351-550만원	(2,193)	43.4	19.8	18.4	15.5	2.6	0.0	0.3
	551만원 이상	(888)	46.7	19.7	17.1	12.1	4.4	0.0	0.0
	모름/무응답	(12)	24.9	41.8	33.3	0.0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50.6	13.4	14.0	17.3	4.7	0.0	0.0
	중학교 졸업	(332)	40.1	19.0	21.1	15.3	4.2	0.0	0.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43.6	20.2	18.9	13.9	3.2	0.0	0.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44.5	18.9	17.9	15.6	2.9	0.0	0.2
	모름/무응답	(7)	29.0	56.6	0.0	14.4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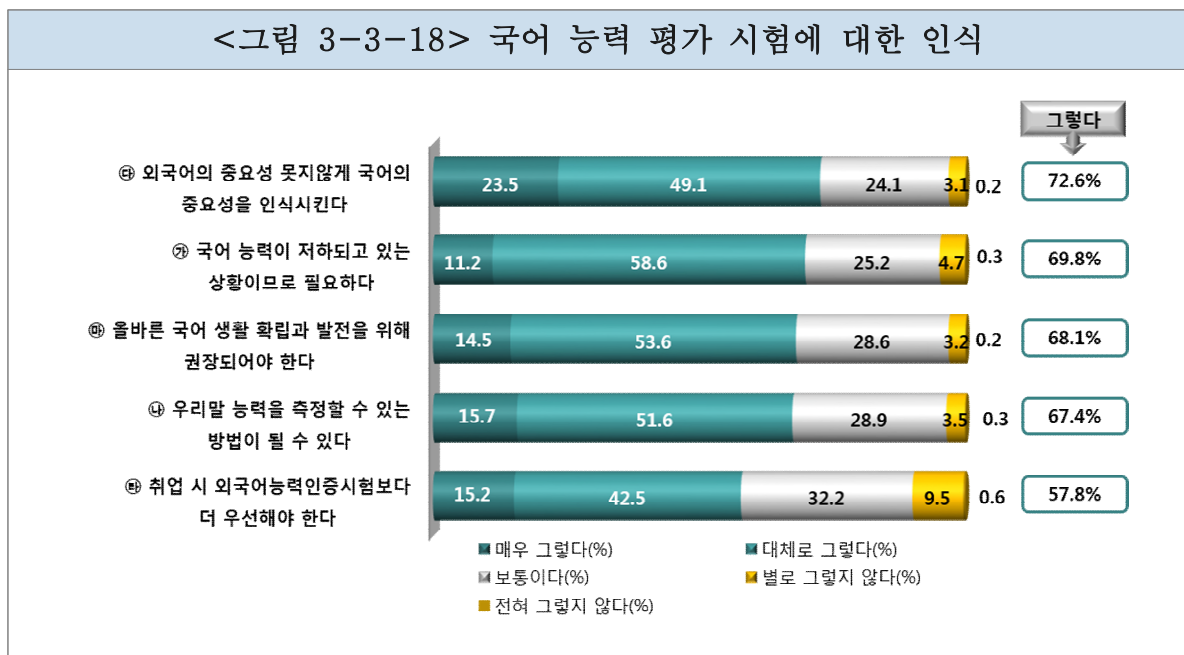
### 3)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문53

우리나라에는 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KBS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있습니다.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의견 중 '외국어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가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국어 능력 저하 상황이므로 필요하다'(69.8%), '올바른 국어 생활 확립, 발전을 위해 권장되어야 한다'(68.1%), '우리말 능력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67.4%),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인증시험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57.8%) 순으로 나타남.
- 2010년에 각 의견에 대한 긍정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었으나, 다시 2005년 수준으로 증가했음.

<그림 3-3-18>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

- ➔ '외국어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 인식시킨다'는 의견은 전라권(76.8%) 지역, 가구소득 101-200만원(77.1%), 중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76.1%, 초등학교 졸업 이하 79.6%)에서 높게 나타남.
- ➔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는 50대 이상(50대 73.0%, 60대 이상 72.5%), 전라권(75.3%) 및 충청권(75.2%) 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lt;표 3-3-20&gt;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외국어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 인식시킨다	국어 능력 저하 상황이므로 필요하다	올바른 국어 생활 확립, 발전을 위해 권장한다	우리말 능력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취업 시 외국어 능력 인증시험 보다 더 우선한다
전 체		(5,000)	72.6	69.8	68.1	67.4	57.8
성	남성	(2,542)	72.8	69.5	68.3	67.0	56.8
	여성	(2,458)	72.4	70.1	67.8	67.8	58.8
연령	20대	(921)	71.2	66.8	64.1	64.5	56.4
	30대	(1,059)	72.8	66.5	66.5	66.2	53.8
	40대	(1,221)	71.7	70.5	68.7	66.9	59.1
	50대	(1,128)	73.4	73.0	71.7	70.1	60.1
	60대 이상	(671)	74.5	72.5	68.8	69.6	59.4
거주지역	수도권	(2,507)	73.2	69.5	68.3	71.0	56.4
	강원	(143)	70.7	62.9	69.4	62.9	45.4
	충청권	(502)	71.5	75.2	64.4	71.7	61.5
	전라권	(479)	76.8	75.3	68.8	73.5	49.6
	경상권	(1,269)	71.6	68.7	69.3	58.3	63.7
	제주	(100)	59.0	47.0	60.0	49.0	53.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67.1	67.2	65.4	64.6	54.7
	101-200만원	(252)	77.1	73.8	68.6	75.5	59.4
	201-250만원	(656)	73.2	71.7	70.8	65.4	59.8
	251-350만원	(886)	71.1	67.8	66.9	69.3	54.7
	351-550만원	(2,193)	73.2	69.8	69.6	66.4	58.5
	551만원 이상	(888)	72.0	70.0	63.7	67.6	57.5
	모름/무응답	(12)	50.2	33.8	67.0	50.2	50.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79.6	83.5	76.3	78.8	52.8
	중학교 졸업	(332)	76.1	72.9	73.4	69.1	62.0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72.2	69.6	69.0	67.2	58.7
	대학교 졸업/재학	(2,510)	72.2	68.9	66.2	66.7	56.7
	모름/무응답	(7)	57.2	57.7	86.2	72.0	71.9

#### 4)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

문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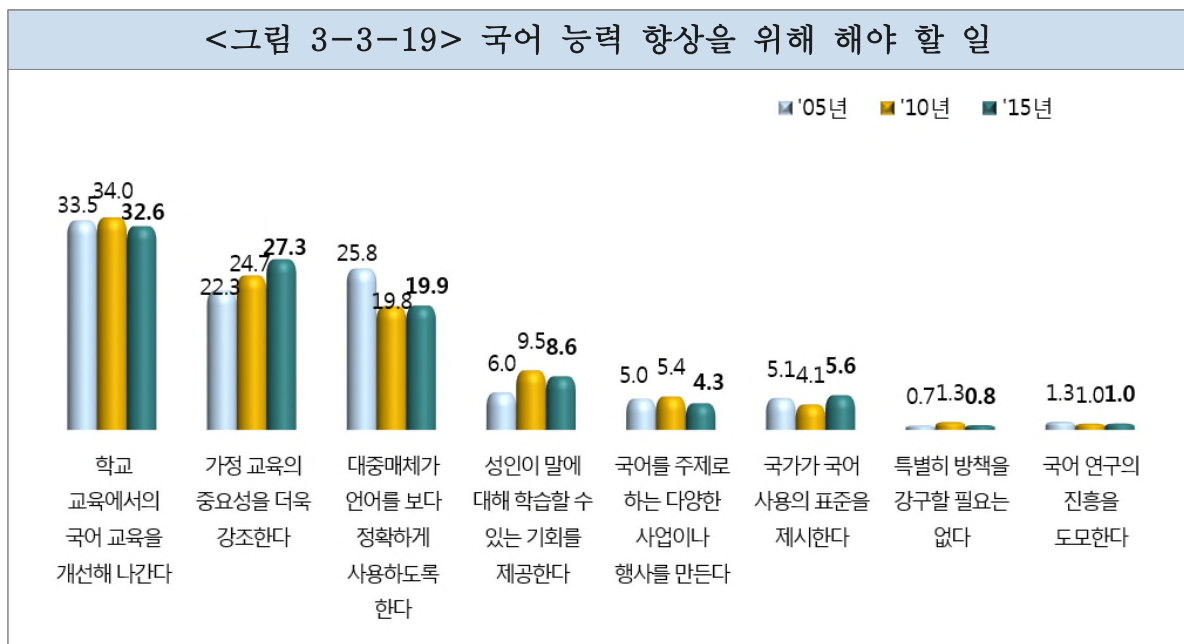
한국인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로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을 개선해 나간다'(32.6%)를 가장 많이 선택함.

다음으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27.3%), '대중매체가 언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19.9%), '성인이 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8.6%), '국가가 국어 사용의 표준 제시'(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05년, 2010년과 비교하여 순위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 한다'는 의견이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3-19>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



## 응답자 특성

- ➔ 국어 능력 향상(1순위 기준)을 위해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개선'을 꼽은 비율은 충청권(36.6%) 지역,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42.7%)에서 높았음.
- ➔ '가정 교육의 중요성 더욱 강조'는 경상권(35.6%), 강원(33.5%), 제주(32.0%) 지역,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30.8%, 101-200만원 33.0%, 201-250만원 30.6%), 초등학교 졸업 이하(32.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lt;표 3-3-21&gt;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1순위)

(단위 : 명, %)

		사례수	학교에서 국어교육을 개선해 나간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대중매체가 언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성인이 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가 국어 사용의 표준을 제시한다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한다	국어 연구의 진흥을 도모한다	특별히 방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전 체		(5,000)	32.6	27.3	19.9	8.6	5.6	4.3	1.0	0.8
성	남성	(2,542)	31.7	28.0	19.9	9.3	5.4	4.0	0.8	0.8
	여성	(2,458)	33.6	26.5	19.9	7.8	5.7	4.6	1.3	0.7
연령	20대	(921)	32.0	25.3	22.3	9.3	6.1	3.6	1.0	0.2
	30대	(1,059)	33.4	27.1	20.0	7.2	6.3	4.4	0.8	0.8
	40대	(1,221)	34.1	27.6	18.8	6.9	5.7	5.1	1.0	0.9
	50대	(1,128)	32.7	27.0	19.6	10.2	4.2	4.2	1.1	1.0
	60대 이상	(671)	29.5	29.9	18.9	10.1	5.6	3.6	1.5	0.9
거주지역	수도권	(2,507)	34.8	25.6	22.1	7.0	5.5	2.9	1.0	1.0
	강원	(143)	34.3	33.5	20.4	3.5	6.2	2.1	0.0	0.0
	충청권	(502)	36.6	21.3	15.0	8.8	8.4	7.2	1.8	1.0
	전라권	(479)	28.6	17.1	24.6	20.6	3.2	5.8	0.0	0.0
	경상권	(1,269)	27.9	35.6	15.4	8.2	5.4	5.6	1.2	0.6
	제주	(100)	34.0	32.0	23.0	2.0	4.0	3.0	2.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42.7	30.8	15.0	4.4	2.7	3.5	0.8	0.0
	101-200만원	(252)	26.5	33.0	19.4	10.4	5.5	2.7	1.2	1.2
	201-250만원	(656)	30.8	30.6	19.2	7.9	4.1	5.0	0.9	1.4
	251-350만원	(886)	31.5	24.9	20.5	11.0	5.1	5.3	1.0	0.7
	351-550만원	(2,193)	32.5	26.8	20.8	8.1	5.6	4.4	1.0	0.7
	551만원 이상	(888)	35.8	26.3	18.2	8.0	7.2	2.9	1.0	0.5
	모름/무응답	(12)	33.2	16.4	25.1	0.0	16.9	8.4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34.8	32.3	16.4	6.3	4.7	2.4	0.0	3.2
	중학교 졸업	(332)	30.7	26.8	19.6	11.8	4.5	3.6	1.8	1.2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32.9	29.2	17.4	9.6	4.8	4.4	0.8	0.7
	대학교 졸업/재학	(2,510)	32.5	25.6	22.1	7.5	6.3	4.3	1.2	0.6
	모름/무응답	(7)	56.8	14.3	14.2	0.0	14.6	0.0	0.0	0.0

<표 3-3-22>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1+2순위)

(단위 : 명, %)

		사례수	학교에서 국어교육을 개선해 나간다	대중매체가 언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성인이 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가 국어 사용의 표준을 제시한다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한다	국어 연구의 진흥을 도모한다	특별히 강구할 필요는 없다
전 체		(5,000)	58.6	43.7	37.8	19.6	18.0	14.9	4.9	0.8
성	남성	(2,542)	57.2	43.7	38.7	20.1	18.4	14.3	5.1	0.8
	여성	(2,458)	60.0	43.8	36.8	19.2	17.5	15.5	4.7	0.7
연령	20대	(921)	57.0	44.5	34.9	20.8	21.1	14.2	5.5	0.2
	30대	(1,059)	60.9	43.3	36.0	19.1	18.6	14.7	4.8	0.8
	40대	(1,221)	57.9	43.6	39.7	19.0	16.8	15.5	5.2	0.9
	50대	(1,128)	59.0	46.1	37.7	19.0	16.7	15.1	3.6	1.0
	60대 이상	(671)	57.6	39.9	41.1	21.1	17.0	14.6	5.8	0.9
거주지역	수도권	(2,507)	59.6	47.6	37.0	18.1	18.5	11.3	5.0	1.0
	강원	(143)	62.3	47.0	44.8	9.1	26.6	6.9	1.3	0.0
	충청권	(502)	62.2	37.1	30.7	20.5	21.5	18.6	6.6	1.0
	전라권	(479)	56.0	47.5	26.1	30.3	12.5	26.2	1.3	0.0
	경상권	(1,269)	56.4	35.8	45.4	20.4	16.7	17.7	5.1	0.6
	제주	(100)	52.0	60.0	40.0	8.0	17.0	9.0	12.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62.9	38.0	44.3	13.3	17.7	11.5	6.1	0.0
	101-200만원	(252)	55.9	43.6	43.3	19.5	16.6	11.5	5.6	1.2
	201-250만원	(656)	56.0	43.4	40.1	17.7	16.9	17.8	4.5	1.4
	251-350만원	(886)	57.8	42.2	36.3	23.8	17.0	16.3	4.6	0.7
	351-550만원	(2,193)	58.9	44.8	37.7	19.5	17.4	14.8	4.7	0.7
	551만원 이상	(888)	61.2	44.0	35.4	17.9	21.3	12.8	5.3	0.5
	모름/무응답	(12)	33.2	25.1	24.8	24.6	42.3	24.8	25.2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56.8	39.2	41.8	15.1	20.3	16.5	3.1	3.2
	중학교 졸업	(332)	59.3	40.7	38.0	22.4	14.2	14.8	6.0	1.2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9.6	42.5	40.0	20.9	16.8	14.1	3.9	0.7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7.8	45.4	35.7	18.5	19.3	15.5	5.6	0.6
	모름/무응답	(7)	56.8	43.0	57.4	28.1	14.6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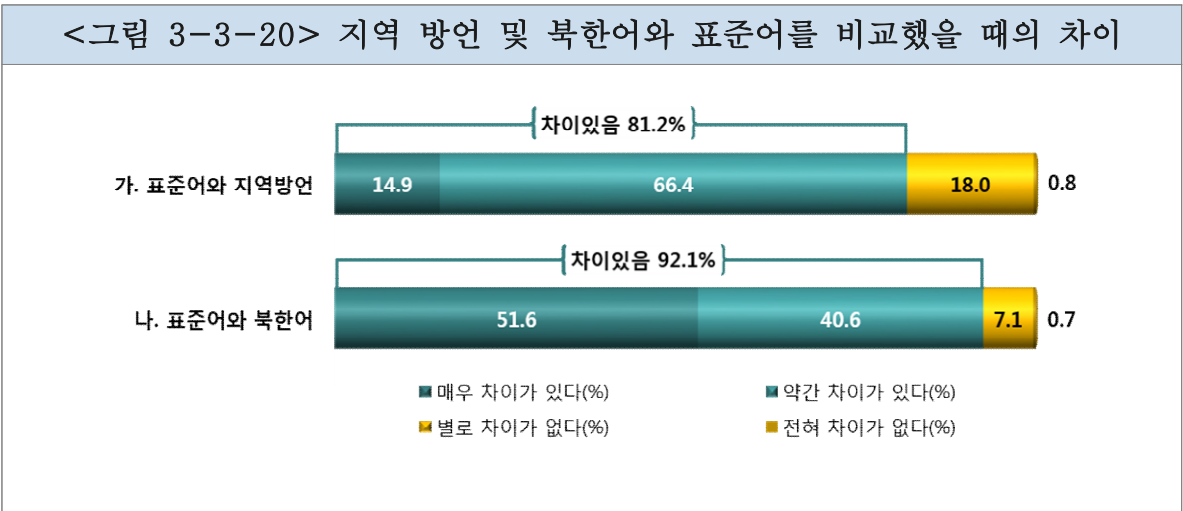


사. 남북한 언어통일

1) 지역 방언 및 북한어와 표준어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

문55	귀하께서는 <u>지역 방언 및 북한어를 표준어와 비교했을 때</u>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

- 표준어와 북한어의 차이와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차이를 비교할 때, 북한어에 대한 차이 (92.1%)를 지역 방언(81.2%) 보다 크게 느끼고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은 편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어의 경우 ‘매우 차이 있다’라는 인식이 절반 이상(51.6%)을 차지 했지만 지역 방언은 14.9%에 불과했음.



응답자 특성

- ➔ 제주 지역은 지역 방언과 북한어 모두 표준어와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라권 지역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지역 방언 및 북한어에 대한 차이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23> 지역 방언 및 북한어와 표준어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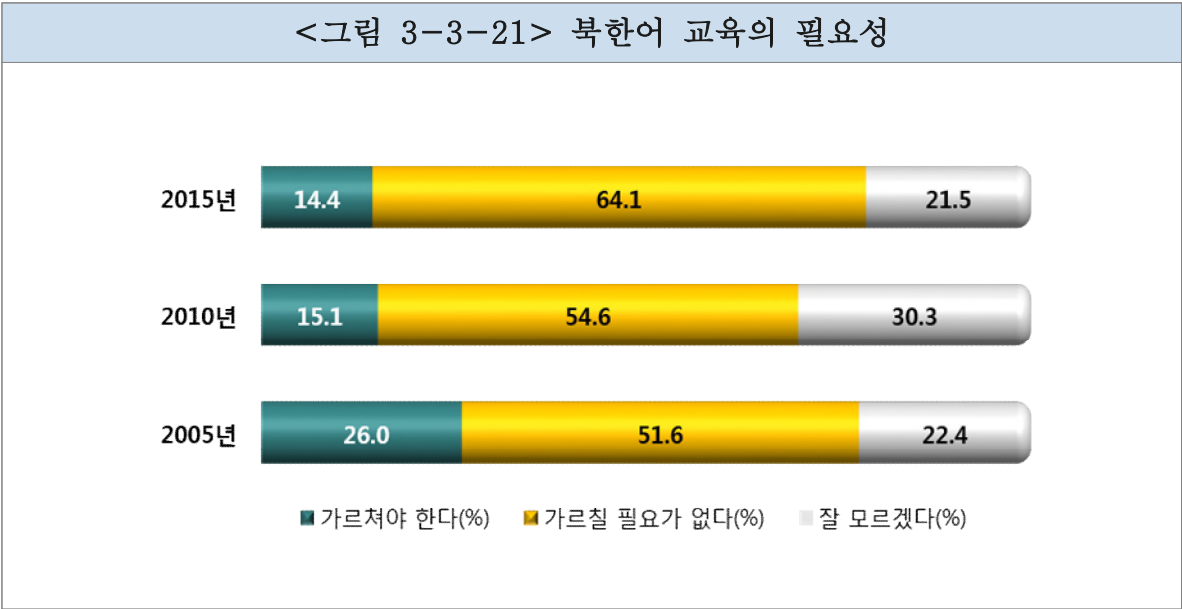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표준어와 지역 방언	표준어와 북한어
전 체		(5,000)	81.2	92.1
성	남성	(2,542)	80.5	92.2
	여성	(2,458)	81.9	92.1
연령	20대	(921)	81.4	93.1
	30대	(1,059)	80.5	91.7
	40대	(1,221)	81.2	92.7
	50대	(1,128)	81.0	91.3
	60대 이상	(671)	82.5	91.8
거주지역	수도권	(2,507)	85.4	95.4
	강원	(143)	93.0	95.1
	충청권	(502)	88.5	96.2
	전라권	(479)	48.6	65.3
	경상권	(1,269)	79.8	93.6
	제주	(100)	97.0	96.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82.3	91.9
	101-200만원	(252)	76.5	88.0
	201-250만원	(656)	78.5	90.4
	251-350만원	(886)	75.8	89.7
	351-550만원	(2,193)	83.8	93.5
	551만원 이상	(888)	83.7	93.6
	모름/무응답	(12)	75.2	92.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84.2	92.1
	중학교 졸업	(332)	75.6	89.2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82.5	92.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80.8	92.5
	모름/무응답	(7)	85.8	100.0

2) 북한어 교육의 필요성

문56 귀하께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북한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64.1%가 통일을 대비해 북한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14.4%로 나타남.
- 2005년에는 ‘가르쳐야 한다’는 비율이 26.0%로 2010-2015년에 비해 10%p 이상 높았으며,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올해 9.5%p의 큰 폭으로 증가함.



응답자 특성

- ➔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수도권(68.2%)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은 50대(17.2%), 강원(27.3%) 및 제주(26.0%) 지역,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20.5%)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24> 북한어 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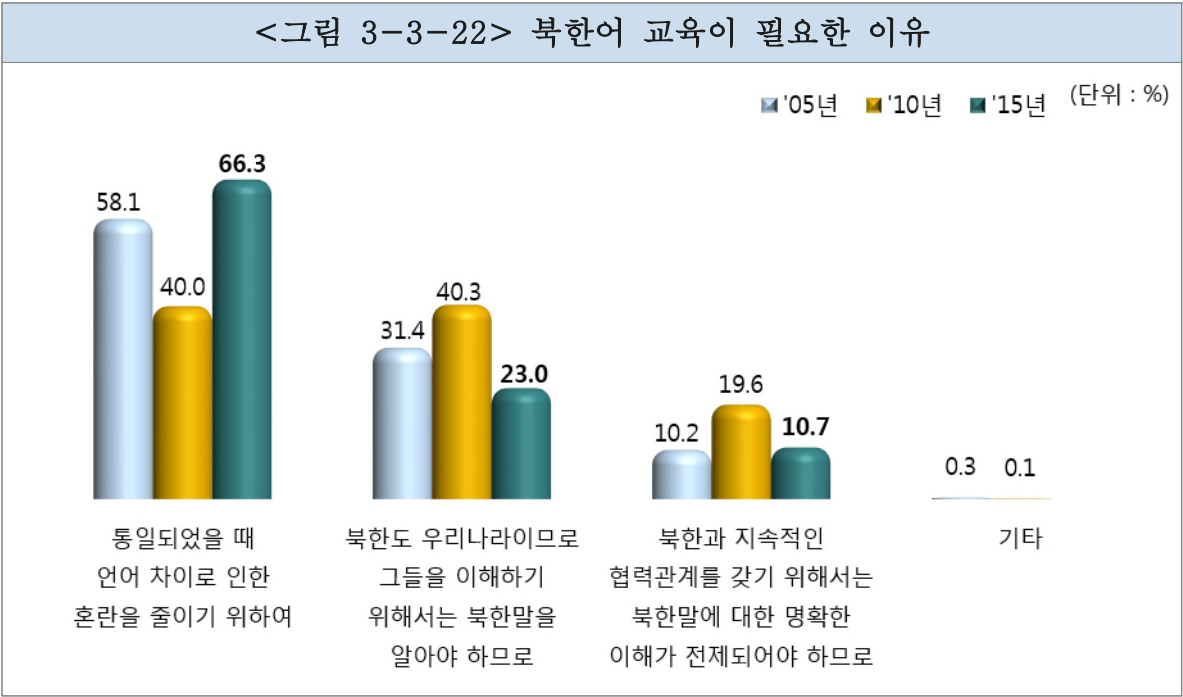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가르쳐야 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0)	14.4	64.1	21.5
성	남성	(2,542)	14.5	65.3	20.2
	여성	(2,458)	14.3	62.8	22.8
연령	20대	(921)	11.0	63.0	26.0
	30대	(1,059)	12.8	66.0	21.2
	40대	(1,221)	14.6	63.7	21.7
	50대	(1,128)	17.2	63.0	19.7
	60대 이상	(671)	16.5	65.1	18.4
거주지역	수도권	(2,507)	13.5	68.2	18.3
	강원	(143)	27.3	49.7	23.0
	충청권	(502)	16.2	66.3	17.5
	전라권	(479)	9.8	65.2	25.0
	경상권	(1,269)	15.0	57.3	27.7
	제주	(100)	26.0	51.0	23.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20.5	58.3	21.2
	101-200만원	(252)	15.0	61.1	23.8
	201-250만원	(656)	16.9	64.2	18.9
	251-350만원	(886)	15.4	63.4	21.2
	351-550만원	(2,193)	13.2	65.3	21.5
	551만원 이상	(888)	14.0	63.7	22.3
	모름/무응답	(12)	0.0	25.1	74.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16.5	63.6	19.9
	중학교 졸업	(332)	13.8	63.8	22.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15.2	66.1	18.7
	대학교 졸업/재학	(2,510)	13.8	62.5	23.7
	모름/무응답	(7)	0.0	71.3	28.7

### 3) 북한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문56-1 (문56의 1번 응답자만) 국민들에게 북한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북한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Base=72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가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를 알아야 하므로'(23.0%),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10.7%) 순으로 나타남.
-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는 2010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한 반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와 '협력관계를 위해 북한어 명확한 이해 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0년에 크게 증가했었지만 올해 다시 감소함.



응답자 특성

- ➔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는 30대 이하 및 60대 이상(70.2%), 가구소득 101-200만원(76.8%) 및 551만원 이상(74.9%), 초등학교 졸업 이하(76.2%)에서 높게 나타남.
- ➔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40-50대(40대 27.9%, 50대 26.2%), 충청권(27.2%) 및 수도권(25.5%) 지역, 가구소득 201-250만원(33.2%), 고등학교 졸업/재학(26.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3-25> 북한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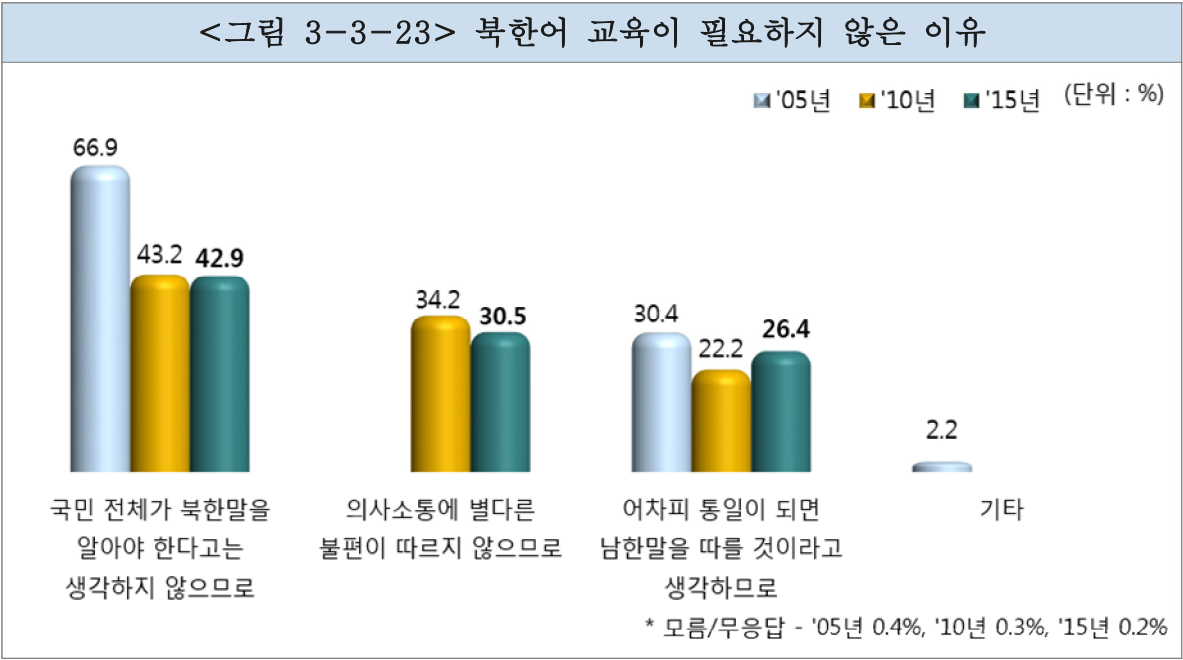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를 알아야 하므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 북한어의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함
전 체		(721)	66.3	23.0	10.7
성	남성	(369)	66.7	23.5	9.8
	여성	(352)	65.9	22.4	11.7
연령	20대	(101)	73.3	17.8	8.9
	30대	(136)	72.1	18.3	9.5
	40대	(179)	58.2	27.9	14.0
	50대	(194)	63.9	26.2	9.9
	60대 이상	(111)	70.2	19.8	10.0
거주지역	수도권	(338)	65.9	25.5	8.6
	강원	(39)	84.8	12.6	2.7
	충청권	(81)	58.0	27.2	14.9
	전라권	(47)	59.8	20.9	19.3
	경상권	(190)	68.9	20.0	11.0
	제주	(26)	61.5	19.2	19.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3)	69.6	21.3	9.1
	101-200만원	(38)	76.8	12.8	10.5
	201-250만원	(111)	56.8	33.2	9.9
	251-350만원	(136)	61.7	25.0	13.2
	351-550만원	(289)	66.7	21.8	11.4
	551만원 이상	(124)	74.9	17.8	7.3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1)	76.2	18.8	5.0
	중학교 졸업	(46)	63.3	21.5	15.2
	고등학교 졸업/재학	(307)	62.5	26.0	11.5
	대학교 졸업/재학	(347)	69.5	20.8	9.8

4) 북한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문56-2 (문56의 2번 응답자만) 북한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북한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Base=3,205명)로는 '국민 전체가 북한말을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42.9%)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30.5%),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남한어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26.4%) 순으로 나타남.
- '국민 전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북한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 2005년과 2010-2015년은 보기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응답자 특성

- ➔ '국민 전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여성(44.6%), 30-50대(30대 45.9%, 40대 45.7%, 50대 43.3%), 충청권(52.2%) 지역, 가구소득 251-350만원(46.0%)에서 높게 나타남.
- ➔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음'을 꼽은 비율은 전라권(41.3%) 지역, 가구소득 101-200만원 (35.7%), 중학교 졸업 이상(중학교 졸업 33.1%, 고등학교 졸업/재학 30.7%, 대학교 졸업/재학 30.1%)에서 높았음.

<표 3-3-26> 북한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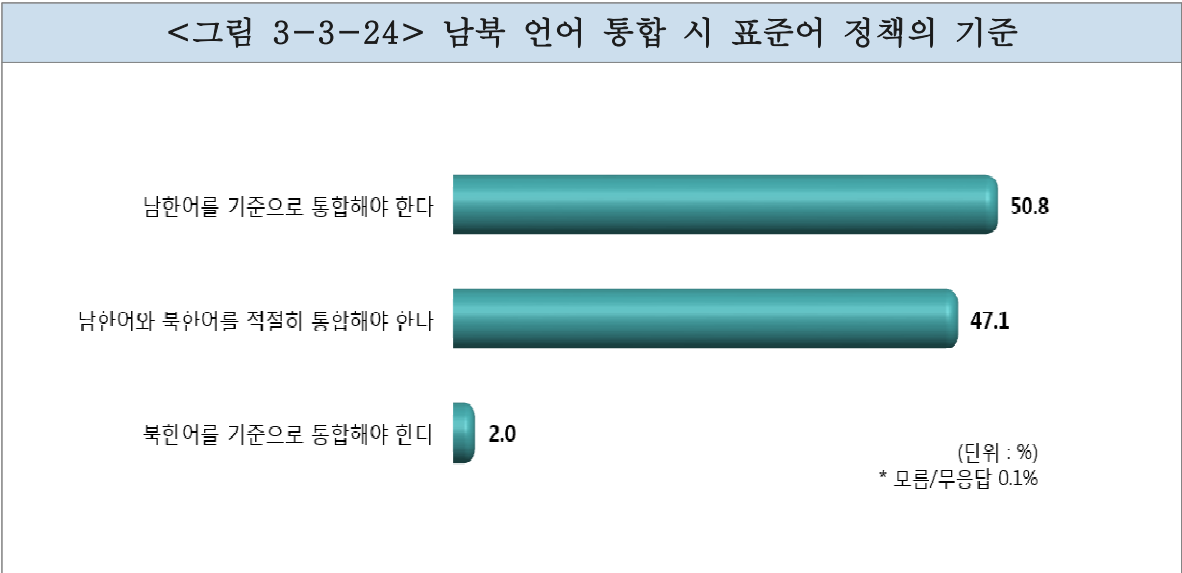
		사례수	국민 전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음으로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남한어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3,205)	42.9	30.5	26.4	0.0	0.2
성	남성	(1,660)	41.3	29.8	28.6	0.1	0.2
	여성	(1,545)	44.6	31.2	24.1	0.0	0.1
연령	20대	(581)	39.9	31.5	28.4	0.0	0.2
	30대	(699)	45.9	27.2	26.8	0.0	0.1
	40대	(777)	45.7	31.6	22.3	0.1	0.3
	50대	(711)	43.3	31.3	25.4	0.0	0.0
	60대 이상	(437)	36.5	30.9	32.3	0.0	0.2
거주지역	수도권	(1,710)	39.8	32.7	27.2	0.1	0.2
	강원	(71)	42.2	29.4	27.0	0.0	1.4
	충청권	(333)	52.2	24.0	23.8	0.0	0.0
	전라권	(312)	44.8	41.3	13.9	0.0	0.0
	경상권	(728)	45.4	23.6	31.0	0.0	0.0
	제주	(51)	41.2	31.4	27.5	0.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6)	42.4	30.2	27.3	0.0	0.0
	101-200만원	(154)	43.5	35.7	20.2	0.0	0.7
	201-250만원	(421)	43.8	29.5	26.2	0.2	0.2
	251-350만원	(562)	46.0	29.5	24.3	0.0	0.2
	351-550만원	(1,433)	43.7	30.0	26.2	0.0	0.1
	551만원 이상	(566)	36.9	32.0	30.9	0.0	0.2
	모름/무응답	(3)	67.5	32.5	0.0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1)	46.8	25.8	27.4	0.0	0.0
	중학교 졸업	(212)	39.9	33.1	26.9	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1,338)	42.4	30.7	26.7	0.0	0.1
	대학교 졸업/재학	(1,569)	43.7	30.1	26.0	0.1	0.2
	모름/무응답	(5)	20.1	39.9	40.0	0.0	0.0



5) 남북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

문57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할 경우 표준어 정책의 기준은 ‘남한어’라는 응답이 절반(50.8%)을 차지했으며, ‘남한어와 북한어를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가 47.1%로 그 뒤를 이음.  
한편, ‘북한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은 2.0%로 조사됨.



응답자 특성

- ➔ 언어 통합 기준이 '남한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54.9%), 제주(61.0%), 경상권(58.4%), 강원(57.5%) 지역,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58.6%), 초등학교 졸업 이하(56.6%)에서 높았음.
- ➔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50.2%), 충청권(59.1%) 및 전라권(52.8%)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27> 남북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

(단위 : 명, %)

		사례수	남한어를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	남한어와 북한어를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	북한어를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 체		(5,000)	50.8	47.1	2.0	0.1
성	남성	(2,542)	51.4	46.6	1.9	0.1
	여성	(2,458)	50.2	47.6	2.1	0.1
연령	20대	(921)	54.9	43.8	1.2	0.1
	30대	(1,059)	48.1	50.2	1.8	0.0
	40대	(1,221)	49.3	47.9	2.7	0.2
	50대	(1,128)	52.3	45.6	2.0	0.2
	60대 이상	(671)	49.8	48.0	2.3	0.0
거주지역	수도권	(2,507)	50.2	48.3	1.4	0.2
	강원	(143)	57.5	42.5	0.0	0.0
	충청권	(502)	39.7	59.1	1.2	0.0
	전라권	(479)	41.2	52.8	6.1	0.0
	경상권	(1,269)	58.4	39.2	2.3	0.1
	제주	(100)	61.0	38.0	1.0	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3)	58.6	40.5	0.9	0.0
	101-200만원	(252)	50.0	47.6	2.4	0.0
	201-250만원	(656)	48.2	49.8	1.8	0.2
	251-350만원	(886)	49.3	47.5	3.2	0.0
	351-550만원	(2,193)	50.7	47.4	1.8	0.1
	551만원 이상	(888)	53.4	44.8	1.6	0.2
	모름/무응답	(12)	58.4	41.6	0.0	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56.6	39.4	3.9	0.0
	중학교 졸업	(332)	50.0	47.9	1.8	0.3
	고등학교 졸업/재학	(2,024)	51.3	46.6	2.0	0.1
	대학교 졸업/재학	(2,510)	50.1	47.9	2.0	0.1
	모름/무응답	(7)	57.3	42.7	0.0	0.0

## V. 결론 및 제언



## 1. 조사 내용 관련

- 조사 내용과 관련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이슈
1. 특수 분야 언어 사용 인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래어보다는 전문 용어와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결과가 확인되는 만큼, 특수한 분야나 상황에 따라 언어가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인식만을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음.</li> <li>따라서 전문 용어 및 공공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언어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li> <li>병원, 군대, 공공기관, 특수 업체 등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의식을 조사하여 구체안을 마련하는 데 적용할 필요가 있음.</li> <li>이와 관련해 5년 단위 주기로 수용이 어렵다면, 현안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li> </ul>
2. 언어 관련 통계 자료 수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5년 주기로 국어에 대한 관심이나 통신 언어, 표준어/방언 등에 대한 태도가 큰 폭으로 변동됨.</li> <li>이와 관련해 2005년의 경우 통신 언어, 2010년의 경우 영어와 방언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할 수 있지만, 국어 분야에서 5년 주기의 통계 자료가 누적된 사례가 없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언어 인식 및 사용에 대한 분석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가설을 축적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함.</li> <li>따라서 언어에 미치는 변수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 단위의 이슈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언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과 관련된 충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짐.</li> <li>이런 결과가 누적되어야만 장기적으로 국어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시류에 따른 판단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음.</li> </ul>
3. 통계 활용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특히 국어 분야는 타 분야 대비 통계적인 분석 역량을 갖춘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현재 조사 결과가 연구에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될 경우 통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에도 한계가 있음.</li> <li>따라서 향후 누적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기반의 연구 활동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li> <li>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장기 조사에 필요한 항목의 구성 또한 통계 관련 연구 결과 활용을 통해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li> </ul>

## 2. 조사 설계/진행 관련

- 조사 설계와 조사 항목에 대한 이슈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이슈	개선 방향
1. 조사 설계	1) 조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5년 주기의 조사시점은 언어와 관련된 장기적인 변화 파악에 적절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li> <li>언어 관련된 특정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5년 시점이 한계가 있음.</li> <li>이에 따라 5년 주기의 조사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정기조사와 현안조사의 분화</b> 정기조사의 경우 현재 5년 주기를 유지하되 핵심적인 이슈와 정기조사 중 연 단위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포함해 1년 단위 조사 추가 필요.</li> <li><b>현안조사 표본 1000명 수준</b> 정기조사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되 현안조사는 1000명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예산과 활용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함.</li> </ul>
	2) 조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본추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3개 조사시점에 따라 조사 방법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li> <li>따라서 안정적인 정기조사를 위해 조사 방법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다단계화집락추출법 기준</b>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다단계화 집락추출방법을 활용하면, 조사 지점에 따른 최소 표본 규모는 10명이 적절해 보임.</li> </ul>
	3)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조사에서는 20대의 욕설, 비속어 사용 비중이 높고, 습관적으로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 또한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li> <li>10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조사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대의 언어 사용과 관련 자료가 누적되지 못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5-19세 추가</b> 10대의 언어 사용은 20대와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 15-19세를 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2. 조사 항목	1) 항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조사항목의 틀은 2005년 설문틀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3개 시점에 대한 추세분석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그대로 해당 항목들을 유지하는 것은 활용성이 떨어짐.</li> <li>5년 주기 조사 항목을 현실화하고, 현안조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주요 영역별 대표항목 단순화</b> 주요 영역을 설정하고 대표 항목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b>동일영역 반복측정 항목 삭제</b> 언어 사용(문 5), 높임말(문 7), 순화어 태도(문 29), 방송언어(문 31), 통신 언어(문 33), 국어능력 시험(문 53) 등은 대표 항목으로 축소 필요.</li> </ul>
	2) 구성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조사항목에 대한 구성은 업체 선정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등의 이슈로 인해 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한계가 있음.</li> <li>또한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변경 등으로 인해 문제점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다음 차수에 반영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조사 완료 후 설문 검토</b> 2015년 조사가 완료된 2016년 해당 조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검토 작업 진행.</li> <li><b>정기조사/현안조사 항목개발</b> 정기조사와 현안조사로 항목을 구분할 경우 정기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개발 필요.</li> </ul>

- 산출물 관리와 관련된 이슈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이슈	개선 방향
3. 산출물 관리	1) 진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 년의 경우 설문항목의 변경 및 기존 항목의 유지/삭제에 대한 이력 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문인력에 따라 검토방향에 차이가 일부 발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설문항목 이력관리</b> 설문지의 경우 최종본뿐만 아니라 주요 항목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료 관리 필요.</li> <li><b>항목검토 이력 제출 요청</b> 설문검토 항목 이력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를 산출물로 요청하고, 이를 관리해야 향후 설문 검토 작업 시 활용 가능</li> </ul>
	2) 결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결과물이 발생하고, 향후 조사를 위해서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기본결과물 명시/제출 요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설문지</li> <li>- 설문지 변경 이력</li> <li>- 표본 설계 자료</li> <li>- 면접원 교육 자료</li> <li>- 조사 원자료(sav 파일)</li> <li>- 프로그램 파일(sps 파일)</li> <li>- 조사 통계표(spo, 엑셀 파일)</li> <li>- 제안서 자료</li> <li>- 착수 보고 자료</li> <li>- 중간 보고 자료</li> <li>- 최종 보고 자료</li> <li>- 최종 조사 보고서</li> </ul> </li> </ul>

## 부록. 설문지





#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월드리서치의 전문 조사원 □□□ 입니다.

저희 월드리서치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의뢰를 받아 국민의 언어 의식과 언어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국어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의 비밀은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8월

주관기관



조사대행



담당연구원 채광식 ☎ 02)6188-6042  
실사연구원 전은진 ☎ 02)6188-6051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답자 인적 사항	성 명	주소	신주소 :
	전화번호		구주소 :

응답자 인적 사항	성 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성 <input type="checkbox"/> ② 여성
	연 령 대	<input type="checkbox"/> ① 20대 <input type="checkbox"/> ③ 40대 <input type="checkbox"/> ⑤ 60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30대 <input type="checkbox"/> ④ 50대
	지 역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⑨ 경기 <input type="checkbox"/> ⑬ 전북 <input type="checkbox"/> ⑰ 제주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⑩ 강원 <input type="checkbox"/> ⑭ 전남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⑪ 충북 <input type="checkbox"/> ⑮ 경북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input type="checkbox"/> ⑫ 충남 <input type="checkbox"/> ⑯ 경남
	지역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면접원 기입]

면접원	성 명	면접장소	
	면접일시	2015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검증원	성 명	검증결과
-----	-----	------

## I.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인식

문1. 귀하께서는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 문1-1로 갈 것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 문1-1로 갈 것  
☐ ②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 문1-1로 갈 것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 문2로 갈 것

문1-1. **(1,2,3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국어의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 말하기(말하는 태도, 방법 등)	①	②	③	④	⑤
㉡ 글쓰기(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하기)	①	②	③	④	⑤
㉢ 표준어와 지역 방언	①	②	③	④	⑤
㉣ 고유어(한자어 등을 제외한 순수 우리말)	①	②	③	④	⑤
㉤ 신조어, 유행어, 외래어, 외국어	①	②	③	④	⑤
㉥ 한자 사용	①	②	③	④	⑤
㉦ 맞춤법과 발음	①	②	③	④	⑤
㉧ 언어 예절	①	②	③	④	⑤
㉨ 단어의 의미와 유래	①	②	③	④	⑤
㉩ 국어 교육이나 국어에 관한 정책	①	②	③	④	⑤
㉪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①	②	③	④	⑤

문2. **(전체 응답자)** 다음은 평소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말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뜻이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 품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
㉣ 발음이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⑤
㉤ 배우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 논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학문·과학 등의 활동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3. 귀하께서는 평소 어떤 말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외래어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     
 ☐ ④ 지역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지역 방언)  
☐ ② 표준 발음과 어법에 맞는 말     
 ☐ ⑤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③ 높임말이 적절히 사용된 말

### ■ 언어 사용(문4~문6)

문4.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문5로 갈 것   | <input type="checkbox"/> ④ 대체로 그렇다 | → 문4-1로 갈 것 |
|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 문5로 갈 것   |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그렇다  | → 문4-1로 갈 것 |
|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 → 문4-1로 갈 것 |                                    |             |

문4-1. (3,4,5번 응답자만)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 중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           | <input type="checkbox"/> ⑤ 글로 쓸 때 내용 연결 미흡    |
| <input type="checkbox"/> ②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            | <input type="checkbox"/> ⑥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      |
| <input type="checkbox"/> ③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단어 사용이 제한적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input type="checkbox"/> ④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이 부적절 |   |

문5. (전체 응답자)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여성의 말투가 거칠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말투가 거칠다	①	②	③	④	⑤
㉨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	①	②	③	④	⑤
㉩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④ 대체로 그렇다 |
|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그렇다  |
|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                                    |

## ■ 높임말(문7~문12)

문7. 다음은 우리 사회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입니다. 다음 각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한국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므로 앞으로도 높임말은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은 상하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한 요소가 많으므로 점차 없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인간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손윗사람도 손아랫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남녀평등의 시대이지만, 여성의 말은 남성의 말보다 예의 바른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은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은 현대 사회의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은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8.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 ☐ ② 자녀가 어머니에게 말할 때
- ☐ ③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 ☐ ④ 남동생이 형에게 말할 때
- ☐ ⑤ 남동생이 누나에게 말할 때
- ☐ ⑥ 여동생이 언니에게 말할 때
- ☐ ⑦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할 때
- ☐ ⑧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
- ☐ ⑨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

문9.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근무 중 상사에게 말할 때
- ☐ ②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람과 말할 때
- ☐ ③ 쇼핑하다가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람을 만났을 때
- ☐ ④ 사석에서 친한 직장 선배에게 말할 때
- ☐ ⑤ 자기보다 직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
- ☐ ⑥ 자기보다 직위가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

문10.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 ☐ ②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 ☐ ③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 ☐ ④ 친한 학교 선배와 이야기할 때
- ☐ ⑤ 낯선 후배와 이야기할 때

문11.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장교가 사병에게
 ☐ ② 손님이 판매원에게
 ☐ ③ 의사가 간호사에게
 ☐ ④ 민원인이 구청이나 자치센터(동사무소) 직원에게

문12. 다음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요금은 2,000원이세요. 이 상품은 품질되었습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 **욕설 및 비속어(문13~문15)**

문13. 귀하께서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 ☐ ① 자주 사용한다
 → 문13-1로 갈 것
 ☐ ③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문13-2로 갈 것
- ☐ ② 가끔 사용한다
 → 문13-1로 갈 것
 ☐ ④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문13-2로 갈 것

문13-1. (1,2번 응답자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 ④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 ☐ ② 재미있어서
 ☐ ⑤ 습관적으로
- ☐ ③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 ⑥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13-2. (3,4번 응답자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
 ☐ ④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 ☐ ②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 ⑤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 ☐ ③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 ⑥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14. (전체 응답자) 귀하께서는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사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 문15로 갈 것
- ☐ ② 사용하지 말 것을 되도록이면 권한다
 → 문15로 갈 것
- ☐ ③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
 → 문14-1로 갈 것
- ☐ ④ 청소년들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 문15로 갈 것

문14-1. (3번 응답자만) 그럼 서로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입니까?

- ☐ ①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해도 되므로
 ☐ ②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 ☐ ③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15. (전체 응답자) 다음 <보기>는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한 욕설이나 비속어 표현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면상, 고봉, 뽕치지 마, 튀어, 인마
----	-----------------------

- ☐ ① 품위가 없어 보인다
 ☐ 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된다
- ☐ ② 진솔한 표현이 친근감을 준다
 ☐ ⑥ 별 느낌이 없다
- ☐ ③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 ⑦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④ 상황과 장면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표현해 준다

■ 표준어와 지역 방언(문16~문23)

문16. 다음 중 귀하께서 평소 사용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 ☐ ① 표준어
 ☐ ⑤ 경상 방언
- ☐ ② 강원 방언
 ☐ ⑥ 제주 방언
- ☐ ③ 충청 방언
 ☐ ⑦ 북한 방언
- ☐ ④ 전라 방언

문16-1. (1번 응답자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 ①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 ④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 ☐ ②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 ⑤ 별 느낌이 없다
- ☐ ③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문16-2. (2~7번 응답자만)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④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②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⑤ 별 생각이 없다
- ☐ ③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문16-3. (2~7번 응답자만)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 ①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 ④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 ☐ ②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 ⑤ 별 느낌이 없다
- ☐ ③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문16-4. (2~7번 응답자만)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 ①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 ④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 ☐ ②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 ⑤ 별 느낌이 없다
- ☐ ③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문17. (전체 응답자) 귀하께서는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②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 ③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 ④ 별 생각이 없다

문18. 다음은 지역 방언의 존속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동의하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 ☐ ① 지역 방언은 그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
- ☐ ② 지역 방언은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보존해야 한다
- ☐ ③ 지역 방언은 언어 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점차 없애야 한다
- ☐ ④ 지역 방언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므로 점차 없애야 한다
- ☐ ⑤ 지역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기능과 필요성을 가지므로 존속되어야 한다
-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19. 귀하께서는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느 것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 ☐ ①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 ③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
- ☐ ②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 ④ 별로 상관없다

문20. 텔레비전의 대담 또는 토론 프로에 나온 토론자가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가장 크게 받으십니까?

- ☐ ① 지역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
 ☐ ② 토론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 ③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
 ☐ ④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다
 ☐ ⑤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 ⑥ 별 느낌이 없다
 ☐ ⑦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21. 귀하께서는 표준어를 얼마나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잘 사용하는 편이다
- ☐ ② 잘 사용하지 못한다
 ☐ ⑤ 매우 잘 사용한다
- ☐ ③ 어느 정도 사용한다

문22. 귀하께서는 타인이 사용하는 표준어를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 ④ 잘 이해하는 편이다
- ☐ ② 잘 이해하지 못한다
 ☐ ⑤ 매우 잘 이해한다
- ☐ ③ 어느 정도 이해한다

문23. 다음 <보기>는 표준어와 같은 의미로 두루 쓰이는 지역 방언입니다. 이러한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부추-정구지, 건더기-건덕지, 부침개-찌짐
----	-------------------------

- ☐ 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④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②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⑤ 별 생각이 없다
- ☐ ③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문24~문30)

문24. 귀하께서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문25로 갈 것

☐ ④ 대체로 많이 사용된다
 

→ 문24-1로 갈 것
- ☐ ②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 문25로 갈 것

☐ ⑤ 매우 많이 사용된다
 

→ 문24-1로 갈 것
- ☐ ③ 보통이다
 

→ 문24-1로 갈 것

문24-1. (3,4,5번 응답자만)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
 ☐ ②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③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 해도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④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 ⑤ 지금보다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문25. (전체 응답자)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을 주로 받으십니까?

- ☐ ① 학식이 높아 보인다
 ☐ ④ 유치해 보인다
- ☐ ② 세련된 느낌이 든다
 ☐ ⑤ 별 느낌이 없다
- ☐ ③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26. 귀하께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
 ☐ ②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 ③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 ④ 주위 사람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 ⑤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27. 예전부터 공공기관의 문서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고, 온 국민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사용해야 한다는 영어공용어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

문28. 다음 <보기>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온 외래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쇼부, 간지, 뽀빠이, 만땅, 노가다, 기스, 와꾸
----	------------------------------

- ☐ ①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흡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 ②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③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④ 별 생각이 없다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순화어 :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외래어,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것. 예) 쇼부 → 승부, 흥정

문29. 귀하께서는 국어 순화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어 순화에 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 두어 언중(言衆)에게 사용을 맡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외래어와 외국어를 더 많이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0. 일부 사람들이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 ②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
 ☐ ③ 순화어가 세련되지 않아서
 ☐ ④ 순화어를 상대방이 모를까봐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대중매체의 언어(문31~문33)

문31. (전체 응답자) 귀하께서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방송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방송 언어는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방송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방송 출연자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①	②	③	④	⑤
㉥ 대담 토론자들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 오락 프로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해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방송에서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방송에서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방송에서 오자와 탈자가 자주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⑤

문32.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누리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통신 언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보기>와 같은 통신 언어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기** 술까말, 듣보잡, 레알, 심쿵, ㅋㅋ, 웃프다, 문상, 엄빠, 멘붕, 먹방

- ☐ ①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하고 있다      ☐ ④ 사용하고 싶지만 잘 모른다  
☐ ② 잘 알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③ 잘 모르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문33. 귀하께서는 통신 언어에 대한 다음 평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참신하고 기발한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 어휘가 풍부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일상 대화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아 친근감을 더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그림말(이모티콘)의 사용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맞춤법을 무시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인해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통신 언어를 대화 등 일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⑤

## ■ 외국 문자 사용(문34~문37)

문34. 최근 들어 간판이나 각종 안내판에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의 외국어만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표기 없이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로 표기되는 사례**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① 노래 제목(가사)이나 가수 이름
 ☐ ② 전자제품의 설명서(또는 안내서)
 ☐ ③ 아파트나 건물명
 ☐ ④ 패션 상표, 화장품명
 ☐ ⑤ 요리나 음식명
- ☐ ⑥ 운동 경기명
 ☐ ⑦ 영화 제목
 ☐ ⑧ 가게 이름
 ☐ ⑨ 기타 ( 내용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35.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자주 있다
 ☐ ② 가끔 있다
- ☐ ③ 전혀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문36. **한글 표기가 배제된 외국어 표기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한글 표기가 배제된 외국어 표기			
이미지1	매우 가깝다	반반이다	매우 가깝다
<예> 진부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가 거칠다	① <———— ② ————— ③ ————— ④ —————> ⑤		
나 품위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다 비실용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라 촌스럽다	① <———— ② ————— ③ ————— ④ —————> ⑤		
마 장황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바 딱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사 친근감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아 싫다	① <———— ② ————— ③ ————— ④ —————> ⑤		

문37.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한국의 전통이 파괴된다
 ☐ ② 새로운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 ③ 사용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 ④ 로마자 사용이 거슬려 그 사람의 인상이 나빠진다
- ☐ ⑤ 사용하는 사람이 학식이 있어 보인다
 ☐ ⑥ 한국어로는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⑦ 한글과는 달리 표기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 ⑧ 기타 ( 내용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III.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 국어 교육(문38~문41)

문38. 귀하께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은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 ☐ ① 자주 있다
 ☐ ② 가끔 있다
- ☐ ③ 전혀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문38-1. (1,2번 응답자만) 그럼 주로 어떤 말들이 문제였습니까? (3개 선택)

- ☐ ① 외래어·외국어
 ☐ ⑤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로 차이 나는 단어
- ☐ ②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
 ☐ ⑥ 배경 지식이 필요한 단어
- ☐ ③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 ⑦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단어
- ☐ ④ 유행어나 신조어
 ☐ ⑧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38-2. (1,2번 응답자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
 ☐ ⑤ 인터넷(PC, 스마트폰 등)으로 사전을 찾거나 검색해 본다
- ☐ ②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
 ☐ ⑥ 전자 사전을 찾아본다
- ☐ ③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 ⑦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④ 종이 사전을 찾아본다

문39. (전체 응답자) 귀하께서는 자신이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 ① 적절하게 교육받았다고 생각한다
- 
- ☐
- ②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 
- ☐
- ③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 ☐
- ④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40. 귀하께서는 자신이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 ①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 
- ☐
- ②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 
- ☐
- ③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 
- ☐
- ④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 ☐
- 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41.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문제가 많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보통 이다	별로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	①	②	③	④	⑤
㉡ 국어를 가르치는 방법	①	②	③	④	⑤
㉢ 국어를 학습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⑤
㉣ 시험 위주의 교육	①	②	③	④	⑤
㉤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	①	②	③	④	⑤
㉥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①	②	③	④	⑤

## ■ 한자 교육(문42~문44)

문42. 한자를 읽고 쓰는 귀하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상	중	하
㉠ 읽기	①	②	③
㉡ 쓰기	①	②	③

- ※ 상 :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다.  
 ※ 중 :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다.  
 ※ 하 : 전혀 읽고 쓸 수 없다.

문4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800자의 한자**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한자 교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중국의 상용한자는 각각 2,136자, 3,500자로 규정되어 있음)

☐ ① 지금보다 더 많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 ④ 한자 교육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현행 1,800자 정도가 적절하다    ☐ ⑤ 별 생각이 없다  
☐ ③ 지금보다 더 적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문44. **한자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6세부터    ☐ ④ 중학교부터  
☐ ②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부터    ☐ ⑤ 고등학교부터  
☐ ③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부터    ☐ ⑥ 필요 없다

### ■ 외국어 교육(문45~문47)

문4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6세부터    ☐ ⑤ 중학교부터  
☐ ② 초등학교 1학년부터    ☐ ⑥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이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 ③ 초등학교 3학년부터(현재와 동일)    ☐ ⑦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④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부터

문46. 귀하께서는 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운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배우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영어	④ 러시아어	⑦ 이탈리아어	⑩ 아랍어		
② 중국어	⑤ 독일어	⑧ 스페인어	⑪ 동남아시아 언어(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등)		
③ 일본어	⑥ 프랑스어	⑨ 아프리카어	⑫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47. 귀하의 **자녀에게 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가르친다면** 어떤 언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가르치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영어	④ 러시아어	⑦ 이탈리아어	⑩ 아랍어		
② 중국어	⑤ 독일어	⑧ 스페인어	⑪ 동남아시아 언어(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등)		
③ 일본어	⑥ 프랑스어	⑨ 아프리카어	⑫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어문 규범(문48)

문48. 국어 표기법 중 **국민들이 자주 틀리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삼가하다(X) → 삼가다(O),    곱배기(X) → 곱빼기(O),    알콜(X) → 알코올(O)

- ☐ ① 표기법을 바꾸면 혼란이 생기므로 그대로 두고, 맞는 표기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  
☐ ② 그동안 맞는 표기로 인정한 것은 그대로 두되, 앞으로 새로 생기는 말은 국민들이 널리 쓰는 표기를 맞는 표기로 삼는다  
☐ ③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주 틀리는 표기는 맞는 것으로 표기법을 바꾼다  
☐ ④ 표기법 규정으로 제안하지 않고 향후 많이 쓰는 쪽이 맞는 표기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사전 이용(문49~문50)

문49. 귀하께서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사전을 이용하십니까?

- ☐ ① 인쇄된 책  
☐ ② 인터넷(네이버 사전, 위키 백과 등)  
☐ ③ 전자기기(컴퓨터, 전자사전 등)에 설치된 사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간된 사전  
☐ ④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50. 이용하시는 국어사전에 대해 평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 찾아도 없는 단어가 많다  
☐ ② 뜻을 읽어 봐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③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다  
☐ ④ 불만 없음  
☐ ⑤ 국어사전을 이용하지 않음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문51~문54)

문51. 귀하께서는 국립국어원을 알고 있습니까?

- ☐ ① 알고 있다  
☐ ②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 모른다  
☐ ③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모르고 있었다  
☐ ④ 전혀 모른다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52.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쉬운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 등) 마련 및 홍보  
☐ ② 대규모 언어 자료 조사 구축 및 제공(서비스)  
☐ ③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④ 범국민적인 참여가 가능한 국어 관련 행사  
☐ ⑤ 기관 방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53. 우리나라에는 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KBS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있습니다.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우리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외국어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 취업 시 외국어능력인증시험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올바른 국어 생활 확립과 발전을 위해 권장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4. 한국인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 ②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을 개선해 나간다
- ③ 성인이 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방송·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 ⑤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한다
- ⑥ 국가가 국어 사용의 표준을 제시한다
- ⑦ 국어 연구의 진흥을 도모한다
- ⑧ 특별히 방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 ⑨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남북한 언어통일(문55~문57)**

문55. 귀하께서는 지역 방언 및 북한어를 표준어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내 용	전혀 차이가 없다	별로 차이가 없다	약간 차이가 있다	매우 차이가 있다
㉠ 표준어와 지역 방언	①	②	③	④
㉡ 표준어와 북한어	①	②	③	④

문56. 귀하께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북한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가르쳐야 한다                    → 문56-1로 갈 것
- ☐ ② 가르칠 필요가 없다            → 문56-2로 갈 것
- ☐ ③ 잘 모르겠다                    → 문57로 갈 것

문56-1. (1번 응답자만) 국민들에게 북한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 ☐ ② 북한도 우리나라이므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를 알아야 하므로
- ☐ ③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56-2. (2번 응답자만) 북한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남한어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 ☐ ② 경제 교류나 문화 교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국민 전체가 북한어를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
- ☐ ③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57. (전체 응답자)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남한어를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
- ☐ ② 북한어를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
- ☐ ③ 남한어와 북한어를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IV. 자료 분류용 질문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시간 미만                      ☐ ③ 2시간~4시간 미만                      ☐ ⑤ 6시간 이상  
☐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④ 4시간~6시간 미만                      ☐ ⑥ 전혀 보지 않음

DQ2. 매일 신문(종이신문, 전자신문 등)을 읽고 계십니까?

-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DQ3.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시간 미만                      ☐ ③ 2시간~4시간 미만                      ☐ ⑤ 6시간 이상  
☐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④ 4시간~6시간 미만                      ☐ ⑥ 전혀 사용하지 않음

DQ4. 하루 평균 인터넷을 통한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커뮤니티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시간 미만                      ☐ ③ 2시간~4시간 미만                      ☐ ⑤ 6시간 이상  
☐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④ 4시간~6시간 미만                      ☐ ⑥ 전혀 이용하지 않음

DQ5. 주로 이용하는 누리소통망(SNS)과 포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누리소통망(SNS)	포털
<input type="checkbox"/> ① 트위터	<input type="checkbox"/> ① 네이버
<input type="checkbox"/> ② 페이스북	<input type="checkbox"/> ② 구글
<input type="checkbox"/> ③ 인스타그램	<input type="checkbox"/> ③ 다음
<input type="checkbox"/> ④ 카카오톡	<input type="checkbox"/> ④ 네이버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checkbox"/> ⑥ 없음	<input type="checkbox"/> ⑥ 없음

DQ6. 현재 공중파나 케이블 TV 등을 통해 주로 시청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 부문별로 몇 개 정도를 시청하십니까?

부문	시청 여부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수
㉠ 뉴스/시사보도	① 있음    ② 없음	(                      )개
㉡ 토론 프로그램	① 있음    ② 없음	(                      )개
㉢ 예능 프로그램	① 있음    ② 없음	(                      )개
㉣ 드라마	① 있음    ② 없음	(                      )개
㉤ 스포츠 중계	① 있음    ② 없음	(                      )개

DQ7. 한 달 평균 독서량은 얼마나 됩니까? 잡지와 만화, 전자책을 이용한 독서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수험서, 신문은 제외)

- ☐ ① 1권 이하                      → DQ8로 갈 것                      ☐ ④ 6권 이상                      → DQ8로 갈 것  
☐ ② 2~3권                      → DQ8로 갈 것                      ☐ ⑤ 전혀 읽지 않음                      → DQ9로 갈 것  
☐ ③ 4~5권                      → DQ8로 갈 것



DQ8. (1~4번 응답자만)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 문학작품
- ☐ ② 전문 서적
- ☐ ③ 교양 서적
- ☐ ④ 취미 관련 서적
- ☐ ⑤ 기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DQ9. (전체 응답자) 각종 모임 및 사회 활동(취미, 종교, 봉사 관련 활동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 ① 한 달에 1번 → DQ9-1로 갈 것
- ☐ ② 한 달에 2~3번 → DQ9-1로 갈 것
- ☐ ③ 매주 1번 → DQ9-1로 갈 것
- ☐ ④ 일주일에 두 번 이상 → DQ9-1로 갈 것
- ☐ ⑤ 기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DQ9-1로 갈 것
- ☐ ⑥ 없음 → DQ10으로 갈 것

DQ9-1. (1~5번 응답자만) 참여하고 계시는 각종 모임은 어떤 성격의 것들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① 가족 모임
- ☐ ② 마을/동네/지역사회 모임
- ☐ ③ 사회봉사/자원봉사 모임
- ☐ ④ 자녀의 학교 관련 모임
- ☐ ⑤ 종교 관련 모임
- ☐ ⑥ 계모임
- ☐ ⑦ 동창회/동문회
- ☐ ⑧ 승부 게임(장기, 바둑 등)
- ☐ ⑨ 자기계발/전문자격 공부 모임(어학, 기술 등)
- ☐ ⑩ 온라인 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
- ☐ ⑪ 운동/스포츠 활동 관련 모임
- ☐ ⑫ 영화/연극/음악/미술 등 문화생활 관련 모임
- ☐ ⑬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DQ10. (전체 응답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거주 국가: \_\_\_\_\_ )
- ☐ ② 아니다

DQ11. 다음은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상, 중, 하로 나눈 표입니다. 귀하께서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상	중	하
㉠ 영어	①	②	③
㉡ 일본어	①	②	③
㉢ 중국어	①	②	③
㉣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①	②	③

- ※ 상 :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다.  
※ 중 :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다.  
※ 하 : 전혀 읽고 쓸 수 없다.

DQ12)~DQ15)까지 문제를 읽고 그 응답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번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① 서울	⑥ 대전	⑪ 충청북도	⑯ 경상남도	㉠ 함경남도
	② 부산	⑦ 울산	⑫ 충청남도	⑰ 제주도	㉡ 함경북도
	③ 대구	⑧ 세종	⑬ 전라북도	⑱ 황해도	㉢ 기타
	④ 인천	⑨ 경기도	⑭ 전라남도	⑲ 평안남도	(지역명: _____)
	⑤ 광주	⑩ 강원도	⑮ 경상북도	⑳ 평안북도	㉣ 잘 모름

DQ12. 주로 성장기(초, 중, 고)를 보낸 지역은 어디입니까?

DQ13.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DQ14.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 ☐ ① 미혼 → DQ15로 갈 것
- ☐ ② 기혼 → DQ14-1로 갈 것
- ☐ ③ 이혼/사별 → DQ14-1로 갈 것

DQ14-1. (2,3번 응답자만) 실례지만, 귀하의 배우자 고향은 어디입니까?

DQ14-2. **(2,3번 응답자만)** 현재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십니까?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손주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 ① 해당 없음
 ☐ ④ 중학교
- ☐ ② 유치원 이하
 ☐ ⑤ 고등학교
- ☐ ③ 초등학교
 ☐ ⑥ 대학교 이상

DQ15. **(전체 응답자)** 귀하의 부모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위 보기에서 골라 각각 번호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	--	-----	--

DQ16. 귀 닥의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 ① 1세대 (부부, 형제자매, 기타)
- ☐ ② 2세대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부부+양친, 부부+편부모,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기타)
- ☐ ③ 3세대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편부모, 기타)
- ☐ ④ 4세대 이상 가구
- ☐ ⑤ 단독가구
- ☐ ⑥ 비혈연가구
- ☐ ⑦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DQ17.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면접원 :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재학)  
☐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DQ18.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 종사자 포함)
  - ☐ ②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개인택시 운전자)
  - ☐ ③ 판매/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 ④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 ☐ ⑤ 일반작업직 (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 ☐ ⑥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 ☐ ⑦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 ☐ ⑧ 전문/자유직 (교수, 교사,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 ☐ ⑨ 전업주부
  - ☐ ⑩ 학생
  - ☐ ⑪ 무직
  - ☐ ⑫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DQ19. 실례지만, 귀 닥의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100만원 이하                      ☐ ③ 201만원 ~ 250만원                      ☐ ⑤ 351만원 ~ 550만원  
☐ ② 101만원 ~ 200만원                      ☐ ④ 251만원 ~ 350만원                      ☐ ⑥ 551만원 이상

♠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총괄 책임자: 김창영(월드리서치 상무)  
 공동 연구원: 김덕호(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양민호(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연구팀: 채광식(월드리서치 팀장)  
 실사팀: 나현주(월드리서치 이사)  
 전산팀: 조민준(월드리서치 팀장)  
 담당 연구원: 박주화(국립국어원 연구원)

##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발 행 인	송철의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 쇄 일	2015년 11월 30일
발 행 일	2015년 11월 30일